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하영선 편

13

EAI
EAST ASIA INSTITUTE

EAI 사랑방이란



미래 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년에 시작한 EAI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 사랑방 26기 명단 〉

김지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박선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양채리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

유동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

최준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허동각 더럼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26기 사랑방 일정표〉

8월 18일 (화)

07:00 김포 공항 집결
09:05 김포 공항 T1 → 베이징 서우두 공항 T2
11:00 베이징 서우두 공항 → 노보텔 피스 베이징 호텔
11:40 숙소 체크인
13:00 점심 식사 (왕푸징 거리 내, 喜家德) *인당 한화 약 8,000원
14:00 국가박물관 이동 및 관람
17:00 원명원 이동 및 관람
19:00 저녁 식사 (북경오리, 胡同小馆·烤鸭专研店) *인당 한화 약 28,000원
20:30 숙소 이동
21:30 휴식 및 취침

8월 19일 (수)

07:00 아침 식사 (왕푸징 거리 내, 南城香)
07:30 동당 이동 및 관람
08:15 자금성 이동 및 관람
12:00 점심 식사 (딤섬, 金鼎轩·南北家乡菜) *인당 한화 약 18,000원
13:00 역사전람관 이동 및 관람

15:00 이화원 이동 및 관람
18:30 저녁 식사 (항저우식 요리, 绿茶餐厅) *인당 한화 약 15,000원
20:30 휴식 및 취침

8월 20일 (목)
08:30 아침 식사 (왕푸징 거리 내, 南城香)
09:00 천단공원 이동 및 관람
11:00 고관상대 이동 및 관람
12:30 점심 식사 (절강성 요리, 外婆家) *인당 한화 약 14,000원
14:00 798 예술구 이동 및 관람
15:30 공항 이동
19:30 베이징 서우두 공항 → 인천 공항

*항공기 가격: 한화 242,300원
*3일 전체 교통비: 인당 25000원
*3일 전체 식비: 인당 72000원
*3일 전체 티켓값: 인당 21850원

목차

1. 과학과 대학, 3세기의 간극
: 조선 연행사의 시선에서 본 청대 중국의 제도적 상상력…… 6
…… 박선나

2. 천문학으로 공간을 넘어 시간을 이야기하다
:1766년 할러슈타인과 홍대용의 북경에서의 만남……32
…… 유동진

3. 『대의각미록』 실패로 본 청나라 대일통 기획의 좌절
: 화이일가·천하일통'의 이상과 현실…… 88
…… 김지영

4. 신중국 초기 핵개발과 비대칭적 정치-과학 상호작용
: 첸싼창(錢三強) 서신을 중심으로……134
…… 양채리

5. 비동맹의 형식적 지속과 주변외교의 위계적 안보화…… 176
…… 최준호

6. 거대 서사 이후 중국 아방가르드: 21세기 중국 미술의
세대 전환과 리헤이디(李黑地, Li Hei Di) 회화 작용…… 257
…… 허동각

〈부록〉 사랑방 26기 중국 북경 답사 단체사진…… 293

〈부록〉 다음 기수를 위한 사랑방 26기의 답사 준비 꿀팁……297

1장

과학과 대학, 3세기의 간극: 조선 연행사의 시선에서 본 청대 중국의 제도적 상상력

자금성과 동당

박선나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I. 들어가며

동아시아에서 근대 대학의 기원은 대체로 19세기를 중심으로 한 사건 중심적 서사를 통해 설명되어 왔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는 중국의 아편전쟁, 조선의 개항,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같이 서구와의 조우와 관련된 주요 역사적 사건을 근대 고등교육기관(서구식 대학) 출현의 계기로 설명한다(Altbach, 1989; Ge, 2022; Hao, 2019; Hayhoe, 1996; Kim, 2016; Shin, 2012). 이러한 설명은 동아시아의 제도 변화가 19세기의 위기, 곧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서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선형적인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19세기 이전에도 동아시아에 서구 지식을 전파해 온 서양인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구와 유사한 타 제도에 대한 관심, 나아가 제도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는가? 동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서양인 선교사들을 통해 17세기 말~18세기 초 서양 과학지식의 유통이 가장 활발했던 중국에서조차 왜 서구식 교육기관에 대한 탐구나 설립에 대한 논의는 19세기에 이르러야 시작됐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초점을 19세기에서 18세기로 이동시켜, 청나라의 제도적 상상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나라 말기부터 마테오 리치와 같은 서양 선교사들은 북경에 황제가 거주하던 자금성 주변 내성 안에 거주하며, 서구 지식을 명나라에 소개했다. 그들이 거주하던 내성 안의 공간은 1605년에 설립된 천주교회인 남당(南堂, Nantang)이었다. 이후 청대에 들어서 1653년 동당(東堂), 1703년 북당(北堂), 1723년 서당(西堂)이 차례로 건립된다. 이는 조선이나 일본이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성당 건립을 허용했던 역사(각 1892년, 1864년)와 비교하면 무려 약 300여년이나 앞선 것이다.[1] 이렇게 세워진 천주교회는 포교활동을 위한 종교시설로 기능하기보다는, 서양 천문학, 역법 지식과 같은 과학지식을 중국 황실에 전달하는 핵심적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청대 중국은 19세기에 훨씬 앞서 이미 서양 지식의 일부를 그들의 지적 세계

1) 이와 관련해 제목을 부연하면, 일본과 조선에서 서구 고등교육기관 도입 시기는 천주당 건립이 허용된 19세기와 동일하였으며, 서구 과학지식을 일찍 받아들인 중국에서조차 서구식 대학은 19세기에 도입됐다. 과학지식 전파의 거점으로서 천주당 설립연도와 3세기의 간극이 발견된다.

안에 수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은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인재 양성에 대한 방법적인 고민, 즉 교육 부문의 제도적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천 년 이상 유교적 지식 질서를 유지하게 한 과거제를 청나라 멸망 직전까지 고수했고, 국자감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상황과 문제의식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당시 사료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그 인물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지배적 인식을 파악하는, 해석학적 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다. 활용된 사료는 유럽인의 시각에서 서술되었을 예수회 선교사 기록이라거나 정제된 대외 공식 기록으로서 한정적 정보만이 담긴 청나라 공식 황실 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과 유교적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제3의 시각을 견지한 조선 지식인의 사료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행사 자제군관으로 북경을 방문하여 조선 후기 기록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빈도로(30회 이상의 접촉) 서양 선교사들과 폭넓게 교류했다고 평가받는 이기지(李器之, 1690-1722)[2]의

2) 조선 3대 연행사 기록으로 꼽히는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에 비해, 이기지의 기록은 서양 선교사와 천주교회에 대한 서술이 가장 많다. 이기지보다 후대에 북경을 방문한 홍대용과 박지원 모두 이기지의 기록을 참고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데, 이기지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은, 그의 불운한 생의 말로(아버지 이이명과 함께 1722년 정치적 반대파의 음모에 의해 이른 나이에 숙청을 당함)와 연관이 있다. 그의 기록은 필사본으로 남았고 아들인 이봉상에 의해 뒤늦게 출판된다. 선교사들이 연행사에게 했던 대접 면에서도 홍대용은 선교사들에게 약 4회의 방문 동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으나(임종태, 2009), 이기지는 각별한 대접을 받았다. 한편, 3대 연행사 모두 과거제를 거부하면서 당대 '전형적인' 엘리트 지식인의 위치를 포기한 측면이 있다면, 이기지는 유교적 관료 선발제도인 과거시험의 합격자(장원급제)로서 당대의 지배적인 교육적·지적 규범을 갖춘 인물로 평가될 수 있다.

여행기『일암연기(一菴燕記, 1720)』[3]를 분석한다(이준갑, 2016; 신익철, 2013). 그의 시집을 엮은 '일암집(一庵集)'까지를 1차 사료로 하여, 이기지가 관찰한 상황과 이기지의 생각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였고, 보조적 자료로써 이기지에 대한 2차 연구 중 핵심 문헌들을 참고하였다(신익철, 2005; 임종태, 2009; 이준갑, 2016).

이기지의 기록은 유교적 문화질서 안에서 서양의 지식과 제도가 어떻게 청 황실과 본인에게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전략적 분석의 렌즈로 활용된다. 이기지는 문화적으로는 유교 문명권에 속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청의 통치체제 바깥에 있었으며, 제도적으로도 선교사들의 이해관계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기록자의 이중·삼중적 위치는 청나라가 왜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개방적으로 서구의 지식을 수용했으면서도 기존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인식 간극을 드러내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 연구는 이기지의 시선을 중화 중심의 문명질서, 즉 화이질서(華夷秩序)라는 넓은 문명질서의 틀 속에 위치시킨다. 이 확고한 동아시아 세계관이 서양인이라는 타자를 기존 질서에서 위계적으로 위치시키며, 그 위계 속에서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타자성(지식 및 제도의 속성)을 규정하는 데에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게 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2장과 3장에서 밝힐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

3) 1720년 8월부터 12월 사이의 여행 중 북경에 체류한 기간은 9월~11월 사이 약 두 달 간이다. 숙종의 죽음을 알리는 연행이였으며, 이 시기는 청대 강희제(재위 1661~1722년)의 통치 기간이다.

1. 이기지의 시선에서, 청대 중국에서 서양 선교사들은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2. 이기지는 서구 과학지식의 어디까지를 궁금해했으며, 그 인식의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4장의 논의를 통해 18세기 청대 서양 과학 지식의 적극적 수용이 왜 지식 생산과 확산을 위한 교육제도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청대 서양 선교사의 특별한 위치

1. 당시 지배층의 보편적인 인식으로서, 이기지의 화이(華夷)관

예로부터 중국과 그 주변 국가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통의 문화를 공유해 왔다(西嶋定生, 2000). 이들 국가는 각자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문명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지역 질서는 화이(華夷), 즉 문명과 야만을 구분하는 위계적 세계관으로 이어졌다(西嶋定生, 2000; 西嶋定生, 1993). 조공과 책봉(朝貢冊封)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질서는 단순한 외교관계의 체계가 아니라 문명과 비문명을 구분하는 규범적 질서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화(華)는 문명의 내부를, 이(夷)는

문명의 외부를 의미하는 명확한 경계선이었다. 거자오광(2011)은 송대 이후 이민족의 잦은 반란과 과거제(科擧)의 확산으로 인해 이러한 화이관념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화이질서 문명권에 속한 조선인인 이기지 역시 화이질서의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1720년 8월 29일 기록에서 이기지는 요하라는 강을 건넌 뒤 청나라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조선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조선이 예로부터 중국을 섬겨 온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전형적인 화이관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 8월 29일 〈요하라는 강 건너기〉
> 이곳 사람들은 절대 먼저 배에 타려고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배에 오르는 것을 보면 도리어 물러서서 기다렸다가 배 타는 사람이 적으면 그제야 올랐다. 그런데 우리나라 마부들은 배의 크기는 생각하지 않고, 일제히 한꺼번에 배에 올랐으므로, 배 위에 채찍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것을 또한 막을 수 없었다. **단지 이 한 가지 일만 보더라도 사람의 국량의 크기가 현격하게 차이나니, 우리가 예로부터 중국을 섬겨온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의 시기적 상황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중국의 지배층이 한인에서 만주족으로 바뀐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던 환경이었고, 여느 조선 지식인들이 그랬듯, 이기지 또한 청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청나라를 중화의 중심으로 여전히 인정하지만, 의관문물의 예는 여전히 유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집권했던 명나라를 그리워하였다는 이하 '일암집'의 시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연행사 자제군관으로 북경을 유람하며 아래와 같은 시를 썼는데, 청대에 들어 화와 이가 함께 살며 풍속이 섞이니 백년 사이 중국 땅이 더럽혀졌다는 탄식을 드러냈다.

漢人淸人烏金超 한인, 청인, 오금초
西㺚西洋與蒙古 서달, 서양, 몽고
雜處華夷俗漸淆 중화와 이적이 함께
거하니 풍속도 점점 섞여,
百年滓穢中原土 백년동안 중원 땅을
더럽히는군.

많은 조선 지식인들이 명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청을 부정하기도 했는데, 이기지가 청조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청나라가 여전히 유교적 문명질서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은 몽골족이 지배했던 원나라 초기와 달리 처음부터 한족 문화를 버리지 않고, 예를 들면, 과거제를 유지함으로써 명으로부터 이어진

성리학적 질서를 지속하였다. 이기지는 조선에서 진사시에 합격한 엘리트 지식인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청대 과거제의 유지는 문명사회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가 서울에서 북경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그가 만난 사람들이 '과거시험에 응시'했는지, 혹은 '시를 잘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는 같은 과정에서 지역의 풍속이나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묘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홍대용의 『을병연행록(1765~1766)』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홍대용의 연행록에는 이기지와 같은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기지에게 서양인 선교사와의 만남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기지는 그와 개인적 친분이 있던 김창업의 북경 연행사를 담은 노가재연행일기나, 외조부인 김만중의 책 등을 통해 이미 서구 과학지식과 선교사들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사회는 선교사들의 거주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서 선교사들을 만나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연행을 통해 북경의 천주당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일생일대의 외부세계를 관찰하는 새로운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임종태, 2009).

2. 제도적 예외의 존재로서 서양 선교사

화이질서에 비추어 볼 때, 청대 중국에서 서양 선교사의 존재론적 위치는 특별했다. 일반적으로 조공체제 바깥의 외국인 집단은 이(夷), 즉 오랑캐로 분류되었지만, 선교사들은 이러한 범주에 명확하게 들어맞지 않았다.

『일암연기(一庵燕記)』에 따르면, 황제는 서양사람을 '빈사(賓師, a distinguished guest such as a scholar)'의 예법으로 대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9월 22일). 또한 황제의 허가를 받아 건립된 천주당은 단순한 종교 전파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선교사들이 거주하면서 청 조정에 서양 과학지식을 전달하는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국가가 천주당의 건립과 유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선교사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남당과 동당은 포르투갈의 국왕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었고, 북당은 루이 14세가 파견한 프랑스인 신부들이 머물렀는데(임종태, 2009), 무엇보다 청나라 황제의 후원과 지원[4]이 없었다면 건축과 거주는 불가능했다(10월 30일 이기지와 대진현의 대화). 남당의 경우, 마테오 리치가 거주하였으며, 건축 자체가 중국 불교 사원의 양식과 유럽 건축양식을 혼합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신익철, 2013). 이러한 문화적 혼합은 그곳에 거주한 서양 선교사들이 청 사회로부터

4) 이준갑(2016)은 남당, 동당, 북당 건립 시 청 황제가 지원한 내역을 상세히 조사했다.
- 남당은 건축 이래 청초 여러차례 지진으로 무너졌다. 이에 강희 42년(1703) 황제는 남당에 은 10만냥을 공사대금으로 하사했고, 서양인들은 바로크 양식의 남당을 웅장하게 중건했다. 이기지가 처음 본 성당이 이 성당이었다.
- 동당은 예수회 선교사인 불리오와 마갈렌이 1655년(순치 12년) 순치황제로부터 하사받은 토지에 로마 양식으로 건축했다. 이기지가 본 그 해 말 지진으로 파괴되어 이듬해 프리델리가 포르투갈 국왕에게 건축비를 받아 재건했다.
- 북당은 퐁타듀 등이 강희제의 학질을 키니네로 치료한 상으로 하사받은 보정대신 숙사하의 저택 부지에 건축되어 1703년에 고딕 양식으로 완공되었다. 강희제가 은 35만냥을 공사비로 하사하였고 천문대와 도서관을 부속 건물로 두었다.

완전히 고립된 외부자가 아니라,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편입된 집단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한다.[5)]

이처럼 서양 선교사인들의 청조 내에서의 독특한 위치는 다른 외국인 집단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러시아인과 서양 선교사들을 모두 '서양인'으로 볼 수 있지만, 청 황제는 두 집단을 전혀 다르게 대우하였다. 예를 들어, 청대 중국에서 러시아인은 대비달자(大鼻䫜子, '코가 큰 타타르인')라는 비하적 명칭으로 불렸으며, 이들의 조공과 교역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러시아 측이 조공을 제안했음에도 황제는 그들이 북경에 머물며 교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였고, 공식적인 입성은 10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였다. 이기지는 서양 선교사들조차 러시아인을 짐승과 같이 취급했다고 기록하였으며, 자신 역시 그들이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5)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청 시기 중국 황제나 황실의 특성이 덧붙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 먼저, 명나라 말기에 서양인 선교사가 최초로 황실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보유한 서양식 화포 기술이 아니면 누르하치로 대표되는 여진족의 강병들을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강정만, 2019: 193). 이 시기 마테오 리치와 함께 가장 유명한 아담 샬(중국이름은 탕약망)이라는 선교사는 포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들에게 화포기술을 가르쳐주었다. 결국 외국인으로서 흠천감 정식관리도 되며,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청나라로 황실이 교체된 가운데에서도 살아남게 된다(강정만, 2019: 193). 청나라는 명나라보다 훨씬 실질적인 것을 숭상했으며, 순치제 시기 천주교 포교에도 너그러워 포교가 활발했던 기록이 있다(강정만, 2019: 195-200). 이기지가 방문했던 1720년 북경은 순치제의 아들인 강희제가 통치한 시기로, 강희제는 아버지와 달리 포교를 엄격히 금하여, 이전과 달리 선교사들이 포교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과학기술을 전파하는 기능으로 활용된다. 강희제는 이들의 서양 과학기술에 매료되어 서구 과학기술에 대한 배움을 장려했던 청대의 유일한 황제로 기록되어 있다(옌 총니엔, 2007).

9월 13일
북경에서 오는 길에 사람을 만남. 마침 대비달자(大鼻獭子 청나라가 러시아인 낮춰 부르던 명칭)들이 구외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강하고 무례하게 굴어, 청인들은 그들이 조공을 바치겠다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매매와 교역만 하겠다고 와서는 길에서 사람을 죽이고 위협하며 재물을 약탈하니 백성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께서 10년에 한 번만 성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5년에 한번 구외(口外)에서 교역하게 하였으니, 올해가 마침 성으로 들어오는 해입니다.

11월 4일
〈서양인 선교사 두덕미 선생의 제자 원문림과의 대화〉
원문림: 서양 사람들은 오늘 모두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늘 황제께서 조참을 하는데 서양인들은 납아소(러시아) 사람과 함께 조참에 참여합니다. 납아소 사람이 하는 말은 오직 서양인만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이기지: 어째서 말이 통합니까?) 땅이

인접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공을 하지 않고 단지 가죽제품을 매매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기지: 대개 납아소 사람들은 **짐승과 별 차이가 없고, 서양 사람들도 그들을 짐승처럼 대하였으니,** 중국 북쪽의 오랑캐와 매한가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사들의 위치는 단순히 특권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청 사회 안에서 이들의 지위는 혼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으로 그들은 변발을 하고 현지의 관습을 따르는 등 외형적으로 청 사회에 적응한 모습을 보였다. 이준갑(2016)은 이를 예수회의 '적응주의적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보장받아 국가의 통제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도 유지하였다.

10월 28일
대개 서양인 선교사들은 이곳의 오랑캐 풍속에 대해 싫어하는 뜻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조선) 사람의 의관과 문물을 보고는 흠모하는 기색이 있었다. 전에 소림을 만났을 때 서양에 있을 때도 머리를 깎았느냐고 물었더니, "이곳에 온 뒤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라의

풍속이 이와 같아 우리들도 깎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문지르며 **자못 부끄러워 하는 기색이 있었다. 서양인은 불승(불교)과는 원수지간이니, 승려들과 같아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다.**

10월 28일

- 이기지: 이곳의 황제께서 선생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 서양 선교사: 우리들은 본래 이곳에서 관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포교를 위해 왔기에 **떠나고 머무는 것을 우리 뜻대로 합니다.** 어디도 못 갈 곳이 없습니다. 황제도 우리들이 오가는 것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서양인들은 청대 중국에서 일반적인 오랑캐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었다. 지역적 위계질서 안에서 보면, 이들은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던 조선이나 베트남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다음의 이기지와 서양 선교사 간 대화는 이러한 역학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선교사는 이기지에게 '모든 인간이 천주(天主)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하나의 형제 공동체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기지는 천주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송대의 장재(張載)라는 사상가의 '민오동포, 물오여야(民吾同胞, 物吾與也)'의 말과 일치시키며 '형제'라는 관념에는 강하게 동의하였다. 임종태(2009: 391)는 기독교적 세계주의를 이기지가 유교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형제'라는 인식은 중국과 조선 지식인들이 인접한 일본에 대해서조차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었다(이용희, 1970).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형제'라는 개념을 서양인에게 적용했다는 것은, 서양 선교사들이 단순한 오랑캐로 배척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들의 존재가 기존 동아시아 내의 전통적 세계질서를 부분적으로 재구성하게 만든 것으로도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10월 28일
> 이기지가 레지(jean baptiste regis)에게 "극동와 극서 사람이 이곳에서 만났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인연입니다"라고 하자, 레지는 "우리 인류는 모두 천주를 통해 태어났기에 사해가 모두 형제에 속합니다. 수만 리 떨어져 있어도 또한 형제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이기지는 다시 "사해가 모두 형제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송대의 장재(張載))께서 백성은 우리의 동포((民吾同胞, 物吾與也 (민오동포, 물오여야))라고 하였으니 천지 사이에 머리가 둥글고 눈이 옆으로 찢어진 백성은 모두 우리의 동포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서양과 동양을 구별하지 말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귀하게 여기며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III. 서구 과학지식의 수용가능한 성격

1. 천주당에서 이기지의 탐구 범위

천주당에서 이기지는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내부에 비치된 혼천의, 서양화, 자연사도감, 천문서적에 큰 관심을 보였다.[6] 이는 모두 종교적 속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기지는 천문역법에 관한 책을 구입해가고 싶어 지속적으로 문의했지만, 서양인 선교사들은 중국인만 아니라 같은 서양인에게도 감히 줄 수 없다고 밝혔다(10월 24일).

6) 남당에서 가장 신기한 물건으로는 '자명종'을 꼽았고, 동당에서는 '프리즘'과 '목재 혼천의'가 있었다.

한편, 이기지는 혼천의를 구하기를 원했는데, 천주당에서 혼천의를 보내오자(11월 22일), 이기지는 우리나라에 돌아가 서양 학문의 정묘함을 알리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번도 본 적 없었던 기묘한 천주당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어조를 찾기 어렵다(임종태, 2009). 아래의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중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술 역시 실제로는 서양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 10월 1일
> 내가 관상대를 구경하고 싶습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혼천의를 수리하는 중이라 우리 관원들도 마음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 동쪽 방을 여니 그 안에 혼천의가 있었는데 부서진 것이었다. ... **서양인이 중국에 드나들면서 이러한 종류의 기구가 더욱 정교해졌으니, 새로 만드는 것은 서양인의 방법에 따라 만드는 것이라 여겨졌다.**
>
> 10월 3일
> 아침에 대인께서 서양인에게 편지를 써 역법, 세차, 혼천의법, 유리 만드는 방법, 청기와 만드는 방법을 물었다.

이기지는 혼천의 기술을 보고 '이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그들의 기술에 오차가 없음을 알 수 있겠다며(10월 30일), 이들이 물리에 궁극했다라고 평가했다(임종태, 2009). 또한 서양역법과 관련한 이기지의 발견(10월 26일)은 서양과 중국의 주천도수에 차이가 나는데, 서양 주천도수가 중국 역법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이기지는 공자의 '춘추' 말씀에 따라 월식과 일식의 발생에 관해서는 임금의 덕과 관련 있다고 믿었기에, 이들을 일방적으로 찬양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18세기 이후 이익을 비롯하여 서명응, 홍량호, 황윤석, 이규경 등 조선인 학자들이 서양 천문역법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중국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하여 문화중심의 화이론을 견지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문식, 2009; 이준갑, 2016). 이렇게 개방적인 평가를 내린 배경에는 그의 가문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외조부였던 김만중은 관료였음에도, 당시 전통적 화이관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서양 지구설을 믿는 등 서구 천문학의 적극적 옹호자였다(이복규 역, 2012).

2. 이기지 탐구의 한계

이기지는 서양인들이 중국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과학지식을 관찰하고 축적한다는 점에 감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 서양의 교육제도나 제도적 기반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는 서양의 서적이나 자명종,

혼천의 등을 조선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지만,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어떻게 가르쳐지는지, 혹은 어떤 교육체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지식의 내용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제도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기지는 조선에도 천주당을 짓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선교사, 타르트르(pierre vincent de tartre)의 말에는 난색을 표하였다. 기록에는 한 차례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만, 이기지는 일기에서 "매번 은근히 그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적었다. 이는 베이징 체류 중 선교사들이 그에게 조선 방문 가능성을 여러 차례 물었음을 보여준다.

> 10월 28일
> 타르트르는 "**우리들은 조선으로 가서 천주당을 짓고, 천주의 가르침을 멀리까지 포교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역관이었던 정태현은 "우리나라 조정에 달린 것이니 우리들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하였고,
> 이기지는 이 대화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에 만에 하나라도 와서 살 수는 없는 것이니,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살다가 그 실상을 자세히 알아낸 뒤 돌아간다면 우려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매번 은근히 우리나라에 올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던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간절하게 노정을 물어오니 또한 난처한 일이다.**"

책(지식)을 원하면서도 그 지식을 가진 사람(선교사)은 거부했다는 점은 선교사들의 중국 내 거주를 허용했던 청에 비해 조선 지식인들의 태도가 훨씬 폐쇄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청 역시 선교사들의 거주를 허용하고 이들을 빈사(賓師)로 특별히 예우하기는 했지만, 주된 관심은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효용에 있었다. 청은 이들 서양인을 자기 성찰을 위한 거울이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다.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은 단순히 이기지 개인의 선택만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당시 동아시아 지적 질서가 지니고 있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다. 전통적인 화이질서와 과거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체제는 이미 완전하고 완결된 문명질서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외래 지식은 기존 체제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기존 질서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은 쉽게 상상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IV. 대학보다 과학이 앞선 이유

이 연구는 중국이 동아시아 중에서는 예수회 선교사로 대표되는 서양인과 그들이 가져온 서양 과학지식과 가장 먼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지식 발전을 가능하게 한 교육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구상하거나 추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가진 화이질서라는 세계관 속에서 제도적 상상력의 한계로써 설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동아시아에서 서구식 대학의 출현을 19세기 서양과의 조우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설명에 치중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이전 세기인 17-18세기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를 조선의 관찰자인 이기지의 시선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2장과 3장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기지가 관찰한 청대 중국에서 서양 과학지식은 이미 황실 내에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유통되었으며, 일정한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었다. 북경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은 다른 서양인 집단처럼 야만인 내지는 주변부의 외부자로 취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화 문명질서 안에서 독특하고 예외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천문학, 역법과 같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성은 이들이 이 질서 안에서 위치지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제도적 보호를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서양 과학지식은 황실의 보호 아래 유교문화 질서 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학지식은 주로 황권 강화를 위한 기술적 전문성의 형태로 받아들여진 도구적 성격이 있었다. 이기지의 기록에서 확인되듯이, 청대 중국은 서구의 과학기구와 천문 계산, 실용적 기술에 대한 호기심은 뚜렷했던 반면, 그러한 지식 생산을 가능하게 구조나 제도적 지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선택적 서구 지식 수용은 기존의 문명 질서나 황권 질서의 정당성에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명 말에 이미 중국식 역법에 조금씩 오차가 생기자, 황실에서 적극적으로 서양 역법을 받아들여 자금성의 오문에서 달력을 배포하였던 사례만 보더라도, 서구 지식은 국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질서를 보완하였다. 반면, 엘리트 양성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교육제도의 변화는 유교적 질서 수호뿐만 아니라 황권 질서 수호에 도전이 될 수 있다. 황권과 관료권은 대립되지 않고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또한, 명청 시기 모두 내부 조정의 반란보다는 외부 이민족의 침입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내부를 성찰할 큰 의구심의 거울은 갖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 말에 이르러서 서구식 고등교육기관의 도입은 19세기 서양 국가의 힘과 강요만으로 설명되기는 불충분하다. 청 내부에서 엘리트 양성체제에 대한 의심과 진지하게 마주하게 됐을 때 비로소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능했을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상상력은 기존의 정치구조, 문화적 규범에 관한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제 속에서 얼마나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이는 마치 외부적 변화 조건이 갖추어져도 내적 변화 근거(속성)가 없으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호숫가 비유(얼어있는 호수는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지 않는다)와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Barker, 1996).

나가며,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첫째, 연구자는 근대 이전 인물들의 인식을 그들의 생애사를 고려하여 가능한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노력했으나, 연구자가 가진 인식론적 한계 내에서 역사적 경험에 대한 결과론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특정한 시점에 청을 방문한 외국(조선인) 사신의 관찰 기록을 연구 분석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방대한 시기에 걸쳐 간과되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연구 결과와 논의 또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시선 속에서 발견된 '화이질서'라는 19세기 전까지 동아시아를 지탱해 왔던 문명 질서가 이처럼 오랜 기간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기저가 된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는 국내 사료적 맥락에서 이기지의 『일암연기』가 기존 '3대 연행록'을 보완하는 '제4의 연행록'으로서 재평가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조선 3대 연행록'의 저자인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기록은 주로 풍속, 문물, 자연경관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일암연기』는 서양 선교사와의 반복적이고 밀도 높은 접촉을 바탕으로 서구 과학지식에 대한 청의 수용 양상과 인식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김동건(2012: 261)은 일암연기가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를 부연하여 그 내용을 확장시켰고, 홍대용의 담헌연기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실제 홍대용은 일암연기를 읽고 초록하여 여행 가이드북으로 이용했으며(임종태, 2009), 박지원에 따르면, 이기지는 견식이 탁월하여 중원을 잘 관찰했다고 평가됐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기지의 연행록은 본인 생애의 정치적 불운으로 인해 학문적 계보 속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후대에도 상대적으로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일암연기』는 18세기 초 청과 서구 지식의 접촉 양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조선 후기의 사료로서, 동아시아 지식인이 서구 과학지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재위치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차 문헌

김만중. (2012). 서포만필 (이복규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이기지. (1720). 일암연기(一菴燕記).

이기지. (1720). 일암집(一庵集).

홍대용. (1765-1766).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

2차 문헌

강정만. (2019). *청나라 역대 황제 평전: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도태된다*. 주류성.

거자오광(葛兆光). (2011). *宅茲中國：重建有關「中國」的歷史論述* [이 중국에 거하라]. 中華書局.

김동건. (2012). [一庵燕記]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 *민족문화, 40*, 235-264.

김문식. (2009).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신익철. (2005). 이기지(李器之)의 『일암연기(一菴燕記)』와 서학 접촉 양상. *동방한문학, 29*, 163-192.

신익철. (2013). 18세기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만남. *한국한문학연구, 51*, 445-486.

옌 총니엔. (2007). *대청제국 12군주열전 (상)* (장성철 역). 산수야.

이용희. (1970).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변경문화 의식의 갈등에 대하여. 신동아 1970년 8월호.

이준갑. (2016). 李器之(1690~1722)의 [一菴燕記]에 묘사된 '작은 西洋'. *한국학연구, 43,* 491-524.

임종태. (2009). '극동(極東)과 극서(極西)의 조우': 이기지(李器之)의 [일암연기(一菴燕記)]에 나타난 조선 연행사의 천주당 방문과 예수회사와의 만남. *한국과학사학회지, 31*(2), 377-411.

Altbach, P. G. (1989). Twisted roots: The Western impact on Asia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18*(1), 9-29.

Altbach, P. G. (2004). The past and future of Asian universities: Twenty-first century challenges. In P. G. Altbach & T. Umakoshi (Eds.), *Asian universities: Historical perspectives and contemporary challenges* (pp. 13-3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Altbach, P. G. (2009). Peripheries and centers: Research univers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0*, 15-27.

Barker, A. J. (1993). *Paradigms: The business of discovering the future*. (Hwang, Ed. & Trans.).

Hao, P. (郝平) (2019). *The origins of Chinese universities and Peking University* (Y. Jin, Trans.). Shingu Culture History.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Hayhoe, R. (1996). *China's universities, 1895-1995: A century of cultural conflict*. Routledge.

Ge, Z. (2022). The evolution of a world consciousness in traditional Chinese historiography. *Global Intellectual History, 7*(2), 207-225.

Kim, T. (2016). Internationalisation and development in East Asian higher education: an introduction. *Comparative education, 52*(1), 1-7.

Shin, J. C. (2012).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in Korea: Western university ideas, Confucian trad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Higher education, 64*(1), 59-72.

堀敏一. (1993). *中国と古代東アジア世界－中華的世界と諸民族*. 岩波書店.

西嶋定生. (2000). *古代東アジア世界と日本* (李成市, 編). 岩波書店.

2장

천문학으로 공간을 넘어 시간을 이야기하다: 1766년 할러슈타인과 홍대용의 북경에서의 만남

고관상대

유동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

I. 시작하며

태초에 인류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을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록했다. 아직 기호를 발명하지 못한 먼 과거의 인류는 매일 뜨고 지는 해와 가득 차다 사라지는 달을 바라보고, 반복되는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며 시간이 흐르고 되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기호가 발명되고 언어체계가 확립되면서 인류는 시간을 사로잡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농경문화가 시작되면서 시간을 집단의 약속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태양과 달 등 하늘의 주기적인 변화를 관측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예로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하늘을 읽어 시간을 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세계에서 중국의 황제는 천자(天子)로서 하늘의 뜻을 읽어 천하를 다스려야 했다. 마찬가지로 동시대 유럽세계를 지배하던 가톨릭 역시 일상과 권위를 하늘의 변화로 만든 시간 위에 확립됐다. 가톨릭 최대의 축일인 부활절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까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레고리력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한편, 거대한 산과 광활한 바다는 오랜 기간 인간에게 있어 동서 문명 등 공간을 가르는 절대적인 장벽이었다. 그러나 삼각돛 등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고, 하늘을 관측하여 위도와 경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항해시대가 개막하며 고립된 세계들이 본격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늘을 읽는 천문학은 인류가 공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학문이었다.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할 수 있게 된 인류는 하늘을 읽어 정교한 역법을 만들겠다는 공통된 관심사를 계기로 지구 정반대에 위치한 가톨릭 중심의 유럽세계와 중국 문명 중심의 동아시아세계 간의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요컨대 천문학은 동서양의 공간을 연결하고 시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여 일찍이 북경에서 두 세계가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766년, 조선의 선비인 담헌 홍대용과 슬로베니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할러슈타인이 북경에서 만나게 된다. 천문학과 역법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지구 정반대편의 두 인물이 천문학을 소재로 세 차례나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할러슈타인은 담헌 일행을 그다지 살갑게 대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할러슈타인과 홍대용이 1766년 북경에서 만나기 이전까지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추적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에 기록된 세 차례의 만남을 살펴보며, 할러슈타인과 담헌의 만남이 어긋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만남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검토하면서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II. 시대를 잘못 만난 예수회 선교사, 할러슈타인

할러슈타인(Ferdinand Augustin von Hallerstein, 유송령劉松齡 / 1703-1774)은 중국에 도착하고 청 황실의 천문기관에서 일하면서, 1766년 홍대용(湛軒 洪大容 / 1731-1783)과 만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조선 사행단을 만난 경험이 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여러 연행록 중에서는 1756년에 정광충(鄭光忠)이 할러슈타인과의 만남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1761년에는 이의봉(李義鳳)이, 1766년에는 홍대용이, 1774년에는 엄숙(嚴璹)이 할러슈타인과의 만남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러나 수많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또다른 주인공인 홍대용과 다르게, 한국에서 할러슈타인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할러슈타인이라는 인물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가 일생을 몸담았던 예수회(Society of Jesus)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를 검토하며 그의 자취를 좇도록 하겠다.

1. 예수회와 중국의례논쟁

1738년, 할러슈타인이 북경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적지 않은 수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동아시아로 건너와 선교활동을 하였다. 가톨릭이 동아시아로 교세를 확장하게 된 배경에는 15세기와 16세기 초에 걸쳐, 교황의 칙서를 통해 동방에 대한 보교권(保教權, Padroado)이 포르투갈에 부여되면서부터이다. 이후 교황청은 1534년 포르투갈 관할의 인도 고아(Goa, 果阿)에 총주교구를 설치하였고, 포르투갈은 1553년 마카오를 조차하였다. 이어 1576년, 교황청은 고아 총주교구 소속으로 마카오 교구를 설립하였고, 이곳에서 중국, 일본, 조선 및 기타 도서 등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1549년, 일본 사츠마번(薩摩藩)에 도착해 복음을 전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co Javier, 方濟·沙勿略 / 1506-1552)와, 1583년 마카오에 도착하고 1601년 북경에 입성하여 명나라 만력제(萬曆帝, Emperor Wanli)의 신임을 얻은 마태오 리치(Matteo Ricci, 이마두利瑪竇 / 1552-1610)가 대표적인 예수회 소속 인물이다. 이처럼 예수회는 일찍이 동아시아에서 가톨릭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구자로 활동했다.

그러나 17세기 들어서 포르투갈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교황청과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직접 동아시아로 진출을 시도했다. 1630년대, 프란치스코회(Franciscans, 小兄弟會)와 도미니코회(Dominicans, 道明會)에서는 필리핀 등 스페인의 세력권을 거점으로 중국에 진출하였다. 또한 교황청은 선교사들이 반드시 리스본을 거치지 않고 아시아로 갈 수 있게

조치하여 포르투갈의 보교권을 견제하고, 교황청 직속으로 포교성성(Congregation for the Propaganda of the Faith, 布教聖省)을 설치하였다. 프랑스의 후원으로 파리외방전교회(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巴里外邦傳教會)를 조직하여 1680년대 중국에 선교사를 진출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프랑스 왕실은 1688년에 자체적으로 프랑스 예수회를 파견하였다. 이에 맞서 포르투갈은 선교사가 아시아에서 축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스본을 경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러 선교단체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기존까지 적응주의(Jesuit Adaptation)에 기반하여 선교하던 예수회의 활동은 견제받기 시작한다. 예수회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방침으로 채택한 적응주의는 당시 남미와 일부 아시아에서 채택된 백지화(Tabula rasa)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선교정책이었다. 예수회는 16세기부터 휴머니즘 사상과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신학만을 최고의 학문으로 여기지 않고, 다양한 학문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갖춘 인재로 선교사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또한 토착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선교 방법에 주목하면서, 선교지의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엘리트 계층의 언어를 익힐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로써 예수회는 동아시아 지역문화에 복음을 침투시키기 위해서 적응주의라는 새로운 선교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예수회에서는 동아시아세계의 사회구조를 고려하여 위로부터의 선교를 추진하고, 이들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수염과 머리를 기르고 관복을 입었다.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방식으로 예수회 선교사들은 안정적으로 중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1664년부터 북경의 예수회가 해산되는 1775년까지 흠천감(欽天監) 감정(監正)의 자리를 꿰찼다. 흠천감은 예부 산하의 기관으로, 천문을 관측하여 국가의 역법을 제정하고, 황실 행사의 길일을 고르는 중요한 기구였다. 만주인 친왕 1명이 최고책임자로서 기관을 총괄했고, 최고기술관직인 감정에는 만주인과 서양인 각 1명이, 그 차관급인 감부(監副)는 초기에 만주인과 한인(漢人) 각 1명이었으나, 후에 만주인과 서양인 각 1명이 임명되었다.

강희제(康熙帝, Emperor Kangxi / 1654-1722)는 집권 초기에 천주교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한때 중국에서 교인이 30만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어린 강희제 대신 섭정이 이루어지던 1664년, 강희역옥(康熙曆獄, The Calendar Case)이 발생한다. 이는 선제 순치제의 신임을 받던 아담 샬(Adam Schall, 탕약망湯若望 / 1591-1666)이 향후 200년은 사용할 수 있는 역서를 올렸으나, 일부 관료들이 이 역서가 청나라가 200년밖에 유지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모함하여 아담 샬 일행이 탄핵당한 사건이다. 모함을 주도한 양광선(楊光先)이 천문기구 흠천감의 감정으로 임명되었으며, 아담 샬과 그 일행은 투옥되고 처형까지 논의되기도 한다. 석방 직후 아담 샬은 투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사하였다. 1669년, 강희제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강희제는 이들을 복권하며 다시 예수회 선교사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남회인南懷仁 / 1623-1688)를 흠천감 감정으로 임명하였다.

강희제 본인은 과거 마태오 리치가 저술한 『천주실의(天主實義)』를 읽기도 하였으며, 1687년 불법 입국한 예수회 선교사를 예부의 반대에도 추방하지 않았다. 1692년, 천주교를 관대하게 대하고 천주교가 사교가 아니라는 천주교 공허(公許) 칙령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다만 이러한 강희제의 천주교에 대한 관대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구과학에 주된 관심을 표했을 뿐 종교적 관심을 드러내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희제는 천주교를 불교나 도교 등의 다른 대중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게 취급했다.

1630년대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예수회의 선교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되었다. 엘리트 계층을 대상으로 현지 문화를 수용하며 적응주의 선교를 펼친 예수회와 달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원칙주의를 고수한 두 수도회는 예수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하느님을 '상제(上帝)'나 '천(天)'으로 부르는 문제, 공자 배향과 조상 제사를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예수회와 기타 수도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국의례논쟁(中國禮儀之爭, The Chinese Rites Controversy)'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1645년 교황 인노첸시오 10세(Innocentius X, 依諾增爵十世)는 예수회의 선교방식을 금지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예수회가 이에 반박하는 서신을 보내자, 1656년 교황 알렉산더 7세(Alexander VII, 亞歷山大七世)는 예수회의 방식을 허용하는 문서를 내렸다. 두 칙령이 모순된다는 도미니코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1669년 교황 클레멘스 9세(Clemens IX, 克勉九世)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두 칙령을 각각 준수하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잠잠하던 갈등은 1693년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복건성(福建省) 교황대리주교(Vicar Apostolic) 메그로(Maigrot, 顔璡)가 관할 교구에서 '천'과 '상제' 명칭 사용을 금하고 공자와 조상의 제사를 금지하는 금령을 내리며 다시 폭발했다. 이에 1700년, 예수회는 강희제에게 조상 제사와 공자 공경이 종교적 미신이 아님을 확인받으며 황제의 지지를 얻어냈다. 그러나 반대파는 교리적 문제를 교황청이 아닌 이교도 황제에게 자문했다며 예수회를 강하게 공격했다. 결국 1704년 교황 클레멘스 11세(Clemens XI, 克勉十一世)는 금지령 7조를 내려 '천주' 명칭만 허용하고 천·상제 호칭과 제사를 전면 금지했다. 교황청은 이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1705년 특사 투르농(Tournon, 多羅)을 파견해 강희제를 알현하게 했으나, 중국 내 선교사를 감독할 책임자 파견과 전례 문제를 두고 큰 이견을 보이며 교섭은 결렬되었다. 1707년 투르농이 남경(南京)에서 교황청의 금지령을 강행하여 발표하자 격노한 강희제는 기존의 선교 방식을 따르는 선교사에게만 허가증을 주고 나머지는 추방했으며, 투르농을 마카오로 쫓아내 감금하였다.

교황청이 1715년 전례금지조서(Ex illa die)를 통해 제사 금지와 이에 불복 시 파문을 재확인하자, 강희제는 1720년 제2차 교황 특사와의 면담 후 1721년 교황청의 칙령을 비판하며 천주교 선교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허가증이 없는 선교사들을 전원 추방했다. 갈등은 강희제 이후에 전면적인 박해로 비화되었다. 1724년, 옹정제(雍正帝, Emperor

Yongzheng)는 천주교를 공식적으로 사교(邪敎)로 규정하여 포교를 전면 금지하고, 궁정 기술직을 제외한 전국 선교사들을 추방하며 성당을 몰수했다. 1742년 교황 베네딕토 14세(Benedictus XIV, 本篤十四世)가 칙령(Ex quo singulari)을 통해 1715년의 전례금지조서를 재확인하고 모든 선교사에게 의례금지 서약을 의무화하여 교황청의 입장을 최종 확정지었다. 중국에 진출한 선교사 사이에서 발생한 의례에 대한 이견이 중국 황제와 로마 교황 간의 정치적 권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례문제가 중국 황제의 절대권력과 교황의 무오류성과 교도권이 충돌하는 정치적 문제로 확장되면서 중국 내 천주교가 박해되는 계기가 성립된 것이다.

중국 황제와 로마 교황청이 끝끝내 합의하지 못한 배경에는 동아시아세계과 유럽세계에서 종교가 가지는 의미와 위치가 상이했기 때문이다. 서구 유럽사회에서 근대화의 한 영역은 종교가 분화(differentiation)와 사유화(privatization)의 과정을 거쳐, 공적종교(public religion)와 사적종교(private religion)로 분화된 것이다. 전근대 유럽세계에서 가톨릭은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 종교(community cult)의 위치에 있었으며, 동일한 공동체 내부에서는 귀족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종교를 믿었다. 그러나 중국과 조선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정치적 수준에서의 종교와 사적인 수준에서의 종교가 구분되어 있어 공존할 수 있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과 조선에서는 성리학이 공적인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수준에서는 불교, 도교와 같은 대중종교가 널리 퍼져있었다.

그렇다면 전근대 종교박해는 어떤 까닭으로 발생하는 것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세계의 경우 정치영역과 종교영역이 가톨릭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교리는 그 자체로 박해의 대상이었다. 반면 동아시아세계에서는 어떤 종교가 단순히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정사논쟁(正邪論爭, orthodoxy heterodoxy controversy)을 불러일으킬 때 비로소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정태식 2007, 193). 가령 조선의 경우 천주학이 유입된 지 150여 년이 지난 1801년, 남인과 노론의 정쟁에 천주교가 끼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다. 중국에서는 가톨릭이 자신들의 교리에 기반하여 유교에 대한 해석을 내놓더라도 이것이 학문적 논쟁을 유발했을 뿐, 이것으로 천주교가 박해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중국의례논쟁의 경우, 가톨릭 내부에서 촉발된 선교방식에 대한 논쟁이 중국 황제와 로마 교황 사이의 정치적 권력을 둘러싼 논쟁으로 비화하면서 탄압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렇게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중국에서 천주교가 설 자리는 좁아져만 갔고, 유럽에서는 예수회는 적응주의 선교방식이 교황청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수세에 몰리게 된다. 결국 1762년, 파리고등법원에서 예수회를 불법교단으로 선고했고, 1764년 루이 15세(Louis XV, 路易十五世)가 이를 재가하며 프랑스에서 예수회는 해산된다. 1773년 7월, 식민지 정책과 국가 종교주의를 방해하는 예수회를 벼르고 있던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절대왕정 군주의 압력으로

교황 클레멘스 14세(Clemens XIV, 克勉十四世)는 예수회의 공식적인 해산을 명령한다. 1년 뒤인 1774년에는 예수회의 해산 소식이 북경까지 전해졌다.

2. 출생부터 도중(渡中)까지

지금까지 할러슈타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발생한 중국의례문제를 살펴보면서, 그로 인해 그가 중국 선교를 결심한 당시에 중국 내에서는 천주교 선교가 금지되고 있었다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할러슈타인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어떤 경로로 중국에 도착했는지 살펴보겠다.

할러슈타인은 1703년 8월 27일 밤, 합스부르크 가문의 통제 하에 있던 카르니올라(Krain) 공국의 중심지 류블랴나(Ljubljana)에서 태어났다. 그는 북쪽으로부터 15km 떨어져 있는 마을 멩게시(Mengeš)에 위치한 라브바르 성(Ravbarjev / 독일명 Hoffmansburg)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할러슈타인이 어린 시절을 보낸 라브바르 성은 남작 영애인 할머니(Maria Rosa Freiin von Hohenwart)가 할아버지(Ferdinand Ignaz)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들고 온 것이었다. 할러슈타인의 부계가문인 할러 폰 할러슈타인(Haller von Hallerstein) 가문의 종파는 뉘른베르크 자유제국도시의 명망 높은 귀족 가문이고, 그가 속한 지파는 15세기 후반에 가문 일부가 동유럽 및 합스부르크 영내로 진출하여 지파를 구성한 헝가리 지파의 일원이었다. 할러슈타인의 할아버지는 멩게시의 영주이자 카린시아(Kärnten) 지방의 행정관(Landrat)이었다. 그의 아버지(Ferdinand

Johann)는 카르니올라 지방의 위원(Verordneter)이자 관청장관(Amtspräsident)으로 역임했다.

이어서 할러슈타인의 모계가문을 살펴보겠다. 어머니(Maria Susanane Elisabeth von Erberg)는 멩게시 인근의 돌(Dol) 영지를 소유한 남작인 외할아버지(Johann Daniel von Erberg)와 외할머니(Margaretha Susanne Dinzl von Angerburg)의 딸이다. 외가 친척 중에는 파라과이에서 선교활동을 한 예수회 신부 Wolfgang Innozenz와, 류블랴나 대학의 총장이나 예수회 신부, 테레지아 기사 아카데미의 원장도 있었다. 이처럼 할러슈타인의 외가인 에르베르크 가문은 지역 일대에서 학문과 종교에서 영향력 높았던 가문이었다.

정리하자면, 할러슈타인 가문은 정치적으로 신성로마제국을 뒤흔드는 상급 귀족가문 출신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역 일대에서 상당한 권력과 영지를 쥐고 있던 중상위의 실무 귀족 가문의 일원이었다. 아버지의 직책은 오늘날 주지사 및 지방의회 의장급의 위치였으며, 외가의 경우 고위 성직자나 총장을 배출할 정도로 학문과 종교에서 엘리트 네트워크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할러슈타인은 충분히 엘리트 계층에 소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유럽의 최신 과학서적을 소장하고 있던 에르베르크 가문의 장서실에서 다양한 과학 지식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의 외가에는 예수회 신부가 여럿 있었으며, 파라과이로 선교를 떠난 친척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해외 선교의 꿈을 키웠을 가능성도 있다.

할러슈타인은 주로 가정교사에게 초등교육을 받았는데, 때로 멩게시 성당 인근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였다. 이후 중등교육은 류블랴나의 고등학교에서 수학했다. 1718년부터 1721년까지 류블랴나의 예수회 대학에서 논리학, 수학, 물리학, 형이상학 등을 수강하였으며, 학업을 마친 뒤 빈(Wien)에 위치한 성 안나 예수회 대학으로 이동하여 예수회에 입회한다. 1723년 7월에 중국 선교사 파견을 공식적으로 청원하였으며, 동일한 해부터 1728년까지 수련 및 교사로 활동하였고, 이후 티미쇼아라(Timişoara) 예수회 학교의 교장을 지내면서 1727년 10월에 재차 해외 선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두 차례의 선교 청원 끝에, 할러슈타인은 1734년 사제서품을 받고 중국 선교를 위해 이듬해 8월에 트리에스테(Trieste)를 떠나 중국으로 출발하기 시작한다. 1735년 9월 제노바(Genova)에서 2주간의 휴식을 취한 후,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고 이베리아 반도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며 11월 18일 리스본에 도착했다. 이동 과정에서 배를 타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할러슈타인은 내내 멀미와 질병으로 고생했다고 전해진다.

앞서 동방의 보교권을 두고 심화된 포르투갈과 교황청 사이의 알력 다툼에서 살펴보았듯이, 포르투갈 국왕의 명령으로 해외로 떠나는 선교사는 반드시 리스본에 들려서 허가받아야만 했다. 그가 포르투갈에 도착한 당시, 포르투갈은 무굴제국의 번왕국인 자이푸르의 통치자로부터 선교사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때 할러슈타인이 그 후보로 떠올랐다. 당시 할러슈타인은 중국의례논쟁의 결과로 중국에서 천주교 선교가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행을 고민하였으나, 예수회 지도부의 결정으로 예정대로 중국에 파견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결정이 나기까지 할러슈타인은 리스본에서 천문학과 포르투갈어를 독학하며 생활했다. 그렇게 1736년 4월, 포르투갈 왕비에게 하직하고 중국으로 떠난다.

5월 6일, 카나리아 제도에 이르렀고, 다음날 카보베르데 제도를 지났다. 그러나 폭풍우로 인해 점차 서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고, 6월 말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까지 이동하기에 이른다. 8월 초, 희망봉을 돌아 아프리카 동해안으로 북상한다. 괴혈병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10월 29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모잠비크 항구에 도착한다. 항해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기다리며 9개월 정도 머무른다. 1737년 8월에 모잠비크를 떠나, 9월 인도 고아에 도착하였으나 현지의 전쟁 상황과 해적의 습격 등의 문제로 7개월간 체류하며 북서풍이 불기를 기다렸다. 1738년 5월, 포르투갈 상선에 올라 6월 말에 네덜란드령 말라카에 도착한다. 사제가 없었던 말라카의 수비대와 주민들은 선교사 일행에게 일시적이라도 이곳에 잔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할러슈타인은 기꺼이 동료들을 먼저 보내고 1개월간 말라카에 남아 미사 등 종교의식을 치렀다. 1641년 이후 말라카는 개신교 국가였던 네덜란드가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점령했기 때문에 가톨릭의 공식적인 종교활동은 금지되었다. 이에 할러슈타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제 복장을 하지 않고 평복을 입으며 밤에 은밀히 활동했다. 8월 4일, 다시 배에 올라 중국으로 향했고, 여정을

떠난 지 38개월 만인 1738년 9월 4일 마카오에 도착했다. 마카오에 도착한 뒤 그는 한동안 한자, 중국문화 등 중국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이듬해 3월 궁정 천문학자이자 수학자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6월에 북경에 도착하여 생애 마지막 25년을 북경에서 보내게 된다.

3. 중국에서의 반생

북경에 입성한 할러슈타인은 건륭제(乾隆帝, Emperor Qianlong)의 총애를 받으며 흠천감 감정 이그나츠 쾨글러(Ignatius Kögler, 대진현戴進賢 / 1680-1746)를 보좌하라는 명을 받는다. 1743년, 안드레아스 페레이라(Andreas Pereira, 서무덕徐懋德 / 1690-1743)의 뒤를 이어 흠천감 감부로 임명되었으며, 쾨글러 사후 감정으로 임명되어 작고할 때까지 역대 가장 긴 기간 동안 감정 직을 수행했다. 할러슈타인은 예수회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나라의 핵심 역법을 계산하였으며 천문기구 관련 서적을 편찬하고 중국과 유럽 사이의 과학 문화교류에 이바지했다. 그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케플러의 운동법칙과 같이 당대 최신의 서양 천문이론과 3천여 개의 항성을 수록한 『역상고성후편(歷象考成後編)』과 『의상고성(儀象考成)』을 편찬했으며, 북경 고관상대에 설치된 대표적 동제 관측기구인 적도대의(赤道大儀)를 설계하고 제작했다. 또한 쾨글러와 자신이 관측한 내용을 담은 책 『천문관측(Observationes Astronomicae)』을 빈에서 간행하여 유럽 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외에도

열하(熱河)와 목란(木蘭) 지역의 정밀 지형도를 제작하고, 목성 위성 관측을 이용해 북경과 상트페테르부르크 간의 정밀한 시차 및 경도를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 19개 성의 인구를 최초로 정밀하게 통계 내기도 하였다. 할러슈타인은 천문학부터 인류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서양 출신의 인물로서 외교적인 역할도 수행했다. 1752년부터 이듬해까지 포르투갈 외교 사절단의 접견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건륭제로부터 정3품 관직을 받았다. 1766년 홍대용을 만난 것과 같이, 매해 북경을 방문하는 조선의 연행사 일행을 응대한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1773년 11월, 쇠약해진 할러슈타인은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했으나, 건륭제는 이를 윤허하지 않았고 계속 흠천감을 이끌어 주기를 당부했다. 1774년 7월 29일,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차도가 없이 10월 29일 사망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사망하기 전 해인 1773년, 교황 클레멘트 14세는 예수회를 해산령을 내렸고, 해산 소식은 이듬해인 1774년 8월 5일 북경에 전해졌다. 그리고 할러슈타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10월 29일에 사망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건대, 예수회 해산 소식은 그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어며 이것이 그의 병세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류블랴나 일대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난 할러슈타인은 가문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예수회에 입회했고, 예수회의 다른 대륙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명에 감화되어 중국 선교를 자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으로 향하는 항해 도중 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말라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미사를 집전하는

등 복음의 전파라는 그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였다. 비록 그가 의례논쟁으로 중국에서는 선교활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과거 예수회 선교사가 그러했듯 뛰어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엘리트 사회에 녹아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과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선교가 자신의 첫 번째 사명임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 할러슈타인은 현지인과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숨기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이 신앙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Saje 2015, 49). 그러나 그가 남긴 편지에 선교활동과 관련된 언급이 드문 것으로 보아, 그의 바람과 다르게 선교활동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선교활동이 좌절된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살펴본 중국의례논쟁의 결과, 중국에서 공개적인 선교활동이 금지되어 선교사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1743년 10월 6일 남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존의 적응주의 선교방식으로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교황청의 금지령으로 인해 선교활동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적고 있다(Saje 2015, 11). 실제로 1749년에 북경 밖의 성에서 체포된 일부 선교사들에게 사형이 명해졌고, 할러슈타인과 그 일행은 천주교에 관한 책자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재판까지 받기도 하였다. 두 번째 이유로 17세기와 달리 18세기가 되면, 서양과 중국과의 과학 지식의 격차가 좁아졌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과거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흠천감 내부에서 관직을 두고 중국인과 서양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1740년 11월 6일, 할러슈타인이 남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서양 선교사들이 흠천감 고위직을 차지하는 것을 시기한 중국 관료들이 서양 선교사들의 명예를

모함하는 고발을 받았고 다행히 이에 대한 반박이 수용되었다는 상황이 서술되어 있다(Saje 2015, 12-13). 지금까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과학으로 유명했던 할러슈타인은 그 명성과 다르게 자신의 사명인 동방 선교를 위해 고뇌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III. 유별난 경화세족, 홍대용

담헌 홍대용, 그는 우리에게 박지원(朴趾源), 박제가(朴齊家) 등과 함께 북학파의 선구자이자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전설과 우주무한설을 주장한 과학자이자, 신분제와 교육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진보적인 인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담헌은 조선 사회를 주도한 양반 관료 가문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조선 후기 사대부의 고리타분한 이미지와 더 닮았을지도 모르겠다. 담헌은 노론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집중적인 성리학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당대 조선 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명에 대한 재조지은을 답습하여 진정한 중화는 오로지 명이며, 청은 야만적인 오랑캐에 불과하다는 뚜렷한 화이관을 견지하고 있었다. 연행 이전 담헌의 삶을 추적하며 그에게 다가가 보도록 하겠다.

1. 노론 계열의 경화세족

담헌 홍대용은 1731년 1월 1일, 충청도 청주목 수신면 장명리(지금의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서 아버지 홍역과 어머니 청풍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홍역은 측실로부터 서자 둘과 딸 둘을 얻었으나, 적자는 담헌이 유일했다. 어머니 청풍 김씨는 배천군수를 지낸 김방(金枋)의 딸이었다. 담헌의 가문이 언제부터 장명리에 거주했는지는 불확실하나, 홍대용의 5대조의 묘가 장명리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5대조 이래로 장명리에 연고를 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담헌이 태어난 1731년은 청나라 옹정 9년으로 청나라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조선의 양반 사회에서는 여전히 한 세기 전에 발생한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않고 말뿐인 복수를 되뇌었다. 한편, 내부적으로도 조선에서는 지배층 사이의 당쟁이 심화되면서 혼란한 정국이 이어졌다. 빈번한 당쟁의 결과,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조선의 사족은 서울 사족과 지방 사족으로 구분되기 시작한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당쟁의 결과로 특정 사족들이 관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1589년 정여립이 모반을 꾀한다는 고발로 촉발된 기축옥사의 결과로 동인이 실각하면서 전라도 사족들은 이후 중앙 정계에서 등용되지 못했다. 한편, 18세기 전후로 발생한 환국과 이인좌의 난으로, 영남 남인은 중앙정치에서 축출되었다. 결국 담헌이 활동한 18세기 중반 이후에 이르러서는, 중앙 관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 경기도 및 충청도 사족에 불과하였다. 요컨대, 서울(京)의 사족과 지방(鄕)의 사족이 분리된 것이다.

경화세족은 서울과 그 인근 경기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과 권력을 독점하는 유력 가문을 일컫는 표현이다. 담헌의 가문 또한 충청도의 사족이지만 향제와 전장(田莊)을 충청도에 두고 경제(京第)를 서울에 둔 전형적인 경화세족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양난 이후, 조선에서는 사회 안정을 위해 정주학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보급하였고, 이에 따라 남성중심주의적인 친족 사회가 성립되었다. 개인은 부계 가문의 일원으로서 가문을 벗어난다는 것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웠고, 가문의 사유체계부터 정치적 성향, 나아가 예술적 취향까지 계승하곤 하였다(강명관 2025, 17-18).

담헌의 6대조인 홍진도(洪振道)는 인조반정에 가세한 공신으로, 인조 이후 담헌의 가문이 경화세족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증조부 홍숙(洪淑)은 1694년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았던 때에 정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했으며, 남인 숙청에 앞장서던 김석주(金錫胄)의 제자였다.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宋時烈)이 김석주를 옹호한 것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는 계기였던 것을 생각하면, 증조부 홍숙은 노론이었음이 틀림없다. 홍숙은 네 명의 아들을 낳았고, 네 아들은 모두 문과에 합격하였다. 홍숙의 막내아들이자 담헌의 조부인 홍용조(洪龍祚) 또한 강경한 노론으로 활동하며, 요동치는 정국에 따라 탄핵과 복직을 반복했다. 담헌의 할아버지 홍용조는 담헌의 아버지인 홍역(洪櫟)과 담헌의 숙부인 홍억(洪檍)을 슬하에 두었다. 홍역은 음서로 관직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송시열을 문묘에 배향하자는 상소에 참여하는 등

가문의 당색에 맞게 활동했다. 홍역은 문과 합격을 고대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가문의 후광으로 벼슬을 얻었다. 한편 그의 동생이자 담헌의 작은아버지인 홍억은 1753년 치러진 춘당대시에 장원급제하며 출세한다. 또한 그가 1765년 6월 동지사 서장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담헌은 작은아버지의 자제군관으로 북경에 갈 수 있었다.

이처럼 담헌의 가문은 증조부 홍숙 이래 4대에 걸쳐 문과 합격자를 배출한 명문가였다. 담헌의 아버지인 홍역이 그랬던 것처럼 문과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경화세족 가문은 음직으로써 지방 수령직을 지낼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담헌의 가문은 안동 김씨 등 최일류 가문과 통혼하며 경화세족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가령 담헌의 스승인 미호 김원행(渼湖 金元行 / 1703-1772)은 셋째 큰할아버지인 홍귀조(洪龜祚)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김원행의 작은할아버지는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를 쓴 김창업(金昌業)이었다. 그리고 『일암연기(一菴燕記)』를 작성한 이기지(李器之)가 홍귀조의 제문을 작성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노론 명문가의 일원이었던 담헌은 일찍이 노론 명문가와 교류를 통해 연행록 등 북경과 서양에 대한 정보를 접하며 연행을 꿈꿨을 것이다.

2. 정주학자로의 정립

유소년기 담헌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적다. 담헌이 1765년에 자제군관으로서 북경으로 출발할 때 그의 아버지 홍역은 담헌에게 시를 지어주었다. 시에는 “너를 생각하니

본래 병이 많은지라(念爾素多病)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담헌은 어릴 적부터 병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헌은 자신의 기질이 좋지 않아 아이 적에 경솔한 병통이 있었으며, 많이 고쳐졌지만 속이 좁은 병은 아직 조금 남아있다고 말한 바가 있다(강명관 2025, 44). 담헌은 성격이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 숨김 없이 그대로 털어놓는 직정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담헌은 북경에서 만난 중국인 벗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이 16-17세 무렵에 거문고를 배웠고 기녀와 어울리던 시절이 있었다고 언급한다. 방탕한 나날을 보내던 담헌은 17세의 나이로 이홍중(李弘重)의 딸 한산 이씨와 결혼하며, 이내 유흥에 대한 잡념을 물리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세였을 때 사촌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정주학으로 윤리적 완정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강명관 2025, 46-54). 당대 경화세족이라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담헌은 과거에 낙방한 상황에서, 계속 과거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과거를 포기하고 윤리적 완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정주학에 정진해야 할지 앞으로의 진로를 두고 고뇌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10대의 담헌은 거문고와 기녀에 빠져 일탈을 벌이기도 하고, 과거에 불합격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등 불안정했던 시기를 보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싹트기 시작해서 청년기에 완성되어 평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이 기간 동안 담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그의 스승인 김원행이라고 할 수 있다. 담헌은 12세의 나이로 김원행의 제자가 되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원행은 담헌의 가문과 통혼한 인물로 담헌과 가까운 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김원행은 1720년대 소론이 노론을 공격하여 노론이 대거 숙청된 신임사화로 멸문의 위기를 겪는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사사하였고, 큰형은 옥사한 것이다.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그는 진사시에 합격했음에도 일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으며, 노론과 소론 사이에서 온건파를 공평하게 등용한 영조를 비판했다. 심지어는 서울 도성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과거시험에 현혹되어 진정한 학문을 하지 않는다며 과거시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노론 강경파였던 김원행에게 가르침을 받은 담헌이 그와 비슷한 당색과 생각을 답습하는 것은 당연했다. 과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스승의 시각은 과거와 학문 사이에서 고민하던 담헌에게 과거 공부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을 마련해줬을 것이다.

1745년, 김원행은 지금의 남양주에 있었던 석실서원에서 강학을 하며 제자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석실서원은 노론의 핵심 인물이 배향되며 경기 일대에서 노론 학문의 중심지였다. 한편 김원행의 학문은 정주 성리학의 전통대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적 본성을 찾아 구현하는, 즉 윤리적 완정성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강명관 2025, 63). 담헌은 16-17세 무렵, 석실서원을 드나들며 김원행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원에서 과거 공부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담헌은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서원을 떠나기도 하였다.

즉 담헌은 여전히 과거 응시에 마음을 두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스승과 나눈 편지에서 담헌이 불교 경전에 관심을 두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과거에 불합격하는 상황에서 유교 경전으로는 그의 불안감, 혹은 세계와 생의 본질에 대한 의문까지 해소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750년, 아버지 홍역이 경상도 문경의 현감으로 부임하면서 홍대용은 아버지를 따라 문경으로 이동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인의 중심지였던 경상도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으로 중앙정치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였다. 노론 명문가 출신이자 강경한 노론 학자 아래에서 수학한 담헌은 노론의 의견을 역설하며 문경의 사족들과 편지로 설전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처럼 그는 가문과 스승의 당색에 따라 강경한 노론의 의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담헌은 동시에 언쟁에서 노론에 대한 비판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여지껏 노론의 서사 안에서만 살아오던 담헌에게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준다. 담헌은 소론의 영수인 윤증(尹拯)의 글을 읽으면서 그의 논리에 흠뻑 빠져들었고, 심지어는 노론의 정신적 지주인 송시열의 정당성마저 의심하기에 이른다. 이에 담헌은 이듬해 석실서원을 찾아가 스승에게 노론에 관한 의심 가는 점을 토로한다. 김원행은 신임사화로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평생 서울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가족의 원수인 소론을 혐오했다. 담헌은 그런 김원행의 면전에서 송시열을 비판하고 소론도 역적이지만 노론도 죄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담헌의 패기 어린 질문에 김원행은 조목조목 반박하기보다는 권위를 빌려 반박한다. 김원행은 담헌의 할아버지가 평생 송시열을

따랐으며 신임사화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거론한다. 이에 당황하고 놀란 담헌은 순수한 궁금증이라고 변명하였고 김원행도 이를 수용한다. 담헌이 정말로 노론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했는지 불확실하다. 비록 그가 이후에 노론을 비판하는 일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 사건으로 정치영역에서 그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은 노론이라는 틀에 가둬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대에 걸쳐 30대에 이르면, 담헌은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대신 도덕적 완성이라는 유가적 근본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공자나 주자 등 권위 있는 성현의 언행이나 해석까지 비판할 정도로 비타협적인 원칙주의 정주학자로 거듭났다. 직정적인 성격을 가진 담헌은 스승이 고관의 아들의 관례에 참석한 것을 따질 정도로 도덕에 있어 작은 타협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김원행의 가르침에 따라 경전을 암송하거나 그 구절에 지나치게 천착되는 것을 경계했다. 나아가 학문이 사변에만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며, 입신을 위한 과거 공부나 사교를 위한 시 짓는 행위를 배격했다. 아울러 정통 정주학자인 담헌에게 만주인의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질서로 여겨졌다. 그는 다른 조선 사대부와 마찬가지로 화이 구분을 엄격히 하였으며, 북벌의 실행 자체에는 유보적이었으나 그 대의명분은 단호히 옹호했다.

3. 천문학에 대한 호기심

우리에게 담헌 홍대용은 천문학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그는 석실서원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스승의 아들인 김이안(金履安)이 직접 『서경(書經)』에 등장하는 선기옥형(璿璣玉衡)에 대한 기록을 보고 만든 모형을 두고 토론하기도 했다. 선기옥형이란 고대 중국에서 해와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고안된 고대의 천문 관측기구로 혼천의와 동일한 기구이다. 다만 이 기구는 동아시아세계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천체의 위치와 운행을 반영한 모형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망원경과 같은 천체관측장비로 보기 어렵다.

담헌이 29세가 되던 1758년, 그는 나주목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나주로 내려온다. 담헌은 이곳에서 자명종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던 나경적(羅景績)을 만났다. 자명종은 17세기 전후 서양에서 전래된 기계식 시계로, 담헌은 서양의 지식을 알고 있던 나경적으로부터 서양의 지식과 서적을 접하게 된다. 또한 담헌은 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혼천의를 만들도록 했다. 담헌의 천문학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연행 이전 그의 천문학적 수준은 조선 내에 유입된 정보 중 일부만을 익힌 것으로 보인다. 훗날 북경에서 할러슈타인을 만나 태양의 흑점에 관해 이야기할 때도, 담헌은 흑점의 수를 3개라는 고정된 수로 이해했다. 한편 당대 서양 선교사들은 흑점의 개수가 변한다는 최신의 관측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담헌에게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담헌이 천문학을 좋아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담헌이 천문학에 몰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담헌은 청년기에 정신적으로 방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화세족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가문의 문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과에 합격해야 하는 유인이 있었을 것이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하고 음직으로 벼슬길에 올랐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과거 합격이야말로 담헌에게 입신을 통해 효를 다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다. 동시에 과거 준비가 뜻대로 안 되자 마음이 답답한 담헌은 불교 경전을 읽으며 일탈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아예 벼슬을 하기보다는 그의 스승처럼 고향이나 서원에 머물며 학문에 전념하여 도덕적 수양을 하는 삶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다만 실제로 그가 과거 응시를 완전히 단념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였다는 점에서, 과거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과거를 위한 공부가 아닌 실천을 위한 공부를 하기로 다짐한 담헌은 정치에 가로막혀 순수한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한다. 자신이 속한 노론에 대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폐쇄적인 현실정치는 그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어, 자유로운 학문의 수양조차 어렵게 하였다. 이처럼 과거시험에도 학문에도 전념할 수 없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정한 법칙으로 움직이는 하늘은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비록 당시 담헌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사료가 없어 그의 심리 상태를 단언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그가 느꼈을 세속에 대한 환멸이 그를 천문학적 탐구로 이끄는 동인으로 작용했음은 충분히 생각해봄직하다.

천문학을 향한 관심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담헌의 모습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던 실학자라는 모습과는 괴리가 있다. 그러나 담헌은 결국 말년에 저술한 『의산문답(醫山問答)』에서 화이관을 해체하고 문화상대주의적인 주장에까지 이르게 된다. 강력한 화이사상을 바탕으로 북벌론을 주장하던 노론 명문가에서 태어난 담헌의 사고관은 어떠한 과정에서 변화한 것일까. 이어서 할러슈타인과 담헌의 만남을 살펴보면서, 이 만남의 분위기가 무슨 까닭에서 서먹했는지 분석해보겠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1766년, 홍대용과 할러슈타인이 만나다

1. 만남의 장소, 남천주당

1739년, 할러슈타인이 북경에 도착했을 당시에 북경에는 공식적으로 3개의 성당이 존재했다. 각 성당의 명칭은 자금성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위치에 따라 지어졌다. 현재 존재하는 동서남북 4곳의 성당 중, 현재의 서당은 당시에 아직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공식적으로 3곳의 성당이 있었다. 포르투갈이 관할하는 남당, 동당과 프랑스가 관할하는 북당

이 존재했다. 남당은 북경 교구의 주교와 조정의 고위 관료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중심 거점이었으며,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북경 교구 주교이자 흠천감 감부, 쾨츨러 흠천감 감정 등이 거주했다. 동당은 예술가, 지도제작자 등이 거주하였고, 북성당은 포르투갈과 별도로 프랑스 예수회원이 운영하던 공간이다.

할러슈타인이 막 북경에 도착했을 때에는 북경에 31명의 서양 선교사가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신규 인력 보충이 어려워지면서, 1766년에는 16명 전후로 감소했고 이후로 그 수를 유지했다. 연행사가 접촉한 서양 선교사 중 1790년에 서호수(徐浩修)가 만난 프란치스코회 소속의 구베아(Alexandre de Gouvea, 탕사선湯士選)를 제외하면 모두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였다. 이는 1775년에 북경에서 예수회가 해체되었고, 19세기부터는 조선 내에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면서 연행사가 천주당에 방문하는 것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이다. 연행사가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바로 남당이며, 네 곳의 천주당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남당은 마태오 리치가 만력제의 지원을 받아 1605년에 건립한 것으로, 현재에는 선무문 안쪽에 위치했다고 하여 선무문천주당으로도 불리고 있다.

2. 세 차례의 만남

조선이 중국에 보내는 사행단은 대륙의 동향을 파악하고 선진 문물을 들여오는 통로였다.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한 후, 매년 최소 4회 이상 파견되던 사행을 동지사 1회로 축소시켰다. 그 과정에서 사행단의 규모는 200~300명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해외교류를 억제하던 조선에서 사행단이 이동하면서 거래하는 사행무역은 조선시대 몇 안 되는 무역이었다. 중국으로부터 약재, 서화, 서적, 사치품, 골동품 등 다양한 물건이 수입되었고, 대다수를 경화세족이 소비하였다. 이는 경화세족 출신인 담헌이 중국과 서양 문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배경 중 하나였던 것이다.

35세의 홍대용은 작은아버지 홍억이 1765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수행원인 자제군관으로서 연행에 합류한다. 담헌은 연행의 목적을 밝히면서, 조선의 예악 문물이 작은 중화이지만 내부적으로 당쟁에 몰두하여 큰 천하를 보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이 두발도 복식도 모두 오랑캐의 습속을 따르게 된 현실에 슬퍼한다. 중국에서 선비를 만나 작금의 상황을 함께 논하겠다는 목표를 드러낸 담헌은 연행 이전부터 중국어를 공부할 정도로 연행을 단순히 유랑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견문하기 위한 여정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는 오랑캐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청나라가 100년 넘게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그 까닭을 찾기 위해 연행에 올랐다고 서술하고 있다(홍대용 2020, 21-22).

1765년 11월 2일 서울을 출발한 담헌은 12월 27일 북경에 도착한다. 다음날 그는 오랑캐 조정에 몸을 꿇을 수 없다며 황제의 조참에 참가하지 않겠다 밝힌다. 그의 신분이 삼사(三使)가 아니라 자제군관이었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는 청나라 황제가 관례적으로 하사하는 은과 비단을 받지 않을 정도로 강한 화이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담헌은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북경에서 머무를 당시,

절반의 기간은 숙소인 옥하관(玉河館)에서 머무르고 나머지 절반은 연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경 시내를 유람한다. 개인적인 관심사인 서양의 천문학을 보기 위해 남천주당을 방문하기도 하고, 마음이 통하는 중국인 선비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들르기도 했다. 담헌은 두 달 간의 북경 생활 동안 네 차례 남당에 방문해서, 할러슈타인과 세 차례 만날 수 있었다. 1월 9일과 1월 19일, 그리고 2월 2일에 성사된 세 차례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두 인물의 입장에서 당시의 미묘한 분위기를 해석하겠다.

1월 7일, 담헌은 길잡이 세팔을 시켜 내일 천주당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라고 하였다. 천주당에 다녀온 세팔은 천주당 측에서 나라 일이 바빠 20일에야 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달한다. 다음 날, 하루바삐 역법을 배워야 하는 관상감의 관원 이덕성(李德星)이 곤란해하는 것을 보자, 둘은 합심하여 천주당에 편지와 약간의 선물을 보내서 천주당을 방문하여 천문학에 대한 배움을 얻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세팔은 다음 날에 찾아오라는 답변을 받아왔다. 1월 9일, 홍대용은 사행단 제반 업무를 수행하던 청나라의 통관 서종맹(徐宗孟)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접객이 길어지는 찰나, 담헌은 서종맹에게 천주당 사람과 만나기로 했다며 신의를 위해서라도 갔다가 금방 돌아오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천주당으로 발길을 옮긴다. 담헌은 이덕성과 통역관 홍명복(洪命福)과 함께 수레에 올라 남당으로 이동한다. 선무문 안으로 “마루 없는 높은 집이 공중에 솟아 있고, 기와이은 제도와 집 위에 세운 기물이 그림에서도 보지 못했던

모양"이라며 처음 보는 천주당을 묘사하고 있다. 담헌은 천주당의 구조를 자세히 고증하고, 서양의 기법으로 그린 그림을 보고 그 정교함에 감탄한다. 이어서 할러슈타인과 고가이슬(Anton Gogeisl, 포우관鮑友管)을 만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홍명복이 두 사람에게 출신, 경력, 복색, 글자 등을 물으며 대화가 시작된다. 이어서 홍명복은 이덕성 또한 관상감원으로서 역법의 계산법과 측정 원리를 배우고자 방문했다고 전한다. 이어서 홍대용은 천주당을 구경하고자 왔다며 사람을 불러 인도해주기를 요청하자, 할러슈타인은 직접 이들에게 천주당을 구경시켜주겠다고 말한다. 담헌 일행은 성상과 역대 서양 선교사의 초상화를 감상하는 한편, 할러슈타인에게 파이프오르간을 보여달라고 청한다. 할러슈타인은 심히 머뭇거리다가 여러 번 요청받고 나서야 열쇠로 문을 열어 보여주었다. 비록 연주자가 병이 들어 곡을 듣지는 못했지만, 할러슈타인이 건반을 치는 것을 본 담헌도 건반을 누르며 그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윽고 조선의 곡조를 거의 재현하자 할러슈타인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고 담헌은 전하고 있다. 또한 할러슈타인에게 소리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니 그가 옳은 말이라며 웃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담헌은 자명종과 그 내부를 보았으며, 선교사들이 머무는 방에서 청아한 소리가 들리자 방에 들어가봐도 될지 여러 번 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구경을 마친 홍대용은 서종맹의 연회로 복귀하며 첫 번째 만남은 마무리된다(홍대용 2020, 346-358).

1월 13일, 담헌이 관상감원 이덕성과 천주당을 방문하나, 문지기로부터 할러슈타인이 업무로 흠천감에 갔으며 고가이슬은 재상을 접견하고 있으니, 19-20일 사이에 다시 오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렇게 1월 19일, 담헌과 이덕성은 예물을 들고 천주당을 찾아간다. 그러나 두 선교사가 밤새도록 천문을 보다가 잠이 들어 아직 자고 있어서 잠시 기다리게 된다. 구경이 아니라 천문학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고 그 목적을 밝혀 예물과 함께 편지를 보내나, 두 선교사는 아직 피곤하며 일전에 받은 선물에 답례도 하지 못했다며 예물은 받을 수 없으니 이만 돌아가달라는 말을 전해 듣는다. 이에 담헌이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가르쳐주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편지를 전하자, 할러슈타인과 고가이슬은 마지못해 두 사람을 천주당에 들인다. 담헌이 필담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고, 이에 할러슈타인은 필담을 맡을 선비 한 명을 불러 대화를 시작한다. 대화의 첫 번째 주제는 서양의 천주학이었다. 홍대용은 천주학문이 숭상하는 바와 천주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할러슈타인은 예수회의 해석에 따라 보유론적(補儒論的)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서 천문과 역법에 대해 대화하며 천주당 내에 있던 작은 천문기구를 구경했다. 이에 담헌은 더욱이 관상대를 보고 싶었으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라는 답변을 듣는다. 또 망원경을 사용해보고, 태양의 흑점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만남은 얼추 마무리된다. 담헌은 예물을 건네며 다음 약속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할러슈타인 측이 예물을 받는 것을 괴로이 여겼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담헌은 받지 않는다면 다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하자, 할러슈타인은

1월에는 시간이 없으니 다음 달에 오라고 말한다. 천주당을 나서면서 이덕성은 선교사들이 예전과 달리 조선사람에게 풍부한 음식과 서양의 물건을 선물하지 않고 대접이 낙락하게 되었다며 아쉬움을 표한다(홍대용 2020, 445-454).

2월 2일, 담헌과 이덕성이 천주당을 방문하며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진다. 필담을 대신할 선비가 오기 전에 홍대용과 할러슈타인은 조선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할러슈타인은 부산과 대마도가 조선의 어느 현에 속하는지, 조선과 일본에도 자명종이 있는지 묻는다. 홍대용은 대강을 답하고서 그가 어떻게 대마도와 부산을 아는지 묻는다. 이에 할러슈타인은 만력 연간의 역사 기록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아마 임진왜란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필담을 담당할 선비가 들어오자, 이덕성과 할러슈타인은 역법에 대해 의논한다. 서양의 역법서를 보고 싶다고 청하니, 고가이슬이 웃으며 본다고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책 한권을 내왔다. 할러슈타인은 서양의 글자를 붓으로 써보려고 하나 뜻대로 되지 않자 사용하는 붓이 다르다며 깃펜을 보여준다. 이어서 할러슈타인에게 처첩이 있는지 묻고 없다고 답하자, 담헌은 천주의 학문에서 처첩의 학문을 금하는지 묻는다. 할러슈타인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자신이 늙고 고향이 수만 리 밖인 탓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홍대용은 서양에는 중국 서적이 없을 것인데 도를 배우는 사람은 어떤 글을 보는지 묻는다. 이에 할러슈타인은 같은 글은 없어도 도리가 통하는 같은 말은 있다며 중용을 예시로 들며 설명했다. 홍대용이 자명종과 의기를 보고 싶다고 청하자, 할러슈타인과

고가이슬은 자명종, 알람시계, 나침반 등을 보여준다. 두 선교사가 자주 휴대용 시계를 품에서 꺼내 확인하자, 담헌은 보여줄 것을 청하고 이를 관찰하기도 했다. 방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면서 귀국일이 가까워 다시 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교사들에게 말했지만, 담헌은 이들이 서운한 기색 하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3. 서먹했던 분위기의 원인

지금까지 할러슈타인과 담헌의 세 차례의 만남을 살펴보았다. 과거와 달리 천주당의 대접이 부실하다는 이덕성의 푸념, 손님을 앞에 두고 틈틈이 휴대용 시계를 확인하는 선교사들의 태도, 마지막으로 하직할 때에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담헌의 서술을 미루어 볼 때, 할러슈타인 등 서양 선교사 일행이 담헌을 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담헌이 남긴 연행록을 읽으면 그 서먹한 분위기가 활자 너머로 생생히 상상된다. 그러나 사실 당시 할러슈타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 그가 왜 성심껏 담헌을 대접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할러슈타인은 예수회 회원으로서 유럽에 주기적으로 서신을 보내 소식을 전달하고는 했는데, 북경과 유럽 사이의 물리적 거리로 연락은 오로지 편지로만 가능했다. 편지는 주로 9월에서 12월 사이에 부쳐졌고, 불안정한 해상교통으로 인하여 어떤 편지는 전달되는 데 13년이 걸리기도 했다. 할러슈타인의 심정이 담긴 편지를 읽어보면서 그가 어떤 심정으로 담헌 일행을 만났는지

재구성해보도록 하겠다.

할러슈타인이 조선 사행을 환대하지 못한 첫 번째 배경으로는, 중국의례논쟁의 결과로 중국에서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이 좌절된 것이 있다. 중국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인정받게 된 까닭은 그들의 뛰어난 과학기술이었지만, 이들에게 있어 제일의 사명은 복음의 전파이며 과학기술은 단순히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선교활동이 통제되면서 선교사들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중국의 과학 발전에만 힘쓸 수밖에 없게 된다. 할러슈타인은 1743년 10월 6일에 남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742년에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의례 금지 방침으로 인해 선교에 난항이 초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아우님께서는 교황 베네딕토 14세께서 반포하신 '중국 의례에 관한 새로운 교령'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은 참으로 교황께서 기대하신 결과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수용하고 보증하며 그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의 선교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어 그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지도 못하는 형편이라 조상을 위한 제물을 마련하거나 사당을 짓는 일은 애초에 거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령은 적을수록 좋은데, 우리에게는 북경 주교와

예수회원들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님께서도 다른 경로를 통해 이러한 영향이 우리에게 가져온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

현재 우리의 신앙은 중국 내 지위가 낮아 올해는 별다른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산서성 강주(絳州)의 관리가 천주교 신앙을 배척하는 명령을 내린 일입니다. 그는 명령문에서 천주교 신앙이 조상에 대해 극도의 불경을 저지르고 있으며 악하고 잔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을 관아로 개별 소환하여 천주교 신앙을 버리겠다는 서약을 강요하고 천주교 휘장과 서적을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불복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중에 이 명령이 철회된 듯하여 더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남성에서는 비그리스도인 관리가 다른 죄목으로 한 신자에게 벌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천주교인이라 벌하는 것이 아니다. 천주교 자체는 훌륭하지만, 네가 천주교 교리를 따르지 않고 금지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하는 것이다." 당초 우리 천주교를 반대하던 주된 이유는 우리가 죽은 자나 조상을 지극히 공경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험한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스티글리오네 신부가 전하기를, 며칠 전 궁정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 두 내시가 대청을 지나가며 말다툼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사람이 상대에게 "내가 우리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천주교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아우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전 편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상당히 많이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 옹정제가 선교를 금지했고 건륭제 역시 집권 초기에 이를 재차 천명하였으며 현재까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선교에 다른 방해물은 없으며, 밀고자나 비방자도 없고 새로운 금령도 없습니다. 물론 이는 북경 및 국가 차원의 금령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매년 각 성(省)마다 금령을 반포하므로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비신자를 만나면 우리는 그들의 오류를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교리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종종 우리 성당을 찾아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성당 안의 성화를 바탕으로 교회의 신비를 설명해 줍니다. 대체로 반대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꾸준히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

> 또한 많지 않습니다. 북경에 있는 우리의 3개 성당에서는 매년 성당마다 평균 성인 60명과 어린이 수천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Saje, 207-214).

또한 할러슈타인은 1749년 11월 28일의 서신에서 북경 밖의 지역에서 천주교 박해가 심해지고 있으며 일부 선교사들이 사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전한다. 한편, 할러슈타인은 자신 역시 천주교 책자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할러슈타인은 중국에서 천주교를 탄압하는 주체가 건륭제이며, 그가 서양 선교사를 단지 천문학 등 과학기술 발전에만 활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이처럼 천주교의 선교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할러슈타인은 동방에 하느님의 진리를 전파하겠다는 사명을 실천할 수 없었고, 기술 발전의 도구로 쓰이는 우울한 현실을 자각했다. 천문학 연구가 중국 내에서 선교사의 지위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적응주의적 선교활동이 금지되면서 주된 선교 대상이었던 엘리트 계층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게 된다. 사명을 가진 선교사가 아니라 단순히 천문학자로 전락한 상황에서 그는 담헌을 만날 의욕도 잃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가장 참담한 소식을 먼저 전해야겠습니다. 난폭한 이 계승자(건륭제)는 몇 년 전부터 금교령을 시작하여 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유럽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탄압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건성에서는 존경받는 도미니코회 주교 백다록(산츠 주교)이 참수당했고, 같은 곳에서 1년 뒤 도미니코회 선교사 네 명 또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강남성(강소·안휘 지역)에서는 한 달 전 어느 날 밤, 예수회 소속 선교사 두 명이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포르투갈 출신의 황안다(Antonio Henriques) 신부였고, 다른 한 명은 우리 가운데서도 뛰어난 인물이었던 빈 출신의 담방제(Tristan of Attemis) 신부였습니다. 현지 지방관과 감옥 책임자들조차 담방제 신부가 매우 충성스럽고 무죄임을 인정했으나, 그는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강서성에서는 실레시아(Silesia) 출신 도미니코회 가문 소속의 독일인 한 명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인은 모두 같으며 그 이유는 명약관화합니다. 잘못된 교리로 백성을 미혹했다는 누명을 썼기 때문입니다. (…)

북경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포르투갈 신부 부작림(Felix da Rocha)과 저는 천주교 신앙, 기도문, 성경 구절이 담긴 소책자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관아에 소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우리의 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의 선교사들은 더 이상 사회적 사무 면에서 지방 각 성(省)의 선교사들을 도와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리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와 황제의 연락 통로를 차단했기 때문이며, 본래 황제를 알현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던 터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북경에서 편지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크나큰 배려를 받은 셈입니다. (...)

교회를 탄압하는 최대의 주범이 다름 아닌 황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황제가 악인은 아니지만 불의한 통치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황제는 모든 천주교 신자를 일소하거나, 적어도 지방의 유럽인들을 모두 제거하려 합니다. 이는 황제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의 간언을 받아들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며, 그의 선친이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천주교인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북경에 머물게 하는 것은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온종일 이러한 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문학의 발전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유 시간과 정력이 허락한다면 천문학을 계속 연구할 것인데, 이는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Saje, 214-221).

할러슈타인이 담헌 일행을 미적지근하게 상대한 두 번째 이유는 조선 사행단에게서 찾을 수 있다. 홍대용은 연행록에서 서양의 천문학과 산수역법을 높게 평가하지만, 서양의 학문(천주교)은 "하늘을 존숭하여 하늘 섬기기를 불도의 부처 섬기듯이 하고, 사람을 권하여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착한 일을 힘써 복을 구하라고 하니, 중국 성인의 도와 다르고 이적의 교회라 말할 것이 없다"고 표현하는 등 천주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홍대용 2020, 322). 서양 선교사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천주교가 아니라 천문학을 배우기 위해서인 것은 홍대용뿐만 아니라 당대 천주당을 방문한 대다수의 사행단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동아시아 일대의 선교 활동을 담당하던 할러슈타인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 나아가 일본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다. 실제로 1761년에 이의봉(李義鳳)을 만난 할러슈타인은 필담을 통해 그에게 조선에서 중국으로 오는 수로를 묻기도 했는데, 이는 조선에 성당을 건립하거나 선교사를 파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아래는 할러슈타인이 1757년 10월 6일에 작성한 편지로 조선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의 천주교에 대한 동생의 질문에, 그는 일본의 소식이 전혀 중국에 미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동시에 할러슈타인은 자신이 조선 사행에게 일본에 대해 물어봐도 그들은 좀처럼 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할러슈타인은 담헌과 만날 때에도 일본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담헌 일행은 여느 사행과 마찬가지로 할러슈타인을 만족시키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할러슈타인은 조선 사행들이 1시간 넘도록 천문학에 관해 질문한다고 적고 있다. 물론 이 편지는 담헌과 만나기 약 9년 전인 1757년 10월에 작성된 편지로, 할러슈타인이 언급하는 인물은 담헌이 아니다. 편지가 쓰이기 직전인 1756년 1월에 동지사 부사 정광충(鄭光忠)은 천주당을 방문하여 할러슈타인과 만난 기록을 『연행일록(燕行日錄)』에 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할러슈타인이 편지에서 서술하고 있는 사람이 정광충인지, 1756년 동지사의 사행인지, 혹은 그 이전의 사행인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적어도 할러슈타인은 조선 사행단이 천문학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자신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천하에서 가장 교활한 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조선에서는 수시로 청나라에 관원을 파견하여 칠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최신 역법을 습득하고자 했다. 홍대용과 동행한 이덕성도 그 사례이며, 이전부터 안국빈(安國賓) 등 관상감원이 할러슈타인 등 서양 선교사를 방문했다. 할러슈타인 일행이 매년 찾아오는 조선 사행과 그들로부터 길고 긴 천문학 질문을 받았을 것을 생각해본다면, 선교를 위한 질문에는 협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학 질문만

하는 조선 사행과의 만남을 피로한 지식 검증의 시간으로 느껴 이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아우님께서는 제게 일본의 천주교에 관한 소식이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비록 일본은 우리와 매우 가깝지만, 이곳에서 보기에는 그들의 통치 체제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단히 고요합니다. 이곳에는 시암(태국), 코친차이나, 베트남 및 류큐에서 온 사절들이 있으며, 조선의 사절은 매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온 사절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조선인들은 일본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날씨가 맑으면 일본의 산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천하에서 가장 교활한 자들은 어떠한 일도 누설하기를 꺼립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시간을 들여 학문적 질문을 던지면서도, 상대방의 질문에는 결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경에 오면 가장 먼저 우리 성당을 방문하는데, 성당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먹물과 붓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필담의 형식으로만 교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인의 통역을 통해 그들의 질문에 답해줍니다. 그들은 종종 치밀하게 준비한 천문학 질문들을 묻곤 하는데, 질문을 적어두고 가면

나중에 편지로 답을 주겠다고 하면 글자 하나도 남기려 하지 않고 차라리 수시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합니다(Saje, 223-225).

할러슈타인이 담헌 일행과의 만남을 꺼린 마지막 이유는 그들이 처한 재정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1765년 10월 27일 남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방문객에게 답례하는 것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서양의 물건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주지하다시피, 천주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고 이들은 필시 선물을 챙겨갔을 것이다. 할러슈타인은 현지의 예에 따라 이들의 선물에 답례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밀려드는 방문객에게 답례를 제공하면 할수록 더 많은 답례품을 준비해야 했고, 그렇다고 선물을 받지 않자니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던 것이다. 그러니 담헌 일행이 선물을 들고 세 차례나 방문한 것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이 편지가 담헌과 만나기 3개월 전에 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할러슈타인은 담헌과 만날 당시 진정으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할러슈타인이 1756년 정광충 그리고 1761년 이의봉과 만날 당시에, 이들 사행은 담헌 일행이 받은 화지, 그림, 고과(苦果), 흡독석(吸毒石)과 추가적으로 거울이나 『직방외기(職方外紀)』 등 서양의 물건을 받았다. 할러슈타인이 담헌 일행에게 적은 답례를 주며 "근래 서양국과 왕래하는 인편이 잦지 않으므로 있는 토산이 약소"하다고 말한 것은 이들을 싫어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선물할 물건이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홍대용 2020, 31).

> 네덜란드 선박을 통해 광저우로 약간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면, 앙브로지(Ambrozy) 백작께서 제게 주셨던 돈으로 유럽의 작은 선물들을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물의 목록은 뒤에 첨부하였으며, 그들의 배편을 통해 이곳으로 선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록 이 선물들이 지금 유럽에 있을 때는 대수롭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반대편인 중국에서는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발휘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우정은 평화를 유지하고 교회의 사목을 확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보다 이러한 우정을 더 쉽게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
>
> 저로서는 각 성의 관리들이 수시로 저를 찾아오는 것,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단지 구경하러 찾아오는 것을 상대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두 선물을 들고 오는데 저에게는 답례할 선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경시하거나 오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선물을 받고도 답례할 물건이 없으면 교양이 부족하거나 몹시 가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난처한 처지를 아우님께서는 분명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갈등하며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저를 이런 삶으로 이끄셨으니 그분의 안배에 따를 뿐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아마 아무도 저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Saje, 229-232).

이상으로 할러슈타인과 담헌의 만남의 분위기가 서먹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았다. 천주교 선교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할러슈타인은 매년 천문학 질문만 하고 천주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조선 사행을 좋게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담헌에게 줄 답례품이 적었다는 사실 역시 만남이 씁쓸하게 마무리되는 데 일조했다. 두 인물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의 만남을 재구성하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문득 두 인물의 만남이 보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두 사람은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하고 그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희미한 교감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천문학 이야기나 조선 사행이 수용하기 어려운 천주교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대화를 이끌어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령 할러슈타인이 남동생에 보낸 편지에서 조선 사행의 의복을 기록하고 있다. 홍대용 역시 할러슈타인이 “머리를 깎았고 오랑캐 복장을 하여 중국 사람과 분변이 없다”며 그의 외관을 기록하고 있다(홍대용 2020, 349). 청나라의 의복을 준수하는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방침이 보이는 동시에, 명을 계승한 조선의 의복과 두발에

자부심을 느끼던 담헌이 곧바로 이들의 외관을 분석한 대목이 돋보인다. 두 사람이 복식 제도를 두고 조선의 의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의 의복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주제로 대화를 했다면 보다 인상깊은 만남으로 남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조선인들은 모두 대단히 건장하고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대 중국의 풍습에 따른 복식을 입는데, 때로는 평상시의 예복을 입고 때로는 군복을 입습니다. 그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들은 기꺼이 매년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Saje, 225).

4. 만남 그 이후

1766년에 이루어진 할러슈타인과 홍대용의 만남 이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홍대용과 동행하며 할러슈타인을 만난 관상감원 이덕성은 과거 할러슈타인이 쾨글러 등과 공저한 『신법의상고성(新法儀象考成)』을 들여왔다. 이 책을 바탕으로 계산하니 오류가 없다며 앞으로 이 책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영조(英祖)에게 대답한다. 할러슈타인은 조선에서 천문학자로서 명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의 일생의 사명이었던 복음 전파는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리학이라는 국가종교와 불교 등 대중종교가 공존했던 조선이지만, 천주당을 방문하는 사행단의 구성원은 철저히 성리학을 따르는 조선의 엘리트였기 때문에 이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던 것이다. 할러슈타인 사후인 1784년, 북경을 방문한 이승훈(李承薰)이 그라몽(Jean Joseph de Grammon) 신부에게 조선사람 최초로 세례를 받으며 천주교 신자가 된다. 그렇게 18세기 후반, 조선사회에서 천주교가 조금씩 확산되는 가운데, 1791년에 북경 교구장 구베아 주교에게 선교사 파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과거 일단락된 중국의례문제의 결과, 천주교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선에 전해지자, 이승훈, 정약용(丁若鏞) 등 양반층 교인이 대거 이탈하게 된다. 성리학이라는 지배 이념과 모순되는 천주교는 이내 19세기 엄청난 탄압을 받으며 그 세가 위축되었다. 할러슈타인의 바람은 1886년 조선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고 그로 인해 천주교가 공인되고 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예수회가 채택했던 적응주의 선교방식 없이는 조선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천주교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유럽세계에 의해 동아시아세계의 전통질서가 해체되기 이전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천주교가 자리잡지 못했음을 고려한다면, 할러슈타인은 시대를 잘못 만난 선교사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홍대용은 연행 이후 경화세족과 조선의 지식인 사이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다. 연행 이전까지 담헌은 조선 사대부 사회에서 특별하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그가 두 달간의 연행에서 중국인 친구를 사귀어 지속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전인미답의 관계를 형성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유명 인물이 된다. 담헌은 북경에서 반정균(潘廷均), 엄성(嚴誠), 육비(陸飛)를 만나 천애지기(天涯知己)의 관계를 맺는다. 담헌은 간정동(乾淨衕)과 옥하관 등에서 이들과 거듭 대화를 나누며, 조선 지식인 특유의 닫힌 시각을 깨기 시작한다. 홍대용은 중화의 상징이던 한족이 만주인의 두발과 의복을 따르는 것을 참상이자 문명의 오염으로 인식하며 이를 주제로 중국인 친구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한다. 반정균은 과거 홍타이지(皇太極, Hong Taiji)가 청나라의 의복이 명의 그것과 달리 승마와 활쏘기에 적합하여 만주인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명나라의 의복을 따르자는 신하의 말을 물리친 고사를 소개했다. 즉 의복 제도는 국가의 장구한 계획으로 순응하는 것이 맞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담헌은 고대 삼대(하·은·주)와 한나라, 당나라가 너른 옷과 큰 소매를 입고도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의복 때문이 아니라 오직 군주의 덕이 두터웠기 때문이며, 왕조의 존속은 의관제도가 아닌 덕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헌의 이러한 주장은 역설적으로 출신 지역이나 종족에 상관없이 덕치라는 중화의 문물을 보존하기만 한다면 천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즉 화이사상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종족성이 떨어져 나가고, 담헌의 화이관에는 두발과 복식이라는 외관적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

한편, 귀로의 길에서 홍대용은 만주인으로부터 조선 왕의 성이 무엇인지 질문받는다. 이에 담헌은 이씨라고 답했고, 만주인은 옛날에는 고려의 왕씨였는데 왜 조선의 이씨로

바뀌었는지 재차 묻는다. 담헌은 상나라의 초대 왕인 탕왕(湯王)과 주나라의 초대 왕인 무왕(武王)을 예로 들며, 유가적 정당성을 갖는 역성혁명임을 설명했다. 이에 만주인은 청나라가 전조인 명나라를 위해 도적을 멸하자 천명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귀의했으므로, 청의 중국 지배는 조선의 역성혁명보다 한 차원 높은 요·순의 선양(禪讓)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담헌은 순임금(舜) 역시 동이 사람이었으나 요에서 순으로 바뀔 때 복색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질적 복색을 강요한 명·청 교체는 순수한 선양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이에 만주인은 옛날과 지금이 따르던 가치가 다른데 의관에 어떻게 정해진 제도가 있겠으며, 절대불변의 의관이란 존재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과 시의에 따라 의관 제도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담헌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담헌의 화이관을 구성하는 복식제도도 점차 허물어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귀국 직후 담헌의 화이관이 바로 해체된 것은 아니었다. 청나라에서 중국인 벗을 사귄 담헌은 대명의리를 중시하는 김종후(金鍾厚)에게 오랑캐의 조정에서 벼슬하려는 한인 지식인들과 교유하며 그들을 옹호했다고 비판을 받는다. 이에 담헌은 청 체제가 100년 넘게 이어져 성현이나 호걸이라도 변발과 호복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현실이 되었고, 공자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이에게 벼슬을 거부하는 초야의 성현만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강희제 이후 청의 뛰어난 정치로 백성의 삶이 안정된 만큼 한인이 마음을 돌려 벼슬길에 나서는 것을 책망할 수 없다며, 오히려 청나라를 변호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후

담헌은 말년에 이르러 『의산문답』을 저술하여, 그가 일생 동안 받아들인 서양의 천문학 지식을 발전시켜 정주학적 세계관을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이관을 부정하는 논리를 완성시킨다. 그는 중국에서 한족과 이민족의 지배가 반복되었으며,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비정상이 아니라 역사의 일반적 현상으로 보았다. 또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천문학적 깨달음에 기반하여, 하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과 국가가 동등하며 중국의 예관이나 이적의 풍습 사이에 문명적 위계가 없음을 역설한다. 나아가 중화와 이적의 구별은 절대적 가치가 아닌 주체와 타자의 상대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공자가 쓴 『춘추(春秋)』조차 주나라 입장에서 서술된 주서(周書)일 뿐이며 공자가 구이(九夷)에 살았다면 '역외의 춘추'를 썼을 것이라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고정된 절대적 화이관을 해체하고, 누구나 중국 문명의 보편성을 구현한다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V. 마치며

다른 시공을 살고 있는 우리가 두 인물의 지평을 좇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두 사람의 지평을 그려낼 재료는 무한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할러슈타인과 홍대용은 같은 시간대에 살았지만, 두 사람의 지평은 두 사람이 태어난 도시의 거리(류블랴나에서 천안까지의 거리는 약 8500km)만큼이나 달랐다. 하루하루 무슨 음식을 먹는지부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까지

서로가 공유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철저한 다름 속에서 두 인물의 만남이 결코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즐겼고, 또 일단 대화를 나눴다. 할러슈타인은 일생 동안 다름을 전파하기 위해 살았고, 홍대용은 조선사회에 뿌리 박힌 통념에 저항했다. 결국 두 사람의 만남의 의의는 '틀림'으로 보이는 '다름' 속에서 다름을 전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태도 그 자체에 있다. 비록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보지는 않았겠지만, 언젠가는 다른 공간에서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렸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방대한 정보와 연결망을 누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타자의 다름을 쉽게 틀림으로 재단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뿌리 깊은 통념을 끊임없이 의심했던 홍대용과 낯선 세계로 건너가 다름을 전했던 할러슈타인의 조우는 깊은 울림을 준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진정한 지평의 확장이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이질성 속에서도 상대를 마주 보고 대화를 건네는 그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증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1차 문헌

강명관. 2025. 『홍대용 평전』 1•2. 푸른역사.

김명호. 2020. 『홍대용과 항주의 세 선비』. 돌베개.

홍대용. 정훈식 역. 2020. 『주해 을병연행록』 1•2. 경진출판.

Mitja Saje. 朱晓珂, 褚龙飞, 吕凌峰 역. 2015. 『斯洛文尼亚在中国的文化使者：刘松龄』. 大象出版社.

2차 문헌

신익철. 2014. “18~19세기 연행사절의 북경 천주당 방문 양상과 의미.” 교회사연구 44. 143-183.

김민호. 2017. “One from the East, One from the West: The Uneasy Encounters between Hong Tae-yong and Augustin Hallerstein in Mid-Eighteenth Century Beijing.” Acta Koreana 20 (2). 501-528.

김민호. 2023. “북경에서 만난 조선과 서양.” 중국소설논총 69. 91-120.

김혜경. 2010. “16~17세기 동아시아 예수회의 선교 정책: 적응주의의 배경을 중심으로.” 신학과철학 17. 35-68.

이석원 프란치스코. 2005. “I. 초기 조선교회의 시련과 발전 (2회 세미나: 2005년 3월 12일).” 상교우서 7. 8-12.

임명걸. 2020. “『을병연행록』 연구-「연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0 (122). 411-432.

장경남. 2009. “조선후기 연행록의 天主堂 견문기와 西學 인식.” 우리문학연구 26. 77-117.

정태식. 2007. “중국에서의 전례논쟁과 가톨릭 박해에 대한 일고찰.” 현상과인식 31 (3). 188-210.

최병욱. 2004. “중국에서의 프랑스 ‘保教權’의 기원과 성립 -淸初 프랑스 예수회선교사의 중국파견에서 淸佛〈北京條約〉의 체결까지-.” 명청사연구 0 (22). 235-270.

영문 문헌

Haller von Hallerstein, Helmut Freiherr. 1966. “Haller von Hallerstein, Augustin.” In Neue Deutsche Biographie 7: 557. 온라인 버전, Deutsche Biographie. https://www.deutsche-biographie.de/gnd128740620.html#ndbcontent.

O'Connor, John J., and Edmund F. Robertson. 2022. "Ferdinand Augustin Hallerstein." MacTutor History of Mathematics Archive. 최종수정 2022 년 3 월. https://mathshistory.st-andrews.ac.uk/Biographies/Hallerstein/.

3장

『대의각미록』 살펴로 본 청나라 대일통 기획의 좌절: '화이일가·천하일통'의 이상과 현실

김지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Ⅰ. 들어가면서

"대의(大義)로써 미혹(迷)을 깨우친(覺) 기록(錄)"이란 뜻의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7]은 청나라 5대 황제 옹정제(雍正帝, 1678-1735)가 직접 주도하여 편찬·반포한 문헌이다. 1728년(옹정 6년) 호남(湖南) 시골 마을의 불우한 한족 서생 증정(曾靜, 1679~1735)은 남송의 항금(抗金) 명장 악비(岳飛)의 후손으로 알려진 천섬총독 악종기(岳鍾琪)에게 반청 역모를 권하는 서신을 보냈다가 체포된다. 서신에는 만주족은 이적(夷狄)이므로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부친 모해(謀父), 모후 핍박(逼母), 형제 살해(弑兄·屠弟) 등 옹정제의 열 가지 죄상이 담겨 있었다. 당시 반역자의 일반적인 결말은 사형과 멸문이었다. 그러나 옹정제는 이 사건에 전대미문의 방식으

7) 『대의각미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옹정제(2021)의 해제 부분(pp.9-68)을 참고할 것. 번역자 이형준이 집필한 해제에는 역모 사건의 배경, 『대의각미록』 편찬의 경위와 이유, 책의 구성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증정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스펜스(2004)를 참고할 것. 이 책은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을 생동감 있게 추적한 서사적 연구이다.

로 대응한다. 증정을 처형하는 대신 그와 논쟁하여 전향을 유도하고, 죄상 하나하나에 대한 자신의 반박과 상유(上諭), 증정의 참회 진술을 묶어 한 권의 책으로 편찬(1730년)한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을 전국의 관학에 배포하여 유생들을 의무적으로 학습시키는 한편, 지방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옹정제 2021; 이정 2023). 『대의각미록』은 최고 권력자가 직접 자신의 정통성을 대중 앞에 논증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여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희소한 사료다. 나아가 오늘날 중국 영토와 다민족 구성이 청나라의 유산인 만큼, 당시의 통합 논리를 이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대의로써 (한족) 백성들의 미혹을 깨우치겠다"는 옹정제의 의도와는 달리 『대의각미록』 기획은 실패로 끝난다. 백성들은 옹정제의 반박보다 그 과정에 등장하는 황실의 추문과 유언비어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아들 건륭제는 이 책을 전량 회수하여 금서(禁書)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대의각미록』 편찬 당시 옹정제는 이러한 실패를 전혀 예상치 못했으며 오히려 성공을 확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확신과 실패 사이의 간극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진다. 옹정제가 이 책을 편찬한 진의는 무엇이었으며, 그의 야심찬 기획은 왜 실패로 귀결되었을까?



〈그림 1〉 옹정제 조복상(雍正朝服像)[8)]

8) 출처: 국립고궁박물원 소장, 이미지,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mperor_Yongzheng.PNG (검색일: 2026년 8월 13일)

『대의각미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9] 대체로 그 편찬 의도를 '통치 정당성' 곧 정통성 확보라는 목적에서 이해해 왔다. 통치 정당성의 층위는 다시 둘로 나뉜다. 하나는 화이관(華夷觀) 재구성을 통한 '청조' 지배 전반의 정당성이고(송인주 2020; 이동욱 2019, 2022; 李治亭 2021; 宋华政 2025), 다른 하나는 옹정제 '개인'의 결백과 '즉위'의 정당성이다(민두기 1964; 이경훈 2018).[10] 조선의 수용사 연구(김홍백 2011; 이정 2023)와 서구의 서사적 재구성(스펜스 2004) 역시 넓은 학술 지형에서 이 논의에 포함된다.

9) '대의각미록'을 주제어로 한 한국어 연구는 총 7편이다. (민두기. 1964." 『大義覺迷錄』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25호: pp. 245-282; 김홍백. 2011." 『大義覺迷錄』과 조선 후기 華夷論." 『한국문화』 제56호: pp. 47-77; 이경훈. 2018."韓·中 帝王의 義理明辯書 比較 考察: 『闡義昭鑑』과 『大義覺迷錄』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59호: pp. 203-218; 이동욱. 2019." 『大義覺迷錄』에 나타난 청 옹정제의 滿漢 갈등 해소 논리." 『중앙사론』 제50호: pp. 131-180; 송인주. 2020."옹정제(雍正帝)의 사상투쟁: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의 화이론(華夷論)과 '중외일통(中外一統)' 이론." 『인문과학』 제77호: pp. 123-159; 이동욱. 2022." 『大義覺迷錄』 해석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考察: '君臣大義'에서 '中華大義'까지."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3호: pp. 59-83; 이정. 2023." 조선후기 지식인의 『大義覺迷錄』 수용과 이해."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 밖에 스펜스(Spence 2001), Crossley(2012), 宋华政(2025) 등 해외 연구와 옹정제 연구 일반(미야자키(宮崎市定 1950), 리아오(李傲, 2008), 冯尔康 1985), 각주 6에서 소개하는 중국어 논문 일부를 함께 검토하였다.

10) 이러한 개인 중심적 해석을 대표하는 중국 학자로 孟森(2006)이 있다. 孟森은 『대의각미록』을 옹정제의 황위찬탈 의혹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청조의 정통성을 주장보다는 옹정제 자신에 대한 의혹과 비난을 해명 하는 것이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이동욱 2019, p.134 각주3에서 재인용).

한편 『대의각미록』 기획을 '실패'의 관점에서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중국 학계의 연구들은[11] 이 기획을 화이일가(華夷一家)·천하일통(天下一統) 관념이 근대 중화민족 서사로 이어지는 계보의 '출발점'으로 그리는 경향이 강하며(韩东育 2014; 李治安 2023; 宋华政 2025; 赵芳菲·彭新武 2025), 이 구도 안에서 건륭제의 금서 조치도 대일통 기획의 실패가 아닌 그 관념이 자리 잡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다뤄진다. 반면 크로슬리(Crossley 2012)는 『대의각미록』을 건륭제에 의해 말살된 '잃어버린 옹정제의 철학(Lost Yongzheng Philosophy of Identity)'으로 평가한다. 옹정제는 변화 가능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화이일가의 보편 논리를 펼쳤지만, 뒤이은 건륭제는 민족의 정체성을 고유한 것으로 규정하는 본질주의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크로슬리(Crossley)의 시각에서 더 나아가 『대의각미록』 기획을 실패로 규정하고, 그 실패가 기획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 기획을 대의(大義)와 소의(小義)라는 두 축에서 분석한다. 대의가 청조의 지배 정당성과 천하일통의 논리라면, 소의는 옹정제 개인의 결백과 황실의 안정을 일컫는다. 본

11) 中国知网(CNKI)에서 '大义觉迷录'을 주제어로 검색하면 총 28편의 논문이 확인된다 (2026년 7월 5일 기준). 이들 대부분은 『대의각미록』을 통해 옹정제의 화이관·민족사상·정통론을 분석하는 내용 연구이거나(何晓芳 1986; 吴洪琳 2004; 陈文祥 2013 등), 화이일가·대일통 관념이 근대 국가·민족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는 계보연구이다(衣长春 2012; 韩东育 2014; 张翔 2017 등). 『대의각미록』 편찬 기획의 실패 자체를 정면에서 다룬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소통·미디어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려는 시도는 등장하고 있다(邵志择 2025; 刘斌 2025). 그러나 이들은 유언비어의 확산이라는 전달의 차원에 주목할 뿐, 그 실패를 청조 대일통 기획 자체의 좌절로 확장하고 있지는 않다.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대의각미록』은 대의의 기획에서 출발했지만, 그 대의 자체가 실제 통치와 모순된데다, 소의까지 결합하면서 이중의 부담을 떠안았고, 결국 한족의 '심복(心服)'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였다. 대의를 내건 이 기획에는 소의가 뒤엉켜 있었으며, 옹정제는 대의에서도 소의에서도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실패는 단지 한 문헌의 실패로 평가할 수 없다. 『대의각미록』이 표방한 화이일가·천하일통은 청조가 개국 이래 내세워 온 대일통 논리의 집약이었기에, 이 문헌의 좌절은 곧 대일통(大一統) 기획 자체의 좌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가 말하는 '실패'는 영토 확보나 실효적 통치라는 물리적 차원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심복(心服)'의 차원을 일컫는다. 옹정제가 『대의각미록』을 통해 걸었던 기대는 역복(力服)이 심복(心服)이었으나, 결과는 그 반대였다.

본 연구는 청대 만주족 지배층의 한화(漢化, sinicization)[12] 여부를 둘러싼 신청사(New Qing History) 논쟁에 새로운 시각을 더한다. 신청사가 만주족의 정체성 고수를 청조 통치의 성공 요인으로 조명해왔다면(엘리엇 2009), 본 연구는 화이일가를 표방하면서도 만한(滿漢) 경계를 유지한 이중성이 『대의각미록』 기획 실패의 근원이었음을 보인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 실패를 현대 중국의 정치 담론과 연결짓는다. 옹정제의 대일통 기획은 오늘날 중국이 표방하는 '중화민족(中

12) 신청사의 대표적 연구자인 엘리엇(Elliott)은 '한화(漢化)'라는 용어 대신 '문화변용(accultur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는 한화라는 용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보고, 만주족의 문화변용이 심했더라도 이들이 중국 사회에 집단적으로 동화(assimilation)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엘리엇 2009, 14).

華民族)' 담론의 중요한 사상적 뿌리를 이룬다. 만일 대일통 서사가 출발부터 좌초한 기획이었다면, 이에 기반한 현대 중화민족 담론 역시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그 대일통이 당대에 이미 실패한 기획이었음을 밝힘으로써, 이 근원적 모순이 시작된 지점을 드러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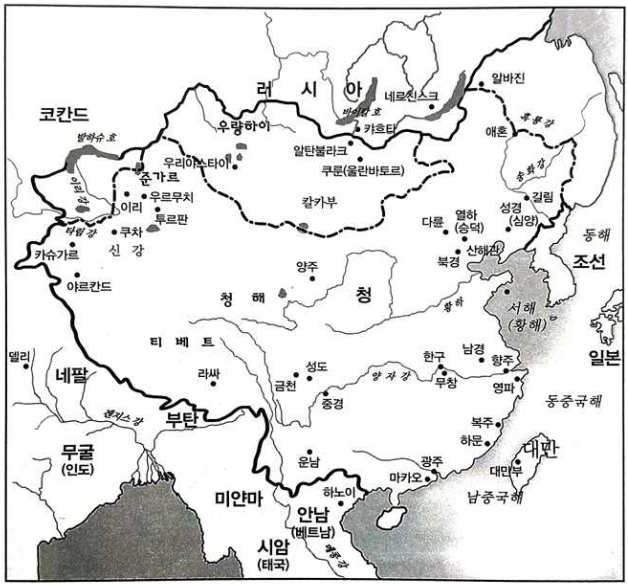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해석학적 접근을 방법론적 기초로 삼는다. 해석학적 전통 안에서도 연구자가 저자가 속했던 시대·세계관·언어의 지평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 내면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이 제기한 '텍스트와의 진정한 대화'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되, 연구자의 현재적 개념·가치관을 투사하기보다 옹정제라는 청나라 황제의 세계와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차 자료인 『대의각미록』 본문의 언어 선택, 기술 방식, 논증 구조를 민감하게 읽는 데서 출발하며, 2차 자료는 옹정제 개인에 대한 이해와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 자료로 활용한다. 이러한 독해를 통해 『대의각미록』 편찬의 진의를 옹정제의 언어와 지평 안에서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방법론적 목표이다. 이러한 해석학적 접근은 편찬의 진의를 재구성하는 3장에 우선 적용된다. 기획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4장에서는 문헌 자체 논증의 모순을 짚는 한편,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이론을 보조적으로 차용한다.

이어지는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옹정제의 생애와 통치 스타일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대의각미록』을 기획한 배경을 짚어본다. 3장에서는 편찬의 진의를 대의와 소의라는 두 축에서 분석한다. 4장에서는 그 기획이 실패

한 원인을 옹정제와 청 황실의 자기모순(내부)과 한족 백성의 불복종(외부)이라는 두 축에서 살펴본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발견을 종합하고, 그 함의와 한계를 짚은 후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Ⅱ. 옹정제의 생애와 통치 스타일: 불안한 정통성과 확신에 찬 군주

강건성세(康乾盛世)는 강희제(康熙帝, 1654-1722), 건륭제(乾隆帝, 1711-1799)에 이르는 청조의 전성기를 일컫는 말로, 청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풍요로웠던 시기를 가리킨다. 이 시기 청은 명의 두 배가 넘는 영토를 확보하여 당시 러시아 다음가는 대제국을 이루었고, 인구는 1650년 약 1억 3천만에서 1800년 3억을 넘어설 만큼 세계사에 유례없는 팽창을 기록했다(엘리엇 2009, 60). 또한 강희제는 61년, 건륭제는 60년을 통치하여 각각 중국 역사상 최장 재위와 최장수를 기록한 황제로 꼽힌다(강정만 2019; 옌 총니엔 2007). 이 두 황제 사이 옹정제의 재위는 13년에 불과하다. 강희제와 건륭제의 치세에 가려 옹정제는 두 거인 사이의 과도기적 인물로만 여겨지고 독자적인 조명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폐정을 바로잡고 아들이 누릴 성세의 실질적 토대를 닦은 것은 다름 아닌 옹정제였다. 즉, 그는 두 전성기를 잇는 연결점이자 강건성세를 가능하게 한 주역이었다. 본 장에서는 이어지는 3장과 4장의 예비적 고찰로서 옹정제의 생애와 통치 스타일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청조의 최대 판도(실선)와 현재 중국 국경(점선)[13]

1. 험난한 즉위와 갑작스러운 죽음[14]

옹정제[15], 애신각라 윤진(愛新覺羅 胤禛)은 강희 17년(1678) 강희제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강희제는 모두 서른다섯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성년까지 자라 서열을 받은 아들만 스무 명이 넘었다. 생모 덕비(德妃) 오아씨(烏雅氏)[16]는 신분이 낮은 궁녀 출신으로 윤진은 적자(嫡子)가 아

13) 출처: 이시바시 다카오(2009), p.17.
14) 본 절의 내용은 강정만(2019)과 옌 총니엔(2007)을 주로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15) 옹정제의 묘호는 세종(世宗), 시호는 헌제(憲帝)이다.
16) 덕비의 할아버지는 포의(布衣, 황실의 노예신분)였다. 옹정제는 즉위 직후 생모를 인수황태후(人壽皇太后)로 추존한다.

니었다. 출생 당시 생모는 신분이 낮아 황자를 직접 기를 권한이 없었기에, 그는 생모 곁을 떠나 자식이 없던 효의황후(孝懿皇后)의 손에서 자란다. 생모와 달리 양모인 효의황후는 황실 최고 명문가인 동가씨(佟佳氏) 출신으로 그 위상이 대단히 높았으며, 그녀의 남동생 융과다(隆科多)는 당시 수도의 병권을 쥔 보군통령(步軍統領)으로, 훗날 강희제 사후 유조(遺詔)로 옹정제의 황위 계승을 선포하는 핵심 인물이 된다.

강희제는 강희 14년(1675) 두 살배기 둘째 아들 윤잉(胤礽, 1674-1725)을 황태자로 책봉한다. 그러나 윤잉은 품행 문제로 강희 47년(1708) 폐위되고, 이듬해 복위되지만 강희 51년(1712) 붕당 및 황위 찬탈 기도를 이유로 다시 폐위된다. 이후 후계자 자리를 놓고 황자들 간의 치열한 세력 규합과 쟁탈전이 벌어진다. 장남인 윤제(胤禔)가 제일 먼저 태자 자리를 노렸으나 부친의 미움을 사 실패하고, 이후 황자들은 넷째 윤진, 여덟째 윤사(胤禩) 등을 중심으로 분열되었다. 이 중 열넷째 윤제(胤禵)는 윤진과 생모가 같은 친동생이었으나, 정작 윤진이 아닌 이복형 윤사의 편에서 윤진과 대립했다.

강희 61년(1722) 강희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윤진은 융과다가 전한 유지에 따라 황위를 이었다. 그러나 그의 즉위는 처음부터 정통성 시비에 휩싸이게 된다. 『청세종실록』을 비롯한 관찬 사료는 강희제의 유조로 윤진을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전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강희제가 본래 열넷째 윤제에게 제위를 물려주려 했으나 유지가 조작되었다는 소문[17]이 끊

17) 찬탈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강희제 유조의 "傳位十四子(열넷째에게 전위)"에서 옹정제가 '十'을 '于'로 고쳐 "傳位于四子(넷째에게 전위)"로 조작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청대 유조가 만주어와 한문으로 병기되었다는

이지 않았다. 즉위 후 옹정제가 그와 경쟁했던 형제들을 잇달아 숙청하면서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급기야 옹정제가 황위를 노려 부친 강희제에게 독이 든 인삼탕을 올렸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훗날 증정이 열거한 십대 죄상의 첫 번째가 바로 '부친 모해(謀父)'였던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결과였다.

한편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 즉위한 옹정제는 옹정 13년(1735) 원명원에서 돌연 세상을 떠난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는 몸이 다소 불편하긴 했으나 8월 21일까지 정사를 돌보았고, 22일 병세가 악화되어 어의의 응급조치를 받은 후, 이튿날인 23일 승하하였으니, 말 그대로 급사였다(옌 총니엔 2007, 220-221). 옹정제의 공식 사인은 밝혀지지 않아 이후 그의 죽음을 두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였다. 그의 사인을 다루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그가 제위 13년 만에 돌연사하였다는 사실만을 언급해 둔다.

2. 근면한 자기 확신의 개혁가

옹정제는 13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 동안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개혁을 밀어붙인 군주였다. 그는 강희제가 남긴 구조적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했으며, 특유의 추진력으로 청조의 기틀을 재편·강화하고자 하였다. 옹정제의 개혁은 전방위에 걸쳤다. 그는 관료의 기강을 바로잡고(이치정돈, 吏治整頓), 밀절제도(密摺制度)[18]를 확대하여 관리들을 직접 감찰하

점, 당시에는 '于'가 아닌 번체자 '於'로 썼다는 점 등에서 이는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후대의 전승으로 여겨진다.

18) 밀절(蜜折)이란 기밀문서를 가리킨다. 접은 종이에 장계(狀啓, 보고서)를

였다. 또한 지방관이 사사로이 걷던 부가세를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키고(화모귀공, 火耗歸公)[19], 이를 재원으로 관리에게 청렴 수당을 지급하는 양렴은(養廉銀)을 도입하여 부패의 구조적 뿌리를 끊고자 하였다. 나아가 군기처(軍機處)[20]를 창설하여 황제로의 권력 집중을 완성하였고, 소수민족 지역에 개토귀류(改土歸流)[21]를 실시하였으며, 인두세를 토지세에 통합하는 탄

쓰고 겉에다 봉투를 덧씌운 것을 절(折)이라 한다. 옹정제는 강희제 때부터 실시되었던 주절(奏折)제도를 더더욱 완비시켰다. 장계는 황제로부터 특별 윤허를 받은 관리만 올릴 수 있는데 강희제 때는 그 자격이 부여된 관리가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옹정제 때는 1,200명으로 늘어났다. 황제는 장계를 통해 관리와 교류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장계의 처리과정은 '내각신료에게 알리지 말라'는 규약 때문에 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옌 총니엔 2007, 213-214)

19) 화모(火耗)란 백성이 세금으로 낸 은자나 은제품을 관아에서 다시 녹여 주조할 때 발생하는 손실분을 말한다. 지방 관리들은 이를 명목으로 백성에게 부가세를 거두었는데(가령 은자 1냥에 2-3전), 실제 손실보다 많이 징수하여 차액을 착복하는 폐단이 심하였다. 옹정제는 옹정 2년(1724) 화모귀공(火耗歸公)을 시행하여 이 부가세를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키고, 그 일부를 관리에게 청렴 수당인 양렴은(養廉銀)으로 지급하였다. 박봉에서 비롯된 관리의 부패를 구조적으로 완화하려는 조치였다(강정만 2019, 289).

20) 군기처는 황제의 정책결정과 행정을 보필하는 기구이다. 주요 업무는 매일 황제를 알현하고 군정업무를 상의해서 처리하며 황제의 교지를 각 부처와 지방에 하달하는 것이다. 원래 청나라의 군정요처는 의정처, 내각, 군기처 3곳으로 군무는 의정처에서 하고 정무는 내각에서 처리했다. 군기처 창립 후 군정은 군기처에 소속되었고 일반정무는 내각에 귀속되었다. 군기처의 권한은 내각보다 훨씬 상위에 있어 내각의 역할은 점차 기무에서 밀려났다. 군기처의 설립은 황제 전제가 극으로 치달았음을 나타낸다. 군기처를 통해 청나라 황제는 모든 국가 기강을 독단할 수 있었다. (옌 총니엔 2007, 215-216)

21) 운남, 귀주, 광동, 광서, 사천, 호남, 호북 등 소수민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대대로 세습해오던 토사(土司, 부족의 족장)가 관할했다. 옹정제 이전에도 일부 개토귀류를 실시하였으나 옹정제 때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토사제도는 완전 폐지되었다. 개토귀류란 이들 소수민족 거주지역에 부(府), 청(廳), 주(州), 현(縣)을 설립하고 토사의 세습이 아니라 중앙에

정입무(攤丁入畝)[22]로 세제를 개혁하였으며, 천민 신분을 없애는 천적(賤籍) 폐지를 단행하였다. 이 개혁들은 모두 강희제 말년의 느슨한 통치가 남긴 관료의 부패와 국고 결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옹정제는 짧은 재위 기간 내에 청조의 행정과 재정을 재건하여 뒤이은 건륭성세의 실질적 토대를 닦았다(옌총니엔 2007, 212-218).

이러한 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근면함이었다. 옹정제는 스스로를 "소한(宵旰)[23]하며 정무에 고심하고 힘써서, 먹고 잘 겨를조차 없었다(宵旰憂勤 , 不遑寢食)"고 자평하였으며(옹정제 2021, 88) 실제 하루 네다섯 시간만을 자며 정무에 몰두했다. 강희제와 건륭제가 각각 여섯 차례 강남을 순행(巡幸)한 것과 달리 옹정제는 재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순행에 나서지 않고 자금성을 지켰다. 그의 근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주비유지(硃批諭旨)이다. 그는 전국의 관리들이 올린 주접(奏摺)에 붉은 붓으로 직접 답을 달았는데, 재위 13년간 그가 처리한 주접은 4만여

서 파견된 임기제의 유관(流官)이 지배하는 제도이다. (옌 총니엔 2007, 216)

22) 중국 역대왕조는 토지세와 인두세를 분리 징수하였다. 모든 장정은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인두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강희 51년(1711)이후 "성세에 불어난 인정에게는 영구히 인두세를 걷지 않는다."는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태어난 인구는 여전히 인두세를 내야만 했다. 옹정제는 즉위 원년부터 인두세를 지세에 편입시키는 탄정입무 제도를 실시했다. 법적으로 인두세를 없앰으로써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빈곤층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 제도의 실시로 청나라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도광 연간에 중국 인구가 4억명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인두세 폐지에 따른 활발한 경제 활동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강정만 2019, 292-293; 옌 총니엔 2007, 217)

23) 날이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저녁을 먹음

건, 제본(題本)[24]이 19만여 건에 이르며, 그가 비답으로 남긴 글자는 평생 약 1천만 자에 달하였다. 어떤 비답은 본래의 주접보다 길어 수백, 수천 자에 이르기도 하였다(옌 총니엔 2007, 218). 그는 이렇게 주비유지를 통해 신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높은 효율로 밀도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옹정제가 이처럼 초인적인 업무량을 통해 모든 정무를 직접 챙긴 것은 그의 뚜렷한 통치 철학에 기인한다. 그는 지역 관료들의 전단(專斷), 곧 신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군권(君權)에 대한 침해로 여겼으며, 대소 사안의 최종 판단을 황제 일인에게로 회수하고자 하였다(옹정제 2021, 19). 주비유지는 그 철학의 실천이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신하든 반대자든 논리로 설득하여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주비유지에서 신하의 견해를 직접 반박하고 바로잡던 이 방법은 훗날 증정의 역서에 조목조목 답하며 증정의 전향을 유도한 『대의각미록』의 방식과 닮아 있다.

Ⅲ. 『대의각미록』 편찬의 진의: 대의(大義)와 소의(小義)의 사이에서

본 장에서는 옹정제가 『대의각미록』을 편찬한 진의를 대의와 소의라는 두 축,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긴장 속에서 살펴본다.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 이 기획의 일차적

24) 명청시기 공식적 보고 형식으로, 관리가 업무 진행 문제나 지방 현안에 대해 상소와 보고서를 올리면 이를 내각에서 처리해 황제에게 전하는 형식이다(옹정제 2021, 19).

명분은 “대의로써 미혹을 깨우치는(覺迷)”데 있었다. 그 대상은 이적(夷狄)의 통치를 부정하는 한족 지식인과 백성들이었다. 그렇다면 옹정제가 말하는 대의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군주와 신하 사이의 마땅한 도리, 즉 군신대의(君臣大義)에 그치지 않는다. 증정과 여유량[25]은 화이의 구별이 군신의 의리에 앞선다고 보아, 이적인 청에게는 충성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옹정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유교적 보편주의에 입각한 ‘유덕자 군주론’을 강조하고, 종족·지역 중심의 화이관을 넘어선 대일통의 정통론을 정립하고자 했다. 그는 이러한 대의를 철저히 한족의 언어로, 그들의 유교 논리에 입각하여 설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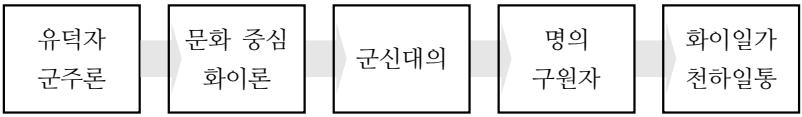
그런데 『대의각미록』은 보편적 ‘대의’의 담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옹정제는 대의를 역설하는 동시에, 자신을 겨냥한 개인적 무고를 해명하고 즉위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소의’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증정이 열거한 십대 죄상을 하나하나 논박하고, 자신의 즉위 정당성을 거듭 설명하는 대목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전자를 유교적 정통성과 보편 가치를 지향하는 ‘대의’, 후자를 옹정제 개인의 사적 해명과 권력 정당화를 위한 ‘소의’로 규정한다. 대의를 내건 거대한 기획에 사적인 소의가 함께 얽혀 있었다는 점, 이 둘의 구조적 긴장이야말로 『대의각미록』이라는 텍스트의 성격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옹정제가 말하고자 했던 대의와 소의를 차례로 살펴본다.

---

25) 여유량(呂留良, 1629~1683)은 명말청초의 학자로, 주자학에 근거하여 화이의 구별을 엄격히 하는 종족·지역 중심의 화이관을 전개하였다. 명의 유민을 자처하여 청조에 출사하지 않았으며, 그의 저술에 감화된 증정이 역모를 도모하였다. 증정 사건 당시 그는 이미 사망한 뒤였으나 옹정제에 의해 부관참시되었다.

1. 대의: 군신대의(君臣大義)에서 천하일통(天下一統)까지

『대의각미록』 기획을 통해 청조 지배의 정통성을 확립하려 했던 옹정제의 대의 논증은 다음 다섯 단계로 전개된다.



〈그림 3〉 옹정제의 대의(大義) 논리 전개

· 유덕자 군주론(有德者 君主論)

역모를 권하는 서신에서 증정이 주장하는 것은 이적인 청이 중국을 지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옹정제의 반박을 관통하는 대전제는 바로 '유덕자 군주론' 이다. 그는 『대의각미록』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는 1권 첫 번째 상유를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 예로부터 천하를 소유한 제왕들은 만민을 위무하고 보호하며 은혜를 사해에 베풀지 않음이 없었다. 상천의 돌보심과 명을 받고, 억조 백성들의 환심을 한데 모음으로써, 환구를 통일시키고 대대로 복을 드리울 수 있었다. 인민을 생육하는 도란 덕있는 자가 천하의 군주가 되는 데에 있을 뿐이다(옹정제 2021, 71).[26]

26) 원문: 自古帝王之有天下，莫不由懷保萬民，恩加四海，膺上天之眷命，協億兆之懽心，用能統一寰區，垂庥奕世。蓋生民之道，惟有德者可為天下君。

옹정제는 또한 『서경』에 등장하는 "황천께서는 친애하는 자가 따로 없다. 오직 덕이 있는 자만을 보호하신다(皇天無親, 惟德是輔)"(옹정제 2021, 119)는 문구를 근거로, 천명의 기준은 출신 지역이나 종족이 아니라 오직 덕이라고 선언한다. 천명이 오직 덕에 따라 주어진다면, 천명을 받을 자격은 특정 종족이나 지역에 독점되지 않는다. 만주족이 이적이라는 것은 천하의 주인이 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관건은 오직 덕을 갖추었는가에 있을 뿐이다. 옹정제는 이 논리에서 청조야말로 덕으로써 천명을 받은 정당한 왕조임을 입증해 나간다.

옹정제는 먼저 청조가 천하를 얻은 과정 자체가 덕의 증거라고 말한다.

> 본조가 천하를 얻은 것은 단지 병력을 양성해서가 아니다. 태조고황제의 개창 초기, 갑옷 입은 병사는 겨우 13명에 불과했지만, 이후에 아홉 성의 군대를 규합하여 사로의 명나라 병력을 물리쳤다. 세조장황제께서 경사에 들어오셨을 때, 군사는 10만을 넘지 못했다. 10만의 병력을 가지고 15성의 천하를 복종시켰으니, 인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일이었겠는가! 진실로 도덕으로 감동시키고 믿음을 얻어서, 황천이 돌보고 민심이 순종하게 되었고 하늘이 명을 내리고 인민이 귀의한 것이다(옹정제 2021, 119).[27]

나아가 그는 이렇게 얻은 천하를 청조가 덕으로 지켜왔음을 강조한다.

---

27) 원문: 本朝之得天下，非徒事兵力也。太祖高皇帝開創之初，甲兵僅十三人，後合九姓之師，敗明四路之眾。至世祖章皇帝入京師時，兵亦不過十萬，夫以十萬之眾，而服十五省之天下，豈人力所能強哉？實道德感孚，為皇天眷顧，民心率從，天與人歸。

> 우리 국가는 동토에서 창건하였고, 열성(列聖)께서는 대를 이어가면서 만방(萬邦)을 보호하였다. 하늘이 굳게 보우하사, 도덕과 교화를 널리 펼치고 은혜는 먼 곳까지 두루 미쳐 편안한 자리에 생민을 올려놓았으니, 모든 중외의 인민으로부터 존경과 친애를 받은 지 백 년 이상 되었다(옹정제 2021, 72).[28]

요컨대 옹정제는 청조의 정통성을 무력이 아닌 덕에서 찾고 있다. 소수의 군대로 중원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청조의 덕에 감동한 천명과 민심의 귀의 덕분이며, 그 덕치가 백 년이 넘게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덕자 군주론은 증정이 제시한 화이론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진다. 천명의 기준이 지역·종족이 아닌 덕이라면, 그에 기반한 화이론 역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문화 중심 화이론(華夷論)

중국의 화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지역·종족 중심의 화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 중심의 화이론이다. 전자는 화이지변(華夷之辨) 또는 화이분별(華夷分別)이라고도 하며, 화와 이를 가르는 기준을 태어난 지역과 종족에 두고, 중화와 이적은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화이의 구분이 군신(君臣)의 의리에 우선한다고 본다. 반면 문화 중심의 화이론은 화이일가(華夷一家), 중외일통(中外一統) 등으로도 표현되며, 화이를 가르는 기준을 종족이 아닌 문화적 수준과 도덕성에 둔다. 이 관점에서는 이적이라도 예(禮)와 덕(德)을 갖추면 중화가 될

28) 원문: 我國家肇基東土，列聖相承，保乂萬邦，天心篤祐，德教弘敷，恩施遐暢，登生民於衽席，徧中外而尊親者，百年於茲矣。

수 있으며, 화와 이의 구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증정과 그에게 영향을 준 여유량의 화이관은 전자에 속하고 옹정제의 화이관은 후자에 속한다. 지역·종족 중심의 화이관은 선진(先秦) 시대에 연원을 두고 명대의 방효유(方孝孺), 명말청조의 황종희(黃宗羲) 등으로 이어져 내려온 뿌리 깊은 관념이었다(李治亭 2021, 128). 증정은 역모를 권하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화이관을 드러낸다.

> 하늘이 사람과 동물을 낳을 때, 천리에서는 하나이지만 기질에 따라 구별이 있게 하였다. 중토에서 태어나 올바름을 얻고 음양의 덕이 합해지면 사람이 되고, 사방의 변경에서 태어나 마음이 치우치고 음험하며 비뚤어지고 올바르지 않으면 이적이 되는 것이다. 이적 아래는 금수다(옹정제 2021, 138).[29]

옹정제는 이들의 화이관을 유가 경전에 근거하여 반박한다. 그는 한인들이 성인으로 추앙하는 순임금과 문왕조차 이적 출신이었음을 상기시킨다.

> 맹자는 순(舜)은 동이(東夷) 사람이었고, 문왕(文王)은 서이(西夷) 사람이었다고 하였다. 맹자가 그 태어난 곳을 가지고 말한 바는 지금 사람들의 적관과 같은 것을 뜻할 뿐이다(옹정제 2021, 121).[30]

---

29) 원문: 天生人物，理一分殊，中土得正，而陰陽合德者為人，四塞傾險而邪僻者，為夷狄。夷狄之下為禽獸。

30) 원문: 孟子云：「舜東夷之人也，文王西夷之人也。本其所生而言，猶今人之籍貫耳。

또한 “중국에 살더라도 이적과 같은 짓을 하면 이적이요, 이적이라도 중국과 같이 한다면 중국”이라는 한유(韓愈)의 글을 소환하고(옹정제 2021, 80),[31] “삼대 이전에는 오늘의 호남·호북·산서조차 이적의 땅이었다”[32]는 역사적 상대성을 지적한다(옹정제 2021, 76). 옹정제는 또한 사람과 금수를 가르는 기준이 화이가 아닌 인륜의 실천여부라 지적한다. 군주를 존경하고 법도를 지키는 몽고의 부족들을 금수라 할 수 없는 반면(옹정제 2021, 118),[33] 천륜을 저버린 증정이야말로 ‘한인의 금수’라는 것이다.

이처럼 옹정제는 화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지역이나 종족이 아닌 덕과 예에 두고 있다. 이적도 덕을 갖추면 중화가 될 수 있으니, 덕으로 천명을 받은 청조가 천하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증정과 여유량에게는 화이의 구별이 군신의 의리보다 앞서는 것이었다. 옹정제는 이제 이 순서를 바로잡고자 한다.

· 군신대의 (君臣大義)

증정은 『지신록』에서 화이의 구분이 군신의 도리보다 크고, 사람과 이적 사이에는 군신의 구분이 없으므로 청조의 통치를 거부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친다. 이들이 근거로 삼

31) 원문: 韓愈有言：中國而夷狄也，則夷狄之；夷狄而中國也，則中國之。
32) 원문: 且自古中國一統之世，幅幀不能廣遠，其中有不向化者，則斥之為夷狄。如三代以上之有苗、荊楚、玁狁，即今湖南、湖北、山西之地也。在今日而目為夷狄可乎？
33) 원문: 至於今日蒙古四十八旗，喀爾喀等，尊君親上，慎守法度，盜賊不興，命案罕見，無奸偽盜詐之習，有熙皞寧靜之風，此安得以禽獸目之乎？

는 것은 관중(管仲)의 고사이다. 관중은 제환공의 이복형인 공자 규(糾)를 모셨는데 규는 결국 제환공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후 관중은 포숙아의 진언(進言)으로 환공에게 기용되어 국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중을 공자는 인(仁) 하다고 평가한 것이다(옹정제 2021, 199). 공자가 관중을 칭찬한 이유가 곧 관중이 군신의 작은 의리를 넘어 오랑캐로부터 중원을 지켰기 때문이며(尊王攘夷), 이것이 곧 "화이의 대의가 군신의 의리보다 크다"는 취지라는 것이다(옹정제 2021, 13).

옹정제는 이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유교 윤리의 근간인 오륜(五倫)에서 군신의 의리가 그 첫째임을 들어, 군주에 대한 충성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대의임을 강조한다.

> 무릇 사람이 사람되어 금수와 구분되는 까닭은 이 윤상의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륜을 인륜이라 하니, 하나라도 결여되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군신의 관계는 오륜 가운데 으뜸이다. 천하에 군주가 없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사람이라일컬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면서 무군(無君)의 마음을 품는데도 금수라고 말하지 않으려는가? (옹정제 2021, 82-83)[34]

이로써 옹정제는 덕있는 군주라면 이적 출신이라도 충성의 대상이 되며, 오히려 군주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인륜을 저버리는 금수가 하는 행동임을 역설한다. 그렇다면 청조는 어떻게 정당한 군주가 될 수 있는가? 옹정제는 다음으로 청이 명을 무너뜨린 찬탈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자였음을 논증한다.

---

34) 원문: 人之所以為人，而異於禽獸者，以有此倫常之理也。故五倫謂之人倫，是缺一則不可謂之人矣。君臣居五倫之首，天下有無君之人，而尚可謂之人乎？人而懷無君之心，而尚不謂之禽獸乎？

· **명의 구원자**

옹정제에 따르면 청과 명은 “보복의 의리로 논하자면 적국이었지만, 교류의 예로 논하자면 이웃국가[35]”였다(옹정제 2021, 116). 선대의 원한이라는 복수의 명분이 있었지만 청은 이웃국가의 예를 지켰다는 것이다. 그는 청이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명을 침략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 명의 천하를 취하려고 했다면 일찌감치 취했을 것인데, 유적(流賊)이 쇠잔해지기를 기다렸겠는가? 오로지 인의를 마음에 두었기에, 그 국가를 대체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뿐이다”(옹정제 2021, 157).[36]

그의 논리에 따르면 명의 천하를 실제로 무너뜨린 것은 유적 이자성(李自成)이었다. 증정은 청의 중원 지배를 강도질에 빗대어 “이적이 천위(天位)를 도적질하고 중화를 더럽힌 것은, 마치 강도가 집 재산을 빼앗고 또 우리 주인을 밖으로 내쫓아 우리집을 점거하려는 것과 같다”(옹정제 2021, 201)[37] 고 하였다. 옹정제는 바로 그 강도의 비유를 그대로 사용해 반박한다. “집안의 재산을 빼앗고 주인을 내쫓은 강도는 이자성(李自成)이며, 청은 그 강도를 잡아 다스린 존재인데, 어찌 강도를 잡아준 이에게 배상을 요구하느냐”(옹정제 2021, 201)[38]

---

35) 원문: 是本朝之於明，論報復之義，則為敵國，論交往之禮，則為與國。

36) 원문: 設若取明之天下，已早取矣，何待流賊之摧殘乎？惟以仁義為心，不肯代有其國。

37) 원문: 夷狄盜竊天位，染污華夏，如強盜劫去家財，複將我主人趕出在外，占踞我家。

38) 원문: 明朝天下亡於流賊李自成之手，是強盜劫去家財，趕出明之主人者，李自成也。我朝驅逐流寇，應天順人，而得天下，是乃捕治強盜，明罰敕法之天吏也。你等為家人者，既不能追逐李自成，索取家財，而於強盜花費家財之後，轉向捕治強盜，明罰敕法之天吏，指令賠償可乎？

는 것이다. 나아가 옹정제는 명의 백성들이 청의 인의에 심복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시 명의 신민들도 그 인의에 마음으로 복종하며 귀화하지 않음이 없었다(옹정제 2021, 117-118)"[39] 는 것이다. 요컨대 청의 입관(入關)은 맹자의 역성혁명에서 말하는 방벌(放伐)에 의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선양(禪讓)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것이다(이시바시 다카오 2011, 141). 옹정제의 대의 논증은 이제 그 귀결점, 곧 화이일가·천하일통의 선포로 나아간다.

· 화이일가·천하일통

앞선 논증들을 통해 옹정제는 청조 지배 정당성의 논리를 펼치고 마지막으로 화이일가와 천하일통을 선포하고자 한다. 그는 청의 치세를 "천하가 일통되고 화이가 일가를 이루게 된 시대"(옹정제 2021, 74)[40]로 규정하며 "해가 뜨는 바닷가 끝에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땅의 사람들"이 대일통이 청에 있음을 안다고 선포한다. 나아가 "사해 밖까지 억조의 인민"이 성조(聖祖)의 은택을 입었다고 천명한다(옹정제 2021, 382).[41]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닌 군주의 정통성이 영토적 경계를 넘어 천하에 두루 미쳐야 비로소 천명이 완성된다는 유가적 대일통의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덕으로 천명을 받고, 화이의 경계를 문화로 재정의하며, 군신의 의리를 화이론에 앞세우고, 명을 침탈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옹정제의 논증은, 이렇게 화이

39) 원문: 是以當時明之臣民，達人智士，帖然心服，罔不輸誠向化。
40) 원문: 今逆賊等於天下一統，華夷一家之時，而妄判中外，謬生忿戾，豈非逆天悖理，無父無君，蜂蟻不若之異類乎？
41) 원문: 所幸薄海之外，億人兆人，受皇考聖祖六十餘年深仁厚澤，

일가·천하일통의 선포라는 정점으로 수렴한다.

2. 소의: 개인의 결백과 황실의 안정

대의가 청조 전체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보편의 논리였다면, 소의는 옹정제 개인의 사적 해명과 권력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동기라 할 수 있다. 소의는 다시 개인의 결백과 황실의 안정이라는 두 층위로 나뉜다.

· 개인의 결백

증정이 악종기에게 전달한 서신에는 옹정제의 십대 죄상이 열거되어 있었다. 아버지를 모해하고(謀父), 어머니를 핍박했으며(逼母), 형을 시해하고(弑兄), 아우를 도륙했다(屠弟)는 것, 그리고 재물을 탐하고(貪財), 살인을 좋아하며(好殺), 술에 빠지고(酗酒), 색을 밝히며(淫色), 충신을 주살하고(誅忠), 아첨꾼을 기용했다(任佞)는 것이다. 황위 찬탈에서 개인의 품행에 이르는 이 죄상들은 하나같이 옹정제라는 개인을 겨냥하고 있다.

> 이처럼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라니, 짐이 자다가 꿈을 꿀 때도 이렇게 허황된 경우란 없었다. 실로 개나 이리가 울부짖는 소리와 같으니, 어찌 더불어 변론할 가치가 있었겠는가! 하지만 얼마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역적이 말한 것에 대해 짐의 심중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을 때에만, 회피하고 감내하면서 그런 일을 은밀히 덮어두는 것이 합당했다. 지금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짐에게 가해지고 있으나, 짐의 마음은 상천에 대질해도 좋고, 황고에 대질해도 좋으며, 천하의 억만 신민에게 모조리 알려도 좋은 것이다(옹정제 2021, 89).[42]

42) 원문: 似此影響全無之事，朕夢寐中亦無此幻境，實如犬吠狼嗥，何足與

이 대목은 개인 차원에서의 『대의각미록』 편찬 동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옹정제는 처음 증정의 서신을 접했을 때 이를 변론할 가치조차 없는 무고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고민 끝에 스스로 결백하다면 굳이 숨을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이를 방치할 경우 증정처럼 유언비어에 현혹되는 백성들이 더욱 늘어나리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옹정제는 죄상 하나하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길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부친 강희제를 모해하고 황위를 찬탈했다는 첫 번째 죄상에 대해 옹정제는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 짐이 황급히 도착하여 안부를 여쭙자, 황고께서 병증이 날로 심해지는 사정을 알려주시니, 짐은 눈물을 머금고 위로해드렸다. 그날 밤 술시(戌時)에 용어상빈하시니, 짐은 애통히 목놓아 울었고 실로 살고 싶지 않았다. 융과다가 곧 황고의 유조를 전하였는데, 짐은 듣고서 놀랍고도 비통하여 땅바닥에 까무러쳤다. (중략) 이것이 당일의 상황이니, 짐의 여러 형제들 및 궁인·내시 그리고 궁중을 오고 갔던 대소 신료와 관리들이 함께 확인하고 보았던 바이다. 짐의 형제 가운데 아기나·새사흑 등은 오랫동안 사악한 음모를 꾸미며 저위(儲位)를 바라왔었다. 황위를 주고 받을 때, 황고께서 짐에게 왕업의 위대한 토대를 맡기겠다고 한 유조를 이들이 직접 받들지 않았다면, 어찌 순순히 수긍하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신하로 복종하였겠는가? (옹정제 2021, 91-93)[43]

辯？既而思之，逆賊所言，朕若有幾微愧歉於中，則當回護隱忍，暗中寢息其事。今以全無影響之談，加之於朕，朕之心可以對上天，可以對皇考，可以共白於天下之億萬臣民。

43) 원문: 及朕馳至，問安皇考，告以症候日增之故，朕含淚勸慰。其夜戌時龍馭上賓，朕哀慟號呼，實不欲生。隆科多乃述皇考遺詔，朕聞之驚慟，昏仆於地。(중략) 此當日之情形，朕之諸兄弟及宮人內侍與內廷行走之大小臣工，所共知共見者。夫以朕兄弟之中，如阿其那、塞思黑等，久蓄邪謀，希冀儲位，當茲授受之際，伊等若非親承皇考付朕鴻基之遺詔，安肯帖無一

그리고 동생을 죽였다는 네 번째 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 이전에 여러 왕과 대신이 아기나의 대죄 40개 항목, 새사흑의 대죄 28개 항목, 윤제의 대죄 14개 항목을 나열하고, 아울러 윤아가 요사한 주술로 저주를 한 죄를 특별히 첨가하여, 그들을 처벌해 전형을 바로 세우고 국헌을 밝게 드러낼 것을 간청했었다. 짐은 거듭 주저하며, 실로 차마 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잠시 아기나를 구금해 두고, 외성의 봉강대신에게 정황을 묻고 의견을 구하여, 그들이 회신한 상소를 기다린 다음에야,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하였다. (중략) 이때 아기나가 저승의 처단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새사흑은 서녕에서 보정으로 이주시켜, 직예총독 이불의 감시를 받도록 하였는데, 역시 저승의 처단을 받게 되었다. 황고께서는 지극히 성명하고 지극히 자애로운 군부이셨지만, 아기나와 새사흑 등에 대해서는 이를 갈며 마음 아파하셨으니, 그들이 불충불효의 죄를 짓고도 어찌 천벌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 (옹정제 2021, 98-103)[44]

이처럼 옹정제는 십대 죄상을 항목마다 조목조목 논박하며, 해명의 전 과정을 천하에 공개하였다.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 없기에 감출 것도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語，俯首臣伏於朕之前乎？

44) 원문: 從前諸王大臣臚列阿其那大罪四十款，塞思黑大罪二十八款，允禵大罪十四款，又特參允祄鎮魘之罪，懇請將伊等立正典刑，以彰國憲。朕再四躊躇，心實不忍，暫將阿其那拘禁，降旨詢問外省封疆大臣，待其回奏，然後定奪。仍令太監數人供其使。令一切飲食所需，聽其索取。不意此際阿其那遂伏冥誅，塞思黑從西寧移至保定，交與直隸總督李紱看守，亦伏冥誅。夫以皇考至聖至慈之君父，而切齒痛心於阿其那、塞思黑等，則伊等不忠不孝之罪，尚安有得逃於天譴者乎？

· **황실의 안정**

개인의 무고에 대한 해명과 즉위 정당성 외에 『대의각미록』 편찬의 소의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황실의 안정이다. 옹정제는 스스로가 치열한 황위 쟁탈전의 생존자였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 황태자 윤잉이 두 차례 폐위된 후(1708, 1712), 강희제는 황권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서거 때까지 약 10년간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다. 그 사이 황자들은 파벌을 이루어 치열하게 경쟁·반목했다. 결국 옹정제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만 44세의 나이에 제위에 올랐으나, 그 대가로 황위 찬탈과 형제 살해라는 의혹이 그를 따라다녔다. 증정이 열거한 십대 죄상은 항간에 떠돌던 그에 대한 소문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었다. 옹정제는 이러한 결과가 강희제가 서거 직전까지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았다. 그는 즉위 직후인 옹정 원년(1723), 후계자의 이름을 쓴 조서를 건청궁 '정대광명(正大光明)' 편액 뒤에 밀봉해 두는 '태자밀건(太子密建)' 제도를 창안한다(옌 총니엔 2007, 219). 후계자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태자를 둘러싼 파벌의 형성을 차단하되, 계승 자체는 확정해 두는 방식이었다. 이는 자신이 겪은 황위 쟁탈의 과정을 아들 대에서 반복시키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를 제도화한 것이었다.



〈그림 4〉 자금성 건청궁의 정대광명 편액[45]

청조 자체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증정의 서신은 옹정제 개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이적 왕조인 청의 지배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옹정제가 물려줄 제위가 온전하려면 자신이 강희제의 정당한 계승자라는 것과, 청이 천명을 받은 정당한 왕조라는 것이 모두 확립되어야 했다. 만약 이 두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계자에게 넘어갈 것이었다. 요컨대 옹정제에 있어 대의와 소의를 밝히는 것은 모두 다음 세대에 온전한 제위를 물려주기 위한 정통성의 토대를 이중으로 다지는 작업이었다.

45) 출처: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正大光明 - panoramio.jpg (검색일: 2026년 8월 30일)

따라서 『대의각미록』에는 청조의 보편적 정통성을 밝히는 대의와, 옹정제 개인의 결백과 황실의 안정을 도모하는 소의가 한 텍스트 안에 함께 담기게 되었다. 옹정제는 이 야심찬 기획을 통해 자신이 의도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확신과 달리 이 기획은 안과 밖에서 좌절을 맞는다. 다음 장에서는 그의 대의와 소의가 왜, 그리고 어떻게 실패로 귀결되었는지 살펴본다.

Ⅳ. 『대의각미록』 실패의 원인: 옹정제의 자기모순과 한족의 불복종

옹정제의 『대의각미록』 기획은 실패로 끝난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아들 건륭제였다. 그는 즉위 두 달여 만인 1735년 12월, 부황의 유명을 어기고 증정을 처형하였으며, 전국에 배포된 『대의각미록』을 모두 회수하여 금서로 지정하였다. 그는 이 책이 도리어 옹정제를 의심하게 하고, 궁중 비사를 천하에 누설하여 반청 심리를 키운다고 보았다(리아오 2008, 475). 실제로 한인 지식인들과 백성들은 황제의 반박보다 책 속에 공개된 죄상의 세부내용에 더 주목하였고, 유언비어는 소멸되기는커녕 사람들의 머릿속에 더 깊이 각인되었다. 민간의 불신은 새로운 서사를 생산했다. 옹정제가 여유량의 후손 여사낭에게 살해당했다는 설화와 건륭제가 실은 한족이라는 설화가 널리 유통된 것은, 한족 백성들이 황실의 공식 해명보다 대항 서사를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실패의 흔적은 청말까

지 이어진다. 종족·지역 중심의 화이관은 그 뒤로도 생명력을 유지하여 1903년 쑨원(孫文)은 “만주족 오랑캐를 몰아내고 민족국가를 광복하자”(李治亭 2021, 131)[46]고 외치는가 하면, 『대의각미록』이 청말 반청운동의 핵심 텍스트로 활용된 것이다(이동욱 2019, 166; 2022, 64-67).

본 연구가 『대의각미록』을 통해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옹정제의 의도가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지배가 어떻게 정당성을 얻는가에 관한 고전적 논의는 막스 베버에게서 찾을 수 있다. 베버는 사람들이 지배에 복종하는 근거를 전통적·카리스마적·합법적 정당성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베버 2011). 하지만 이러한 베버의 복종에 관한 설명은 그 근거를 유형화했을 뿐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의 여부는 구별하지 않는다. 한편 맹자는 복종을 심복(心服)과 역복(力服)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힘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 복종하는 것이요, 덕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니, 일흔 명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맹자 2021, 117)”[47] 하였다. 옹정제가 『대의각미록』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바로 이 심복이었다. 힘에 의한 백성들의 승복이 아닌 마음으로부터의 승복, 곧 왕도를 지향한 것이었다. 요컨대, 본 연구가 말하는 기획의 실패란 옹정제가 역복은 이미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끝내 심복

46) 원문: 中国者，中国人之中国；中国之政府，中国人任之。驱除鞑虏之后，光复我民族国家。

47) 원문: 以力服人者， 非心服也，力不赡也。以德服人者，中心悦而誠服也，如七十子之服孔子也。

을 얻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옹정제는 왜 심복을 얻지 못했을까? 그 원인은 기획의 안과 밖 모두에 있었다. 1절에서는 내부 원인으로 옹정제와 청 황실이 안고 있던 자기모순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외부 원인으로 왜 한족이 이 기획에 승복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본다.

1. 내부 원인: 옹정제와 청조의 자기모순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기획 내부, 곧 옹정제와 청조 스스로가 안고 있던 자기모순에 있었다. 이 모순은 논증의 내용과 설득의 방식 두 측면에서 나타났다.

· 화이일가의 이면

옹정제의 정통성 확보 논지의 핵심은 '문화 중심의 화이론'이다. 그는 이를 근거로 화이일가·천하일통을 주창한다. 화이를 가르는 기준은 지역과 종족이 아닌 문화적 수준과 도덕성에 있으며, 유덕자라면 이적도 중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청조의 통치는 이 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우선 청조는 입관 초기부터 만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만한 통혼을 금지하고, 만주족의 근거지인 동북지역에 한인의 이주를 막는 봉금정책을 실시하였다(이동욱 2019, 165). 특히 청조 지배의 근간인 팔기(八旗)는 만주족을 중심으로 한 특권 신분 집단이었다. 팔기에 속한 기인은 기지(旗地)의 지급과 법적 보호, 충분한 공급, 독자적인 과거 시행 등의 우대를 받으며 일반 백성과 명확히 구분되는 엘리트 계급을 이루었다. 한인들은 자신들은 누리지 못

하고 팔기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만주족의 특권으로 보았다(엘리엇 2009, 52; 이시바시 다카오 2011, 105).

더욱 주목할 점은, 옹정제가 『대의각미록』을 편찬 하던 그 무렵에 바로 만주족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만주족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팔기 개혁을 단행하면서, 만주어와 궁술로 대표되는 만주족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엘리엇 2009, 477-482). 이러한 모순은 옹정제 자신의 언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만주족의 의관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 왕조는 동토로부터 일어나 천명을 이어받고 본래부터 우리 왕조의 의관이었던 것을 착용한 채 천하 백성의 주인이 되었다. 이는 상천의 대명이 우리 조종의 공덕에 모인 것이며, 하늘이 만방에 법식이 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중략) 하물며 우리 왕조는 선조들의 큰 계획을 시행하고 열성의 완성된 규범을 받들어 대를 이어 계승한 것이 이미 100여년인데, 어찌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남을 따르며 존귀한 것을 굽히고 비천한 것에 나아가 의관을 변경할 리가 있겠는가?(옹정제 2021, 229).[48]

화이일가·천하일통의 논리대로라면 화와 이 사이에 존비가 있을 수 없음에도, 만주족 의관을 존귀한 것에, 한족의 의관을 비천한 것으로 표현하는 이 언어는 그의 내면에 자리한 만주족 우월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실제 청조는 입관 후 한인들에게 변발령을 내리는 등 만주족식 의관을 강요하였다.

48) 원문: 夫衣冠既為天心降鑒之所在，則奕世相傳，豈容擅為改易乎！且如曾靜以山野窮僻、寘頑無知之人，尚因妄逆之見，心念故明之衣冠，況我朝席祖宗之鴻業，奉列聖之成規，歷世相承，已有百餘年，豈有舍己而從人，屈尊而就卑，改易衣冠之理乎？

나아가 『대의각미록』 반포 무렵부터 청조는 화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중외일통(中外一統)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다. 중외일통 용례 103회 가운데 101회가 청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첫 용례가 다름아닌 옹정제 자신의 유지였다(李治安 2023, 33). 이는 이적이라는 명칭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며 화이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천하에 선포한 황제가, 정작 스스로가 '이(夷)'라 불리는 것은 피하고 싶은 내심을 보여준다.

요컨대 옹정제와 청조가 내건 화이일가·천하일통의 언어는 그들의 실제 통치 행위, 그리고 내면의 만주족 우월의식과 양립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3장에서 살펴본 대의의 정교한 논리는 이렇게 안에서부터 공동화(空洞化)되고 있었던 것이다.

· 설득 방식의 결함

자기모순은 표리부동한 논증의 내용에만 있지 않았다. 옹정제가 『대의각미록』에서 선택한 설득의 방식 자체도 독자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것이었다. 첫째, 옹정제의 반박은 주로 검증 불가능한 닫힌 증언에 의존하였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이는 형제들과 대소 신료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옹정제 2021, 89), "천하의 신민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옹정제 2021, 124)" 이라는 식으로 반박의 논지를 전개한다. 하지만 민간의 독자는 그 증인들을 만날 수도, 검증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황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증거로서의 힘을 갖기 어렵다.

둘째, 강요된 전향이다. 이 책이 자발적 전향의 증거로 내세운 증정의 참회 또한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각미(覺迷)'라는 제목은 미혹된 자가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증정의 참회는 개인의 목숨과 일족의 존망이 황제의 처분에 달린 신문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절대 권력자인 황제와 역모를 시도한 죄수라는 극단적 비대칭 관계에서 나온 참회를, 자발적인 깨달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실제로 옹정제가 증정은 사면하였지만 여유량 일족을 문자옥(文字獄)으로 다스려 참수·유배시킨 점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옹정제의 기획은 내부적으로 내용·방식 양면에서 모순을 안고 있었다. 심복을 얻고자 했던 기획이 실제로는 역복에 기대고 있었던 셈이었다.

2. 외부 원인: 한족의 불복종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기획 외부, 즉 한족의 불복종에 있었다. 한족의 불복종은 고착된 화이관과 유언비어의 지속적 영향 효과로 살펴볼 수 있다.

· 고착된 화이관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에는 문화 중심의 화이관과 종족·지역 중심의 화이관이 공존해왔다. 하지만 송 왕조가 중원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강남으로 밀려나면서, 기존의 화이관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모한다. 만일 "중원의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사후에라도 유교적 도의에 합당한 정치를 펼치면 정통일 수 있다"는 문화 중심의 화이관을 그대로 인정

한다면, 북방 왕조에 밀려난 남송 왕조의 정통성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었다(옹정제 2021, 37).

이 위기를 사상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남송의 사대부들이 재구성한 것이 바로 도통론(道統論)이다. 한유(韓愈)에서 기원한 이 개념은 남송에서 전형화되는데, 그 핵심은 정통의 근거를 현실의 천자(治統)가 아니라 그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권위'에 둔다는데 있었다(옹정제 2021, 36-46).[49] 현실의 지배력을 잃은 남송이라도 유교의 도통만은 자신들에게 이어져 있으니 북방 왕조보다 정통하다는 논리였다.

종족·지역 중심의 화이관은 이 도통론에서 파생된 하위 논리로 자리 잡았다. 화와 이를 종족과 지역으로 엄격히 가르는 것은, 도통이 오직 중화의 사대부를 통해서만 계승될 수 있고 이적은 그 정수에 이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옹정제 2021, 41). 종족·지역 중심의 화이관이 정통론이라는 사상 체계에 편입됨으로써, 그것은 한인 지식인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신념체계가 되었다. 남송 이후 주자학이 관학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이러한 화이관은 더욱 강화되었다. 몽골족의 지배와 명청 교체기 만주족 정복을 거치며 이러한 화이관은 한족 지식인 사회에서 전면화된다(옹정제 2021, 44).

49) 대표적인 하나의 전형이 주희(朱熹)가 『중용장구서』에서 요(堯)→순(舜)→우(禹)→탕(湯)→문왕(文王)→무왕(武王)→주공(周公)→공자(孔子)→안연(顔淵)→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정호(程顥)· 정이(程頤)로 이어지는 계보를 도통으로 정리하고, 자신이 그 계승자임을 주장한 것이다(옹정제 2021, 38).

> 중국은 이적과 내외로 구별된다. 중국이 중국을 다스리고 이적이 이적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이 금수와 뒤섞일 수 없고, 금수는 인간과 뒤섞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중국의 도적이 중국을 다스리는 것이 차라리 중국의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황종희 「유서(留書)」, 옹정제 2021, 44 재인용).[50]

이적의 통치는 한족 도적의 통치만도 못하다는 이 선언은, 덕의 유무로 군주의 자격을 가리자는 옹정제의 논리가 한족 지식인들에게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전제였음을 보여준다.

옹정제의 문화 중심 화이관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이 또한 유교 경전을 전거로 한 정통성 있는 화이관이다. 그러나 그는 청대에 이르러 종족·지역 중심의 화이관이 이미 뿌리 깊이 고착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만주족이 인의로 천하를 구제했다 하더라도 이적의 지배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한족의 내심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한족의 반청 감정은 사상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청은 입관 과정에서 양주십일(揚州十日)과 가정삼도(嘉定三屠)[51] 등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였으며(1645), 이 참극은 강남 한족 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 남았다. 옹정제가 유덕과 인의의 논리로 설득하려 한 상대는 불과 몇 세대 전 자신의 고향에서 벌어진 만주족의 학살을 기억하는 이들이었다.

---

50) 원문: 中國之與夷狄, 內外之辨也。以中國治中國, 以夷狄治夷狄, 猶人不可雜之於獸, 獸不可雜之於人也. 是故即以中國之盜賊治中國, 尙不失中國之人也。

51) 양주십일(揚州十日)은 1645년(순치 2년) 청군이 양주성을 함락한 뒤 열흘에 걸쳐 자행한 대학살이며, 가정삼도(嘉定三屠)는 같은 해 변발령에 저항한 가정(嘉定) 주민들을 청군이 세 차례 학살한 사건이다.

· 유언비어의 지속적 영향

허위 정보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는 명시적으로 정정된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과 추론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이를 '지속적 영향 효과(continued influence effect)'라 한다. 이 이론에서 주목할 점은 정보 정정이 실패하는 이유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유창성과 친숙성(fluency and familiarity)'이다. 정정은 잘못된 정보를 지우기 위해 그것을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반복이 오히려 정보에 대한 친숙성을 높여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이니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낳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일으킨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반발(reactance)'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지시받는 것을 거부하기에, 권위에 의한 정정일수록 오히려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Lewandowsky et al. 2012).

『대의각미록』의 기획은 이 메커니즘과 정확히 맞물린다. 옹정제는 십대 죄상을 반박하기 위해 죄상 하나하나를 열거하였고, 나아가 인삼탕 시해설, 태후가 철기둥에 부딪혀 자진하였다는 설 등 유언비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하였다. 시골의 백성으로서는 평생 접할 일 없었을 궁중의 비사가, 황제 자신의 명에 의해 전국 곳곳에 배포된 것이다. 반박의 논리는 길고 복잡했지만 유언비어는 짧고 자극적이었다. 반복될수록 친숙해진 것은 해명이 아니라 유언비어였다. 더구나 그 정정은 황제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었다. 권위에 의한 믿음에 대한 정정을 거부하는 심리를 생각한다면, 유언비어에 대한 정정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더욱 명확하다. 스펜스는 이 역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황제 두 사람이 모두 실수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황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공중으로 흩날려 보내면 나쁜 소문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후손들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백성들은, 유언비어는 두고두고 기억하고 그가 해명했던 말들은 잊어버렸다. 두 번째 황제는 『대의각미록』을 없애 아버지의 혼백을 편안히 해드리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책의 내용이 대부분 진실이기 때문에 황제가 책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했다(조너선 스펜스 2004, 316).

스펜스의 이 지적은 지속적 영향 효과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

요컨대 한족 백성들은 『대의각미록』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들의 화이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내면화된, 쉽게 바꿀 수 없는 가치관이었고, 논리적 반박이라는 기획의 형식은 지우고자 했던 유언비어를 오히려 각인시켰다. 『대의각미록』은 안팎에서 좌초되었다. 안으로 설득자인 옹정제는 스스로의 논리와 모순되게 행동하였고, 밖으로 수용자인 한족은 애초에 그 논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대의각미록』은 심복을 향한 기획이었으나, 양쪽 어느편의 진심에도 닿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Ⅴ. 마무리하며

본 연구는 증정 반역사건을 계기로 옹정제가 직접 주도하여 편찬·반포한 『대의각미록』을 편찬의 진의와 기획의 실패라는 두 축에서 분석하였다. 옹정제가 이 책을 편찬한 진의는 대의와 소의라는 두 층위에 걸쳐 있었다. 대의의 차원에

서 그는 유덕자 군주론에서 출발하여 문화 중심의 화이론과 군신대의를 거쳐 화이일가·천하일통에 이르는 논증으로 청조 지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소의의 차원에서 그는 자신을 향한 무고를 해명하고 황실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야심찬 기획은 안팎 모두에서 좌절되었다. 안으로 옹정제는 문화 중심의 화이론을 강조하면서도 만주족 우월의식을 제도화하여 스스로의 논리와 모순되었고, 논증 방식도 설득력이 부족했다. 밖으로 한족은 종족·지역 중심의 화이관과 유언비어의 지속적 영향 효과 때문에 옹정제의 반박을 수용하지 않았다. 요컨대 『대의각미록』은 발신자와 수신자 어느쪽의 진심도 얻지 못한 채 실패한 기획으로 끝났다.

본 연구의 함의는 세 가지다. 첫째,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신청사 논쟁에 새로운 시각을 더한다. 옹정제가 화이일가·천하일통을 선포하면서도 실제로는 만한 분리와 차별 제도를 유지했고, 『대의각미록』 편찬과 거의 같은 시기에 팔기 개혁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만주족이 한화되지 않고, 고유의 정체성을 고수했다는 신청사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둘째, 본 연구는 『대의각미록』을 '실패'의 관점에서 읽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그 편찬 의도와 논리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며, 그 기획이 의도한 바를 이루었는지 정면으로 묻지 않았다. 특히 현재 중국 역사학계는 중화문명의 다섯 가지 특성, 즉 연속성·혁신성·통일성·포용성·화평성의 역사 논리를 청사 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朱泮 2023, 38). 이 관점에서 청대는 통일성과 연속성이 완성되어 가는 시대로 대일통은 그 완성의 사상적 표현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론은 정반대이다. 옹정제가 『대의각미록』을 통해 선포한 대일통은 당대 발신자와 수신자 어느쪽의 진심도 얻지 못한 채 끝난 실패한 기획이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중국이 청의 대일통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역설 때문이다. 대일통을 부정하면 이(夷)가 세운 원(元)과 청(淸)을 자국사로 편입시킬 수 없기에, 중국은 그 영토적 범위를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청의 대일통이 성공한 기획이었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시각은 한국의 입장에서 오늘날 중국의 행보를 이해하는 데에도 실마리를 준다. 대일통을 성공한 기획이 아닌 실패한 기획으로 볼 때, 이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영토 인식과 중화민족 담론을 완결된 서사가 아니라 여전히 논쟁 중인 서사로, 보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자료의 검토 범위가 『대의각미록』에 한정되었다. 『청세종실록』과 주비유지 등 관련된 다른 1차 문헌들을 함께 검토했다면 옹정제의 당시 인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방법론 차원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옹정제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 그의 진의를 재구성하는 해석학적 접근을 표방했으나, 타자의 지평에 들어가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미완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가 재구성한 옹정제의 내면과 생각 역시 필자의 선입견과 현재적 지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더 많은 문헌 검토와 시대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좁혀야 할 간극이다. 셋째, 지속적 영향 효과의 적용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당시 백성들의 인지과정을 직접 검증할 사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본 연구의 분석은 실패의 양상과 이론적 예측 사이

의 관련성을 보여주는데 그친다.

결론적으로 『대의각미록』의 실패는 우연한 실패가 아닌 기획 자체에 내재된 필연적 실패라 할 수 있다. 이는 최고 권력자에 의해 기획된 일방적인 사상 주입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 옹정제의 문화 중심 화이론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교 경전에 근거한 정통성 있는 논리였다. 다만 그 논리는 이미 수백 년간 고착된 지역·종족 중심의 화이관과 충돌하였고, 발신자 자신의 모순과 전달 방식의 역설 속에서 한족의 심복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 여기에 더해 이 기획은 대의와 소의를 함께 밝히려 한 근본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다. 옹정제는 청조의 정통성을 밝히는 자리에서 개인의 억울함과 정당성까지 함께 소명하고자 했고, 그 결과 대의의 논증이 소의의 변명에 묻혀버렸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문화 중심의 화이론과 대일통 사상을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대의각미록』의 좌절이 중국 전통 천하사상과 화이론의 변천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규명하는 작업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雍正帝. 1730. 『大義覺迷錄』.

옹정제 지음, 이형준 외 옮김. 2021. 『대의각미록』 서울: 도서출판 b.

维基文库. 大义觉迷录. https://zh.wikisource.org/zh-hans/%E5%A4%A7%E7%BE%A9% E8%A6%BA%E8%BF%B7%E9%8C%84

2. 한글 자료

강정만. 2019. 『청나라 역대 황제 평전: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도태된다』. 서울: 주류성.

김홍백. 2011. "『大義覺迷錄』과 조선 후기 華夷論." 『한국문화』 제56호: pp. 47-77.

민두기. 1964. "『大義覺迷錄』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25호: pp. 245-282.

송인주. 2020. "옹정제(雍正帝)의 사상투쟁: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의 화이론(華夷論)과 '중외일통(中外一統)' 이론." 『인문과학』 제77호: pp. 123-159.

이경훈. 2018. "韓·中 帝王의 義理明辯書 比較 考察: 『闡義昭鑑』과 『大義覺迷錄』을 중심으로."『중국학논총』 제59호: pp. 203-218.

이동욱. 2019. "『大義覺迷錄』에 나타난 청 옹정제의 滿漢 갈등 해소 논리."『중앙사론』제50호: pp. 131-180.
_____. 2022. "『大義覺迷錄』 해석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考察: '君臣大義'에서 '中華大義'까지."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3호: pp. 59-83.
이정. 2023. "조선후기 지식인의 『大義覺迷錄』 수용과 이해."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한글 번역본

가다머, 한스게오르크 지음, 이길우 외 옮김. 2012. 『진리와 방법 1』 파주: 문학동네. (Gadamer, Hans-Georg. 1960.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리아오 지음, 김인지 옮김. 2008. 『옹정황제의 인간 경영학』 서울: 산수야. (李傲. 2007. 眼睛看雍正. 北京：中国华侨出版社)
맹자 지음, 김원중 옮김. 2021. 『맹자: 민심을 얻는 왕도정치의 고전』 서울: 휴머니스트.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차혜원 옮김. 2001. 『옹정제』 서울: 이산. (宮崎市定. 1950. 雍正帝: 中國の獨裁君主. 東京: 岩波新書)
베버, 막스 지음, 최장집 엮음, 박상훈 옮김. 2011. 『소명으로서의 정치』 서울: 폴리테이아. (Weber, Max. 1919. Politik als Beruf. München: Duncker & Humblot)

스펜스, 조너선 지음, 이준갑 옮김. 2004. 『반역의 책: 옹정제와 사상통제』 서울: 이산. (Spence, Jonathan D. 2001. *Treason by the Book*. New York: Viking)

엘리엇, 마크 C.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2009. 『만주족의 청제국』 서울: 푸른역사. (Elliott, Mark C. 2001.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옌 총니엔 지음, 장성철 옮김. 2007. 『대청제국 12군주열전』 서울: 산수야. (阎崇年. 2004. 正说清朝十二帝. 北京：中华书局)

이시바시 다카오 지음, 홍성구 옮김 2011. 『대청제국 : 1616 ~ 1799 : 100만의 만주족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하였을까?』 서울: 휴머니스트 (石橋崇雄. 2003. 大清帝國. 東京: 講談社)

4. 영어 자료

Crossley, Pamela Kyle. 2012. "The Dayi juemi lu 大義覺迷錄 and the Lost Yongzheng Philosophy of Identity." *Crossroads*, Vol. 5: pp. 63-80.

Lewandowsky, Stephan, Ullrich K. H. Ecker, Colleen M. Seifert, Norbert Schwarz, and John Cook. 2012. "Misinformation and Its Correction: Continued Influence and Successful Debias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Vol. 13, No. 3: pp. 106-131.

5. 중국어 자료

冯尔康. 1985. 『雍正传』. 北京: 人民出版社.

何晓芳. 1986. "论雍正的《大义觉迷录》及其民族思想." 『满族研究』.

吴洪琳. 2004. "试论雍正帝的民族思想: 《大义觉迷录》新解读." 『西北农林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衣长春. 2012. "论清雍正帝的民族大一统观: 以《大义觉迷录》为中心的考察." 『河北学刊』.

陈文祥. 2013. "从《大义觉迷录》看雍正的华夷观." 『青海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韩东育. 2014. "清朝对'非汉世界'的'大中华'表达: 从《大义觉迷录》到《清帝逊位诏书》." 『中国边疆史地研究』.

张翔. 2017. "从'华夷之辨'看国家民族观之嬗变: 从《大义觉迷录》说起." 『荆楚学刊』.

李治亭. 2021. "'大一统'与'华夷之辨'的理论对决: 《大义觉迷录》解读." 『历史档案』 第2期: pp. 127–132.

李治安. 2023. "元明清'华夷一统'到'中华一统'的话语转换." 『历史研究』 第1期: pp. 30–38.

朱浒. 2023. "从清史看中华文明五个突出特性." 『历史研究』 第4期: p. 38.

邵志择. 2025. "皇权的传播盲点: 曾静流言案中的'奇料理'." 『国际新闻界』.

刘斌. 2025. "流言的集装箱: 媒介视野中的《大义觉迷录》编撰刊行再审视." 『大连大学学报』.

赵芳菲·彭新武. 2025. "从《大义觉迷录》看雍正帝的多民族中国观." 『晋阳学刊』.

宋华政. 2025. "雍正帝天下中国观再探: 以《大义觉迷录》为中心." 『爱知论丛』 第118号: pp. 137–152.

4장

신중국 초기 핵개발과 비대칭적 정치-과학 상호작용: 첸싼창(錢三強) 서신을 중심으로

양채리
고려대 역사학과 석사

Ⅰ. 서론

본 연구는 중국의 핵물리학자 첸싼창(錢三強, 1913-1992)의 서신 자료를 분석하여, 신중국 초기(1949-1960년대) 핵과학을 비롯한 과학기술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과 과학자 네트워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위계와 한계 속에서 상호작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냉전이라는 국제적 환경과 국가 안보에 대한 압박 속에서 중국이 핵개발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정치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러한 정책적 선택이 실제 과학기술 체계의 형성과 핵개발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첸싼창은 저장성(浙江省) 사오싱(紹興) 출신으로, 근대 중국어 언어학자이자 신문화운동의 창도자였던 첸쉬안퉁(錢玄同)의 아들로 태어났다. 1936년 칭화대학(淸華大學) 물리학과

를 졸업한 뒤 1937년 프랑스로 유학하여 파리에서 이렌 졸리오퀴리(Irène Joliot-Curie)와 프레데릭 졸리오퀴리(Frédéric Joliot-Curie)의 지도 아래 핵물리학을 연구하였고, 1946년에는 부인 허쩌후이(何澤慧)와 함께 우라늄 핵의 三分裂·四分裂 현상을 관측하여 국제 물리학계에서 명성을 얻었다.[52] 1948년 귀국한 그는 中國科學院 설립과 핵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였다. 첸싼창은 단순한 자연과학자의 범주를 넘어, 국가의 전략적 목표였던 핵개발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과학자 집단을 조직하고 국제 학술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등 과학과 정치의 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현대 중국에서 과학기술은 단순한 학문적 진보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인식되었다. 특히 신중국 초기에는 국제적으로는 냉전 구조 속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기술 봉쇄, 국내적으로는 국가 건설과 체제 정비, 경제 발전이라는 과제가 중첩되면서, 핵개발을 포함한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중국 초기 과학기술 체제의 형성은 단순한 기술 축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과 국가 전략,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과학자 집단의 활동이 결합된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가 정책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과정을 설명해 왔으나, 핵개발이라는 정치적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과학기술적 성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 개인과 그들의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52) 첸싼창의 생애 전반에 관해서는 葛能全, 『錢三強年譜長編』, 科學出版社, 2013 참조.

에 본 연구는 『錢三強往來書信集注』에 수록된 서신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당시 과학자들 간의 학술 교류, 연구 협력, 인재 동원, 그리고 지식의 이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고자 한다.[53]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신중국 초기 핵개발을 단순한 국가 정책의 산물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나아가, 정치적 결정과 과학자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과 국가 권력,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결합되어 역사적 성과로 나타났는지를 밝힘으로써, 신중국 초기 과학기술 발전의 복합적인 성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중국 핵개발사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서구 학계의 정책·전략사 연구, 중국 내 公刊 문헌과 회고록에 기초한 통사적 서술, 그리고 과학기술사의 관점에서 과학과 국가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서구 학계에서 중국 핵개발사 연구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것은 루이스(John Wilson Lewis)와 쉐리타이(薛理泰)의 공동 연구이다.[54] 이들은 당시 접근 가능했던 중국 측 공간 자료와 인터뷰를 폭넓게 활용하여, 중국의 원자탄 개발이 최고 지도부의 전략적 결정에서 출발하여 관료 조직과 연구 기관의 체계적 동원을 거쳐 실현되는 전 과정을 재

53) 葛能全·陳丹 編注, 『錢三強往來書信集注』, 世界圖書出版公司, 2023. 이 서신집에는 첸싼창과 관련된 왕래 서신 약 300통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이 최초로 公刊된 것이다. 서신의 상대에는 이렌·프레데릭 졸리오퀴리 부부, 세실 파월(C. F. Powell), 조지프 니덤(Joseph Needham), 메이이치(梅貽琦), 궈모뤄(郭沫若), 후스(胡適), 린자샹오(林家翹), 양전닝(楊振寧), 리정다오(李政道) 등 과학계·문화계의 주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54) John Wilson Lewis and Xue Litai, China Builds the Bomb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 결정 과정과 조직 구조, 기술적 경로를 상세히 밝혔다는 점에서 이후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으나, 분석의 초점이 국가와 조직에 놓여 있어 개별 과학자의 행위성과 인적 연결망은 상대적으로 배경으로 처리되었다. 이후 파이겐바움(Evan A. Feigenbaum)은 전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개혁개방 이후까지 이어지는 중국 국방과학기술 체제와 중국 특색의 기술민족주의(technonationalism)의 원형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핵개발을 보다 장기적인 국가–기술 관계 속에 위치시켰다.[55]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는 중국의 핵보유가 글로벌 핵질서와 맺어 온 관계를 추적한 연구들이 축적되었는데, 호스버러(Nicola Horsburgh)는 중국이 핵질서의 외부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56]

중국 내에서는 1980년대 이후 『當代中國的核工業』을 비롯한 관찬 통사류가 간행되어 핵공업 건설의 전개 과정을 공식적으로 정리하였고,[57] 핵개발을 총괄했던 녜룽전(聶榮臻)의 회고록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회고 자료도 다수 출간되었다.[58] 이들 문헌은 내부 사정을 전하는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지만, 성과 중심의 공식 서사라는 성격상 갈등과 시행착오, 개인의 경험은 절제되어 서술되는 경향이 있다.

---

55) Evan A. Feigenbaum, *China's Techno-Warriors: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ic Competition from the Nuclear to the Information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56) Nicola Horsburgh, *China and Global Nuclear Order: From Estrangement to Active Engag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57) 李覺 外, 『當代中國的核工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58) 聶榮臻, 『聶榮臻回憶錄』, 解放軍出版社, 1984.

한편 과학기술사 분야에서는 마오쩌둥 시대의 과학과 국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왔다. 왕쭤웨(Zuoyue Wang)는 1956년 「12년 과학기술 발전 원경규획(科學技術發展遠景規劃)」의 수립 과정을 분석하여, 냉전기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이 발전국가적 동원과 과학자 집단의 참여가 교차하는 장이었음을 보여주었다.[59] 또한 시그리드 슈말저(Sigrid Schmalzer) 등의 연구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과학이 대중 동원 및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는 방식을 조명함으로써, 과학을 정치사회사적 맥락에서 읽는 방법을 제시하였다.[60]

이상의 연구사를 종합하면, 중국 핵개발에 관한 연구는 정책 결정과 제도, 조직의 차원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으나, 그 정치적 결정이 실제 연구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과학자 개인과 그들의 국내외 네트워크가 어떤 매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특히 서신과 같은 에고도큐먼트(ego-document)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연구는 드물다. 2023년에 간행된 『錢三強往來書信集注』는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사료로서, 본 연구는 이를 중심으로 정치와 과학의 상호작용을 재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

59) Zuoyue Wang, "The Chinese Developmental State during the Cold War: The Making of the 1956 Twelve-Year Science and Technology Plan," *History and Technology* 31, no. 3 (2015): 180–205.

60) Sigrid Schmalzer, *The People's Peking Man: Popular Science and Human Identity in Twentieth-Century Chin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본 연구의 핵심 사료는 『錢三強往來書信集注』이다. 이 서신집은 첸싼창의 비서를 지낸 거넝취안(葛能全)과 천단(陳丹)이 편주한 것으로, 첸싼창과 국내외 인사들 사이에 오간 약 300통의 서신을 수록하고 배경과 인물에 대한 주석을 붙였다. 서신이라는 사료는 공식 문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과학자들 사이의 신뢰 관계, 인재 추천과 초빙, 연구 정보의 교환,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 감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과 과학 실행 사이의 매개 과정을 추적하는 데 적합하다.

다만 서신 자료는 그 자체로 완결된 그림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이를 다른 계열의 사료와 교차 검증한다. 첫째, 우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Center) 냉전 국제사 프로젝트(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핵개발의 국제정치적 맥락과 반향을 분석한다. 둘째,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FRUS), CIA 보고서, 아이젠하워 회고록 등 서방 측 자료를 통해 냉전 상대국의 인식을 확인한다. 셋째, 『毛澤東選集』,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當代中國的核工業』, 『聶榮臻回憶錄』 등 중국 측 공간 문헌과 회고록으로 정책 결정 과정을 재구성한다. 서로 다른 성격과 편향을 지닌 사료들을 병치함으로써, 어느 한 계열의 사료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분석의 시각으로는 '과학자 네트워크' 개념을 채택한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사제 관계, 동학·동료 관계, 학회와 연구소를 매개로 형성된 인적 연결망을 가리키며, 이 연결망을 따라 지식과 정보, 인력과 신뢰가 이동한다. 본 연구는 첸싼창을 이 네트워크의 결절점(node)으로 설정하고, 그의 서신에 나타나는 연결망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국가의 정치적 결정과의 관계 속

에서 독해한다. 이는 과학기술사와 냉전 국제사를 교차시키는 접근이기도 하다. 이때 이 연결망이 정치적 결정에 개입하는 지점과, 반대로 정치적 결정에 종속되는 지점을 함께 식별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이 아니라 위계 속의 부분적 협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중국이 핵개발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게 되는 정치적·국제적 배경을 냉전 구조, 중소 관계의 변화, 국내 정책 결정의 세 층위에서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실행되는 과정을 첸싼창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 네트워크의 활동을 통해 재구성한다. 특히 1961년 임무 배정 방식이 전환되는 사례를 통해 과학자 네트워크가 정치적 결정의 실행 방법에 개입한 지점과, 그럼에도 참여 자격과 정보 이동의 범위는 정치적 결정에 종속되어 있던 지점을 함께 검토하고, 1964년 첫 핵실험의 성공과 그 국제적 반향까지를 다룬다. 결론에서는 논의를 종합하여 신중국 초기 핵과학과 과학기술 체제 형성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를 제시한다.

Ⅱ. 핵개발을 둘러싼 정치적 결정과 국제 환경

1. 냉전 구조와 중국의 안보 위기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단순한 중국 국내 정치 질서의 변화를 넘어 동아시아 냉전 구조의 재편을 의미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미·소 양극 체제 속

에서 중국은 건국과 동시에 국제적 긴장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은 건국 직후 소련과의 동맹을 선택하는 이른바 '일변도(一邊倒)' 외교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 중국의 안보와 경제 재건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동시에 미국과 서방 세계로부터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봉쇄를 초래하였다.[61] 건국 직후의 중국은 국공내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냉전의 최전선에 놓이게 된 것이다.

건국 초기 중국 지도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 정권의 안정과 국제적 생존이었다. 국공내전 직후의 중국은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군사 장비가 부족했으며,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특히 미국은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중화민국을 중국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고, 중국 본토에 대한 경제 봉쇄와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였다.[62]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단순한 경제 발전뿐 아니라 외부 군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 확보를 국가 건설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

61)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Odd Arne Westad,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62) Michael H. Hunt, *The Genesis of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Warren I. Cohen, *America's Response to China: A History of Sino-American Relation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중국 지도부가 핵무기의 전략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1950년 10월 인민지원군을 한반도에 파견하면서 미국과 직접 교전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당시 미국은 이미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사용한 경험을 가진 유일한 핵보유국이었다. 전쟁 기간 미국 조야에서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거론되었고, 1953년 출범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정전 협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아이젠하워 자신도 회고록에서 정전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핵 옵션을 배제하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63] 실제 사용 여부와 별개로, 중국 지도부에게 이 경험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핵보유국과 대치할 때 감수해야 하는 전략적 취약성을 절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64]

이러한 인식은 1954–1955년 제1차 타이완 해협 위기와 1958년 제2차 위기를 거치며 더욱 분명해졌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저장성 연안의 도서 지역을 둘러싸고 국민당군과 충돌하자 미국은 타이완 방어 의지를 표명하였고,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핵 사용 가능성이 다시 논의되었다. 중국은 이 시기 미국의 핵 위협을 직접 경험하면서, 핵무기가 실제 사용되지 않더라도 상대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치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였다.[65] 당시 미국의 핵 능력은 중국이 감당하

63) Dwight D. Eisenhower, *Mandate for Change,* 1953–1956 (Doubleday, 1963).

64) Rosemary Foot,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Lewis and Xue, *China Builds the Bomb.*

65) Gordon H. Chang, *Friends and Enemie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기 어려운 전략적 격차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에게 핵개발은 단순히 군사 기술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핵 독점 구조 속에서 국가 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이해되었다.[66] 이 시기 마오쩌둥은 대외적으로 미국을 "종이호랑이(紙老虎)"라고 부르며 전략적 경시의 수사를 구사하였으나, 이는 핵 위협에 대한 심리적 대응이었을 뿐 실질적 대응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복되는 핵 위협의 경험은 지도부 내에서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다.[67]

핵개발이 국가 차원의 공식 사업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는 1955년 1월 15일 개최된 중앙서기처 확대회의였다. 이 회의는 중국 핵개발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마오쩌둥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는 지질학자 리쓰광(李四光), 물리학자 첸싼창 등 관련 과학자들이 참석하여 우라늄 자원과 원자력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는 중국이 원자력 연구와 핵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향을 확정하였다.[68] 이 회의의 역사적 의미는 정치 지도부가 핵개발을 단순한 과학 연구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으로 규정했다는 점에 있다. 1956년 마오쩌둥은 「10대 관계를 논함(論十大關係)」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현대적 과학기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남에게 업신

---

the Soviet Union, 1948–197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66) Lewis and Xue, *China Builds the Bomb.*

67) 『毛澤東選集』 第五卷, 人民出版社, 1977, 499–500; Jeffrey Lewis, *Paper Tigers: China's Nuclear Posture* (Routledge, 2014).

68) 劉傑, 『中國核工業發展史』, 原子能出版社, 1996, 35–38; Lewis and Litai, *China Builds the Bomb.*

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원자탄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하며 핵 보유의 의지를 공식화하였다.[69] 핵무기 개발은 이러한 국가 현대화와 강대국 지위 확보라는 목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중국의 핵개발 결정은 특정 군사 기술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냉전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정치 프로젝트였다.

2. 국제 관계 변화와 핵개발 노선의 전환

초기 중국 핵개발의 발전 경로는 소련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중국 지도부는 독자적인 핵개발보다는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기술 협력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과 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건국 직후 중국은 원자력 분야의 전문 인력과 연구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련과의 협력은 핵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특히 1955년 이후 중소 양국은 우라늄 자원 조사, 원자력 연구, 과학자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였다. 소련은 중국에 원자력 연구용 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파견했으며, 중국 과학자들의 소련 및 동유럽 연구기관 연수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중국이 국제 핵과학 지식 체계에 접근하는 중요한 통로였다.[70]

---

69) 『毛澤東選集』 第五卷, 人民出版社, 1977, 267-288.

70) Lewis and Xue, *China Builds the Bomb;* Matthew Evangelista, *Innovation and the Arms Race: How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Develop New Military Technologies* (Cornell University Press,

중소 핵협력의 정점은 1957년 10월 15일 체결된 「국방신기술협정(國防新技術協定)」이었다. 이 협정은 소련이 중국에 군사 기술 분야의 협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중국 지도부는 이를 통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보다 직접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71]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중소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권 문제, 평화공존 노선을 둘러싼 이념 갈등, 대약진운동에 대한 소련의 비판 등이 누적되면서 양국 관계는 협력에서 경쟁으로 이동하였다. 중국 지도부는 흐루쇼프의 평화공존 노선을 사회주의 혁명의 원칙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구조적 갈등으로 이어졌다.[72]

특히 1959년 소련이 핵 관련 기술 제공 약속을 철회한 것은 중국 핵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중국은 이를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 개발 노선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후 중국은 1959년 6월 20일을 기념하여 핵개발 프로젝트를 “596공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소련의 지원 철회를 자력 개발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73] 1960년 소련 전문가 철수는 중국 핵개발에 심각

1988).

71) 국방신기술협정 체결 경위에 관해서는 Lewis and Xue, China Builds the Bomb; 聶榮臻, 『聶榮臻回憶錄』 등 참조.

72)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178–182; Lorenz M. Lüthi, *The Sino-Soviet Split: Cold War in the Communist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73) 李覺 外, 『當代中國的核工業』 참조. ‘596’이라는 프로젝트 명칭이 소련공산당 중앙의 1959년 6월 서한에서 유래하였다는 점이 중국 측 공간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한 위기를 초래하였으나 동시에 이는 중국 과학자들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 외부 전문가와 기술 자료가 사라진 상황에서 핵개발의 성패는 중국 내부에 존재하는 지식과 인력 네트워크에 달려 있었다.

이 과정은 중국 핵개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흔히 중국의 핵개발은 "고립 속의 자력 성공"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과정은 보다 복합적이었다. 중국은 소련과 서방에서 습득한 과학 지식,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과학자들의 국제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간 협력 경험을 국내 체계로 재조직하였다. 자력갱생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발전 방식이 아니라, 이전된 지식을 내부 역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74]

1964년 중국의 첫 핵실험 이후 중국 외교부가 수집한 각국 반응 자료 역시 이러한 국제적 의미를 보여준다. 윌슨 센터 디지털 아카이브(Wilson Center Digital Archive)에 공개된 자료는 북한·쿠바·알바니아·인도 등 각국이 중국 핵실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준다.[75] 이 자료들은 핵실험 이후의 반응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 지도부가 핵보유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의미화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중국 측 자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핵실험을 군사적 성취만이 아

74) Evan S. Medeiros, "Evolution of China's Nuclear Doctrine," in China's Nuclear Future, ed. Paul J. Bolt and Albert S. Willner (Lynne Rienner Publishers, 2006).

75) "China's Nuclear History,"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 (2026년 7월 15일 접속).

니라 국가 주권과 국제적 평등의 회복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북한과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의 핵보유를 제국주의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하였으며, 중국 역시 이를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전략적 자립이라는 맥락에서 홍보하였다. 반면 인도 등 주변 국가는 중국의 핵보유가 아시아 안보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건으로 받아들였다.[76] 따라서 중국 핵개발은 1950년대 국제환경 속에서 형성된 안보 불안과 강대국 경쟁의 산물이었으며, 동시에 1960년대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새로운 위치를 만들어낸 사건이었다. 핵개발 과정은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은 동시에, 국제정치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3. 핵개발 정책의 형성과 국가 전략

정치적 결정은 그것을 집행할 조직의 정비를 통해 비로소 정책이 된다. 1955년의 결정 직후 중국은 원자력 사업을 전담하는 중앙 부처로 제3기계공업부를 설립하였고, 1958년 이를 제2기계공업부(二機部)로 개편하여 핵공업 건설을 총괄하게 하였다. 같은 해 국방과학기술의 전반적 조정을 위해 네룽전 원수를 주임으로 하는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군-당-정부-과학원을 관통하는 통합적 지휘 체계가 갖추어졌다.[77] 핵개발은 이처럼 당 중앙의 전략 결정, 전담 부처의 행정, 군의 조직력,

76)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China's Nuclear History"; M. Taylor Fravel and Evan S. Medeiros, "China's Search for Assured Retaliation: The Evolution of Chinese Nuclear Strategy and Force Structure," *International Security* 35, no. 2 (2010): 48-87.
77) 聶榮臻, 『聶榮臻回憶錄』, 解放軍出版社, 1984.

과학원의 연구 역량이 결합된 국가적 동원 체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체제가 순탄하게만 작동한 것은 아니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잇따른 자연재해로 국민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진 1961년을 전후하여, 지도부 내에서는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는 첨단 국방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른바 '상마(上馬)-하마(下馬)'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결과 핵개발은 오히려 역량을 집중하여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이는 경제적 곤경 속에서도 핵무기를 국가 전략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정치적 선택이었다.[78]

이 논쟁의 구체적 경위는 당시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이었던 녜룽전의 회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61년 7월 북대하(北戴河)에서 열린 국방공업회의에서 "양탄(兩彈)"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자, 마오쩌둥은 항저우에서 비서를 통해 전화로 지시를 전달하며 중국의 공업기술 수준이 일본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방침을 신중히 연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녜룽전은 국방과학위·미사일연구원·이기부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당시 첨단 국방기술의 현황을 분석한 뒤, 지속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중앙에 보고하였고,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周恩來) 등 지도부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국방 연구개발 부문에는 "전선을 단축하고, 임무의 우선순위를 매기며, 중점을 확실히 보장한다(縮短戰線, 任務排隊, 確保重點)"라는 방침이 확정되었다.[79] 이 방침은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

78) 관련 정책 문건들은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中央文獻出版社, 1992-1998에 수록되어 있다.

79) 聶榮臻, 『聶榮臻回憶錄』, 解放軍出版社, 1984, pp. 644-646.

는 실행 방법론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이후 Ⅲ장에서 다룰 1961년 8월의 임무 재조정 작업과 직접 연결된다.

1962년 11월에는 저우언라이를 주임으로 하는 중앙전문위원회가 설립되어 원자탄 개발의 최종 단계를 직접 지휘하였다. 중앙전문위원회는 부처 간 조정과 자원 배분을 최고 수준에서 보장하는 기구로서, "2년 내 첫 실험"이라는 목표 아래 전국의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였다.[80] 그 결과 1964년 10월 16일 신장 뤄부포(羅布泊) 실험장에서 중국 최초의 원자탄 실험이 성공하였다. 중국 정부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핵무기의 전면 금지와 폐기를 주장하는 한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하였다.[8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핵개발은 과학기술의 내재적 발전이 자연스럽게 도달한 결과가 아니라, 냉전의 안보 위기와 중소 관계의 변동이라는 국제적 조건 속에서 내려진 정치적 선택의 산물이었으며, 국가 전략의 지위를 부여받아 강력한 동원 체제를 통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과 조직의 정비만으로 원자탄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정을 현실의 성과로 전환시킨 것은 결국 과학자들이었으며, 그 전환 과정에서 과학자 네트워크는 때로 정치적 결정에 순응하고 때로 그 실행 방식에 개입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그 실행의 과정을 과학자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이 양면성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

80) 중앙전문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에 대해서는 Lewis and Xue, *China Builds the Bomb*; 『當代中國的6核工業』 참조.
81) 「中華人民共和國政府聲明」, 『人民日報』 1964年 10月 17日.

Ⅲ. 정치적 결정하에서의 과학자 네트워크와 실행 과정

1. 첸싼창(錢三強)과 핵과학 인력 조직화

중국의 핵개발 과정에서 과학자의 역할은 단순히 국가 지도부가 결정한 정책을 기술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 핵개발과 같은 고도의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정치적 결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었으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조직, 전문 인력,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점에서 첸싼창은 신중국 핵과학 체제 형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는 핵물리학자로서 국제적 연구 경험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귀국 이후 과학 연구기관을 설계하고 인력을 조직하며 국가 핵개발 사업과 과학 공동체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82]

1948년 중국으로 귀국한 첸싼창의 선택은 당시 해외 유학 과학자들의 귀환 현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국민정부와 공산당 사이의 내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중국인 과학자들은 해외 연구 환경에 남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는 새로운 국가 건설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귀국을 선택하였다. 첸싼창 역시 안정적인 유럽 연구 환경보다 전후 중국의 과학 기반 재건에 참여하는 길을 택하였다. 이러한 귀국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과학 지식을 국가 건설 프로젝트에 활용하려는 당시 중국 지식인의 광범

82) 陳丹, 『錢三強傳』, 中國青年出版社, 2017; Mark A. Stokes, “China’s Nuclear Warhead Storage and Handling System” (Project 2049 Institute, 2010); John Wilson Lewis and Xue Litai, I*magined Enemies: China Prepares for Uncertain War*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위한 움직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83]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첸싼창은 중국과학원의 설립 과정에 참여하였다. 중국 지도부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국가 역량 강화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였으며, 중국과학원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연구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첸싼창은 1950년 중국과학원 산하 近代物理研究所의 부소장으로, 이후 1951년에 소장으로 임명되었고, 이 연구소는 이후 중국 핵과학 연구의 제도적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근대물리연구소의 설립은 중국 핵과학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당시 중국은 핵물리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 시설과 전문 인력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초기 핵과학 발전의 핵심 과제는 단순히 특정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첸싼창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소 운영에서 인재 선발과 교육 체계 구축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84]

이 과정에서 근대물리연구소는 단순한 연구 기관이 아니라 신중국 핵과학자 집단의 형성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왕간창(王淦昌), 펑환우(彭桓武) 등 중국의 주요 이론·실험 물리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덩자셴(鄧稼先), 주광야(朱光亞), 궈융화이(郭永懷) 등 핵무기 개발을 담당하게 될 과학자들이 이 연구 체계를 통해 성장하거나 결집하였다.[85] 특히 첸싼창은

83) Richard P. Suttmeier, *Research and Revolution: Science Policy and Societal Change in China* (Lexington Books, 1974).
84) 《中國科學院院史》編委會編, 中國科學院院史 (北京: 科學出版社, 1999), 112–118.

1949년 12월 왕간창에게 서신을 보내 중국과학원에서 근대물리연구소를 설립하니 베이징으로 그를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86] 1958년 중국의 첫 번재 원자로와 사이클로트론이 이 연구소에 건설되었고, 동시에 原子力研究所로 연구소의 이름이 개칭되며 중국 원자력 과학기술의 종합 기지가 되었다. 당시 소장이었던 첸싼창과 부소장 왕간창 등은 이후 양탄일성 프로젝트에 공헌하였다. 이처럼 근대물리연구소는 핵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핵심 과학자들을 결집·양성하며 국가 핵개발 체제의 인적 기반을 구축한 핵심 조직으로 기능하였다. 이후 중국 핵개발을 주도한 과학자들의 상당수가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와 협력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이곳은 신중국 핵과학 공동체가 형성된 출발점이자 국가 핵과학 체제의 제도적 모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첸싼창의 중요한 역할은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뿐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 분야와 세대를 연결하는 조직 능력에 있었다. 핵개발은 핵물리학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론 계산, 실험 물리, 방사화학, 재료공학, 폭발 기술, 계측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핵개발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특정 기술 자료가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자 집단이었다. 첸싼창은 이러한 점에서 중국 핵과학 발전의 "인적 기반 설계자"로 평가될 수 있다.[87]

---

85) Lewis and Xue, *China Builds the Bomb*, 35–40.

86) 葛能全·陳丹 編注, 『錢三強往來書信集注』, 世界圖書出版公司, 2023.

87) 1956년 저우언라이의 건의로 원자력 사업을 전담할 국무원 산하 부처로 제3기계공업부가 신설되었을 때, 첸싼창은 부장 쑹런충(宋任窮) 아래 5명의 부부장 중 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그는 핵과학자 집단과 정부 사이를 조율하는 중개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채준형·금동혁, 「중국과 소련의 핵

2. 과학자 네트워크와 연구 협력 구조

첸싼창의 과학자 네트워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제적 연결망과 국가적 동원 체계가 동시에 작동했다는 점이다. 그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학술 교류 관계가 아니라, 냉전이라는 제약 속에서 지식·인력·정보가 이동하는 통로로 기능하였다. 특히 프랑스 유학 시절 형성된 졸리오퀴리 부부와의 관계는 중국 핵과학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상징적·실질적 자원이 되었다.[88]

첸싼창은 파리에서 프레데릭 졸리오퀴리와 이렌 졸리오퀴리의 지도를 받으며 핵물리학 연구 방법론과 국제 과학 공동체의 운영 방식을 경험하였다.[89] 귀국 이후에도 그는 졸리오퀴리 부부와 지속적인 서신 교류를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신중국 과학계가 국제 과학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錢三強往來書信集注』에 수록된 서신들은 귀국 후에도 학술 정보 교환, 연구자 소개, 국제 과학계 동향 공유가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90]

이러한 관계망은 냉전 초기 국제정치의 조건 속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49년 이후 중국은 서방 세계와 외교적으로 단절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미국 중심의 봉쇄 정책 속에서 국제 과학 교류의 기회가 크게 제한되었다. 그러나 첸싼창과 같은 해외 유학 과학자들은 개인적 신뢰 관계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국제 과학 공동체와 연결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술 개발 협력 재고, 1945~1960」, 『大東文化研究』 98, 2017, 78쪽.
88) Lewis and Litai, *China Builds the Bomb.*
89) 徐光榮, 『錢三強傳』 (北京: 科學出版社, 2002), 35–48.
90) 葛能全·陳丹 編注, 『錢三強往來書信集注』, 世界圖書出版公司, 2023.

과학자 네트워크는 국가 간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비공식적 지식 이동의 통로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1951년 프레데릭 졸리오퀴리와 중국인 방사화학자 양청쭝(楊承宗)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다. 양청쭝의 회고에 따르면 졸리오퀴리는 원자무기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핵독점을 유지하는 구조를 극복해야 하며, 중국 역시 핵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 발언은 핵무기 반대 운동의 지도자였던 졸리오퀴리의 입장이 단순한 비무장론이 아니라, 핵 독점 구조에 대한 비판과 결합된 복합적 사고였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국제 과학자 네트워크가 단순한 학술 정보 전달을 넘어 전략적 인식과 정치적 판단이 이동하는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91]

첸싼창의 국제 네트워크는 프랑스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그는 영국의 물리학자 세실 파월(Cecil Powell), 과학사가 조지프 니덤(Joseph Needham) 등 다양한 국제 과학자들과 교류하였다.[92] 특히 세계과학노동자연맹(World Federation of Scientific Workers, WFSW)은 냉전기 과학자들이 진영을 넘어 접촉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국제 조직이었다. 졸리오퀴리가 주요 지도자로 활동한 이 조직은 핵무기 문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국제 평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공간이었으며, 중국 과학자들에게 국제 과학계와 연결될 수 있는 제한적 창구를 제공하였다.[93]

---

91) 이 대화는 양청쭝(楊承宗)의 구술 회고에 근거한다. 梁東元, 『596秘史』, 湖北人民出版社, 2007 참조.

92) Jo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4).

그러나 중국 핵과학 네트워크의 발전은 서방과의 연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협력 구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56년 소련 두브나에 설립된 합동원자핵연구소(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JINR)는 중국 과학자들이 국제적 핵 연구 환경에 접근하는 핵심 기관이었다. 중국은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였고, 왕간창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를 파견하여 핵물리학 연구와 국제 공동 연구 경험을 축적하였다.[94]

두브나에서의 경험은 중국 핵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지식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중국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최신 핵물리학 연구 방법, 실험 기술, 국제 연구 조직 운영 방식을 습득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기술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중국 내부에서 독자적 연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95] 따라서 중국의 "자력갱생"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발전이 아니라, 국제 과학 네트워크에서 획득한 지식을 국내 체계로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

국내적으로 첸싼창은 중국과학원, 대학, 국가 행정부를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과학원 내부에서는 궈모뤄(郭沫若) 등 지도자들과 협력하였고, 국가 차원에서는 저우언라이, 녜룽전 등 군사·과학 정책 담당자들과 소통하였다. 이

93) Paul Forman and José M. Sánchez-Ron, eds., *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s and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6), 233–236.

94) David Holloway, *Stalin and the Bomb: The Soviet Union and Atomic Energy, 1939–1956* (Yale University Press, 1994); 두브나 합동원자핵연구소와 중국의 참여에 관해서는 Lewis and Xue, *China Builds the Bomb* 참조.

95) Lewis and Xue, *China Builds the Bomb.*

과정에서 그는 연구 현장의 요구를 정책 언어로 전환하고, 국가 전략 목표를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중국과학원의 초대 원장을 역임하였던 궈모뤄는 1954년 마르크스의 어록을 인용하여 첸싼창에게 서신을 보내 "과학 분야에서는 안전한 길이 없으며, 험난한 길을 오르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빛나는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며 그를 격려했다.[96]

이러한 구조는 과학자 네트워크가 국가 권력에 의해 단순히 동원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과학 공동체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치 지도부는 과학자들의 전문 지식과 국제 경험을 필요로 했고, 과학자들은 국가 지원을 통해 대규모 연구 자원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중국 핵개발 과정에서 과학자 네트워크는 국가 목표를 수행하는 도구인 동시에, 과학자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매개 공간이었다.

요컨대, 첸싼창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는 세 가지 차원에서 기능하였다. 첫째, 국제 과학 지식의 이동 통로였다. 둘째, 핵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조직하는 사회적 기반이었다. 셋째, 정치 지도부와 과학 공동체 사이에서 연구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는 통로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 통로가 실제로 정치적 결정의 실행 방식에 얼마나, 그리고 어떤 한계 안에서 개입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96) 葛能全·陳丹 編注, 『錢三強往來書信集注』, 世界圖書出版公司, 2023.

3. 비대칭적 상호작용의 실제: 1961년 임무 배정 방식의 전환

정치적 결정이 과학자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단선적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는 상급 기관이 설정한 목표를 연구 현장이 그대로 수용하는 국면도 있었지만, 실행 방법 자체가 과학자들의 문제 제기에 의해 수정되는 국면도 있었다. 페이리성(裴麗生)·첸싼창의 1961년 8월 보고서가 언급하는 "科學工作十四條"는 그 자체가 정치와 과학 사이의 비대칭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상위 층위의 사례이다. 이 문건의 정식 명칭은 《關於自然科學研究機構當前工作的十四條意見(草案)》으로, 1961년 7월 19일 중앙의 비준을 받았다. 녜룽전의 회고에 따르면 그 제정 배경에는 대약진운동 시기의 "浮誇風"과 "瞎指揮風"에 대한 과학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반우파·반우경 운동 과정에서 일부 과학기술자가 이른바 "白專"으로 비판받아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고, 1960년 겨울부터 진행된 국방과학위와 과학원의 조사에서는 과학자들이 실제 연구에 투입하는 시간이 주 6일 근무일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무원 명의로 연구 인력의 근무 시간 중 6분의 5를 연구에 보장하라는 통지가 하달되었다.[97]

문건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도 과학자의 목소리가 상당히 반영되었다. 1961년 봄 상하이와 베이징에서는 이른바 "神仙會"라 불린 좌담회가 열려, 과학자들이 정치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책상의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후 강철연구원, 지질연구원, 농업과학연구원 등 여러 연구소에서 시범 시행과

97) 聶榮臻, 『聶榮臻回憶錄』, 解放軍出版社, 1984, 654–656.

토론을 거쳐 초안이 반복적으로 수정되었으며, 1961년 7월 6일 정치국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문건이 과학자 사회의 요구를 그대로 승인한 것은 아니었다. 조사와 좌담을 조직하고, 그 결과를 취사선택하여 정책 문언으로 압축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은 시종 당 중앙과 국방과학기술위원회에 있었다. 즉 "科學十四條"의 제정 과정은 과학자 집단의 불만과 제안이 정책 형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도, 그 반영의 통로와 범위 자체는 정치 지도부가 설계하고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비대칭적 상호작용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페이리성과 첸싼창의 1961년 8월 보고서는 바로 이 "과학14조"가 반포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 정신을 선양·창춘·하얼빈의 개별 연구소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사례였다. 국가 정책 형성 단계에서 확인되었던 비대칭적 상호작용의 패턴, 즉 과학자의 문제 제기가 실행 방식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만, 그 반영의 문턱과 범위는 정치가 통제한다는 패턴이 지역 연구소 단위의 임무 조율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1961년 8월 14일 중국과학원 부원장 페이리성과 첸싼창이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주임 녜룽전에게 보낸 공동 보고서이다.[98]

1961년 7월, 녜룽전은 국방부 제5원, 제2기계공업부(이기부), 중국과학원 세 기관이 "한 가닥 밧줄로 꼬이듯" 협력하여 원자탄 개발 임무를 완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페이리성과 첸싼창은 과학원과 이기부 합동 조사단을 이끌고 선양·창춘·하얼빈의 금속연구소, 응용화학연구소, 토목건축연

98) 葛能全·陳丹 編注, 『錢三強往來書信集注』, 世界圖書出版公司, 2023.

구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임무를 조율하였다. 이 보고서는 그 조율 과정에서 드러난 기존 방식의 문제와, 이를 수정한 새로운 방식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래의 임무 하달 방식은 이러했다. 국방 관련 부문은 보안을 이유로 작업 공정 전반에 대한 설명이나 기존의 연구·기술 경험 공유 없이, 연구소에 구체적인 과제 항목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연구소는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자체의 학문적 경험에 의존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국방 부문이 이미 축적한 경험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연구소가 제출하는 항목의 우선순위나 지표가 실제 필요와 어긋나는 경우가 잦았고, 노력에 비해 성과가 실제 수요와 괴리되면서 연구자들의 의욕도 저하되었다.

1961년의 조율은 이 방식을 명시적으로 바꾸었다. 이기부의 기술 책임자가 연구소의 핵심 인력(소장급 및 검증된 주요 기술 인력)에게 설계 요구, 작업 진도, 현안을 전면적으로 공개한 뒤, 양측 기술진이 공정의 각 단계를 함께 검토하여 핵심 문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공동으로 토론하고, 공동으로 제안하고, 공동으로 완수한다(共同討論, 共同提出, 共同完成)”는 원칙으로 요약하였다. 이 새로운 방식은 임무 확정 이후에도 유지되어, 연구소 핵심진이 이기부의 관련 공장과 설계 부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재확인하도록 하였고, 정기적인 기술 협의와 학술 모임을 통해 정보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교환하도록 하였다.

이 전환이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이 아니라 과학자의 실질적 발언권을 반영한 것이었음은 보고서에 기록된 구체적 사례에서 드러난다. 응용화학연구소의 한 분석 담당 연구자는

새 방식이 도입되기 전 자신이 맡은 과제가 실제 국가적 필요와 부합하는지 확신하지 못해 불안해했으며, 국가의 제한된 과학기술 역량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묵살되지 않고 오히려 임무 조정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같은 연구소의 종환방(鍾煥邦) 등은 시급한 정제·정화 공정을 스스로 자원하여 맡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는 그대로 임무 배정에 반영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 이후 연구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겨냥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과거의 일방적 하달 방식을 "신발을 신은 채로 가려운 곳을 긁는" 격이었다고 회고했다고 전한다.

이 사례는 앞서 2절에서 살펴본 국제 네트워크의 매개 기능과는 결이 다른 차원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국제 네트워크가 지식과 인력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통로였다면, 이 사례는 국내 연구 현장에서 정치적·행정적 결정 방식 자체가 과학자 집단의 피드백에 의해 재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정치적 결정은 과학자 네트워크를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네트워크가 발신하는 정보, 즉 무엇이 비효율적이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장의 판단을 받아들여 집행의 방식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은 대등한 협상이 아니라 명백히 비대칭적인 구조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같은 자료에서 확인된다.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임무에 참여할 연구 인력의 정치적 신뢰도를 심사하는 과정에 할애되어 있다. 공안부·이기부·과학원 보위국이 합동으로 각 성·시 공안 당국 및 연구소 보위 부서와 함께 인원 심사조를 구성하였고, 해외 친인척이나 과거의 정치적 이력을 가진 연구자 개개인의 사례를 심사하여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였다. 방법론은 유연해졌지만—전문성이 필요한 인재는 배경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포섭한다는 방침이 이때 강조되었다—신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은 여전히 정치 보위 체계에 있었다. 즉 과학자 네트워크가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발언권을 확보하였지만, 누가 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정치적 심사 체계의 결정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이 시기의 다른 서신에서도 확인된다. 1962년 2월, 코펜하겐 보어연구소에 파견되어 있던 첸싼창의 제자 시엔딩창(冼鼎昌)은 오게 보어(Aage Bohr)가 중국 방문 의사를 여러 차례 비쳤다고 보고하면서도, 국내와 주재 대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적었다.[99] 국제 학술 교류의 물꼬가 개인적 신뢰 관계를 통해 열리더라도, 이를 공식적 관계로 발전시킬지 여부는 현장의 과학자가 아니라 본국의 지시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1965년 8월, 프랑스의 한 인사가 첸싼창 앞으로 보낸 서신은 원자능연구소 보안 부서가 먼저 개봉·검토한 뒤에야 첸싼창 본인에게 전달되었는데, 이는 그의 개인적 서신 교류조차 예외 없이 보안 체계의 관리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100]

요컨대 1961년의 임무 배정 방식 전환은 중국의 핵개발 과정에서 정치와 과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 구체적 순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상호작용은 실행의 기술적 방법을 둘러싼 영역에 국한되었으며, 누가 참여할 것인가, 어떤 정보가 국경을 넘을 수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서는 정치적 결정이 최종

99) 葛能全·陳丹 編注, 『錢三強往來書信集注』, 世界圖書出版公司, 2023.
100) 葛能全·陳丹 編注, 『錢三強往來書信集注』, 世界圖書出版公司, 2023.

적 권한을 유지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비대칭적 상호작용의 틀 안에서 소련 전문가 철수 이후의 핵개발이 어떻게 실제 기술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본다.

4. 제한된 환경 속 핵개발 추진과 성공 과정

이처럼 비대칭적이나마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비된 실행 체계는, 1960년 소련 전문가 철수라는 더 근본적인 위기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소련 전문가의 철수는 중국 핵개발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950년대 중후반 중국은 소련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원자력 연구 기반을 확장하고 있었으나, 중소 관계의 악화와 함께 핵 관련 기술 지원은 중단되었다.[101] 미완성 상태로 남겨진 기술 자료와 설계 문서, 그리고 중단된 연구 프로젝트 앞에서 중국 과학자들은 외부 지원 없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이론과 공정을 자체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102] 그러나 소련의 철수는 중국 핵개발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지도부와 과학자들은 이를 自力更生의 계기로 재해석하였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핵개발을 단순한 군사 기술 확보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국제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전략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지속하였다.[103]

---

101) Lewis and Xue, *China Builds the Bomb,* 90–95.
102) Jeffrey Lewis, *Paper Tigers: China's Nuclear Posture* (Routledge, 2014), 28–31.
103) 鄭海麟, 『中國核武器研制的曆史考察』, 國防工業出版社, 2007, 75–82.

원자탄 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기관은 국방과학기술 체계 아래 설치된 第九研究院이었다. 이 기관은 핵무기 설계와 연구를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 조직으로, 덩자셴, 주광야, 왕간창, 펑환우, 궈융화이 등 핵과학자들이 참여하였다.[104] 특히 덩자셴이 이끈 이론 연구 부문은 핵폭발 과정에 대한 계산과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소련 지원 중단 이후 중국 과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핵무기 설계에 필요한 이론적 자료와 계산 능력의 부족이었다. 전산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수작업 계산과 제한된 계산 장비를 활용하여 방대한 계산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연구자들은 소련으로부터 전달받은 일부 자료의 오류를 발견하고 자체적인 이론 모델을 구축하였다.[105] 이는 중국 핵개발이 단순한 기술 복제 과정이 아니라, 기존 지식을 검증하고 재구성하는 창조적 연구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핵개발은 이론 연구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우라늄 생산, 핵물질 정제, 폭발 장치 제작, 실험 시설 건설 등 복수의 산업적 기반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했다. 란저우(蘭州)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핵물질 생산을 담당하였고, 칭하이(青海)와 서북 지역의 연구 시설에서는 폭발 장치 개발과 시험 준비가 진행되었다.[106] 이 과정에는 전국의 연구소, 대학, 산업 시설이 참여하였으며, 중국 핵개발은 과학 연구와 국가 산업 동원이 결합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

104) Lewis and Xue, *China Builds the Bomb*, 103–110.
105) Lewis and Xue, *China Builds the Bomb*, 110–118.
106) 張蘊嶺, 『中國核工業發展史』, 原子能出版社, 1995, 130–145.

1964년 10월 16일 신장(新疆) 뤄부포(羅布泊)에서 실시된 첫 원자탄 실험의 성공은 이러한 장기간의 조직적 노력의 결과였다. 이 사건은 앞서 살펴본 정치적 결정이 과학자 네트워크와 국가 연구 체계를 통해 실제 기술 능력으로 전환된 순간이었다. 동시에 이는 중국이 미국·소련·영국·프랑스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국제정치적 사건이었다.

중국의 핵실험은 즉각 국제 사회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북한, 쿠바, 알바니아 등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의 핵실험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제국주의 압력에 대응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전략적 성취로 해석하였다.[107] 특히 북한 측 반응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중국 외교부가 수집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북한 측 인사는 중국 핵실험 성공에 대해 "마오쩌둥 주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국주의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며, 이제는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강력하며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을 때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라며 축하의 뜻을 전달하였다.[108] 이는 북한이 중국의 핵보유를 단순한 군사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사회주의권의 전략적 자립이라는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

107)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China's Nuclear History,"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108) "Cable from the Chinese Embassy in North Korea, 'Reactions to China's Nuclear Test'," October 17, 1964,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PRC FMA 113-00395-08, 58-59. Translated by Caixia Lu.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34751.

쿠바와 알바니아 역시 중국의 핵실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쿠바는 중국의 핵 능력 확보를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응으로 보았으며, 알바니아 언론은 중국 핵실험을 사회주의 진영의 성취로 보도하였다.[109] 이러한 반응은 중국 핵실험이 사회주의권 내부에서 정치적 결속의 상징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인도를 비롯한 주변 국가는 중국의 핵 보유를 새로운 안보 환경의 변화로 받아들였다. 특히 1962년 중·인 국경전쟁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 속에서 중국의 핵능력 확보는 인도 안보 계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110] 이후 인도의 핵정책 역시 중국 핵능력이라는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전개되었다.

미국 역시 중국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미국 정보기관은 1960년대 초부터 중국의 핵시설 건설과 기술 발전을 분석하였으며, 중국의 핵실험 가능성과 이후 아시아 전략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111]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의 핵보유가 동아시아 동맹 체제와 핵확산 문제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다.[112] 중국의 핵실험은 이후 국제 핵질서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미국과 소련 등 기존 핵보유국 중심의 핵질

109)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Reactions to China’s Nuclear Test,” 1964.
110) John Garver, Protracted Contest: Sino-Indian Rivalry i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1), 180–185.
111)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13-2-63, “Communist China's Advanced Weapons Program” (July 1963).
11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 XXX, China (Government Printing Office).

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였으며, 중국의 핵보유는 이러한 핵확산 문제를 둘러싼 국제 논쟁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다만 중국 외교부가 수집한 각국 반응 자료를 활용할 때는 자료의 성격에 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해당 문서들은 중국 외교기관이 보고·정리한 자료이므로 각국의 입장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라기보다 중국 정부가 파악하고자 한 국제 반응의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우호국의 긍정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13]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들은 중국 지도부가 핵실험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의미화했는지, 그리고 핵보유가 중국 외교 담론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1차 자료이다.

결국 제한된 환경 속에서 중국 핵개발의 성공은 정치적 결정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국가 지도부가 설정한 전략 목표, 과학자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 지식의 조직화, 국가 행정 체계와 산업 기반의 동원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중국의 핵개발은 정치가 과학을 일방적으로 통제한 사례가 아니라, 정치적 목표와 과학기술 역량이 상호 작용하며 형성된 국가 프로젝트였다. 1964년 핵실험은 바로 이러한 정치–과학 상호작용 구조가 가시화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113)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China’s Nuclear History,” archival notes.

Ⅳ. 결론

본 연구는 신중국 초기 핵개발의 형성 과정을 단순한 군사 기술 획득의 역사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과 과학자 네트워크가 비대칭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형성한 국가 프로젝트의 과정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중국 핵개발을 냉전 구조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핵보유국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전략, 혹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추진된 과학기술 현대화 정책으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국제적 배경과 정치적 동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핵개발이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 어떠한 조직적·인적 매개를 통해 과학기술적 성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과학자 집단의 조직화 과정이 결합하는 방식—그리고 그 결합이 대등한 협상이 아니라 특정한 비대칭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핵개발 결정은 국제 냉전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외교적 고립과 군사적 압박을 경험하였으며, 한국전쟁과 대만해협 위기는 핵무기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국가의 지위와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5년 핵개발 착수 결정과 이후 당·

정·군·과학계를 연결하는 동원 체제의 구축, 그리고 1959년 소련의 기술 지원 철회 이후 독자 개발 노선으로의 전환은 이 시기 정치적 결정이 압도적으로 하향식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층위에서 과학자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 동원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제Ⅲ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치적 결정이 조직적 실행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는 이와는 다른 층위의 관계가 작동하였다. 첸싼창은 근대물리연구소 설립과 왕간창·팽환우 등의 초빙을 통해 신중국 핵과학의 인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졸리오퀴리 부부·세실 파월·조지프 니덤 등과의 서신 교류, 두브나 합동원자핵연구소 참여를 통해 냉전의 제약 속에서도 국제 지식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 결정을 실행 가능한 현실로 옮기는 매개 작업이었다.

이 매개 작업이 단순한 일방적 집행이 아니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961년 8월 페이리성·첸싼창이 녜룽전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이 서신은 국방 부문이 연구소에 과제만을 일방적으로 하달하던 기존 방식이 연구 현장의 의욕 저하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낳았음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문제 제기가 실제로 임무 조율 방식 자체—쌍방이 기술 내용을 공개하고 함께 논의하여 과제를 정하는 방식—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과학자 네트워크가 정치적 결정의 수동적 수신자가 아니라, 그 결정이 실행되는 구체적 방식에 대해 실질적인 발언권을 가진 행위자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만 같은 자료는 이 상호작용의 범위가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임무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었지만, 누가 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정치적 신뢰 심사 체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1962년 코펜하겐에 파견된 시엔딩창이 보어의 방중 제안에 대해 본국의 지시 없이는 의견조차 표명하지 못한 사례, 1965년 첸싼창 개인 앞으로 온 서신조차 보안 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친 뒤에야 전달된 사례는,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과 관계의 이동이 개인적 신뢰만으로는 완결될 수 없었으며 정치적 승인이라는 문턱을 거쳐야 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정치와 과학의 상호작용은 실행의 기술적 층위에서는 실질적이었으나, 그 상위에 놓인 참여 자격과 정보 이동의 허용 범위는 시종 정치적 결정의 관할 아래 있었다.

첸싼창의 역할은 이러한 비대칭적 구조 안에서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그는 해외 유학 과학자와 국내 연구자를 연결하여 신중국 핵과학의 인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둘째, 그는 중국과학원, 대학, 국가 부처 사이에서 연구 현장의 요구와 국가 정책 목표를 조정하는 중개자로 기능하였으며, 이 조정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판단이 실행 방법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제 과학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냉전의 제약 속에서도 지식과 정보를 이동시키는 통로를 유지하였으되, 그 통로의 개폐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었다.

1964년 10월 16일 뤄부포에서 이루어진 첫 원자탄 실험의 성공은 이러한 비대칭적 상호작용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정치 지도부는 핵개발을 국가 생존과 국제적 지위 확보

를 위한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참여 자격과 정보 이동의 범위를 통제하였으며, 과학자들은 그 틀 안에서 실행 방법에 대한 실질적 재량을 행사하며 조직과 지식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핵개발은 '정치가 과학을 일방적으로 동원한 사례'로 완전히 환원되지도, '과학자가 정책 형성에 대등하게 참여한 사례'로 과장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정치가 목표와 참여 자격을 결정하고 과학이 실행 방법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는, 위계 안에서의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협상 과정이었다.

Ⅵ. 참고문헌

1. 1차 사료 및 사료성 저작

葛能全·陳丹 編注, 『錢三強往來書信集注』, 世界圖書出版公司, 2023.

葛能全, 『錢三強年譜長編』, 科學出版社, 2013.

聶榮臻, 『聶榮臻回憶錄』, 解放軍出版社, 1984.

毛澤東, 『毛澤東選集』 第五卷, 人民出版社, 1977.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中央文獻出版社, 1992－1998.

「中華人民共和國政府聲明」, 『人民日報』, 1964年 10月 17日.

"Cable from the Chinese Embassy in North Korea, 'Reactions to China's Nuclear Test'," October 17, 1964,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PRC FMA 113-00395-08. Translated by Caixia Lu.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34751.

"China's Nuclear History,"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

Dwight D. Eisenhower, *Mandate for Change, 1953－1956*, Doubleday, 196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 XXX, China, Government Printing Office.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13-2-63, "Communist China" Advanced Weapons Program," July 1963.

2. 국문 논저

손한별·웨즈롱, 「중국 핵전력의 발전과 핵전략의 변화」, 『新亞細亞』 21:1, 신아시아연구소, 2014.

채준형·김동혁, 「중국과 소련의 핵 기술 개발 협력 재고, 1945~1960」, 『大東文化硏究』 9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3. 중문 논저

謝光·陳丹淮, 『當代中國的國防科技事業』 1, 當代中國出版社, 1992.

徐光榮, 『錢三強傳』, 科學出版社, 2002.

陳丹, 『錢三強傳』, 中國青年出版社, 2017.

《中國科學院院史》編委會 編, 『中國科學院院史』, 科學出版社, 1999.

張蘊嶺, 『中國核工業發展史』, 原子能出版社, 1995.

劉傑, 『中國核工業發展史』, 原子能出版社, 1996.

李覺 外, 『當代中國的核工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梁東元, 『596秘史』, 湖北人民出版社, 2007.

鄭海麟, 『中國核武器研制的曆史考察』, 國防工業出版社, 2007.

4. 영문 논저

Chang, Gordon H. *Friends and Enemie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Soviet Union, 1948-1972*.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Cohen, Warren I. *America's Response to China: A History of Sino-American Relation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Evangelista, Matthew. *Innovation and the Arms Race: How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Develop New Military Technologi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Feigenbaum, Evan A. *China's Techno-Warriors: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ic Competition from the Nuclear to the Information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Foot, Rosemary.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Forman, Paul, and José M. Sánchez-Ron, eds. *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s and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6.

Fravel, M. Taylor, and Evan S. Medeiros. "China's Search for Assured Retaliation: The Evolution of Chinese Nuclear Strategy and Force Structure." I*nternational Security* 35, no. 2 (2010): 48–87.

Garver, John. *Protracted Contest: Sino-Indian Rivalry i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1.

Holloway, David. *Stalin and the Bomb: The Soviet Union and Atomic Energy, 1939–1956.* Yale University Press, 1994.

Horsburgh, Nicola. *China and Global Nuclear Order: From Estrangement to Active Engag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Hunt, Michael H. T*he Genesis of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Lewis, Jeffrey. *Paper Tigers: China's Nuclear Posture*. Routledge, 2014.

Lewis, John Wilson, and Xue Litai. *China Builds the Bomb*.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Lewis, John Wilson, and Xue Litai. *Imagined Enemies: China Prepares for Uncertain War*.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Lüthi, Lorenz M. *The Sino-Soviet Split: Cold War in the Communist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Medeiros, Evan S. "Evolution of China's Nuclear Doctrine." In *China's Nuclear Future*, edited by Paul J. Bolt and Albert S. Willner, 31–34. Lynne Rienner Publishers, 2006.

Needham, Joseph.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4.

Schmalzer, Sigrid. *The People's Peking Man: Popular Science and Human Identity in Twentieth-Century Chin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Stokes, Mark A. "China's Nuclear Warhead Storage and Handling System." Project 2049 Institute, 2010.

Suttmeier, Richard P. *Research and Revolution: Science Policy and Societal Change in China*. Lexington Books, 1974.

Wang, Zuoyue. "The Chinese Developmental State during the Cold War: The Making of the 1956 Twelve-Year Science and Technology Plan." *History and Technology* 31, no. 3 (2015): 180–205.

Westad, Odd Arne.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5장

비동맹의 형식적 지속과 주변외교의 위계적 안보화

최준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I. 서론

중국은 동맹을 거부한다고 말하면서도 점점 더 동맹과 유사한 안보관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최근 중국 대외정책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1980년대 이래 비동맹을 독립자주 외교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해 왔으며, 시진핑 집권 이후에도 "동맹이 아닌 파트너십(结伴而不结盟)"과 "비동맹·비대항·비제3국 지향(不结盟、不对抗、不针对第三方)"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26년에도 중국 지도부는 비동맹을 중국 특색 대국외교와 새로운 국가 간 관계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재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실제 중국의 대외안보관계는 이러한 공식적 수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반복적인 합동훈련과 전략순찰, 파키스탄과의 장기간에 걸친 방산·군사기술 협력, 일부 국가와의 군수지원·기지접근 및 제도화된 군사협력은 적어도 기능적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비동맹 관계와 중국의 가장 긴밀한 안보 파트

너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중국의 비동맹 원칙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중러관계를 둘러싼 연구는 이를 전략적 파트너십, 협상체(entente), 준동맹(quasi-alliance), 혹은 사실상의 동맹(de facto alliance)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해 왔다(Korolev 2019; Lukin 2021; Chang-Liao 2023; Feng and He 2024; Mastro 2024). 한편 중국의 파트너십 외교에 관한 연구들은 중국이 공식적이고 배타적인 동맹 대신 보다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동반자관계를 통해 협력망을 구축해 왔음을 강조한다. 군사외교 연구 역시 중국의 국방대화, 군사훈련, 무기이전과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를 종합해도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중국이 공식적인 비동맹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파트너십 네트워크 자체의 안보기능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기존 연구가 이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 이유는 분석의 초점에 있다. 첫째, 중러관계와 같은 가장 긴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특정 양자관계가 동맹인가 아닌가를 정교하게 논의할 수 있으나, 그러한 변화가 중국의 대외관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소수의 예외적인 관계에 집중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어렵다. 둘째, 중국의 군사외교를 훈련 횟수, 고위급 방문 또는 무기이전과 같은 개별 활동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특정 활동의 증가를 포착할 수 있지만, 여러 안보기능이 하나의 양자관계 안에서 어떻게 결합되고 중첩되는지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셋째, 이미 안보협력이 활발한 국가들만을 분석할 경우 중국의 안보관계가 심화되는 모습은 쉽게 관찰되나, 안보접촉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소멸한 관계는 분석에서 사라진다. 그 결과 중국의 안보외교가 네트워크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관계로 집중되고 있는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과 비동맹을 상호 배타적인 두 범주로 다루는 대신, 공식적 안보공약과 실제 안보기능을 분석적으로 분리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중국의 비동맹 원칙이 폐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은 상호방위 의무라는 공식적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일부 파트너십 내부에 제도적 국방협력, 반복적 군사운용, 방산·군사기술 연계 및 전략적 안보조율을 선택적으로 축적해 왔다. 따라서 중국 대외안보관계의 변화는 '비동맹에서 동맹으로의 전환'보다 비동맹의 형식적 지속 아래 이루어지는 '안보기능의 중층화'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안보화'는 특정 사안을 실존적 위협으로 구성하는 담론적 의미의 'securitization'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양자관계에 서로 다른 군사·안보기능이 누적되어 관계의 기능적 폭과 깊이가 증가하는 경험적 과정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안보화가 균등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파트너십 외교는 장기적으로 안보기능을 확대해 왔지만 그 지배적인 양식은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 사이에 변화하였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안보협력의 대상국과 기능이 함께 증가하는 외연적 안보화가 나타났다. 반면 시진핑 시기에는 낮은 수준의 안보접촉이 다수의 관계에서 축소되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부 파트너십에는 작전협력, 방산연계와 전략조율이 중첩되는 내포적·위계적 안보화가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안보협력망은 단순히 넓어지거나

좁아진 것이 아니라, 점차 더 불균등한 구조로 재편되었다. 비동맹은 이러한 변화를 막는 절대적인 제약이라기보다 상호방위 의무가 형성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경계로 남았으며, 그 경계 아래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기능적 차별화가 가능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의 109개 동반자관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코딩한다. 주 분석은 2012년과 2026년의 218개 dyad-snapshot을 비교하며, 각 관계의 안보기능을 네 차원으로 분해한다. 즉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I), 작전협력(Operational Cooperation, O), 방산·군사기술 연계(Defens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D), 전략적 안보조율(Strategic Security Coordination, S)을 각각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가 도달한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0–5의 Security Function Level(SFL)과 동시에 존재하는 기능의 수를 나타내는 0–4의 Functional Breadth(FB)를 산출한다. 기존 연구에서 안보·군사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류된 32개 관계뿐 아니라 나머지 77개 관계 역시 동일한 코드북과 증거기준을 적용해 처음부터 재코딩함으로써, 종속변수에 따른 사례선정의 위험을 줄인다. 자료는 NDU의 China's Military Diplomacy Database,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양국정부의 국방부·외교부 자료, 조약과 공동성명, 공식 군사활동 자료를 결합한다. 또한 동일한 측정도구를 2002년 기준점까지 확장하여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의 변화양식을 비교한다.

분석 결과는 중국의 대외관계가 시진핑 집권 이후 일률적으로 안보화되었다는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2012년에서 2026년 사이 109개 관계의 평균 SFL은 1.560에서 1.303으로 하락하고 평균 FB 역시 1.706에서 1.596으로 감소하였다. 안

보기능이 존재하는 관계도 98개에서 74개로 줄어들었다. 이 지표들만 본다면 시진핑 시기는 오히려 중국 파트너십 외교의 '탈안보화'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분포의 상층에서는 정반대의 변화가 나타난다. 반복적인 작전협력과 복수의 안보기능을 갖춘 SFL 3 이상의 관계는 9개에서 15개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서 2026년 사이 SFL이 상승한 관계는 20개, 유지된 관계는 50개, 하락한 관계는 39개로, 안보기능은 전체 네트워크에 확산되기보다 일부 관계로 집중되었다. 특히 기존에 안보·군사 요소가 확인된 32개 관계에서는 작전협력, 방산연계 및 전략조율이 모두 강화된 반면, 나머지 77개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하였다. 전체 평균의 하락과 최상위 안보관계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 결과가 바로 중국 안보외교의 위계화를 보여준다.

2002년까지 분석을 확장하면 이러한 변화의 역사적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후진타오 집권기인 2002년에서 2012년 사이 평균 SFL은 1.055에서 1.560으로, 평균 FB는 1.064에서 1.706으로 증가했으며, 109개 관계 가운데 50개가 더 높은 SFL로 이동한 반면 하락한 관계는 6개에 불과했다. 즉 후진타오 시기의 특징이 광범위한 파트너십에 안보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었다면, 시진핑 시기의 특징은 이미 형성된 안보협력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여 일부 관계의 기능적 밀도를 높이는 데 있었다. 따라서 중국 안보외교의 장기적 궤적은 단순한 '안보화 대 비안보화'나 '연속 대 단절'로 설명되기 어렵다. 보다 정확한 변화는 외연적 확장에서 선택적 집중으로, 그리고 비교적 평평한 안보협력망에서 보다 위계적인 안보협력망으로의 이동이다.

이러한 발견은 세 가지 논의에 기여한다. 첫째, 동맹과 정렬에 관한 연구에 대해 본 연구는 공식적인 방위공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동맹을 구성하는 여러 기능이 서로 다른 정도로 축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가 간 안보관계를 동맹/비동맹이라는 명목상의 이분법만으로 분류하면 공식적 제도와 실제 기능 사이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변화를 놓칠 수 있다. 둘째, 중국 대외정책 연구에 대해서는 시진핑 시기의 변화를 중국 파트너십 네트워크 전체의 군사화로 해석하기보다, 기존 네트워크 내부의 안보기능을 선택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으로 재개념화한다. 이는 중국이 비동맹 원칙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현상과 일부 파트너와의 군사협력을 동시에 심화하는 현상이 반드시 모순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셋째, 경험적으로는 109개 파트너십 전체를 공통된 다차원 척도로 비교함으로써 개별 사례나 단일 군사활동에 의존해 온 연구를 넘어 중국 안보관계의 분포와 장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측정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중국 비동맹 원칙의 역사적 형성과 오늘날의 지속성을 검토하고, 비동맹 원칙과 실제 안보협력 사이의 긴장을 기존 논쟁 속에 위치시킨다. 이어 시진핑 이전 중국 주변 및 파트너십 외교에서 안보협력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본 뒤, 본 연구의 개념과 측정전략, 자료수집 및 코딩 절차를 제시한다. 이후 2012년과 2026년의 109개 동반자관계를 비교하여 시진핑 집권기의 안보기능 변화를 분석하고, 2002년 기준선을 추가해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의 안보화 양식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중국 대외안보관계의 핵심적 변화가 비동맹의 폐기가 아니라, 비동맹의 형식적 지속 속에서 이루어진 안보기능의 선택적 축적과 위계화였음을 보인다.

II. 중국의 비동맹 원칙과 3불원칙

1. 비동맹 원칙의 기원과 발전

중국은 1970년대까지 미국과 '준동맹'이라 불리울 만큼 긴밀한 협력을 해왔으나, 1982년 9월 제12차 당대회에서 독립자주와 자력갱생(独立自主 , 自力更生)을 표방하며 비동맹노선을 천명했다. 후야오방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은 제12차 당대회 보고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자(全面开创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新局面)'에서 제5부 제목을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한다(坚持独立自主的对外政策)'라고 하며 "중국은 어떠한 대국이나 국가집단에도 결코 의존하지 않으며, 어떠한 대국의 압력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114] 여기서 '비동맹'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공식적인 당사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 후대 연구는 이때 실질적으로 비동맹 노선을 확립했다고 후에 해석했다.[115] 한편 '비동맹'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4년 5월로, 주앙 피게이레두 브라질 대통령을 만난 덩샤오핑의 "중국의 대외정책은 독립자주적이며, 진정한 비동맹이다. 중국은 미국 카드를 사용하지도 않고 소련 카드를

114) 胡耀邦, 「全面开创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新局面」, 1982년 9월 1일, 中国共产党新闻网, https://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5/65448/4526430.html.

115) 董振瑞, 「十二大前后中美苏"大三角"中的邓小平」, 『党的文献』 2014年第6期, 中共中央党史和文献研究院, 2014년 12월 23일, https://www.dswxyjy.org.cn/n/2014/1223/c218997-26260851.html.

사용하지도 않으며, 다른 나라가 중국 카드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116]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측 연구는 이를 1982년에 확립된 독립자주 외교전략의 후속적 명료화로 설명한다. 즉 1982년 제12차 당대회에서 독립자주 노선을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공식 확립하고, 1984년 해당 노선이 '비동맹'으로 명명된 것이다.

중국의 비동맹 원칙이 오늘날의 '3불 원칙', 즉 '비동맹·비대항·비제3국 지향 (不结盟、不对抗、不针对第三国)'으로 구체화된 것은 중소관계 정상화 이후 중러관계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출발점은 1989년 중소관계 정상화였다. 고르바초프의 방중을 계기로 발표된 「중소공동공보(中苏联合公报)」는 양국 관계를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하여 발전시킬 것을 천명하는 동시에, 관계 정상화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117] 당시 공동공보가 중소관계의 성격을 '비동맹·비대항·비제3국 지향'이라는 세 요소로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 외교부 외교정책자문위원회에 게재된 후대의 설명은 1989년 정상화를 1950년대의 동맹과 1960~70년대의 대결을 모두 벗어나 "비동맹·비대항·비제3국 지향"의 정상적인 국가관

116) 中国的对外政策是独立自主的，是真正的不结盟。中国不打美国牌，也不打苏联牌，中国也不允许别人打中国牌。；邓小平，「维护世界和平，搞好国内建设」，『邓小平文选』 第3卷（北京：人民出版社，1993），57쪽.

117) 「中苏联合公报」，『人民日报』，1989년 5월 18일, 제1면. 공동공보는"中苏关系正常化不针对第三国，不损害第三国利益"라고 명시하고, 이어 양국 관계를 "互相尊重主权和领土完整、互不侵犯、互不干涉内政、平等互利、和平共处"의 원칙에 기초하여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계를 수립한 전환점으로 평가한다.[118]

이러한 원칙은 소련 해체 이후 중러 간 파트너십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구체화되었다. 1994년 장쩌민과 보리스 옐친이 서명한 「중러공동성명(中俄联合声明)」은 양국의 관계를 새로운 형태의 '건설적 동반자관계(建设性伙伴关系)'로 규정하면서, 그 관계가 "동맹을 맺지 않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임을 명문화하였다. 나아가 군사·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 역시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119] 이에 따라 1982년 이래 중국의 일반적 대외정책 원칙이었던 비동맹과 1989년 중소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부각된 비제3국 지향성이 양자 파트너십의 성격을 규정하는 원칙으로 결합되었다. 다만 이 단계에서도 '비대항(不对抗)'까지 포함한 3불의 정형화된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세 요소가 하나의 공식으로 명확하게 결합된 것은 2001년이었다. 동년 7월 16일 「중러선린우호협력조약(中俄睦邻友好合作条约)」 체결과 함께 발표된 「중러정상 모스크바 공동성명(中俄元首莫斯科联合声明)」은 양국 관계를 "비동맹·비대항·비제3국 지향에 기초한 신형 국가관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120] 중국 외교부 역

118) 周晓沛, 「俄罗斯文化与中俄关系」,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外交政策咨询委员会, 2012년 12월 5일. 周晓沛는 1989년 정상화 이후의 관계를 "不同于二十世纪五十年代的那种结盟关系， 更不同于六、 七十年代的那种敌对关系，而是不结盟、不对抗、不针对第三国，相互睦邻友好的正常国家关系"라고 평가한다.

119) 「中俄联合声明」, 1994년 9월 3일. 성명 제2항은 양국의 '新型的建设性伙伴关系'를 "建立在和平共处各项原则基础上的完全平等的睦邻友好、互利合作关系，既不结盟，也不针对第三国"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군사·정치 분야에서는 "继续和扩大不针对第三国的交流与合作"을 명시하였다. 央视网 수록본.

시 이후 2001년 조약이 이러한 신형 국가관계를 법률적 형식으로 고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121] 따라서 오늘날 중국이 '3불 원칙'으로 지칭하는 공식은 1982년 비동맹 노선에서 출발해, 1989년 중소관계 정상화를 통해 그 기본적 관계 모델이 형성되고, 1994년 중러 파트너십에 비동맹과 비제3국 지향이 명시적으로 결합된 뒤, 2001년에 비대항까지 포함한 세 요소가 하나의 공식으로 정착한 것이다.

2. 비동맹 원칙의 최근 현황과 평가

비동맹 원칙은 시진핑 집권 이래 계속해서 주장되어 왔다. 시진핑 본인과 왕이 등 고위 지도부 구성원들이 여러 차례 언급하였으며, 2026년 8월 12일에는 시진핑 외교사상의 핵심성과로서 비동맹을 강조한 바 있다. 아래 표는 비동맹을 언급한 주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120) 「中俄元首莫斯科联合声明」, 2001년 7월 16일,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条约数据库. 공동성명은 "条约确认, 两国的友好关系是建立在不结盟、不对抗、不针对第三国基础上的新型国家关系"라고 명시하였다.

12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驻符拉迪沃斯托克总领事闫文滨就中俄建交70周年和中俄远东地区合作接受俄罗斯媒体采访」, 2019년 3월 5일. 해당 설명은 2001년 「中俄睦邻友好合作条约」이 "将两国不结盟、不对抗、不针对第三方的新型国家关系和世代友好的理念用法律形式固定下来"고 평가한다.

연도	주체	내용
‘14	시진핑, 중앙외사공작회의	要在坚持不结盟原则的前提下广交朋友，形成遍布全球的伙伴关系网络。[122]
‘15	왕이, 전인대 기자회견	正在走出一条结伴而不结盟的对外交往新路。[123]
‘18	시진핑, 보아오포럼	走对话而不对抗、结伴而不结盟的国与国交往新路[124]
‘19	공식 국방백서	中国坚持结伴不结盟，不参加任何军事集团。[125]
‘22	시진핑, BRICS정상회의	走出一条对话而不对抗、结伴而不结盟、共赢而非零和的新型安全之路。[126]
‘23	한정, UN총회 연설	走对话而不对抗、结伴而不结盟、共赢而非零和的安全之路。[127]
‘24	인민일보, 중앙외사공작회의 해설	倡导各国走对话不对抗、结伴不结盟的国与国交往新路[128]
‘25	시진핑외교사상 연구중심	[중국외교 전반] 中国坚持对话而不对抗、结伴而不结盟[129]
		[중러관계] 中俄关系建立在不结盟、不对抗、不针对第三方基础之上[130]
‘25	왕이, 전인대 기자회견	中俄已探索出一条“不结盟、不对抗、不针对第三方”的相处之道[131]
‘25	왕이, 방러 중 인터뷰	三是不结盟、不对抗、不针对第三方。“三不”原则是国际关系史上的创举，也是两国关系发展的必然选择。[132]
‘25	시진핑, 러시아언론기고문	坚持对话而不对抗、结伴而不结盟、共赢而非零和[133]
‘25	시진핑, SCO+정상회의	我们要继续坚持不结盟、不对抗、不针对第三方原则，合力应对各类威胁挑战，发挥好刚成立的应对安全威胁与挑战综合中心和禁毒中心作用，构筑地区安全共同体，坚定做动荡世界中的稳定力量。[134]
‘26	시진핑외교사상연	要在坚持不结盟原则的前提下广交朋友，形

	구중심, 시진핑외교사상학 습강요 소개	成遍布全球的伙伴关系网络[135]
‘26	외교부 당위원회, 시진핑외교사상학 습강요 소개	倡导走出一条对话而不对抗、结伴而不结盟、共赢而非零和的新型安全之路[136]
‘26	왕이, 전인대 기자회견	中俄在战略上独立自主。我们始终尊重对方的核心利益，不把自己的意志和议程强加给对方，坚持不结盟、不对抗、不针对第三方。[137]
‘26	중러공동성명	两国关系具有不结盟、不对抗、不针对第三国的性质。[138]
‘26	왕이, 시진핑외교문선 해설	「深学笃行习近平外交思想 奋力开创中国特色大国外交新局面」 开创性构建对话而不对抗、结伴而不结盟的全球伙伴关系[139]

122) 「习近平出席中央外事工作会议并发表重要讲话」, 共产党员网, 2014년 11월 29일, https://news.12371.cn/2014/11/29/ARTI1417254669280703.shtml.
123) 王毅, 「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2015년 3월 8일,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124) 习近平, 「开放共创繁荣 创新引领未来」, 博鳌亚洲论坛2018年年会开幕式主旨演讲, 2018년 4월 10일, 新华网.
125)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防』, 2019년 7월 24일, https://www.scio.gov.cn/zfbps/zfbps_2279/202207/t20220704_130612.html.
126) 习近平, 「构建高质量伙伴关系 开启金砖合作新征程——在金砖国家领导人第十四次会晤上的讲话」, 2022년 6월 23일,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https://brics2022.mfa.gov.cn/tpxw/202206/t20220627_10710466.html.
127) 韩正, 「构建人类命运共同体 共创世界更美好未来」, 第78届联合国大会一般性辩论, 2023년 9월 21일,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128) 「新征程中国外交的科学指引」, 『人民日报』, 2024년 3월 13일, https://www.news.cn/politics/20240313/afa910417f354bf789c914d1e457bada/c.html.
129) 习近平外交思想研究中心, 「思想伟力引领中国外交新作为」, 『红旗文稿』 2025年第1期, 2025년 1월 13일,

https://www.qstheory.cn/20250113/fd6b8c04e252469f8ea291f57006d3fe/c.html.
130) Ibid.
131) 王毅, 「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新华网, 2025년 3월 7일, https://www.news.cn/politics/2025lh/zb/wzzb2625/index.html.
132) 王毅, 「王毅接受"今日俄罗斯"国际媒体集团专访」, 2025년 4월 1일, 中华人民共和国驻东盟使团.
133) 习近平, 「以史为鉴 共创未来」, 『俄罗斯报』, 2025년 5월 7일, 新华网, https://www.news.cn/politics/leaders/20250507/ec8448de80f04154bed0e60488dd81dd/c.html.
134) 习近平, 「凝聚上合力量 完善全球治理——在"上海合作组织+"会议上的讲话」, 2025년 9월 1일, 新华网, https://www.news.cn/politics/leaders/20250901/55b95d13fd8a475b8203de106e66101f/c.html.
135) 习近平外交思想研究中心, 「习近平外交思想理论与实践的新发展新突破新成果——深入学习《习近平外交思想学习纲要（2025年版）》」, 共产党员网, 2026년 1월 29일, https://www.12371.cn/2026/01/29/ARTI1769651849442799.shtml.
136) 外交部党委, 「深刻领悟习近平外交思想源于时代引领时代的理论品格——深入学习《习近平外交思想学习纲要（2025年版）》」, 共产党员网, 2026년 2월 27일, https://www.12371.cn/2026/02/27/ARTI1772154179381827.shtml
137) 王毅, 「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6년 3월 8일, https://www.mfa.gov.cn/web/wjbz_673089/zyjh_673099/202603/t20260308_11870706.shtml
138)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进一步加强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 2026년 5월 20일, 新华社, https://www.news.cn/world/20260520/06f5505d9d8f4ff48664d8e1b03c44c9/c.html.
139) 王毅, 「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新华网, 2026년 3월 8일,

"비동맹 원칙을 견지한다는 전제 아래 폭넓게 친구를 사귀고, 전 세계에 걸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중국은 동맹이 아닌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대외교류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국가 간 교류의 길을 걸어야 한다."

"중국은 동맹이 아닌 파트너십을 견지하며 어떠한 군사집단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글로벌안보구상에 관련해)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파트너십, 제로섬이 아닌 상생의 새로운 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 "대항보다 대화, 동맹보다 파트너십, 제로섬보다 상생을 지향하는 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

"각국이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국가 간 교류의 길을 걸을 것을 제창한다."

"중국은 대항이 아닌 대화를, 동맹이 아닌 파트너십을 견지한다. 중러관계는 비동맹·비대항·비제3자 지향을 기초로 구축되어 있다."

---

https://www.news.cn/politics/leaders/20260308/f49f2b0999cf4bf1ae8d030199ae266b/c.html.

“중러는 비동맹·비대항·비제3자 지향이라는 상호관계의 길을 모색해냈다. 3불원칙은 비동맹, 비대항, 비제3국지향이다. 3불원칙은 국제관계사에서 하나의 창조이며, 양국 관계 발전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대항이 아닌 대화를, 동맹이 아닌 파트너십을, 제로섬이 아닌 상생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비동맹·비대항·비제3자 지향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각종 위협과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새로 설립된 안보위협·도전 대응 종합센터와 마약퇴치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역안보공동체를 구축하고, 격동하는 세계에서 확고한 안정의 역량이 되어야 한다.”

“비동맹 원칙을 견지한다는 전제 아래 널리 친구를 사귀고,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동반자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파트너십, 제로섬이 아닌 상생의 새로운 안보의 길,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독립자주적이다.”

“양국은 줄곧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지와 의제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비동맹·비대항·비제3자 지향을 견지한다.“

“양국 관계는 비동맹·비대항·비제3국 지향의 성격을 갖는다.”

「시진핑 외교사상을 깊이 배우고 충실히 실천하여,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파트너십의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를 창조적으로 구축했다. 이처럼 비동맹 원칙을 여러 차례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해당 원칙을 엄밀히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변화를 의심할 수 있는 모습들이 관찰되기 때문인데, 수사적 차원에서는 시진핑이 2018년 6월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140], 동년 7월 중국-세네갈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천연동맹군(天然同盟軍)'[141]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정상회담 및 시진핑의 아프리카 순방은 2018년 9월 이루어진 중-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의 정치적 사전작업의 성격을 가졌던 바, '천연동맹군'은 FOCAC 관련 문헌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8월 27일 인민일보	中非"是国际事务中的天然同盟军"[142]
9월 1일 신화사	作为发展道路上的真诚伙伴， 国际事务中的天然同盟军， 中非理应成为人类命运共同体理念先行先试的样板。[143]
9월 3일 인민일보	不管国际风云如何变幻，不管世界格局如何调整， 中非始终是志同道合的天然同盟军。[144]

140)「堅持以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外交思想爲指導努力開創中國特色大國外交新局面」, 『人民網』 , 2018년 6월 24일, http://politics.people.com.cn/n1/2018/0624/c1001-30078760.html

141) 「习近平同塞内加尔总统萨勒举行会谈」, 新华社, 2018년 7월 21일, 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 https://focacsummit.mfa.gov.cn/zxyw/201807/t20180723_5858913.htm.

국제문제에서 천연의 동맹군인 중국과 아프리카 발전의 길에서 진실한 동반자이자 국제문제에서 천연의 동맹군인 중국과 아프리카는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세계구도가 어떻게 조정되더라도 중국과 아프리카는 언제나 뜻을 같이하는 천연의 동맹군이다.

물론 2018년 정상회의의 양대 공식 결과문서인 「关于构建更加紧密的中非命运共同体的北京宣言」와 「中非合作论坛—北京行动计划（2019－2021年）」에 '천연동맹군'이 등장하지 않고, 「北京宣言」 제17항은 "냉전적 사고와 강권정치를 단호히 배격하고,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국가 간 교류의 길을 걸어야 한다."[145] 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용어 사용만으로 비동맹 원칙이 가시적으로 쇠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동맹'이 포

142) 「中非在国际事务中团结协作」, 『人民日报』, 2018년 8월 27일, 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 https://focacsummit.mfa.gov.cn/zpfh/201808/t20180827_5862983.htm.

143) 白洁·郑明达·温馨·涂铭, 「跨越万里的共同梦想——写在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召开之际」, 新华社, 2018년 9월 1일, 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 https://focacsummit.mfa.gov.cn/chn/zpfh/201809/t20180901_5863333.htm.

144) 「习近平主席将在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开幕式发表主旨演讲，非洲多国领导人高度评价中非关系」, 新华社, 2018년 9월 3일, 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 https://focacsummit.mfa.gov.cn/chn/zpfh/201809/t20180903_5863481.htm.

145) 坚决摒弃冷战思维和强权政治，走对话而不对抗、结伴而不结盟的国与国交往新路。；「关于构建更加紧密的中非命运共同体的北京宣言」, 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 2018년 9월 4일, https://focacsummit.mfa.gov.cn/hyqk/201809/t20180905_5859803.htm.

함된 용어를 적극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원칙의 실질적 영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러관계가 사실상 동맹인지 여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4년 10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을 러시아의 "천연의 동반자이자 천연의 동맹국(natural partners and natural allies)"이라고 지칭하였으며, Korolev(2019)는 이것이 모스크바가 이전까지 대중관계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동맹국(ally)'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중요한 변화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나아가 중러 양국이 동맹을 뒷받침할 상당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구축했으며, 완전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변화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146] 이와 유사하게 Lukin (2021)은 중러관계의 현 상태를 '준동맹(quasi-alliance)' 또는 '협상체(entente)'로 규정하면서, 양국의 지속적인 전략협력 심화가 사실상의 동맹 구축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147]

이러한 논쟁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로 더욱 심화되었다. 침공 직전인 2022년 2월 시진핑과 푸틴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러관계가 냉전기의 군사·정치동맹 모델을 "초월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양국의 "우호에는 한계가 없고 협력에는 금지구역이 없다(友好没有止境，合作没有禁

146) Alexander Korolev, "On the Verge of an Alliance: Contemporary China-Russia Military Cooperation," *Asian Security*, Vol. 15, No. 3 (2019), 233쪽, https://doi.org/10.1080/14799855.2018.1463991.
147) Artyom Lukin, "The Russia－China Entente and Its Future," *International Politics,* Vol. 58, No. 3 (2021), 363쪽, https://doi.org/10.1057/s41311-020-00251-7.

区)"고 선언하였다.[148]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는 전통적 군사동맹과의 차이를 강조했음에도, 오히려 관계의 범위에 사실상 제한이 없음을 천명했다는 점은 양국관계를 실질적 동맹으로 해석하는 논쟁을 더욱 촉진하였다. 실제로 Blank(2022)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한 정치적·정보적 지원과 지속적인 합동군사훈련 등을 근거로 중러관계를 명목상의 동맹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동맹(de facto alliance)'으로 규정하였다.[149] 최근의 연구들은 반드시 '동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국 간 군사적 정렬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는 주목한다. 예컨대 Mastro (2024)는 2024년 중러 양국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군사적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유사시 러시아가 중국군의 독자적 전투능력을 강화하거나 직접 참전 이외의 군사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150]

---

148)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新时代国际关系和全球可持续发展的联合声明」,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년 2월 4일, https://www.mfa.gov.cn/web/gjhdq_676201/gj_676203/oz_678770/1206_679110/1207_679122/202202/t20220204_10638953.shtml.

149) Stephen Blank, "Liberalism's Puzzle: The Russo-Chinese Alliance in the Light of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4, No. 4 (2022), p. 556, https://doi.org/10.22883/kjda.2022.34.4.003.

150) Oriana Skylar Mastro, "Sino-Russian Military Align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Global Security," *Security Studies*, Vol. 33, No. 2 (2024), p. 254, https://doi.org/10.1080/09636412.2024.2319587.

중러관계를 사실상의 동맹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미국 정치권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6월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는 중러동맹이 2001년에 처음 제도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양국 사이를 갈라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151] 동년 9월 당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마이클 매콜은 시진핑과 푸틴 간 동맹이 강대국 경쟁 속에서 '자유세계에 매우 큰 도전'을 제기한다고 평가하였다.[152] 미국 의회조사국(CRS) 역시 2023년 보고서에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일부 미국 정책결정자와 의원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의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153]

다만 상이한 시각도 확인된다. Huiyun Feng and Kai He(2024)는 양국 지도자의 상이한 세계관이 정식 군사동맹의 형성을 제약하며, 양국의 협력은 공유된 이해관계와 전략적 수단에 대한 유사한 인식에 기초한 실용적 협력에 가깝다고 주장한다.[154] Nien-Chung Chang-Liao (2023)역시 중국식 전략적

---

151) Charles Creitz, "Vivek Ramaswamy Calls to Disrupt China-Russia Alliance, Says It Would Be Like Splitting Germany and Japan," *Fox News*, 2023년 6월 5일, https://www.foxnews.com/media/vivek-ramaswamy-disrupt-china-russian-alliance-like-splitting-germany-japan.

152) Associated Press, "US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Chair Calls Russia-China Alliance the Biggest Threat Since WWII," 2023년 9월 1일, https://apnews.com/article/ac68f132509c37a8f11a483ffb16e932.

15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hina-Russia Relations," IF12100, 2023년 9월 13일,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IF/HTML/IF12100.web.html

154) Huiyun Feng and Kai He, "Why Will China and Russia Not Form an Alliance? The Balance of Beliefs in Peacetime," *International Affairs,*

파트너십이 비공식성·평등성·포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맹이나 정렬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바로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모스크바와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었다고 본다.[155] 더욱이 You Ji와 Wu Xiangning (2025)은 중러 합동훈련·합동순찰 등 군사협력의 전투지향성이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국이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경계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보존하려 하기 때문에 공식동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56]

동맹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단일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글렌 스나이더(Glenn H. Snyder)는 동맹을 "특정한 상황에서 회원국 외부의 국가를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위한 국가들의 공식적 결합"으로 정의함으로써, 공식적 합의와 특정 유사시의 군사적 의무를 동맹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제시한다.[157] 반면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는 동맹을 "둘 이상의 주권국가 사이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안보협력 관계"로 보다 폭넓게 정의하며, 정식 조약이 존재하지

Vol. 100, No. 5 (2024), 2089쪽, https://doi.org/10.1093/ia/iiae184.

155) Nien-Chung Chang-Liao, "The Limits of Strategic Partnerships: Implications for China's Role in the Russia-Ukraine War,"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44, No. 2 (2023), 226, 234쪽, https://doi.org/10.1080/13523260.2023.2174702.

156) You Ji and Xiangning Wu, "The Enduring Sino-Russian Strategic Relations of Mutual Dependence—The Attribute of Military Cooper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34, No. 155 (2025), 819쪽, https://doi.org/10.1080/10670564.2024.2342898.

157)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4쪽.

않는 안보관계도 동맹의 범주에 포함한다.[158] 실제로 이러한 개념적 차이는 중러관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관한 학계의 상이한 평가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정식 동맹, 사실상의 동맹, 준동맹 또는 전략적 파트너십 가운데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러관계가 이미 '동맹'으로 전환되었는지, 혹은 중국의 비동맹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었는지를 확정적으로 판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신 동맹과 비동맹을 이분법적 범주로 다루기보다, 비동맹이라는 공식적 원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외 파트너십에 안보적 기능과 관행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왔는지를 연속선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비동맹 원칙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군사협력, 합동훈련, 안보협의 및 전략적 조율 등을 심화시켜 왔으며, 그 결과 일부 파트너십이 전통적인 비동맹 관계로부터 벗어나 동맹에 가까운 성질을 점차 강화하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시진핑 시기 이전 및 집권 초 주변외교의 안보적 함의

중국 주변외교의 안보적 성격은 시진핑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탈냉전 이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개한 선린외교(睦邻外交)부터 주변지역의 안정은 중요한 정책목표였다. Zhao(1999)은 중국이 1980년대 이후 주변국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주변정책을 발전시켰으며, 그 핵심 동기 가운데 하나가 평

158)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12쪽.

화롭고 안정적인 주변환경과 경제협력의 확보였다고 분석한다.[159] Goldstein(2001)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을 국내 경제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유지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완화하려는 전략으로 파악한다.[160] 즉 초기 주변외교에서 안보는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국경분쟁과 주변국과의 갈등을 관리하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된 외부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어적·환경조성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2000년대 들어 공식적인 주변외교 방침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2002년 제16차 당대회는 "주변국과 선린우호를 계속 강화하고, 이웃을 선하게 대하고 이웃을 동반자로 삼으며(여린위산, 이린위반; 与邻为善、以邻为伴), 지역협력을 강화한다"고 규정하였다.[161] 이듬해 중국 정부는 이를 '목린(睦邻)·안린(安邻)·부린(富邻)'으로 구체화하면서, 특히 '안린'이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평화적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아시아 발전에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62] 따라서 당시에도 주변외교와 안보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안보의 핵심은 상대국과 공동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거나 상호방위 능력을 구축하는 것보

159) Suisheng Zhao, "China's Periphery Policy and Its Asian Neighbors," *Security Dialogue*, Vol. 30, No. 3 (1999), 335쪽.
160) Avery Goldstein,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The China Quarterly*, No. 168 (2001), 835－836쪽.
161) 江泽民, 「全面建设小康社会，开创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新局面——在中国共产党第十六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中国共产党第十六次全国代表大会, 2002년 11월 8일, 共产党员网.
162) 「中国的发展和亚洲的振兴」,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3년 10월 10일.

다, 주변의 불안정성을 억제하고 분쟁을 관리하는 데 있었다.

실제 안보협력도 이미 존재했다.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한 대테러 협력이나 중국-ASEAN 관계에서의 군사대화, 초국경범죄·해양안보·재난구조 협력 등이 그 사례이다.[163]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주변외교 전체를 안보 중심으로 재편하기보다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지역협력을 보완하는 하나의 기능적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2004년 당시 외교부 부부장이던 왕이의 설명이다. 왕이는 향후 중국의 지역협력 목표를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심화하는 기초 위에서 점진적으로 안보대화와 협력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164] 안보협력이 존재했음에도 경제협력이 기반이 되고 안보협력은 그 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영역으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본구조는 시진핑 집권 초기에도 상당 부분 이어졌다. 2013년 주변외교공작좌담회에서 시진핑은 주변외교의 전략적 목표에 국가의 "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와 "안보협력의 심화(安全合作更加深化)"를 명시하고, 별도로 지역안보협력의 추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상호신뢰·상호이익·평등·협력의 신안보관과 "포괄안보·공동안보·협력안보"를 바탕으로 지역 및 하위지역 협력기제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주변평화의 유지, 경제적 상호이익, 인프라 연결 및 인적교류와

163) 「重要新闻」,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2년 12월 17일; 温家宝, 「携手奋进，共创中国－东盟关系的美好未来」, 2006년 10월 30일,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164) 今后几年，我区域合作的工作目标是在保持和深化经济合作的基础上，逐步开展安全对话与合作"; 王毅, 「王毅副部长在外交学院"东亚共同体"研讨会发言摘要」,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4년 4월 21일.

병렬적으로 제시되었다.[165] 2014년 시진핑이 제시한 "공동·종합·협력·지속가능한 아시아 안보관" 역시 다른 국가를 희생하여 자국의 절대적 안보를 추구하는 방식을 부정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안보 및 발전과 안보의 병행을 강조하였다.[166] 더욱이 같은 해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는 이러한 적극적 외교의 확대 속에서도 "비동맹 원칙을 견지한다는 전제 아래"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167]

따라서 시진핑 이전과 집권 초기의 중국 주변외교를 비안보적 외교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변의 평화와 안정, 국경 및 영토문제의 관리,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 그리고 일정한 군사·안보 교류는 이미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다. 다만 이 시기의 안보협력은 대체로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주변환경의 조성이라는 상위목표 아래 갈등관리·신뢰구축·비전통안보 및 지역적 협력에 집중되어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비동맹적 파트너십의 틀 안에 위치했다. 따라서 이후의 변화를 분석할 때 핵심은 중국의 주변외교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안보화'되었는가가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안보적 요소가 어떠한 영역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얼마나 제도화·군사화되며, 동반자관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두터워졌는가에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

165) 「习近平：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 周边外交工作座谈会, 2013년 10월 25일,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166) 习近平, 「积极树立亚洲安全观 共创安全合作新局面——在亚洲相互协作与信任措施会议第四次峰会上的讲话」, 2014년 5월 21일,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167) 「习近平出席中央外事工作会议并发表重要讲话」, 2014년 11월 29일, 共产党员网.

III. 연구설계

1. 연구목적과 분석단위

이 연구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동반자관계가 안보적으로 변화했는지를 측정한다. 여기서 안보화는 중국과 더 많은 국가 사이에 단순히 국방 관련 접촉이 발생하는 현상을 뜻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측정하는 핵심 개념은 안보기능의 중층화, 즉 하나의 양자관계에 제도적 국방협력, 반복적 군사활동, 방산·군사기술 연계, 전략적 안보조율이 누적되면서 관계의 깊이와 기능적 폭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분석단위는 중국과 상대국 사이의 양자관계와 기준시점의 결합인 dyad-snapshot이다. 구체적으로 Zhang(2025)이 식별한 109개 중국 동반자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각 관계를 2012년과 2026년의 두 시점에서 관찰하였다. 따라서 최종 자료는 218개의 양자관계-시점 관측치와 872개의 차원별 코딩값으로 구성된다.

Zhang(2025)의 기존 분류에서 안보요소가 확인된 32개국과 그렇지 않은 77개국은 모두 동일한 코드북과 증거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코딩하였다. 32개국과 77개국의 구분은 이전 분류와의 비교 및 이질성 분석을 위해서만 보존했으며, 실제 점수를 부여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안보관계가 이미 존재한다고 판단된 사례만 분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종속변수에 의한 사례선정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109개 전체가 주 분석표본이며, 32개와 77개의 분해는 보조분석으로 취급한다.

2. 시간적 비교설계

본 연구는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관계와 일회성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 단일 날짜가 아니라 두 개의 관찰창을 사용한다. 2012년 기준선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026년의(현재시점) 기준선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폐쇄된 5개년 활동자료와 2026년 8월 16일까지의 공식자료로 한다. 두 시점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단순한 5개년 합계가 아니다. 군사훈련·공동순찰·고위급 방문·무기인도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활동은 각각 2008–2012년과 2021–2025년의 폐쇄된 5개년 관찰창으로 측정하였다. 반면 국방협정, 상설협의체, 공동생산, 군수지원체계와 같이 기준시점에 존속하는 관계적 속성은 그 제도가 이전에 설립되었더라도 기준시점에 유효하고 실제로 운용되고 있다면 포함하였다. 2026년 공식자료는 새로운 5개년 활동량을 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유효한 제도·협정·지원관계와 전략조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활동변수와 상태변수를 혼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인다. 예컨대 오래전에 서명되었지만 현재 작동하지 않는 국방협정은 높은 제도화 점수를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2019년에 설립된 상설협의체가 2024년에도 운영되었다면 2026년 현재시점의 제도화에 포함된다.

다만 2008–2012년 관찰창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부 시진핑 집권 이전은 아니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했으므로, 관찰창의 마지막 약 2개월이 집권 이후와 겹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를 ‘순수한 후진타오 시기’보다

‘2012년 기준선’으로 지칭하는 것이 정확하다. 최종 논문에서는 날짜가 제공되는 NDU 사건자료에 대해 2012년 11월 7일 이전까지만 포함하는 강건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 단위로만 제공되는 SIPRI 무기이전 자료에는 동일한 절단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밝혀야 한다.

3. 개념적 범위와 제외규칙

본 연구는 국가 간 군사·국방관계의 기능적 깊이를 측정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 또는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지지, 신장·홍콩·티베트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 지지, BRI 또는 GSI 참여,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투표 정렬, 정상회담에서의 일반적인 ‘전략적 신뢰’ 또는 ‘전략적 소통’ 표현, 무역·투자·공급망 의존 등 정치적·외교적 정렬은 그 자체로 안보기능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소는 정치적 정렬 또는 외교적 기능을 측정하는 별도 변수로 분석할 수 있지만, 군사적 안보기능과 직접 결합하지 않는 한 본 척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경찰, 법집행기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 및 국내질서 유지에만 사용되는 협력은 제외하였다. 이 규칙은 군사협력과 국내안보 지원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네갈에 대한 SIPRI 기록 중 헌병대용 장비는 방산협력에서 제외했고, 솔로몬제도와 중국 간 협정 중 경찰 및 국내질서 유지에 해당하는 조항도 군사적 안보기능으로 코딩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위 설정은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이나 국내안보 수출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측정대상을 국가 간 군사·국방관계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다.

4. 2단계 측정전략

최종 안보수준을 직접 판단하면 연구자의 전체적 인상에 따라 점수가 결정될 위험이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네 개의 구성요소를 독립적으로 코딩한 다음, 사전에 정한 결합규칙에 따라 최종 안보기능수준을 산출하였다. 네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I
작전협력: Operational Cooperation, O
방산·군사기술 연계: Defens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D
전략적 안보조율: Strategic Security Coordination, S

각 구성요소는 0, 1, 2의 서열척도로 측정한다. 0은 해당 기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은 제한적이거나 저강도인 기능, 2는 반복적·제도적·통합적인 기능을 의미한다. 각 차원의 점수는 동일한 숫자를 사용하지만 서로 대체될 수 없다. 예컨대 D2와 O2는 모두 2이지만, 전자는 방산·군수관계의 높은 수준을, 후자는 반복적인 작전활동을 나타낸다.

(1) 제도화: I

제도화는 양국의 군사·국방협력이 일회성 접촉을 넘어 지속적인 공식 메커니즘으로 조직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점수	판정기준
I0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공식 국방협력 메커니즘을 확인하지 못함
I1	국방대화, 협력협정, MOU 또는 제한적인 협의체가 있으나 개최가 비정례적이거나 실행이 제한됨
I2	정례 국방전략대화, 상설 공동위원회 또는 복수의 국방분야를 관리하는 공식 메커니즘이 실제로 반복 운영됨

I2에는 명칭을 가진 정례 협의체 또는 상설적인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오래된 MOU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I2를 부여하지 않는다. 해당 제도가 최근 관찰창에서도 실제 운영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고위급 군사방문은 I1 또는 I2 판정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방문 횟수만으로 제도화 점수를 자동 산출하지 않는다.

(2) 작전협력: O

작전협력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상대국 군대가 실제 훈련·순찰·작전성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점수	판정기준
O0	기준기간 내 범위에 해당하는 공동 군사활동을 확인하지 못함
O1	단발적 양자훈련, 다자훈련에서의 제한적 공동참여 또는 저밀도 공동활동
O2	두 차례 이상의 독립된 양자훈련·공동순찰, 정례화된 훈련 또는 기지지원과 결합된 반복적 작전협력

동일한 훈련을 여러 출처가 보도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계산하였다. 반면 서로 다른 시기와 명칭을 가진 훈련은 별개의 활동으로 처리하였다. 다자훈련에서 중국과 상대국이 함께 참여한 사실은 O1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양자훈련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단순 함정 기항, 친선방문, 군사대표단 회담 및 방산전시회 참가는 그 자체로 작전협력이 아니므로 O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NDU 자료의 항구방문 횟수는 관계의 군사적 접촉밀도를 설명하는 보조정보로만 보존하였다. 베트남과의 반복적 공동순찰이나 지부티 기지에 기반한 군사지원처럼 일반적인 훈련자료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작전활동은 공식자료로 보완하였다.

(3) 방산·군사기술 연계: D

D는 중국과 상대국 사이의 무기이전, 군사원조, 교육, 정비, 기술지원, 생산 및 군수지원 관계를 측정한다. 중국이 상대국에 제공한 장비만이 아니라 상대국이 중국에 제공한 군사기술과 무기체계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양방향 측정은 프랑스·독일·영국·스위스·우크라이나 및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현대화에 제공한 엔진·레이더·플랫폼·기술을 누락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점수	판정기준
D0	기준기간 내 실질적인 무기·군사원조·생산·정비·기술지원 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D1	제한적인 무기이전, 군사원조, 교육, 정비, 부품 또는 기술지원 관계
D2	대규모·반복적 주요무기 이전 또는 계약 체결, 면허생산·현지생산·공동개발 또는 장기적인 생산·정비·군수지원 의존 (이전된 체계가 상대국의 주요 군사역량 구성 및 장기적인 운용 확인)

SIPRI TIV는 무기이전의 군사적 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이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다. 따라서 TIV를 연속적인 경제가치로 해석하거나, 기계적인 단일 임계치만으로 D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D2의 경우, 하나의 대규모 계약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곧바로 전략적 안보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무기거래의 규모와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분리하기 위해 D2만으로는 후술할 Security Function Level (SFL) 3 또는 4를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았다.

(4) 전략적 안보조율: S

전략적 안보조율은 양국이 구체적인 지역위기, 공동위협, 제3국 문제 또는 군사적 역할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점수	판정기준
S0	일반적인 안보협력 수사 외에 반복적인 군사·전략조율을 확인하지 못함
S1	특정 안보현안에 대한 반복적 고위급 협의 또는 정책조율이 확인됨
S2	군사적 역할, 배치, 위기대응, 접근권 또는 작전지원에 관한 제도화된 조율이 확인됨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거나 “국제안보 문제에서 협력한다”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S1을 부여하지 않는다. S1에는 논의되는 안보현안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일 정상회담을 넘어 반복성 또는 제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한편 S2에는 훨씬 강한 증거가 필요하다. 반복적인 공동 전략순찰, 군사 접근권, 기지 및 군수지원, 작전 관련 정보교환 또는 위기시 역할분담에 준하는 조율이 그 예다. 합동훈련 또는 무기공동생산만으로는 S2를 부여하지 않는다. 최종 자료에서 S2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의도적인 높은 문턱의 결과다.

(5) 상호방위공약

상호방위공약은 기능적 폭을 측정하는 I/O/D/S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SFL 5를 판정하기 위한 별도의 관문조건으로 점검한다. 외부 공격 발생 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명시적인 법적 또는 정치적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단순 협의조항이나 우호협력조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표본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M 열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사례가 발견될 경우 상호방위공약은 다른 구성요소의 합계와 관계없이 SFL 5 판정의 필수조건이 된다.

5. 안보기능수준의 산출

최종 종속변수인 Security Function Level(SFL)은 네 구성요소의 단순합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접촉에서 제도화·작전화·전략적 통합으로 진행되는 관계의 질적 단계를 나타내는 0–5 서열척도다.

SFL 명칭		판정기준
0	안보기능 부재	I/O/D/S가 모두 0
1	제한적 안보연계	하나 이상의 기능이 있으나 단발적·부분적 관계에 머묾. 제한적인 단일 기능만 존재하고 I2·D2 및 복수기능 결합이 없음.
2	기능적 국방관계	I2 또는 D2가 존재하거나 복수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으나 반복적 작전협력은 부재. I2 또는 D2가 존재하거나, I/O/D/S 가운데 두 개 이상의 기능이 존재.
3	작전화된 안보협력	반복적인 양자 작전협력이 다른 안보기능과 결합되거나, 제한적 양자작전과 높은 군수·생산 의존이 직접 결합됨. 즉 O2가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다른 안보기능이 결합하거나, 예외적으로 O1과 D2가 결합된 경우 중 해당 O1이 양자작전이고 D2 동일 군대·플랫폼의 생산·운용·정비 의존을 나타냄.[168]
4	전략적으로 조율된 준동맹적 관계	SFL 3을 충족하면서 S2와 O2·D2·I2 중 하나 이상이 결합됨.
5	공식적 방위동맹	외부 공격 시 군사적 지원에 대한 공식적 의무, 즉 명시적인 상호방위공약이 존재함

168) O1은 양자활동과 다자활동으로, D2는 대규모 거래와 생산·운용 의존으로 보조 분류한다. 예컨대 대규모 무기구매와 한 차례의 다자훈련이 함께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SFL 3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한적인 양자작전이 해당 무기체계의 장기적인 운용·훈련·정비 관계와 직접 결합되어 있을 때만 작전화된 관계로 판단한다. 이 규칙은 동일한 I/O/D/S 숫자 조합이라도 하위 근거의 성격이 다르면 SFL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재현성을 위해 최종 코딩표에는 O1의 양자·다자 여부와 D2의 판정근거를 코더노트에 기록해야 한다.

6. 기능적 폭과 시점 간 변화

SFL이 관계가 도달한 가장 높은 기능적 단계를 측정한다면, Functional Breadth(FB)는 하나의 양자관계에 몇 개의 안보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지를 측정한다. FB는 0에서 4의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I2와 O2만 존재하는 관계는 작전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만 FB는 2다. 반면 I·O·D·S가 모두 존재하는 관계는 FB 4로, 더 많은 안보기능이 중첩된 관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층화는 깊이와 폭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해된다. 깊이는 관계가 도달한 질적 단계인 SFL, 폭은 동시에 존재하는 기능역의 수인 FB에 의해 측정된다.

시점 간 변화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Delta SFL_i = SFL_{i,\ 2026} - SFL_{i,2012}$$
$$\Delta FB_i = FB_{i,\ 2026} - FB_{i,2012}$$

다만 SFL은 서열척도이므로, ⊿SFL 2가 ⊿SFL 1의 정확히 두 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주 분석에서는 각 관계를 하락, 변화 없음, 한 단계 상승, 복수 단계 상승으로 분류하고, 전체 전이분포를 제시한다. 평균 SFL은 표본 전체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보조적 서술통계로만 사용한다. FB는 0–4의 개수변수이므로 평균의 해석이 SFL보다 상대적으로 직접적이지만, 네 기능이 이론적으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FB는 기능의 수를 측정할 뿐 각각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중하지 않는다.

7. 자료수집과 출처의 위계

모든 109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화 자료와 국가별 공식자료를 결합하였다. 첫째, 고위급 군사방문, 군사훈련 및 함정기항은 NDU의 China's Military Diplomacy Database v6.0을 사용하였다.[169] 해당 자료의 3,492개 사건을 직접 재집계하여 국가별 2008–2012년 및 2021–2025년의 고위급 방문, 전체 훈련, 양자훈련 및 함정기항 횟수를 산출하였다. 훈련은 양자와 다자로 구분했으며, 함정기항은 0점수를 자동 발생시키지 않는 보조정보로 사용하였다.

둘째, 방산관계는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의 국가별 인도자료와 거래등록부를 사용하였다.[170] 중국을 공급국으로 하는 자료 외에 중국을 수령국으로 하는 자료도 별도로 조회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수출만 조사할 경우 누락되는 프랑스·독일·영국·스위스·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기술 제공을 포착하였다. 총 TIV와 개별 거래등록부를 함께 확

169) Saunders, Phillip C., and Melodie Ha. 2025. *China's Military Diplomacy*. China Strategic Perspectives 19.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https://ndupress.ndu.edu/Media/News/News-Article-View/Article/4222744/chinas-military-diplomacy/.

170)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26년 3월 9일 갱신, https://armstransfers.sipri.org/. 중국에서 각 상대국으로의 이전과 각 상대국에서 중국으로의 이전을 각각 검색했으며, 인도연도(delivery year)는 2003–2007년, 2008–2012년, 2021–2025년으로 설정하였다. 기간별 합산 및 계산은 저자가 수행하였다.

인하여 단순 인도, 면허생산, 현지생산 및 장기적인 기술지원 관계를 구분하였다.

셋째, I와 S처럼 구조화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차원은 중국 및 상대국의 국방부·외교부 발표, 조약·공동성명·협정 원문, 공식 군사훈련 발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공식자료가 없거나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주요 국제기구·정부 연구기관·동료평가 연구·신뢰도 높은 전문기관 및 주요 통신사를 사용하였다. 출처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따른다.

- 당사국 국방부·외교부, 조약 및 공동성명 원문
- NDU·SIPRI·UN 등 구조화된 공신력 자료
- 동료평가 연구 및 정부·전문 연구기관
- Reuters·AP 등 주요 통신사
- 기타 보조자료

SFL 3 이상은 가능한 한 최소 하나의 공식자료 또는 구조화된 직접 사건자료를 요구한다. SFL 4에는 전략조율을 직접 보여주는 공식자료와 별도의 독립적인 작전 또는 물질적 근거가 모두 필요하다.

8. 부재 추론과 증거 신뢰도

공개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동일하지 않다. 특히 공식자료의 공개 정도가 낮은 아프리카·중앙아시아·중동 국가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숫자형 변수와 증거의 확실성을 분리하였다. 공통 구조화 자료와 국가별 표적 검색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양의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능을 0으로 코딩하되, 이를 존재론적인 부재가 아니라 '검색된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해석하였다. 각 I/O/D/S 셀에는 다음과 같은 confidence 등급을 별도로 부여하였다.

등급	의미
A	공식 원문, NDU 사건자료 또는 SIPRI 거래자료가 점수를 직접 뒷받침
B	강한 구조화 자료·신뢰도 높은 2차 자료 또는 보수적인 판정
C	정해진 검색절차에서 양의 공개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부재 추론

Confidence는 관계의 강도를 뜻하지 않는다. 예컨대 D1/A는 제한적인 방산관계가 직접 확인된 경우이고, D2/B는 관계가 강하지만 근거가 간접적이거나 세부사항이 불완전한 경우일 수 있다. 또한 낮은 confidence를 점수에 수학적으로 가중하거나 감점하지 않았다. 대신 B 또는 C 사례를 제외한 강건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최종 자료에서는 양의 점수에 C confidence가 부여된 사례가 남지 않도록 역감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모든 양의 I/O/D/S 점수는 최소 B 이상의 근거를 가진다. 반면 0점의 C는 계속 유지하였다. 국가별 종합 confidence는 0점 셀의 불확실성 때문에 모든 국가가 자동으로 C가 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양의 점수만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두 시점에서 모든 기능이 0인 국가는 종합 C로 처리하되, 차원별 confidence는 원자료에 그대로 보존하였다.

9. 코딩절차와 감사기록

코딩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였다.

- Zhang(2025)의 109개국 목록을 확정하고 국가명을 NDU 및 SIPRI 국가코드와 연결하였다.
- NDU 원자료에서 각 국가의 두 관찰창에 해당하는 방문, 훈련, 양자훈련, 함정기항을 재집계하였다.
- SIPRI 자료에서 중국→상대국과 상대국→중국의 양방향 거래를 조회하였다.
- 면허생산·현지생산·공동개발·정비지원 여부를 거래등록부에서 확인하였다.
- 구조화 자료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I와 S 및 비-SIPRI 군사원조 사례를 국가별 공식자료로 보완하였다.
- 경찰·헌병·무경·해경 및 국내질서 유지 목적의 활동을 제거하였다.
- 2012년과 2026년의 I/O/D/S를 각각 독립적으로 확정하였다.
- 구성요소가 확정된 후에만 FB와 SFL을 산출하였다.
- 두 시점의 코딩을 확정한 뒤 ΔSFL과 ΔFB를 계산하였다.
- 기존 32개 및 77개 코딩과 비교하여 변경된 행을 별도의 revision log에 기록하였다.
- 모든 양의 점수 중 confidence C가 남아 있는지를 역감사하였다.
- FB와 SFL의 산출규칙, 중복 국가 및 누락된 근거를 기계적으로 점검하였다.

최종 자료에는 109개국의 주 코딩표뿐 아니라 872개 차원별 셀의 점수, 근거문, confidence 및 출처를 기록한 Cell Evidence Ledger가 포함된다. 또한 NDU 사건집계, 기존 값과 수정값을 비교한 Revision Log, 코드북 및 출처목록을 별도 시트로 보존하였다. 직접감사 결과 기존 값과 비교해 109개국 중 84개국에서 적어도 하나의 2012년 또는 2026년 구성요소가 수정되었다. 이는 최초의 탐색적 코딩과 최종 코딩을 구분하고 모든 수정사항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10. 분석전략

주 분석은 전체 109개국의 2012–2026년 전이분포를 제시하는 것이다. SFL은 서열척도이므로 평균차이만으로 안보화를 판단하지 않고, SFL 0–5의 시점별 분포, 상승·유지·하락 사례 수, SFL 0과 SFL 3 이상 사례의 변화, I/O/D/S별 평균 및 비영점 사례 수, FB의 평균과 분포, 32개와 77개 하위집단의 차이, confidence A/B/C에 따른 강건성 검사 등의 지표를 함께 보고한다.

평균 SFL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치를 압축한 서술통계로, 평균적인 양자관계가 실제로 특정 단계에 속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1에서 2로의 이동과 3에서 4로의 이동이 동일한 실질적 거리를 갖는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균 SFL은 반드시 분포와 전이표를 함께 제시한다.

11. 예상되는 한계와 강건성 검사

첫째, 공개자료의 양은 국가별로 다르다. 중국 및 상대국 정부가 민감한 군사협력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0점은 실제 부재보다 관측의 한계를 반영할 수 있다.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차원별 confidence와 Cell Evidence Ledger를 통해 판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SIPRI는 주요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하므로 소화기, 일부 부품, 비공개 원조, 군복·차량·통신장비 및 이중용도 기술을 모두 포착하지 않는다. 따라서 SIPRI 수치가 0이더라도 공식 군사원조나 생산·정비협력의 독립적 증거가 있으면 D1 또는 D2가 가능하다.

셋째, NDU 자료도 모든 비공개 훈련과 접촉을 포괄하지 않는다. 특히 저투명성 국가의 활동은 과소포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O0는 구조화 자료에 기반한 비교 가능한 판정이지 모든 군사활동의 절대적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넷째, SFL은 의도적으로 결합조건을 사용하는 서열적 유형분류다. 이는 작전협력과 전략조율의 질적 차이를 표현하는 데 유리하지만, 경계사례에서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O1의 양자·다자 여부와 D2의 거래·생산·운용 의존 여부를 하위태그로 기록하고, 제2코더 검증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IV. 시진핑 집권기 주변외교의 변화

1. 좁고 깊은 안보화: 선택적 집중과 위계적 구분

Appendix Table A1. Country-Level SFL–FB Coding of China's 109 Partnerships, 2012 and 2026									
Partner country	2012				2026				Δ SFL
	I/O/D/S	FB	SFL	Confidence	I/O/D/S	FB	SFL	Confidence	
Panel A. 32 partnerships originally coded by Zhang as containing security or military components									
Russia	2/2/1/1	4	3	A/A/A/A	2/2/1/2	4	4	A/A/A/A	+1
Belarus	1/0/1/0	2	2	B/B/B/C	1/2/1/1	4	3	B/A/B/A	+1
Ethiopia	1/0/1/0	2	2	B/B/A/C	1/1/1/0	3	2	B/A/A/C	0
Pakistan	2/2/2/1	4	3	A/A/A/B	2/2/2/1	4	3	A/A/A/B	0
Uzbekistan	1/0/0/1	2	2	B/B/C/B	2/0/1/1	3	2	A/B/A/B	0
Bangladesh	1/0/1/0	2	2	B/B/A/C	1/1/2/0	3	3	B/A/A/C	+1
Cambodia	1/0/1/0	2	2	B/B/A/C	1/2/2/0	3	3	B/A/A/C	+1
DR Congo	1/0/1/0	2	2	B/B/B/C	1/0/1/0	2	2	B/B/A/C	0
Equatorial Guinea	0/0/1/0	1	1	C/B/A/C	0/0/1/0	1	1	C/B/A/C	0
Gabon	1/1/0/0	2	2	B/A/C/C	1/0/1/0	2	2	B/B/A/C	0
Laos	1/0/1/0	2	2	B/B/A/C	1/2/1/1	4	3	B/A/A/B	+1
Mozambique	1/0/1/0	2	2	B/B/B/C	1/1/1/0	3	2	B/A/B/C	0
Tajikistan	1/0/0/1	2	2	B/B/C/B	1/0/1/1	3	2	B/B/A/B	0
Kazakhstan	1/0/0/1	2	2	B/B/C/B	1/0/1/1	3	2	B/B/A/B	0
Malaysia	1/0/0/0	1	1	B/B/A/C	1/1/1/0	3	2	B/A/A/C	+1
Egypt	1/0/2/0	2	2	B/B/A/C	1/1/1/0	3	2	B/A/B/C	0

Saudi Arabia	1/0/1 /0	2	2	B/B/A/C	1/2/1 /1	4	3	B/A/A/B	+1
Iran	1/0/2 /1	3	2	B/B/A/A	1/1/1 /1	4	2	B/A/B/A	0
Serbia	1/0/0 /0	1	1	B/B/C/C	1/1/2 /0	3	2	B/A/A/C	+1
Kyrgyzstan	1/1/0 /1	3	2	B/A/C/B	1/0/1 /1	3	2	B/B/B/B	0
United Arab Emirates	1/0/0 /0	1	1	B/B/C/C	1/2/1 /1	4	3	B/A/B/B	+2
Turkmenistan	1/0/0 /0	1	1	B/B/C/C	1/0/1 /1	3	2	B/B/B/B	+1
Timor-Leste	1/0/1 /0	2	2	B/B/A/C	1/0/0 /0	1	1	B/B/C/C	-1
India	2/1/0 /1	3	2	A/A/C/B	2/0/0 /1	2	2	A/B/C/B	0
Sri Lanka	1/1/1 /0	3	2	B/A/A/C	2/0/1 /0	2	2	A/B/A/C	0
Afghanistan	1/0/0 /1	2	2	B/B/C/B	1/1/0 /1	3	2	B/A/C/B	0
Brunei	1/0/0 /0	1	1	B/B/C/C	2/0/0 /0	1	2	A/B/C/C	+1
Qatar	1/0/0 /0	1	1	B/B/C/C	1/0/0 /0	1	1	B/B/C/C	0
Jordan	1/1/1 /0	3	2	B/A/A/C	0/0/1 /0	1	1	C/B/A/C	-1
Morocco	1/0/2 /0	2	2	B/B/A/C	0/0/1 /0	1	1	C/B/A/C	-1
Sudan	1/0/2 /0	2	2	B/B/A/C	0/0/1 /1	2	2	C/B/B/B	0
Romania	1/2/0 /0	2	3	B/A/C/C	0/0/0 /0	0	0	C/B/C/C	-3
Panel B. Remaining 77 partnerships									
Venezuela	1/1/2 /1	4	2	B/A/A/B	1/0/2 /1	3	2	B/B/A/B	0
Hungary	1/0/0 /0	1	1	B/B/C/C	1/0/0 /0	1	1	B/B/C/C	0
Vietnam	2/2/0 /1	3	3	A/A/C/A	2/2/1 /1	4	3	A/A/B/A	0
Myanmar	1/0/2 /1	3	2	B/B/A/B	1/0/2 /1	3	2	B/B/A/B	0
Thailand	2/2/2 /1	4	3	A/A/A/A	2/2/2 /1	4	3	A/A/A/A	0
Guinea	0/0/1 /0	1	1	C/B/A/C	0/0/1 /0	1	1	C/B/A/C	0
Congo	1/0/1 /0	2	2	B/B/A/C	0/0/1 /0	1	1	C/B/A/C	-1
Senegal	1/0/0 /0	1	1	B/B/C/C	1/0/0 /0	1	1	B/B/C/C	0
Sierra Leone	1/0/1 /0	2	2	B/B/A/C	0/0/0 /0	0	0	C/B/C/C	-2

Kenya	1/0/1 /0	2	2	B/B/A/C	0/0/0 /0	0	0	C/B/C/C	-2
Namibia	1/0/1 /0	2	2	B/B/A/C	1/0/1 /0	2	2	B/B/A/C	0
Zimbabwe	1/0/0 /0	1	1	B/B/C/C	1/0/1 /0	2	2	B/B/A/C	+1
Tanzania	1/0/2 /0	2	2	B/B/A/C	1/1/1 /0	3	2	B/A/A/C	0
Zambia	1/0/1 /0	2	2	B/B/A/C	0/0/0 /0	0	0	C/B/C/C	-2
Angola	1/0/0 /0	1	1	B/B/C/C	0/0/0 /0	0	0	C/B/C/C	-1
Maldives	1/0/0 /0	1	1	B/B/C/C	1/0/1 /0	2	2	B/B/B/C	+1
South Africa	2/0/0 /1	2	2	A/B/C/A	2/1/1 /1	4	2	A/A/B/A	0
France	1/0/2 /1	3	2	B/B/A/A	1/0/2 /1	3	2	B/B/A/A	0
Italy	1/1/0 /0	2	2	B/A/C/C	1/0/0 /0	1	1	B/B/C/C	-1
Indonesia	2/2/1 /0	3	3	A/A/A/C	2/2/1 /1	4	3	A/A/A/A	0
Portugal	1/0/0 /0	1	1	B/B/C/C	0/0/0 /0	0	0	C/B/C/C	-1
Spain	1/0/0 /0	1	1	B/B/C/C	0/0/0 /0	0	0	C/B/C/C	-1
Greece	1/0/0 /0	1	1	B/B/C/C	1/0/0 /0	1	1	B/B/C/C	0
Denmark	0/0/0 /0	0	0	C/B/C/C	0/0/0 /0	0	0	C/B/C/C	0
Brazil	2/0/0 /1	2	2	A/B/C/A	2/1/0 /1	3	2	A/A/C/A	0
Mexico	1/0/0 /0	1	1	B/B/C/C	0/0/0 /0	0	0	C/B/C/C	-1
Peru	1/1/1 /0	3	2	B/A/A/C	0/0/0 /0	0	0	C/B/C/C	-2
Algeria	0/0/1 /0	1	1	C/B/A/C	1/0/2 /1	3	2	B/B/A/A	+1
Argentina	1/0/1 /0	2	2	B/B/A/C	1/0/0 /0	1	1	B/B/C/C	-1
Australia	2/2/0 /1	3	3	A/A/C/A	2/0/1 /1	3	2	A/B/A/A	-1
Germany	1/0/2 /0	2	2	B/B/A/C	1/0/2 /0	2	2	B/B/A/C	0
Mongolia	2/1/0 /1	3	2	A/A/C/A	2/2/1 /1	4	3	A/A/B/A	+1
New Zealand	2/0/0 /1	2	2	A/B/C/A	2/0/0 /1	2	2	A/B/C/A	0
United Kingdom	1/0/2 /0	2	2	B/B/A/C	1/0/0 /0	1	1	B/B/C/C	-1
Chile	1/0/0 /0	1	1	B/B/C/C	1/0/0 /0	1	1	B/B/C/C	0

Ecuador	1/0/1/0	2	2	B/B/A/C	0/0/0/0	0	0	C/B/C/C	-2
Poland	1/0/0/0	1	1	B/B/C/C	0/0/0/0	0	0	C/B/C/C	-1
Fiji	0/0/0/0	0	0	C/B/C/C	1/0/1/0	2	2	B/B/B/C	+2
Papua New Guinea	1/0/1/0	2	2	B/B/B/C	1/0/1/0	2	2	B/B/B/C	0
Solomon Islands	0/0/0/0	0	0	C/B/C/C	0/0/0/0	0	0	C/B/C/C	0
Bahrain	1/0/0/0	1	1	B/B/C/C	0/0/0/0	0	0	C/B/C/C	-1
Djibouti	1/1/0/0	2	2	B/A/C/C	1/2/1/1	4	3	B/A/A/A	+1
Micronesia	0/0/0/0	0	0	C/B/C/C	0/0/0/0	0	0	C/B/C/C	0
Azerbaijan	1/0/0/0	1	1	B/B/C/C	1/0/2/0	2	2	B/B/A/C	+1
South Korea	2/1/0/1	3	2	A/A/C/A	1/0/0/1	2	2	B/B/C/A	0
Turkey	1/2/2/0	3	3	B/A/A/C	0/0/0/0	0	0	C/B/C/C	-3
Nepal	1/0/1/0	2	2	B/B/B/C	1/2/1/0	3	3	B/A/A/C	+1
Suriname	1/0/1/0	2	2	B/B/B/C	1/0/0/0	1	1	B/B/C/C	-1
Canada	1/0/0/0	1	1	B/B/C/C	1/0/0/0	1	1	B/B/C/C	0
Nigeria	1/0/2/0	2	2	B/B/A/C	1/1/2/0	3	2	B/A/A/C	0
Ukraine	1/0/2/0	2	2	B/B/A/C	1/0/2/0	2	2	B/B/A/C	0
Ireland	0/0/0/0	0	0	C/B/C/C	0/0/0/0	0	0	C/B/C/C	0
Costa Rica	0/0/0/0	0	0	C/B/C/C	0/0/0/0	0	0	C/B/C/C	0
Czech Republic	1/0/0/0	1	1	B/B/C/C	0/0/0/0	0	0	C/B/C/C	-1
Switzerland	1/0/2/0	2	2	B/B/A/C	0/0/0/0	0	0	C/B/C/C	-2
Uruguay	1/0/0/0	1	1	B/B/C/C	1/0/0/0	1	1	B/B/C/C	0
Austria	1/0/0/0	1	1	B/B/C/C	0/0/0/0	0	0	C/B/C/C	-1
Bolivia	1/0/1/0	2	2	B/B/A/C	0/0/1/0	1	1	C/B/B/C	-1
Bulgaria	1/0/0/0	1	1	B/B/C/C	0/0/0/0	0	0	C/B/C/C	-1
Jamaica	1/0/1/0	2	2	B/B/B/C	0/0/0/0	0	0	C/B/C/C	-2
Cyprus	1/0/0/0	1	1	B/B/C/C	0/0/0/0	0	0	C/B/C/C	-1

Colombia	1/1/1/0	3	2	B/A/B/C	0/0/1/0	1	1	C/B/B/C	-1
Palestine	0/0/0/0	0	0	C/B/C/C	0/0/0/0	0	0	C/B/C/C	0
Syria	1/0/1/1	3	2	B/B/A/B	0/0/0/1	1	1	C/B/C/B	-1
Guinea-Bissau	0/0/0/0	0	0	C/B/C/C	0/0/0/0	0	0	C/B/C/C	0
Slovakia	1/0/0/0	1	1	B/B/C/C	0/0/0/0	0	0	C/B/C/C	-1
Tunisia	1/0/0/0	1	1	B/B/C/C	0/0/0/0	0	0	C/B/C/C	-1
Croatia	1/0/0/0	1	1	B/B/C/C	0/0/0/0	0	0	C/B/C/C	-1
Belgium	0/0/0/0	0	0	C/B/C/C	0/0/0/0	0	0	C/B/C/C	0
Netherlands	1/0/0/0	1	1	B/B/C/C	0/0/0/0	0	0	C/B/C/C	-1
Liberia	1/0/0/0	1	1	B/B/C/C	0/0/0/0	0	0	C/B/C/C	-1
Madagascar	0/0/0/0	0	0	C/B/C/C	1/0/0/0	1	1	B/B/C/C	+1
Sao Tome and Principe	0/0/0/0	0	0	C/B/C/C	0/0/0/0	0	0	C/B/C/C	0
Uganda	1/0/1/0	2	2	B/B/A/C	0/0/1/0	1	1	C/B/A/C	-1
Finland	1/0/0/0	1	1	B/B/C/C	0/0/0/0	0	0	C/B/C/C	-1
Israel	1/0/0/0	1	1	B/B/C/C	0/0/0/0	0	0	C/B/C/C	-1
Singapore	2/2/0/1	3	3	A/A/C/A	2/2/0/1	3	3	A/A/C/A	0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2012년 이후 중국의 주변외교가 전면적이고 균등하게 안보화되었다는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 전체 109개 파트너십을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적용한 결과, 평균 안보기능수준(SFL)은 2012년 1.560에서 2026년 1.303으로 하락했으며, 평균 기능적 폭(FB) 역시 1.706에서 1.596으로 감소하였다. SFL이 상승한 관계는 20개였던 반면, 50개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39개는 하락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전체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안보관계로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값의 하락을 중국 주변외교의 '탈안보화'로 해석하는 것 역시 부정확하며, 전체 평균은 서로 상반된 두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가린다. 먼저 안보기능이 관찰되지 않는 SFL 0 관계는 2012년 11개에서 2026년 35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안보기능을 유지한 관계의 수는 98개에서 74개로 감소하였다. 반면 반복적 군사운용 협력이나 다차원적 안보협력을 포함하는 SFL 3 이상의 관계는 같은 기간 9개에서 15개로 증가하였다. 즉, 분포의 중간부를 구성하던 낮거나 중간 수준의 안보관계가 축소되는 동시에 상층부의 고도 안보관계는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의 안보관계가 네트워크 전체로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다기보다, 제한된 수의 상대국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패턴은 안보관계의 외연적 범위와 내적 강도를 구분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각 시점에서 SFL이 0보다 큰 관계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평균 SFL은 1.735에서 1.919로, 평균 FB는 1.898에서 2.351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안보관계의 외연은 축소되었지만, 존속한 관계의 평균적인 깊이와 기능적 범위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두 시점의 평균에는 서로 다른 국가들이 포함되므로, 이 수치는 동일한 사례의 변화를 직접 추적하는 증거라기보다 안보관계의 집중화를 보여주는 보조적 기술통계로 해석해야 한다.

차원별 분석 역시 이러한 질적 재편을 뒷받침한다. 전체 109개 관계에서 제도화(I)의 평균은 0.991에서 0.725로 상당히 하락하였다. 반면 군사운용 협력(O)은 0.275에서 0.367로, 방산·군사지원 관계(D)는 0.587에서 0.606으로, 전략적 조정(S)은 0.202에서 0.294로 상승하였다. 특히 반복적 양자훈련

과 작전협력을 나타내는 O2 관계는 9개에서 14개로 증가했으며, 전략적 조정이 존재하는 관계도 22개에서 31개로 늘어났다. 방산 및 군사지원 관계가 존재하는 사례 역시 48개에서 53개로 증가하였다.

지표	2012	2026
안보관계 없음, SFL 0	11개	35개
고도 안보관계, SFL 3 이상	9개	15개
반복적 양자작전·훈련, 02	9개	14개
전략조율 존재, S>0	22개	31개
방산·군사지원 관계, D>0	48개	53개
제도화(I) 평균	0.991	0.725
군사운용 협력(O) 평균	0.275	0.367
방산·군사지원 관계(D) 평균	0.587	0.606
전략적 조정(S) 평균	0.202	0.294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모든 파트너와의 공식적인 국방 접촉을 일률적으로 확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다수의 비핵심 관계에서는 방문과 대화에 머무르는 저강도 접촉이 약화되거나 소멸한 반면, 일부 관계에서는 반복적 훈련, 무기이전과 군사기술 협력, 전략적 역할 조정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안보기능이 강화되었다. 중국 주변외교의 안보화는 제도적 접촉의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형식적 제도화에서 작전적·물질적·전략적 협력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Zhang이 기존에 안보·군사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분류한 32개 관계와 나머지 77개 관계를 구분하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기존 32개 관계의 평균 SFL은 1.875에서 2.062로 상승했으며, 평균 FB는 2.062에서 2.594로 증가하였다. 이 집단에서 SFL이 상승한 관계는 11개였고 하락한 관

계는 4개에 불과했다. 차원별로도 제도화는 1.062에서 1.031로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군사운용 협력은 0.344에서 0.688로 두 배 증가하였다. 방산·군사지원 관계는 0.719에서 0.938로, 전략적 조정은 0.281에서 0.500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핵심 안보 관계에서는 관계의 명목상 제도화보다 작전협력, 물질적 연계 및 전략적 조정의 중첩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머지 77개 관계의 평균 SFL은 1.429에서 0.987로 하락했고, 평균 FB도 1.558에서 1.182로 감소하였다. 이 집단에서 SFL이 상승한 관계는 9개에 그친 반면 35개 관계가 하락하였다. 차원의 경우 제도화는 0.961에서 0.597로, 군사운용 협력은 0.247에서 0.234로, 방산·군사지원 관계는 0.532에서 0.468로 하락했으며 전략적 조정만 0.169에서 0.208로 증가했다. 따라서 기존 32개 관계에서 관찰되는 상승을 중국 파트너십 외교 전체의 평균적 변화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안보요소가 확인된 32개 관계만 분석할 경우, 상대적으로 안보협력이 발달한 사례를 중심으로 모집단을 구성하게 되므로 전체 네트워크의 변화와 그 범위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77개 관계를 포함한 분석은 이러한 선택 편향을 완화하며, 안보화가 발생하지 않거나 기존 안보기능이 소멸한 관계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FB		SFL		I		O		D		S	
	12	26	12	26	12	26	12	26	12	26	12	26
32 개국	2.062	2.594	1.875	2.062	1.062	1.031	0.344	0.688	0.719	0.938	0.281	0.500
	+0.532		+0.187		−0.031		+0.344		+0.219		+0.219	
77 개국	1.558	1.182	1.429	0.987	0.961	0.597	0.247	0.234	0.532	0.468	0.169	0.208
	−0.376		−0.442		−0.364		−0.013		−0.065		+0.039	

이상의 결과는 중국 주변외교의 변화가 선택적·집중적·위계적 안보화로 개념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중국은 광범위한 파트너십 네트워크 전체에 군사적 기능을 균등하게 부가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변적 관계에서 낮은 수준의 군사외교 접촉을 축소하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부 관계에 작전협력, 방산연계 및 전략조율을 집중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 주변외교의 안보화는 안보기능의 보편적 확산이 아니라 안보협력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집중과 위계적 분화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분포적 변화만으로 선택과 집중이 발생한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다. 109개국 분석은 안보화가 발생한 범위와 형태를 규명하지만, 왜 특정 관계는 심화되고 다른 관계는 정체되거나 소멸했는지를 직접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전략적 위치, 중국군의 접근권 확보 가능성, 무기 및 기술 의존성, 공동위협의 존재, 지역질서에서의 역할, 미중 경쟁에서의 전략적 효용 등을 후속 분석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SFL은 서열척도이므로 평균값은 관계 간 차이가 동일한 간격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평균 SFL은 전체적인 경향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기술통계로 사용하되, SFL 분포, 상승·유지·하락 사례의 수, 고도 안보관계의 비중, I/O/D/S 차원별 변화 및 FB의 변화와 함께 제시해야 한

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 평균의 하락과 핵심 관계의 심화라는 외견상 상반된 결과를 동시에 설명하며, 중국 주변외교의 안보화가 실제로 진행된 구체적인 형태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국의 주변외교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이고 균등하게 안보화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낮은 수준의 안보접촉이 다수의 비핵심 관계에서 축소되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부 상대국에는 군사운용 협력, 방산연계 및 전략적 조정이 중첩되었다. 중국 주변외교의 안보화는 관계의 보편적 확산이 아니라 안보기능의 선택적 집중과 위계화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중국의 주변외교가 공식적 비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단순한 선택적 안보화를 넘어, 파트너십 네트워크 상층부의 선택적·기능적 동맹화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동맹의 공식적 의무와 연루 위험은 회피하면서도, 필요한 상대국과는 동맹이 제공하는 작전적·물질적·전략적 효용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2. 후진타오 집권기와의 비교

2-1) 후진타오 집권기의 특징

후진타오 집권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후진타오가 집권 당시 승계한 관계구조를 나타내는 2002년 기준점과 집권 말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2012년 기준점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각 기준점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접촉에 따른 측정오류를 줄이기 위해 설정

한 일정 기간의 관찰창을 바탕으로 구성한 시점별 관계 프로필이다. 따라서 이하의 수치는 10년간 발생한 사건의 단순 누적량이 아니라, 후진타오 집권 전후 중국의 파트너십에 부여된 안보기능의 범위와 깊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타낸다.

두 시기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일한 I/O/D/S－FB－SFL 측정도구를 2002년, 2012년 및 2026년의 세 기준점에 적용하였다. 이 가운데 2012년 코딩은 2008－2012년의 동일한 관찰창과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를 연결하는 공통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각 기준점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사건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 확인된 안보기능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는 관계 프로필이다. 따라서 2002－2012년과 2012－2026년의 변화는 각각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에 걸쳐 관계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타내며, 집권기간 전체의 사건 수를 직접 비교한 것은 아니다.

다만 2002년 기준점은 후속 기준점보다 자료 가용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NDU Chinese Military Diplomacy Database의 체계적인 고위급 방문 자료는 2002년부터 시작되므로, 본 연구는 가능한 경우 1998－2002년 자료를 사용하고 『PRC National Defense in 2002』의 부록에 수록된 2001－2002년 군사교류 및 안보협의 기록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그럼에도 초기 시기의 제도적 접촉과 군사운용 협력, 전략적 조정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2002－2012년의 상승 폭에는 실제 관계 변화와 더불어 시기별 공개자료 밀도의 차이가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차원별 confidence 등급과 민감도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Appendix Table A2. Country-Level SFL–FB Coding of China's 109 Partnerships, 2002 and 2012

Partner country	2002				2012				ΔSFL
	I/O/D/S	FB	SFL	Confidence	I/O/D/S	FB	SFL	Confidence	
Panel A. 32 partnerships originally coded by Zhang as containing security or military components									
Russia	2/0/2/1	3	2	A/B/A/A	2/2/1/1	4	3	A/A/A/A	+1
Belarus	1/0/0/0	1	1	A/B/C/C	1/0/1/0	2	2	B/B/B/C	+1
Ethiopia	0/0/1/0	1	1	C/B/A/C	1/0/1/0	2	2	B/B/A/C	+1
Pakistan	2/0/2/1	3	2	A/B/A/A	2/2/2/1	4	3	A/A/A/B	+1
Uzbekistan	2/0/0/1	2	2	A/B/C/A	1/0/0/1	2	2	B/B/C/B	0
Bangladesh	1/0/1/0	2	2	A/B/A/C	1/0/1/0	2	2	B/B/A/C	0
Cambodia	1/0/0/0	1	1	A/B/C/C	1/0/1/0	2	2	B/B/A/C	+1
DR Congo	0/0/0/0	0	0	C/B/C/C	1/0/1/0	2	2	B/B/B/C	+2
Equatorial Guinea	1/0/0/0	1	1	A/B/C/C	0/0/1/0	1	1	C/B/A/C	0
Gabon	1/0/0/0	1	1	A/B/C/C	1/1/0/0	2	2	B/A/C/C	+1
Laos	1/0/0/0	1	1	A/B/C/C	1/0/1/0	2	2	B/B/A/C	+1
Mozambique	1/0/0/0	1	1	A/B/C/C	1/0/1/0	2	2	B/B/B/C	+1
Tajikistan	2/0/0/1	2	2	A/B/C/A	1/0/0/1	2	2	B/B/C/B	0
Kazakhstan	2/0/0/1	2	2	A/B/C/A	1/0/0/1	2	2	B/B/C/B	0
Malaysia	1/0/0/0	1	1	A/B/C/C	1/0/0/0	1	1	B/B/A/C	0
Egypt	1/0/2/0	2	2	A/B/A/C	1/0/2/0	2	2	B/B/A/C	0
Saudi Arabia	1/0/0/0	1	1	A/B/C/C	1/0/1/0	2	2	B/B/A/C	+1
Iran	0/0/2/0	1	2	C/B/A/C	1/0/2/1	3	2	B/B/A/A	0
Serbia	0/0/0/0	0	0	C/B/C/C	1/0/0/0	1	1	B/B/C/C	+1
Kyrgyzstan	2/1/0/1	3	2	A/A/C/A	1/1/0/1	3	2	B/A/C/B	0

United Arab Emirates	0/0/0/0	0	0	C/B/C/C	1/0/0/0	1	1	B/B/C/C	+1
Turkmenistan	1/0/0/0	1	1	A/B/C/C	1/0/0/0	1	1	B/B/C/C	0
Timor-Leste	1/0/0/0	1	1	A/B/C/C	1/0/1/0	2	2	B/B/A/C	+1
India	2/0/0/1	2	2	A/B/C/A	2/1/0/1	3	2	A/A/C/B	0
Sri Lanka	1/0/1/0	2	2	A/B/A/C	1/1/1/0	3	2	B/A/A/C	0
Afghanistan	0/0/0/0	0	0	C/B/C/C	1/0/0/1	2	2	B/B/C/B	+2
Brunei	1/0/0/0	1	1	A/B/C/C	1/0/0/0	1	1	B/B/C/C	0
Qatar	0/0/0/0	0	0	C/B/C/C	1/0/0/0	1	1	B/B/C/C	+1
Jordan	0/0/0/0	0	0	C/B/C/C	1/1/1/0	3	2	B/A/A/C	+2
Morocco	1/0/0/0	1	1	A/B/C/C	1/0/2/0	2	2	B/B/A/C	+1
Sudan	1/0/1/0	2	2	A/B/A/C	1/0/2/0	2	2	B/B/A/C	0
Romania	1/0/0/0	1	1	A/B/C/C	1/2/0/0	2	3	B/A/C/C	+2
Panel B. Remaining 77 partnerships									
Venezuela	1/0/0/0	1	1	A/B/C/C	1/1/2/1	4	2	B/A/A/B	+1
Hungary	1/0/0/0	1	1	A/B/C/C	1/0/0/0	1	1	B/B/C/C	0
Vietnam	1/0/0/0	1	1	A/B/C/C	2/2/0/1	3	3	A/A/C/A	+2
Myanmar	1/0/2/0	2	2	A/B/A/C	1/0/2/1	3	2	B/B/A/B	0
Thailand	2/0/1/1	3	2	A/B/A/A	2/2/2/1	4	3	A/A/A/A	+1
Guinea	1/0/0/0	1	1	A/B/C/C	0/0/1/0	1	1	C/B/A/C	0
Congo	0/0/0/0	0	0	C/B/C/C	1/0/1/0	2	2	B/B/A/C	+2
Senegal	0/0/0/0	0	0	C/B/C/C	1/0/0/0	1	1	B/B/C/C	+1
Sierra Leone	0/0/0/0	0	0	C/B/C/C	1/0/1/0	2	2	B/B/A/C	+2
Kenya	1/0/1/0	2	2	A/B/A/C	1/0/1/0	2	2	B/B/A/C	0
Namibia	1/0/1/0	2	2	A/B/A/C	1/0/1/0	2	2	B/B/A/C	0
Zimbabwe	1/0/0/0	1	1	A/B/C/C	1/0/0/0	1	1	B/B/C/C	0
Tanzania	1/0/1/0	2	2	A/B/A/C	1/0/2/0	2	2	B/B/A/C	0

Zambia	1/0/1 /0	2	2	A/B/A/C	1/0/1 /0	2	2	B/B/A/C	0
Angola	1/0/0 /0	1	1	A/B/C/C	1/0/0 /0	1	1	B/B/C/C	0
Maldives	1/0/0 /0	1	1	A/B/C/C	1/0/0 /0	1	1	B/B/C/C	0
South Africa	2/0/0 /1	2	2	A/B/C/B	2/0/0 /1	2	2	A/B/C/A	0
France	1/0/2 /0	2	2	A/B/A/C	1/0/2 /1	3	2	B/B/A/A	0
Italy	1/0/0 /0	1	1	A/B/C/C	1/1/0 /0	2	2	B/A/C/C	+1
Indonesia	1/0/0 /0	1	1	A/B/C/C	2/2/1 /0	3	3	A/A/A/C	+2
Portugal	1/0/0 /0	1	1	A/B/C/C	1/0/0 /0	1	1	B/B/C/C	0
Spain	1/0/0 /0	1	1	A/B/C/C	1/0/0 /0	1	1	B/B/C/C	0
Greece	1/0/0 /0	1	1	A/B/C/C	1/0/0 /0	1	1	B/B/C/C	0
Denmark	1/0/0 /0	1	1	A/B/C/C	0/0/0 /0	0	0	C/B/C/C	-1
Brazil	1/0/0 /0	1	1	A/B/C/C	2/0/0 /1	2	2	A/B/C/A	+1
Mexico	1/0/0 /0	1	1	A/B/C/C	1/0/0 /0	1	1	B/B/C/C	0
Peru	1/0/0 /0	1	1	A/B/C/C	1/1/1 /0	3	2	B/A/A/C	+1
Algeria	0/0/1 /0	1	1	C/B/A/C	0/0/1 /0	1	1	C/B/A/C	0
Argentina	1/0/0 /0	1	1	A/B/C/C	1/0/1 /0	2	2	B/B/A/C	+1
Australia	2/0/0 /1	2	2	A/B/C/A	2/2/0 /1	3	3	A/A/C/A	+1
Germany	2/0/1 /0	2	2	A/B/A/C	1/0/2 /0	2	2	B/B/A/C	0
Mongolia	1/0/0 /0	1	1	A/B/C/C	2/1/0 /1	3	2	A/A/C/A	+1
New Zealand	1/0/0 /0	1	1	A/B/C/C	2/0/0 /1	2	2	A/B/C/A	+1
United Kingdom	2/0/2 /0	2	2	A/B/A/C	1/0/2 /0	2	2	B/B/A/C	0
Chile	1/0/0 /0	1	1	A/B/C/C	1/0/0 /0	1	1	B/B/C/C	0
Ecuador	1/0/0 /0	1	1	A/B/C/C	1/0/1 /0	2	2	B/B/A/C	+1
Poland	1/0/0 /0	1	1	A/B/C/C	1/0/0 /0	1	1	B/B/C/C	0
Fiji	1/0/0 /0	1	1	A/B/C/C	0/0/0 /0	0	0	C/B/C/C	-1
Papua New Guinea	1/0/0 /0	1	1	A/B/C/C	1/0/1 /0	2	2	B/B/B/C	+1

Solomon Islands	0/0/0/0	0	0	C/B/C/C	0/0/0/0	0	0	C/B/C/C	0
Bahrain	0/0/0/0	0	0	C/B/C/C	1/0/0/0	1	1	B/B/C/C	+1
Djibouti	1/0/0/0	1	1	A/B/C/C	1/1/0/0	2	2	B/A/C/C	+1
Micronesia	0/0/0/0	0	0	C/B/C/C	0/0/0/0	0	0	C/B/C/C	0
Azerbaijan	1/0/0/0	1	1	A/B/C/C	1/0/0/0	1	1	B/B/C/C	0
South Korea	1/0/0/0	1	1	A/B/C/C	2/1/0/1	3	2	A/A/C/A	+1
Turkey	1/0/2/0	2	2	A/B/A/C	1/2/2/0	3	3	B/A/A/C	+1
Nepal	1/0/0/0	1	1	A/B/C/C	1/0/1/0	2	2	B/B/B/C	+1
Suriname	1/0/0/0	1	1	A/B/C/C	1/0/1/0	2	2	B/B/B/C	+1
Canada	1/0/0/0	1	1	A/B/C/C	1/0/0/0	1	1	B/B/C/C	0
Nigeria	1/0/0/0	1	1	A/B/C/C	1/0/2/0	2	2	B/B/A/C	+1
Ukraine	1/0/2/0	2	2	A/B/A/C	1/0/2/0	2	2	B/B/A/C	0
Ireland	1/0/0/0	1	1	A/B/C/C	0/0/0/0	0	0	C/B/C/C	-1
Costa Rica	0/0/0/0	0	0	C/B/C/C	0/0/0/0	0	0	C/B/C/C	0
Czech Republic	1/0/0/0	1	1	A/B/C/C	1/0/0/0	1	1	B/B/C/C	0
Switzerland	0/0/2/0	1	2	C/B/A/C	1/0/2/0	2	2	B/B/A/C	0
Uruguay	1/0/0/0	1	1	A/B/C/C	1/0/0/0	1	1	B/B/C/C	0
Austria	1/0/0/0	1	1	A/B/C/C	1/0/0/0	1	1	B/B/C/C	0
Bolivia	1/0/0/0	1	1	A/B/C/C	1/0/1/0	2	2	B/B/A/C	+1
Bulgaria	0/0/0/0	0	0	C/B/C/C	1/0/0/0	1	1	B/B/C/C	+1
Jamaica	0/0/0/0	0	0	C/B/C/C	1/0/1/0	2	2	B/B/B/C	+2
Cyprus	1/0/0/0	1	1	A/B/C/C	1/0/0/0	1	1	B/B/C/C	0
Colombia	1/0/0/0	1	1	A/B/C/C	1/1/1/0	3	2	B/A/B/C	+1
Palestine	0/0/0/0	0	0	C/B/C/C	0/0/0/0	0	0	C/B/C/C	0
Syria	1/0/0/0	1	1	A/B/C/C	1/0/1/1	3	2	B/B/A/B	+1
Guinea-Bissau	1/0/0/0	1	1	A/B/C/C	0/0/0/0	0	0	C/B/C/C	-1

Slovakia	1/0/0/0	1	1	A/B/C/C	1/0/0/0	1	1	B/B/C/C	0
Tunisia	0/0/0/0	0	0	C/B/C/C	1/0/0/0	1	1	B/B/C/C	+1
Croatia	1/0/0/0	1	1	A/B/C/C	1/0/0/0	1	1	B/B/C/C	0
Belgium	1/0/0/0	1	1	A/B/C/C	0/0/0/0	0	0	C/B/C/C	-1
Netherlands	1/0/0/0	1	1	A/B/C/C	1/0/0/0	1	1	B/B/C/C	0
Liberia	0/0/0/0	0	0	C/B/C/C	1/0/0/0	1	1	B/B/C/C	+1
Madagascar	0/0/0/0	0	0	C/B/C/C	0/0/0/0	0	0	C/B/C/C	0
Sao Tome and Principe	0/0/0/0	0	0	C/B/C/C	0/0/0/0	0	0	C/B/C/C	0
Uganda	0/0/0/0	0	0	C/B/C/C	1/0/1/0	2	2	B/B/A/C	+2
Finland	1/0/0/0	1	1	A/B/C/C	1/0/0/0	1	1	B/B/C/C	0
Israel	0/0/2/0	1	2	C/B/A/C	1/0/0/0	1	1	B/B/C/C	-1
Singapore	1/0/0/0	1	1	A/B/C/C	2/2/0/1	3	3	A/A/C/A	+2

분석 결과, 후진타오 집권기에는 중국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전반에서 안보기능의 광범위한 확대가 나타났다. 109개 관계의 평균 안보기능 수준(SFL)은 2002년 1.055에서 2012년 1.560으로 0.505점 상승하였다. 하나의 관계에 중첩된 안보기능의 수를 나타내는 평균 기능적 폭(FB) 역시 1.064에서 1.706으로 0.642점 증가하였다. 안보기능이 확인된 관계, 즉 SFL이 0보다 큰 관계의 수도 88개에서 98개로 늘어났다. 동시에 SFL 3 이상의 고도 안보관계는 2002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2012년에는 9개로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109개 관계 가운데 50개에서 SFL이 상승했으며, 53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하락한 관계는 6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후진타오 집권기의 변화가 소수 국가에서만 나타난 예외적인 심화라기보다, 중국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전반으로 안보기능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확대는 Zhang(2025)이 기존에 안보·군사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분류한 32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기존 32개 관계의 평균 SFL은 1.188에서 1.875로 상승했고, 평균 FB는 1.250에서 2.063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77개 관계에서도 평균 SFL이 1.000에서 1.429로, 평균 FB가 0.987에서 1.558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후진타오 집권기에 나타난 안보기능의 확대를 사전에 안보협력이 발달한 사례들만으로 구성된 표본의 결과로 환원하기는 어렵다. 처음부터 안보요소가 확인된 32개 관계에서 상승 폭이 더욱 컸다는 사실은 기존 안보관계의 심화가 병행되었음을 보여주지만, 나머지 77개 관계에서도 상당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은 안보기능이 보다 넓은 파트너십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음을 입증한다. 후진타오 시기의 변화는 기존 핵심관계의 심화와 새로운 관계로의 기능적 확장이 동시에 진행된 다층적 확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차원별 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제도화(I)의 평균값은 0.872에서 0.991로, 군사운용 협력(O)은 0.009에서 0.275로, 방산·군사지원 관계(D)는 0.303에서 0.587로, 전략적 조정(S)은 0.092에서 0.202로 상승하였다. 네 가지 차원이 모두 상승했다는 점에서 후진타오 집권기의 변화는 특정 안보기능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제도화는 이미 2002년부터 비교적 넓은 관계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방산·군사지원 관계는 0.284점 증가하여 가장 큰 절대적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무기이전과 군사지원을 포함한 물질적 연계가 파트너십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변화는 군사운용 협력이다. 2002년의 O 평균은 0.009에 불과하여 양자훈련과 같은 운용적 협력이 중국의 파트너십 외교에서 사실상 주변적인 기능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평균값이 0.275로 상승하면서 군사운용 협력이 식별 가능한 파트너십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고위급 방문이나 국방대화의 증가와 구별되는 질적 변화이다. 군사훈련과 운용적 상호작용은 양국 군대 사이의 반복적 접촉, 절차적 조정 및 제한적 상호운용 경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전략적 조정 역시 0.092에서 0.202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낮았지만, 일부 관계에서 중국과 상대국이 안보현안에 관한 공동입장이나 지속적인 전략적 조정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2002	2012	증감
FB	1.250	2.063	+0.813
SFL	1.188	1.875	+0.687
I	0.872	0.991	+0.119
O	0.009	0.275	+0.266
D	0.303	0.587	+0.284
S	0.092	0.202	+0.11

종합하면, 후진타오 집권기의 중국 주변외교는 본 연구의 측정 의미에서 광범위한 안보화의 성격을 보였다. 안보기능이 존재하는 관계의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관계 내부에서도 제도적 접촉에 군사운용, 방산협력 및 전략적 조정이 추가되면서 기능적 폭과 관계의 깊이가 함께 확대되었다. 다만 이를 곧바로 동맹관계의 보편적 형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012년에도 SFL 3 이상의 관계는 109개 중 9개에 그쳤으며,

다수의 관계는 여전히 낮거나 중간 수준의 안보기능에 머물렀다. 따라서 후진타오 시기의 핵심적 특징은 소수의 동맹 유사 관계에 대한 집중이라기보다, 광범위한 파트너십에 안보기능을 부가하고 그 위에 일부 고도 안보관계를 형성한 '확장적·다층적 안보화'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이후 시진핑 집권기에 나타난 안보관계의 선택적 집중과 위계화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된다.

2-2) 후진타오 집권기와 시진핑 집권기의 비교

분석범위	시기	FB	SFL	I	O	D	S
전체 (109개)	후진타오	1.385	1.307	0.931	0.142	0.445	0.147
	시진핑	1.651	1.431	0.858	0.321	0.596	0.248
32개	후진타오	1.656	1.531	1.016	0.188	0.547	0.250
	시진핑	2.328	1.969	1.047	0.516	0.828	0.391
77개	후진타오	1.273	1.214	0.896	0.123	0.403	0.104
	시진핑	1.370	1.208	0.779	0.240	0.500	0.188

후진타오 집권기와 시진핑 집권기의 평균적 관계 수준을 비교하면, 제도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시진핑 시기의 값이 더 높게 나타난다. 전체 109개 관계에서 평균 FB는 후진타오 시기 1.385에서 시진핑 시기 1.651로, 평균 SFL은 1.307에서 1.431로 높아졌다. 차원별로도 군사운용 협력(O)은 0.142에서 0.321로, 방산·군사지원(D)은 0.445에서 0.596으로, 전략적 조정(S)은 0.147에서 0.248로 상승하였다. 반면 제도화(I)는 0.931에서 0.858로 하락하였다.

다만 이 수치들은 각 집권기의 모든 연도를 평균한 값이 아니라, 후진타오 시기의 경우 2002년과 2012년, 시진핑 시기의 경우 2012년과 2026년의 두 시점 값을 평균한 것이다. 또한 두 시기 평균에 2012년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시진핑 시기의 평균이 더 높다는 사실을 시진핑 집권의 독립적인 인과효과로 곧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선 후진타오 시기에 구축된 안보협력의 성과가 2012년 이후에도 중요한 출발점으로 존속했으며, 그 토대 위에서 일부 관계의 실질적 기능이 추가로 축적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1) 시진핑 시기 관계 수준의 상승과 제도화의 하락

시진핑 시기에 O·D·S 및 FB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중국의 대외 안보관계가 단순한 고위급 방문이나 국방대화의 존재를 넘어, 공동훈련과 연합연습, 무기이전과 군사지원, 주요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전략적 조정과 같이 보다 실질적인 기능을 포함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평균 FB의 상승은 개별 관계에서 특정 안보기능만 강화된 것이 아니라, 군사운용, 방산연계 및 전략적 조정이 중첩되는 경향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은 109개 관계에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았다. 기존에 안보·군사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분류된 32개 관계에서 평균 FB는 후진타오 시기 1.656에서 시진핑 시기 2.328로, 평균 SFL은 1.531에서 1.969로 상승하였다. O는 0.188에서 0.516으로, D는 0.547에서 0.828로, S는 0.250에서 0.391로 높아졌다. 반면 나머지 77개 관계에서는 평균 SFL이

1.214에서 1.208로 사실상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진핑 시기의 높은 전체 평균은 동반자관계 네트워크 전반의 일률적 상승이 아니라, 핵심 안보관계에서 발생한 기능적 심화에 의해 주도된 결과이다.

제도화의 하락 역시 이러한 집단별 차이를 통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 32개 관계의 I는 1.016에서 1.047로 사실상 유지된 반면, 나머지 77개 관계의 I는 0.896에서 0.779로 하락하였다. 종점 간 변화를 보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2012년에서 2026년 사이 기존 32개 관계의 I는 1.063에서 1.031로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77개 관계에서는 0.961에서 0.597로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체 제도화 수준의 하락은 핵심 관계의 제도적 기반 해체가 아니라, 비핵심 관계에서의 저강도 국방대화 및 고위급 교류 축소에 따른 결과에 가깝다.

이러한 결과는 시진핑 시기에 중국의 안보외교가 '탈제도화'되었다기보다 제도적 접촉의 범위가 축소되는 가운데 실질적 기능이 일부 관계에 집중되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중국은 모든 파트너에게 동일한 수준의 국방협력 제도를 제공하기보다,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에서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동훈련, 방산협력 및 전략적 조정을 강화하였다. 반면 전략적 중요성이 낮거나 양자관계가 악화된 국가에서는 정례적 방문과 대화가 축소되었다.

다만 제도화 하락의 전부를 중국의 의도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군사외교 활동은 2015년 이후 인민해방군 개혁과 반부패 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며,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위급 방문, 항구 방문 및 대면 교류가 급감하였다. 2023년 이후 교류가 회복되기 시작했지

만 조사 시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일부 미국 동맹국 및 유럽 국가들의 대중국 경계 강화도 제도적 접촉의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171] 따라서 I의 하락은 전략적 선별의 결과와 군 개혁, 코로나19, 양자관계 악화라는 시기적 충격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후진타오·시진핑 시기의 연속성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존재한다. 중국의 대외관계에 안보·군사적 기능이 본격적으로 결합되기 시작한 것은 시진핑 집권 이후가 아니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주변국을 넘어 유럽,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로 확대되었고, 정상회담과 정부 간 협의체 외에 국방대화와 군사교류도 점차 파트너십의 구성요소로 편입되었다.[172] 2002년에서 2012년 사이 전체 109개 관계의 SFL이 1.055에서 1.560으로, FB가 1.064에서 1.706으로 상승하고 활동 관계가 88개에서 98개로 증가한 것은 이러한 외연적 확장을 보여준다.

---

171) Phillip C. Saunders and Melodie Ha, *China's Military Diplomacy*, China Strategic Perspectives 19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June 2025), 1–2, 7–10, 30–32, https://ndupress.ndu.edu/Portals/68/Documents/occasional/cscma/CSCMA%20SP19%20Final%20for%20Web.pdf.

172) Feng Zhongping and Huang Jing, "China's Strategic Partnership Diplomacy: Engaging with a Changing World," ESPO Working Paper no. 8 (Brussels: FRIDE and Egmont Institute, June 2014), 7–11, 17–18, https://egmontinstitute.be/app/uploads/2014/06/WP-ESPO-8-JUNE-2014-1.pdf.

군사운용 협력의 장기적 발전은 연속성을 특히 분명하게 보여준다. 전체 109개 관계의 O는 2002년 0.009에서 2012년 0.275로 상승한 뒤 2026년에는 0.367에 도달하였다. D 역시 0.303에서 0.587, 다시 0.606으로, S는 0.092에서 0.202, 다시 0.294로 높아졌다. 이는 공동훈련, 방산협력 및 전략적 조정의 발전이 후진타오 시기에 시작되어 이후 시진핑 시기에 계승·심화된 장기적 과정임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도 중국의 군사외교가 후진타오 시기에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러시아 및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등을 중심으로 보다 실전적인 훈련과 작전적 교류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173]

시진핑 지도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공식적으로 계승하였다. 시진핑은 2015년 군사외교가 국가의 전체 외교와 국가안보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군사외교의 제도와 배치를 개선하고 국가의 주권·안보·발전이익에 기여하도록 지시하였다.[174] 이는 시진핑 시기의 군사외교가 후진타오 시기와 단절된 별개의 정책이 아닌, 기존의 군사외교를 보다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전략과 결합하려는 시도였음을 보여준다.

---

173) Kenneth Allen, Phillip C. Saunders, and John Chen, *Chinese Military Diplomacy, 2003–2016: Trends and Implications,* China Strategic Perspectives 11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July 2017), 1–6, https://ndupress.ndu.edu/Portals/68/Documents/stratperspective/china/ChinaPerspectives-11.pdf.

174) “习近平：进一步开创军事外交新局面”, 人民网, 2015년 1월 29일, 2015, https://cpc.people.com.cn/n/2015/0129/c64094-26474947.html.

따라서 중국 주변외교의 안보화가 후진타오 시기에 시작되어 시진핑 시기에도 계속되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지속', 곧 안보화의 연속성은 주로 O·D·S와 같은 실질적 기능의 장기적 축적, 특히 핵심 관계에서의 축적을 의미한다. 관계의 범위와 제도적 접촉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두 시기는 오히려 상이한 방향을 나타낸다. 활동 관계는 2002년 88개에서 2012년 98개로 증가했지만 2026년에는 74개로 감소했으며, I 역시 0.872에서 0.991로 상승한 후 0.725로 하락하였다.

그러므로 두 시기의 관계는 '안보화의 지속 대 단절'이라는 이분법보다 하나의 장기적 과정이 서로 다른 단계로 전개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후진타오 시기가 안보협력의 대상과 기능을 넓힌 외연적 안보화의 단계였다면, 시진핑 시기는 그중 일부를 선별하여 작전적·물질적·전략적으로 밀도를 높인 내포적, 위계적 안보화의 단계였다.

(3) 시진핑 집권기 안보화의 특성

시진핑 집권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안보기능의 재배치이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전체 109개 관계 가운데 SFL이 상승한 관계가 50개, 하락한 관계가 6개에 불과했다. 이는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확대와 함께 비교적 광범위한 국가에서 안보기능이 추가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시진핑 시기에는 전체 평균 SFL이 1.560에서 1.303으로 하락하고 활동 관계도 98개에서 74개로 줄어들었지만, SFL 3 이상의 고도 안보관계는 9개에서 15개로 증가하였다. 관계의 하층에서는 안보접촉이 소멸하고 상층에서는 더욱 두꺼운 협력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재편은 기존 32개 관계와 나머지 77개 관계 사이의 격차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2년에서 2026년 사이 기존 32개 관계에서는 SFL과 FB뿐 아니라 O·D·S가 모두 상승한 반면, 나머지 77개 관계에서는 SFL, FB, I, O 및 D가 하락하고 S만 소폭 상승하였다. 따라서 시진핑 시기의 안보화는 네트워크 전체에 군사적 기능을 보편적으로 확산시킨 과정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부 관계에 작전적·물질적·전략적 기능을 중첩시킨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일부 국가에서 기능적으로 동맹에 가까운 성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반복적 공동훈련, 무기체계와 군사지원의 연계, 전략적 조정이 동시에 존재하면 공식적인 상호방위조약이 없더라도 실제 안보협력의 밀도는 동맹관계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 이를 보다 공식적인 형태의 동맹망 형성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일반적으로 명문화된 상호방위 의무를 포함하지 않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안보협력의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동맹에 수반되는 자동개입 의무와 책임은 제한해 왔다.[175] 따라서 시진핑 시기의 변화는 '공식적 동맹화'보다 '핵심 관계의 기능적 동맹화' 또는 '동맹 유사적 기능의 선택적 축적'으로 표현하는 편이 정확하다.

---

175) Ketian Zhang, "Alliance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Contents and Rationale of China's Strategic Partnerships," *International Politics* 63 (2026): 394–95, 414–15, https://doi.org/10.1057/s41311-025-00701-0.

결국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의 비교는 중국 주변외교의 안보화가 단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안보협력의 외연과 기능이 함께 확대되었으며, 시진핑 시기에는 외연이 축소되는 가운데 핵심 관계의 기능적 밀도가 증가하였다. 즉 후진타오 시기가 광범위한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시기였다면, 시진핑 시기는 그 네트워크를 선별적으로 재편하고 상층 관계를 작전적·물질적·전략적으로 심화한 시기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보화는 두 시기에 걸쳐 지속되었지만 그 지배적인 양식은 '확장'에서 '집중과 위계화'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후진타오 시기가 중국 안보협력의 기반을 넓힌 외연적 안보화의 시기였다면, 시진핑 시기는 그 기반 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선별하여 실질적 안보기능을 집중시킨 내포적·위계적 안보화의 시기였다.

V. 결론

본 연구의 핵심 발견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전면적으로 안보화된 것이 아니라, 안보기능이 더욱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이다. 2012년에서 2026년 사이 전체 109개 관계의 평균 안보기능수준(SFL)은 1.560에서 1.303으로 하락했지만, 반복적인 작전협력과 복수의 안보기능을 갖춘 SFL 3 이상의 고도 안보관계는 오히려 9개에서 15개로 증가하였다. 이 상반된 변화는 중국의 대외안보관계를 '군사화' 또는 '탈안보화'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저강도 안보관계가

축소되는 동시에 일부 핵심 관계에는 작전협력, 방산·군사기술 연계와 전략적 조율이 중첩되었다. 시진핑 시기 중국 안보외교의 특징은 따라서 안보기능의 보편적 확산이 아니라 선택적 집중과 위계화에 있다.

장기적 비교는 이러한 변화가 시진핑 집권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현상이라기보다 중국 안보협력이 발전해 온 방식의 전환임을 보여준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더 많은 파트너십에 국방대화, 군사교류, 작전협력과 방산연계가 추가되면서 안보협력의 대상과 기능이 함께 확대되었다. 반면 시진핑 시기에는 이러한 기반이 네트워크 전체로 계속 확산되기보다 일부 관계에서 더욱 두꺼워졌다. 따라서 두 시기의 차이는 안보화의 존재 여부보다 그 양식에 있다. 후진타오 시기의 지배적 형태가 협력망의 범위를 넓히는 외연적 안보화였다면, 시진핑 시기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선별하여 실질적 안보기능을 중첩시키는 내포적·위계적 안보화가 두드러졌다. 중국 안보협력의 장기적 변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확장에서 집중으로의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중국의 비동맹 원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비동맹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일부 파트너십이 동맹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상호모순적이지 않다. 본 연구의 표본에서 명시적인 상호방위공약을 가진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중국이 공식적 동맹과 비동맹 사이의 제도적 경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경계 아래에서 가능한 안보협력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반복적인 공동훈련, 군수·방산 관계, 군사기술 연계와 전략적 안보조율은 공식적 방

위의무 없이도 하나의 파트너십을 저강도 안보협력과 질적으로 다른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동맹은 중국의 안보관계에 대한 기능적 상한선이라기보다 상호방위 의무의 제도화를 제한하는 경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동맹과 비동맹이라는 명목상의 분류만으로는 그 경계 아래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기능적 분화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중국이 새로운 공식 동맹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공통된 방위의무를 중심으로 조직된 동맹체제와는 다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관찰되는 것은 모든 파트너에게 동일한 안보공약을 확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부 관계에서 필요한 안보기능을 선택적으로 심화하면서 공식적 의무는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택이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했는지를 규명하지만, 왜 특정 국가가 심화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직접 설명하지는 않는다. 공개 군사자료의 국가별·시기별 편차와 2002년 기준점의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밀도 역시 해석상의 제약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대국의 전략적 위치, 중국군의 접근권 확보 가능성, 무기·기술 의존, 공동위협의 존재, 미중 경쟁에서의 전략적 효용뿐 아니라 상대국이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수용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확인한 위계적 구조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국의 비동맹 원칙을 평가할 때 핵심적인 질문은 그것이 폐기되었는가의 여부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동맹이라는 공식적 경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 아래에서 얼

마나 깊은 안보기능이 축적될 수 있으며, 그러한 기능이 어떤 관계에 집중되는가이다. 본 연구가 보여주는 변화는 비동맹에서 동맹으로의 단선적인 이동이 아니라, 비동맹의 형식적 지속 속에서 파트너십의 실질적 안보기능이 차별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이다. 중국 대외안보질서의 향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동맹이라는 명칭의 등장 여부만큼이나, 그 명칭 없이 형성되는 안보기능의 깊이와 그 분포의 위계를 주목해야 한다.

Ⅵ. 참고문헌

1. 영문 학술문헌 및 연구보고서

Allen, Kenneth, Phillip C. Saunders, and John Chen. Chinese Military Diplomacy, 2003–2016: Trends and Implications. China Strategic Perspectives 11.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7.

Blank, Stephen. "Liberalism's Puzzle: The Russo–Chinese Alliance in the Light of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4, no. 4 (2022): 555–577.

Chang-Liao, Nien-Chung. "The Limits of Strategic Partnerships: Implications for China's Role in the Russia-Ukraine War."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44, no. 2 (2023): 226–247.

Feng, Huiyun, and Kai He. "Why Will China and Russia Not Form an Alliance? The Balance of Beliefs in Peacetime." International Affairs 100, no. 5 (2024): 2089–2112.

Feng, Zhongping, and Jing Huang. "China's Strategic Partnership Diplomacy: Engaging with a Changing World." ESPO Working Paper no. 8. Brussels: FRIDE and Egmont Institute, 2014.

Goldstein, Avery.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The China Quarterly, no. 168 (2001): 835–864.

Korolev, Alexander. "On the Verge of an Alliance: Contemporary China–Russia Military Cooperation." Asian Security 15, no. 3 (2019): 233–252.

Lukin, Artyom. "The Russia–China Entente and Its Future." International Politics 58, no. 3 (2021): 363–380.

Mastro, Oriana Skylar. "Sino–Russian Military Align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Global Security." Security Studies 33, no. 2 (2024): 254–290.

Saunders, Phillip C., and Melodie Ha. China's Military Diplomacy. China Strategic Perspectives 19.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25.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You, Ji, and Xiangning Wu. "The Enduring Sino–Russian Strategic Relations of Mutual Dependence—The Attribute of Military Cooper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34, no. 155 (2025): 819–840.

Zhang, Ketian. “Alliance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Contents and Rationale of China’s Strategic Partnerships.” International Politics 63 (2026): 386–421.

Zhao, Suisheng. “China’s Periphery Policy and Its Asian Neighbors.” Security Dialogue 30, no. 3 (1999): 335–346.

2. 데이터베이스, 정책자료 및 언론자료

Associated Press. “US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Chair Calls Russia-China Alliance the Biggest Threat Since WWII.” 2023년 9월 1일. https://apnews.com/article/ac68f132509c37a8f11a483ffb16e932.

Center for the Study of Chinese Military Affairs. Chinese Military Diplomacy Database. Version 6.0.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26년 5월 7일. https://ndupress.ndu.edu/Media/News/News-Article-View/Article/4222744/chinas-military-diploma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hina-Russia Relations.” IF12100. 2023년 9월 13일.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IF/HTML/IF12100.web.html.

Creitz, Charles. “Vivek Ramaswamy Calls to Disrupt China-Russia Alliance, Says It Would Be Like Splitting Germany and Japan.” Fox News, 2023년 6월 5일. https://www.foxnews.com/media/vivek-ramaswamy-disrupt-china-russian-alliance-like-splitting-germany-japan.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26년 3월 9일 갱신. https://armstransfers.sipri.org/.

Zhang, Ketian. Dataset on China’s Partnerships. V3. Harvard Dataverse, 2025. https://doi.org/10.7910/DVN/WHKPDO.

3. 중문 문헌 및 중국 공식자료

胡耀邦. 「全面开创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新局面」. 中国共产党新闻网, 1982년 9월 1일. https://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5/65448/4526430.html.

「中苏联合公报」. 『人民日报』, 1989년 5월 18일, 제1면.

邓小平. 「维护世界和平，搞好国内建设」. 『邓小平文选』 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中俄联合声明」. 1994년 9월 3일. 央视网 수록본.

「中俄元首莫斯科联合声明」.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条约数据库, 2001년 7월 16일.
江泽民.
「全面建设小康社会，开创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新局面——在中国共产党第十六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中国共产党第十六次全国代表大会, 2002년 11월 8일.
共产党员网.
「重要新闻」.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2년 12월 17일.
「中国的发展和亚洲的振兴」.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3년 10월 10일.
王毅. 「王毅副部长在外交学院"东亚共同体"研讨会发言摘要」.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4년 4월 21일.
温家宝. 「携手奋进，共创中国－东盟关系的美好未来」.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6년 10월 30일.
周晓沛. 「俄罗斯文化与中俄关系」.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外交政策咨询委员会, 2012년 12월 5일.
「习近平：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
周边外交工作座谈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3년 10월 25일.
习近平. 「积极树立亚洲安全观
共创安全合作新局面——在亚洲相互协作与信任措施会议第四次峰会上的讲话」.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4년 5월 21일.

「习近平出席中央外事工作会议并发表重要讲话」.
共产党员网, 2014년 11월 29일.
https://news.12371.cn/2014/11/29/ARTI1417254669280703.shtml.
董振瑞. 「十二大前后中美苏"大三角"中的邓小平」.
『党的文献』 2014年第6期.
中共中央党史和文献研究院, 2014년 12월 23일.
https://www.dswxyjy.org.cn/n/2014/1223/c218997-26260851.html.
「习近平：进一步开创军事外交新局面」. 人民网, 2015년 1월 29일.
https://cpc.people.com.cn/n/2015/0129/c64094-26474947.html.
王毅.
「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5년 3월 8일.
习近平. 「开放共创繁荣
创新引领未来——在博鳌亚洲论坛2018年年会开幕式上的主旨演讲」. 新华网, 2018년 4월 10일.
「坚持以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外交思想为指导
努力开创中国特色大国外交新局面」. 人民网, 2018년 6월 24일.
http://politics.people.com.cn/n1/2018/0624/c1001-30078760.html.

「习近平同塞内加尔总统萨勒举行会谈」. 新华社, 2018년 7월 21일. 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 https://focacsummit.mfa.gov.cn/zxyw/201807/t20180723_5858913.htm.

「中非在国际事务中团结协作」. 『人民日报』, 2018년 8월 27일. 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 https://focacsummit.mfa.gov.cn/zpfh/201808/t20180827_5862983.htm.

白洁·郑明达·温馨·涂铭.
「跨越万里的共同梦想——写在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召开之际」. 新华社, 2018년 9월 1일. 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 https://focacsummit.mfa.gov.cn/chn/zpfh/201809/t20180901_5863333.htm.

「习近平主席将在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开幕式发表主旨演讲, 非洲多国领导人高度评价中非关系」. 新华社, 2018년 9월 3일. 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 https://focacsummit.mfa.gov.cn/chn/zpfh/201809/t20180903_5863481.htm.

「关于构建更加紧密的中非命运共同体的北京宣言」. 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 2018년 9월 4일. https://focacsummit.mfa.gov.cn/hyqk/201809/t20180905_5859803.htm.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驻符拉迪沃斯托克总领事闫文滨就中俄建交70周年和中俄远东地区合作接受俄罗斯媒体采访」. 2019년 3월 5일.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防』. 2019년 7월 24일. https://www.scio.gov.cn/zfbps/zfbps_2279/202207/t20220704_130612.html.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新时代国际关系和全球可持续发展的联合声明」.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년 2월 4일. https://www.mfa.gov.cn/web/gjhdq_676201/gj_676203/oz_678770/1206_679110/1207_679122/202202/t20220204_10638953.shtml.

习近平. 「构建高质量伙伴关系 开启金砖合作新征程——在金砖国家领导人第十四次会晤上的讲话」.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년 6월 23일. https://brics2022.mfa.gov.cn/tpxw/202206/t20220627_10710466.html.

韩正. 「构建人类命运共同体 共创世界更美好未来」. 第78届联合国大会一般性辩论,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3년 9월 21일.

「新征程中国外交的科学指引」. 『人民日报』, 2024년 3월 13일. https://www.news.cn/politics/20240313/afa910417f354bf789c914d1e457bada/c.html.

习近平外交思想研究中心. 「思想伟力引领中国外交新作为」. 『红旗文稿』 2025年第1期, 2025년 1월 13일. https://www.qstheory.cn/20250113/fd6b8c04e252469f8ea291f57006d3fe/c.html.

王毅.
「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新华网, 2025년 3월 7일.
https://www.news.cn/politics/2025lh/zb/wzzb2625/index.html.
王毅. 「王毅接受"今日俄罗斯"国际媒体集团专访」.
中华人民共和国驻东盟使团, 2025년 4월 1일.
习近平. 「以史为鉴 共创未来」. 『俄罗斯报』, 2025년 5월 7일. 新华网.
https://www.news.cn/politics/leaders/20250507/ec8448de80f04154bed0e60488dd81dd/c.html.
习近平. 「凝聚上合力量
完善全球治理——在"上海合作组织+"会议上的讲话」.
新华网, 2025년 9월 1일.
https://www.news.cn/politics/leaders/20250901/55b95d13fd8a475b8203de106e66101f/c.html.
习近平外交思想研究中心.
「习近平外交思想理论与实践的新发展新突破新成果——深入学习《习近平外交思想学习纲要（2025年版）》」. 共产党员网, 2026년 1월 29일.
https://www.12371.cn/2026/01/29/ARTI1769651849442799.shtml.

外交部党委.
「深刻领悟习近平外交思想源于时代引领时代的理论品格——深入学习《习近平外交思想学习纲要（2025年版）》」. 共产党员网, 2026년 2월 27일.
https://www.12371.cn/2026/02/27/ARTI1772154179381827.shtml.
王毅.
「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6년 3월8일.
https://www.mfa.gov.cn/web/wjbz_673089/zyjh_673099/202603/t20260308_11870706.shtml.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进一步加强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 新华社, 2026년 5월20일.
https://www.news.cn/world/20260520/06f5505d9d8f4ff48664d8e1b03c4

6장

거대 서사 이후 중국 아방가르드: 21세기 중국 미술의 세대 전환과 리헤이디(李黑地, Li Hei Di) 회화

허동각
더럼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Ⅰ. 서론

베이징의 798예술구는 중국 현대미술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겪은 제도적 변화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소이다. 국가 소유의 공장 지대였던 이곳은 1990년대 말부터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2005년 베이징시가 798구역의 공업건축군을 역사문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문화창의산업, 국제 갤러리, 관광 자본이 결합한 대표적 문화지구로 재편되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서는 글로벌 미술시장과 문화산업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현대미술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임대료 상승과 상업화로 많은 예술가들이 떠나기도 하였다 (강민아, 2020).

국제 미술계가 중국 현대미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계기는 1980년대의 85 미술운동과 1990년대의 정치적 팝(political pop), 냉소적 사실주의(cynical realism)였다. 왕광이(王广义,

1957~), 장샤오강(张晓刚, 1958~), 팡뤼쥔(方力钧, 1963~) 등의 작가들은 문화대혁명과 사회주의, 개혁개방 이후 변화한 현실을 각자의 방식으로 다루었다 (최병식, 2005; 강민아, 2020). 이들은 그 당시 중국 미술을 국제무대에 알린 핵심 세대였지만, 그만큼 중국미술은 오랫동안 사회주의와 문화대혁명, 그리고 국가 권력과 반체제성이라는 틀을 중심으로 읽혀 왔다. 이러한 해석은 당시 작품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했지만,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젊은 작가들의 작업까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작품에서는 이전처럼 마오의 초상이나 혁명 구호처럼 정치적 이미지가 직접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젠더와 신체, 상품과 도시 공간이 만들어내는 욕망과 기억, 디지털 환경이 주체의 행동과 인식을 만드는 방식과 같이, 보다 일상적인 차원에서도 드러난다. 이를 본고에서는 정치성이 사라졌다고 말하려기보다, 정치성을 감지하고 시각화하는 장소와 방식이 달라졌다고 본다. 다시 말해, 1990년대 국제미술계에서 부각된 정치적 팝과 냉소적 사실주의가 비교적 식별 가능한 정치적 기호를 통해 변화하는 중국 사회를 보여주었다면, 2000년대 이후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몸과 사물, 공간과 데이터 등의 경계가 흔들리면서 무엇을 정상적인 존재와 현실로 인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를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00년대 이후 부상한 중국의 젊은 작가들은 앞선 세대와 어떤 조건에서 구별되며, 작품에서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둘째, 이러한 세대 변화는 리헤이디(李黑地, 1997~)의 회화에서 어떠한 형식과 도상으로 나타나는가. 본고

의 주장은 이 세대의 새로움이 정치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의 변화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리헤이디의 회화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남성과 여성, 형상과 추상, 중국적인 것과 비중국적인 것 사이의 구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관람자가 이러한 범주를 적용하려 할 때 판단이 계속 지연되는 경험을 '분류의 유예'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본고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태어나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작가들을 '제2세대'나 '제3세대'로 구분하지 않고, 21세기 중국 아방가르드의 젊은 작가들이라고 지칭한다. 중국 현대미술의 세대 구분은 어느 시기와 운동을 출발점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에서 아방가르드는 특정한 양식이나 직접적인 반체제 미술만을 뜻하지 않고, 기존의 지각 방식과 사회적 분류를 낯설게 만들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경계를 다시 보게 하는 예술적 실천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용한다.

한편, 리헤이디의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류의 유예'의 몇 가지 차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초국가성'은 작가의 정체성과 작업이 국내외 교육기관과 갤러리, 여러 문화적 경험, 글로벌 미술제도를 만나면서 형성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유학과 이질적인 문화적 경험을 통해 중국성이 계속 새롭게 구성된다. 또한, '비결정성'은 작품의 형상과 의미가 하나의 범주로 쉽게 확정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이는 구상과 추상, 인간과 비인간의 구별뿐 아니라 번짐과 잔상, 색채의 중첩을 통해 관람자의 판단이 계속 미뤄지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경계적 신체'는 이러한 비결정성이 신체의 형상에서 나타나는 방식을 가리킨

다. 이 글에서 다룰 리헤이디의 작품 속 몸을 본고에서는 독립되고 완성된 실체로 보지 않고 다른 신체와 환경, 욕망과 만나면서 경계가 계속 달라지는 존재로 바라본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 21세기 중국 아방가르드의 세대 변화와 리헤이디 회화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21세기 중국 아방가르드의 세대 전환과 주요 경향

2.1. 중국 아방가르드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 변화

서구 미술사에서 아방가르드는 단지 새로운 양식을 추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뷔르거는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핵심을 부르주아 사회에서 삶과 분리된 예술 제도를 비판하고, 예술과 삶의 관계를 다시 구성하려는 시도에서 찾았다 (신광, 2017). 이 관점에서 아방가르드는 기존의 규범이나 현상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개념을 중국 현대미술이 처했던 정치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아방가르드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아방가르드의 초기 흐름으로는 일반적으로 1979년과 1980년의 성성화회 전시와 1980년대 중반의 85미술운동이 거론된다. 성성화회 작가들이 관방미술의 규범에서 벗어나 개인적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면, 85미술운동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했다 (탕샤오빙, 2010; 신광, 2017). 당시 작가들은 서구 모더니즘과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식

과 이론을 짧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의미를 단지 서구 미술의 모방에서 찾기는 어렵다. 새로운 형식은 사회주의 현실주의와 관방미술이 규정해 온 예술의 역할에서 벗어나 작가의 주체성과 예술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 아방가르드의 전위성은 서구양식이 당시 중국의 미술제도와 문화적 규범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탕샤오빙, 2010; 신광, 2017).

1989년 2월 중국미술관에서 열린 《중국현대예술전》(中國現代藝術展)은 85미술운동에서 나타난 여러 실험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였다. 전시는 같은 해 6월 천안문 사건 이후 정치·문화적 환경이 경직되면서 공개적인 전위미술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획자와 작가가 해외로 이주하면서 1980년대의 집단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미술운동도 전환점을 맞았다. 이후 1990년대의 중국 현대미술에서는 개별 작가의 작업이 두드러졌고, 관심 역시 예술적 계몽이나 유토피아적 이상에서 개혁개방 이후의 생활과 상업문화, 개인의 경험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다 (신광, 2017).

정치적 팝과 냉소적 사실주의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상한 대표적인 경향이었다. 정치적 팝은 사회주의의 정치 이미지와 자본주의의 소비광고를 병치했고, 냉소적 사실주의는 개인의 무력감과 냉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최병식, 2007). 동시에 1990년대에는 아트페어와 상업 갤러리, 해외 컬렉터와 국제전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현대미술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도 빠르게 달라졌다. 시장과 해외 전시는 정부 제도 밖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에게 새로운 생존 기반과 국제적인 활동 공간을 제공했지만, 정치적 팝과 냉소적 사실주의처럼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은 일부 경향이 중국 아방가르드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정하윤, 2017). 초기 전위 미술과 2000년대 이후를 비교하자면, 초기 전위미술에서는 국가의 관방미술 제도와 실험적 미술 사이의 긴장이 비교적 분명했다. 그러나 이후의 작가들은 국가의 문화정책과 상업 갤러리, 국내외 미술관과 비엔날레, 글로벌 미술시장이 서로 중첩되는 환경 속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서론에서 살펴본 798 예술구의 변화 역시 이러한 제도적 재편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중국 아방가르드는 이제 제도 밖에서 국가에 맞서는 운동으로만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고, 서로 다른 제도와 시장을 오가며 새로운 표현 방식과 활동 공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21세기 중국 아방가르드의 세대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의 집단적 전위운동과 1990년대의 정치적 팝·냉소적 사실주의가 각각 당대의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방식이었다면, 이후의 젊은 작가들은 시장화와 도시화, 국제적인 이동, 디지털 환경이 일상으로 자리잡은 환경 속에서 이전과 다른 문제와 표현 방식을 발전시켰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 경향으로 나타났는지를 신체와 관계, 사물과 도시, 디지털 인프라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 21세기 중국 아방가르드의 세 가지 경향

2000년대 이후 활동이 두드러지는 중국의 신세대 작가들을 하나의 양식이나 운동으로 묶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용하는 매체도 회화와 설치, 영상, 디지털 작업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하고, 작품이 다루는 문제 또한 그렇다. 다만 서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시장화와 도시화, 국제적 이동, 디지털 환경의 확대라는 환경 속에서 이들의 작품에는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몇 가지 흐름이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를 크게 신체와 관계, 사물과 도시, 디지털 인프라라는 세 가지 경향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서로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라 각 작가의 작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관심사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표1] 21세기 중국 아방가르드 주요 경향

	주제	핵심 키워드	대표 작가
경향1	신체와 관계	젠더, 욕망, 취약성, 친밀성, 인간/비인간의 경계	리헤이디, 위안팡, 청신이
경향2	사물과 도시	대량생산, 상품, 도시개발, 모더니즘, 시대착오	순이톈, 추이제
경향3	디지털 인프라	아바타, 검열, 플랫폼, 알고리즘, 포스트휴먼 주체	루양, 먀오잉

[경향1] 신체·젠더·친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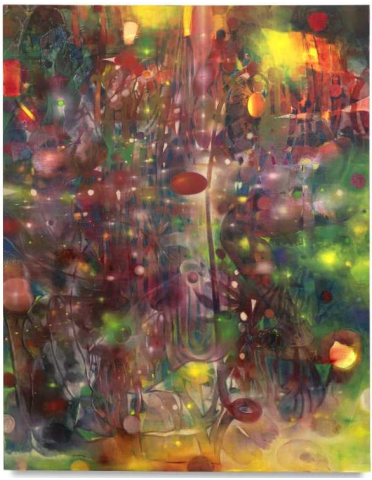
첫 번째 경향의 작가들은 신체를 다른 신체와 환경, 욕망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존재로 다룬다. 이들에게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제3의 성을 추구한다거나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주제와는 다르다. 이들의 작품에서는 누가 누구를 바라보고 욕망하는지, 어떤 몸이 드러나거나 감춰지는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둘러싼 익숙한 구분

자체가 흔들린다.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리헤이디(李黑地, Li Hei Di), 위안팡(方媛, Yuan Fang), 청신이(程心怡, Cheng Xinyi)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리헤이디의 회화에서는 팔과 다리, 몸통으로 보이는 형상이 색채의 층 사이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신체는 물이나 연기, 식물의 줄기처럼 보이는 주변의 형상에 스며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관람자의 입장으로 볼 때 화면에서 분명 신체의 흔적을 발견하면서도 그것이 어디까지 하나의 몸을 이루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욕망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기보다 색과 형태를 움직이고 서로 결합시키는 힘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위안팡의 대형 추상회화에서도 신체를 떠올리게 하는 곡선과 색채의 덩어리가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 역시 명확한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작가의 개인전 「Stratospheres」(2023)에 소개된 회화에서는 선과 색면이 서로 감기거나 밀어내면서 화면 전체에 강한 움직임을 만든다. 리헤이디가 반투명한 색층과 잔상을 통해 신체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순간을 만든다면, 위안팡은 선의 입체감을 통해 몸의 감각을 화면 전체로 확장한다. 두 작가 모두 신체가 형성되고 흩어지는 감각을 회화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청신이는 보다 분명한 인간의 형상을 그리지만, 일상 공간에 놓인 남성의 몸과 어색한 자세는 친밀한 관계 안에 존재하는 욕망과 긴장을 드러낸다. [그림 3]의 「Sorrowing Man」(2019)에서 얼굴을 가린 인물은 자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자세를 통해 취약한 상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 앞에서 몸이 어떻게 보이고 감춰지는가에 있다.

세 작가의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신체를 이미 완성된 정체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몸은 주변의 환경과 다른 신체, 시선과 욕망에 반응하면서 계속 다른 상태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신체는 사회적 규범이 드러나는 대상인 동시에 그 규범에 따라 쉽게 분류되지 않는 장소가 된다.

〈그림 1〉 리헤이디 "Unquenchable Laughter, Inescapable Desert"(2023)



〈그림 2〉위안팡 “Stratospheres”(2023)



〈그림 3〉 청신이 “Sorrowing man”(2019)



[경향2] 사물과 도시가 남긴 흔적

두 번째 경향의 작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남긴 사물과 건축환경에 주목한다. 1990년대 정치적 팝이 사회주의의 정치적 이미지와 코카콜라 같은 상업적 기호를 병치했다면, 이 경향의 작가들은 소비와 개발의 결과로 남겨진 사물 자체의 표면과 시간성에 관심을 둔다. 구체적으로, 대량생산된 장난감이나 오래된 건축물은 자본주의의 상징을 넘어 중국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기억과 감각을 담는 대상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작가로 순이톈(孫一鈿, Sun Yitian), 추이제(崔洁, Cui Jie) 등이 있다.

순이톈 작품의 특징은 대량생산된 플라스틱 장난감과 인형을 촬영한 뒤 이를 크게 확대해 회화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특히 「Kevin」, 「Jason」, 「Alger」(2023)에 등장하는 인형의 얼굴은 광고에 나오는 이미지처럼 매끄럽고 정교하다. 그러나 작은 상품으로 볼 때는 자연스러웠던 표면이 대형 캔버스 위에서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오히려 낯선 인상을 만든다. 즉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라인과 입술, 광대뼈와 플라스틱의 광택은 상품의 매력적인 외형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표면이 얼마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드러낸다. 친숙한 상품을 낯설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대량 생산된 대상에 축적된 소비의 욕망과 그 이면의 공허함을 함께 생각하게 한다 (이채원, 2023).

추이제는 도시의 건축적 흔적에 관심을 둔다. 작가는 798예술구 주변에서 반복되는 철거와 재개발을 경험하면서 서로 다른 시대의 건축과 도시 풍경이 한 공간에서 겹치는 감각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작가는 이 경험으로 건물을 그리

는 것이 곧 감정을 전하는 일이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176] (Shen, 2025). 작품에는 1980-90년대 중국 도시에서 볼 수 있었던 모더니즘 건축과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공공조각, 서로 다른 시대의 도시적 요소들이 한 화면에 함께 등장한다. 「Worker Cultural Palace in Dongguan」(2014)에서는 필로티와 리본 창이 있는 건물을 원자 궤도와 비슷한 형태의 조각이 가로지르는데, 이는 서구 모더니즘의 건축과 사회주의 시기의 기술 낙관주의, 개혁개방 이후의 한 공간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금속성의 하늘과 격자 구조, 서로 겹치는 이미지 때문에 이 풍경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여러 시대가 함께 남아 있는 현재처럼 보이게 한다 (Zhou, 2018).

순이톈과 추이제는 서로 다른 대상을 다루지만, 두 작가 모두 사물을 소비사회나 현대화의 상징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로 만난다. 순이톈의 플라스틱 장난감에는 세계적인 대량생산과 소비문화가 남긴 감각이, 추이제의 건축에는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미래상이 교차해 온 흔적이 축적되어 있다. 결국 이들의 작업에서 사물과 건축은 변화의 과정에서 남겨진 시간과 기억을 다시 보게 하는 매개가 된다.

176) "I lived near Beijing's 798 Art District, close to a subway station under construction, surrounded by temporary, blue-roofed buildings. The city was in constant flux, caught between demolition and rebuilding. That sense of confusion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my creative process. When I paint buildings, I'm really painting my emotions. (Shen, 2025)"

〈그림 4〉 순이톈 "Kevin"(좌), "Jason"(중간), "Alger"(우) (2023)



〈그림 5〉 추이제 "Worker Cultural Palace in Dongguan" (2014)



[경향3] 디지털 주체와 플랫폼 통치

세 번째 경향은 인터넷과 가상 공간을 일상적인 삶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곳으로 바라보는 작가들이다. 특히 중국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부 주도 인프라, 검열, 감시와 더불어 밈과 우회적인 표현 방식도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온라인 공간은 기존의 신체와 국가 경계를 넘어설 가능성을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의 행동과 시야를 새롭게 제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작가인 루양(陆扬, Lu Yang)과 먀오잉(苗颖, Miao Ying)은 이러한 양면성을 탐색한다.

루양은 불교와 신경과학,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시각문화를 결합해 성별과 육체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디지털 존재를 만들어 왔다. 특히 작가 자신의 얼굴을 바탕으로 만든 아바타 DOKU가 가장 유명한데, 이는 춤과 전투, 죽음과 환생을 반복한다 (Societe, n.d.). 이러한 디지털 신체는 물리적인 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모션캡처와 데이터, 디지털 이미지 기술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 특징이다. 루양이 "인터넷에서 살아가면서 정체성, 국적, 젠더,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존재까지 버릴 수 있다"[177]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가능성과 연결된다. 즉 그의 작업에서 디지털 공간은 정체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신체와 자아가 기술적 시스템에 의해 다시 구성되는 공간인 것이다.

먀오잉은 보다 직접적으로 중국 인터넷 환경 자체를 작업의 대상으로 삼는다. 작가는 만리방화벽 내 형성된 독특한 온라인 문화를 'Chinternet'이라는 말로 표현해 왔다. 「Chinternet Plus」(2016)은 2018년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전시된 바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Internet Plus' 전략을 패러디한 가상의 'counterfeit ideology'로, 기업의 홍보물을 연상시키는 로고와 슬로건, 과장된 이미지와 GIF를 결합한다. 특히 'Our Vision'에서는 사진 보정 앱을 이용해 스모그가 낀 하늘을 파랗게 바꾸는 장면을 제시하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미지를 매끄럽게 포장하는 정치적 브랜딩의 방식을 풍자한다. 이를 통해 정치

177) "By living on the Internet, you can abandon your identity, nationality, gender, even your existence as a human being (Qin, 2015)."

적 선전과 상업 플랫폼이 모두 사용자에게 낙관적인 현실을 제시하려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한편, 먀오잉은 검열에 적응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밈과 우회적인 언어를 만들어내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를 '스톡홀름 증후군'에 비유하기도 했다[178] (Gaskin, 2016). 즉 사용자는 통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환경에 적응해 새로운 표현을 생산하는 주체이기도 한 것이다.

루양의 아바타가 기존의 신체와 젠더를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술에 의해 구성된 존재라면, 먀오잉의 인터넷 사용자 역시 검열의 대상이면서 그 조건을 활용해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만들어낸다. 즉 이들의 작업은 디지털 기술이 정체성을 해방시키는가 또는 통제하는가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의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유와 통제가 동일한 환경 안에서 함께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78) "My relationship with censorship is like developing "Stockholm syndrome". This kind of love takes place in an isolated environment where the hostage-taker — who makes the rules — becomes so powerful that you gradually fall in love with them. (Gaskin, 2016)."

〈그림 6〉 루양 '도쿠(DOKU)' 영상 스틸컷 중 일부



〈그림 7〉 먀오잉『Chinternet Plus』(2016)



지금까지 살펴본 세 경향은 서로 다른 대상과 매체를 다루지만, 공통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흔들리는지를 보여준다. 신체는 하나의 성별이나 온전한 인간의 형상으로 완성되지 않고, 사물과 건축에는 서로 다른 시대의 기억이 중첩되며, 디지털 주체는 자유와 통제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경향의 공통점은 관람자가

익숙한 방식으로 대상과 현실을 분류하려 할 때 그 구분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이 가운데 리헤이디는 이러한 변화가 회화의 형식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기에 특히 적절한 사례이다. 작가의 작품에서는 신체와 젠더의 경계뿐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구상과 추상, 몸과 주변 공간의 구분이 동시에 흔들린다. 또한 중국에서의 성장과 해외 유학, 아시아의 영화와 문학, 런던의 퀴어 문화 등에 영향을 받지만, 어느 하나가 작품의 정체성을 완전히 결정하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초국가성과 비결정성, 경계적 신체라는 세 차원에서 살펴보고, 리헤이디의 회화가 관람자의 분류와 판단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예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리헤이디 회화의 유동적 중국성과 경계적 신체

3.1 초국가적 이동과 유동적 중국성

리헤이디(李黑地, 1997~)는 중국 선양에서 태어나 현재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중국에서 성장한 뒤 미국에서 교환학생 생활과 예술교육을 경험했고, 이후 영국으로 이주해 2020년 첼시 칼리지 오브 아츠(Chelsea College of Arts)에서 순수미술(Fine Art) 학사학위를, 2022년 왕립예술학교(Royal College of Art)에서 회화 석사학위를 받았다. 2022년 상하이 LINSEED Projects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LA와 런던 등에서 전시를 이어갔으며, 2024년에는 Pace Gallery가 리헤이디를 대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작가는 Forbes의 30 Under

30 Asia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25년에는 홍콩 Pace Gallery에서 「Tongues of Flare」를 선보였고, 이후 전시는 상하이 Pond Society로 이어졌다 (Pace Gallery, n.d.).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생활하고 전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리헤이디의 작업을 초국가적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형성된 경험과 작가가 영향을 받은 여러 문화가 그 작업 안에서 하나의 출신 국가로 쉽게 환원되지 않는 방식으로 만난다는 점이다. 리헤이디는 중국의 젊은 작가들을 다루는 전시뿐 아니라 영국의 새로운 추상회화 경향을 조명하는 전시와 비평에도 포함되어 왔다. 그리고 작가가 영감을 얻고 영향을 받았던 범위 역시 홍콩의 무협·귀신 영화와 한국의 작가 한강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문학, 미국에서 보낸 시간과 런던의 퀴어 문화, 영국에서 받은 회화 교육 등 폭넓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작가의 작업을 설명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이러한 경험이 중국적 경험이 없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리헤이디의 작업에는 중국에서 형성된 기억과 감각, 홍콩 대중문화와 같은 문화적 경험이 계속 남아 있지만, 그것들은 다른 장소와 언어, 미술교육과 전시들을 거치면서 새로운 관계에 놓인다. 따라서 작가의 작품에서 중국성은 환경이 달라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나면서 계속 다시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즉 중국성은 작품을 해석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작품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작가는 1980-90년대 홍콩영화, 특히 정소동의 「천녀유혼(倩女幽魂)」(1987)과 서극의 「청사(青蛇, Green Snake)」(1993)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Pace Gallery,

n.d.). 이 영화들에는 인간과 귀신, 인간과 뱀처럼 서로 다른 존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물과 변신의 서사가 반복된다. 또한, 한강의 『채식주의자』 역시 리헤이디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문학 작품인데, 작가는 인간이 식물로 변해가는 이야기에서 성(sexuality)과 기괴함(monstrosity), 변형(transfiguration)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Pace Gallery, 2025b). 이러한 참조들은 신체와 정체성이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작가의 관심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리헤이디의 초국가성은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들이 한 화면에 단순히 혼합되는 현상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동과 만남이 작가 자신과 작품의 정체성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라는 출발점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이 다른 문화적 경험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진다. 리헤이디의 중국성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다음에서 살펴볼 회화의 비결정성과 경계적인 신체도 이처럼 하나의 정체성에 도달하지 않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

3.2 비결정성과 경계적 신체

리헤이디의 회화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형상을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화면에는 팔과 다리, 몸통이나 얼굴의 일부처럼 보이는 형태가 나타나지만, 완전한 인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붉은색과 분홍색, 보라색, 짙은 녹색과 파란색이 겹치고 번지는 사이에서 신체처럼 보이던 선은 다시 주변의 색면에 섞이며, 식물의 줄기처럼 보이는 형태가 몸의 일부와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중심을 차지하는 대상이나 안정적인 원근법 역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결과 관람자는 화면 속 대상을 알아보려고 시도함에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쉽게 확정하지 못한다. Pace Gallery에 실려 있는 리헤이디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작가는 미리 완성된 스케치나 구성을 가능한 한 피하고, 작업 과정에서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두는 방식을 택한다고 말한다. 작가는 화면 속 등장하는 형상을 완성된 것보다 아직 열려 있는 가능성에 가깝게 바라보는 것으로 보인다 (Pace Gallery, 2024).

"*They are possibilities, not conclusions. They are forever in transition, but not in a hurry to become someone.* (Pace Gallery, 2024)"

이 말은 리헤이디 회화의 비결정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여기서 비결정성은 작품이 추상적으로 보인다는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의 형상이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남겨둔 채 어느 하나의 정체성으로 완성되는 순간을 계속 미룬다는 의미이다. 몸처럼 보였던 부분이 주변의 색과 섞이고, 얼굴이나 기관처럼 보였던 부분은 시선을 옮기면 다른 대상으로 보이며, 그러한 새로운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에 앞선 해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새로운 해석과 겹친다. 본고는 이때 관람자에게 일어나는 경험을 '분류의 유예'라고 본다. 관람자는 작품 속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름을 붙이고 구분하려 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몸인지 배경인지, 인간인지 비인간인지 판단하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는다. 얼핏 보면 작품에 보편적인 해석 내지는 정답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관람자가 분류를

시도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다시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결정성이 신체에서 나타나는 방식이 본고에서 말하는 '경계적 신체'이다. 리헤이디의 작품에서는 팔과 다리, 몸통과 피부를 떠올리게 하는 형태가 다양한 방향으로 연결되거나 주변의 물, 식물, 대기와 같은 형상 속으로 스며든다. 어디까지가 하나의 몸이고 어디에서 다른 존재가 시작되는지 분명하게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적'이라는 말은 두 범주의 중간에 있다는 의미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리헤이디의 신체는 남성과 여성 내지는 인간과 비인간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귀속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가능성을 동시에 품는다. 이러한 몸에서는 경계가 계속 다시 그려지고, 관람자는 한 부분을 사람의 팔이나 다리로 알아보고 나서 그것이 다른 몸이나 식물, 색채의 흐름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처음의 판단을 수정하게 된다.

반투명한 표현 역시 주목할 부분 중 하나인데, 신체의 윤곽은 색과 빛, 주변의 형상이 통과할 수 있는 얇은 막처럼 나타난다. 몸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화면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람자는 명확한 인물을 볼 수 없음에도 그 안에 신체가 존재한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몸은 여기저기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열린 경계로 인해 다른 몸과 환경과 연결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리헤이디에게 신체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존재인 것이다. 또한, 리헤이디가 참조했다고 앞서 밝힌 「천녀유혼(倩女幽魂)」과 「청사(靑巳)」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채식주의자」에서 인간이

식물로 변화하는 서사는 작가의 작품에서 불완전한 신체와 반투명한 색층, 서로 얽힌 형상의 문제로 옮겨간다. 즉 서로 다른 존재의 경계가 흔들리는 방식이 회화의 형식으로 다시 구성된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리헤이디의 회화에서는 유동적인 정체성과 회화적 비결정성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중국과 비중국, 남성과 여성, 인간과 비인간, 형상과 추상은 서로 다른 차원의 구분이지만, 작품은 어느 경우에도 하나의 범주가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두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개별 작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본다. 「I'm not ready to be born a child again」(2024)에서는 붉은색이 정치적 기호와 개인적 감각 가운데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는 방식을, 2025년 「Tongues of Flare」 연작에서는 물과 신체의 관계를 통해 자아가 하나의 형태에 도달하지 않은 채 지속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Ⅳ. 리헤이디 작품 분석

4.1 정치적 기호에서 감각의 장으로: 「I'm not ready to be born a child again」(2024)

「I'm not ready to be born a child again」(2024)은 가로 약 4미터, 세로 약 2미터의 대형 회화로, 붉은색과 진홍색, 주홍색, 자주색이 주황색과 황금빛으로 이어지며 화면 전체

를 뒤덮는다. 강한 색채와 화면의 크기 때문에 관람자는 개별 형상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붉은색의 공간과 마주하게 된다. Hutchings-Georgiou (2024)가 지적하듯 이 작품에서 색채는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수단을 넘어 관람자가 화면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결정한다.

리헤이디는 눈을 감을 때 붉은색이 보이는 자신의 시각적 경험과 러우예(Lou Ye)의 영화 《Blind Massage》에 삽입된 노래에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한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노래 속에서 사랑에 빠진 인물이 눈을 잃은 뒤 모든 것을 붉게 보게 된다는 구절을 언급한다.

"I really love the film. It's about a group of young people who are blind and work as masseurs. There's a song at the end and the lyrics are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Mama, I fell in love with a girl, she ate my eyes and all I can see is red.' (Hutchings-Georgiou, 2024)"

여기서 붉은색은 시각적 잔상과 사랑, 욕망이 신체에 남기는 감각에서 출발한다. Hutchings-Georgiou (2024)가 이를 정치적·문화적 상징과 구별되는 개인적인 붉은색으로 설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중국미술에서 붉은색이 가졌던 정치적 이미지가 이 작품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현대미술에서 붉은색에는 이미 혁명과 사회주의, 역사적 맥락이 강하게 축적되어 있는데, 관람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맥락을 완전히 지운 채 리헤이디의 붉은색을 바라본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붉은색의

기존 의미를 넘어 어느 하나의 의미가 색채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차이는 1990년대 정치적 팝을 대표하는 왕광이의 「Great Criticism - Coca Cola」(1994)와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그림9]에서 드러나듯 왕광이는 문화대혁명기의 선전화에서 가져온 노동자와 군인의 집단적 형상에 코카콜라 로고를 결합했다. 이 작품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각기 다른 시각적 기호를 통해 명확하게 식별되며, 작품의 긴장은 두 기호의 충돌에서 발생한다 (최병식, 2007; 신광, 2017). 즉 관람자는 노동자와 군인, 붉은색, 코카콜라 로고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리헤이디의 화면에는 붉은색의 의미를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할 만한 마오쩌둥의 초상이나 혁명 구호, 상업 로고와 같은 기호가 등장하지 않는다. 붉은색은 혁명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피부의 열과 빛, 사랑과 성적 욕망, 눈을 감았을 때 남는 시각적 잔상으로도 읽힐 수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차이는 정치성이 존재하느냐 또는 사라졌는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있다. 왕광이의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경제적 기호가 충돌한다면, 리헤이디의 작품에서는 하나의 색채 안에 여러 의미가 겹치면서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최종적인 해석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정치적 의미가 색채를 독점하는 상태를 풀어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혁명과 국가를 대표했던 붉은색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열, 시각과 기억, 친밀성과 욕망의 차원에서도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붉은색을 바라보는 관람자는 어느 하나의 해석만을 선택하기 어렵게

된다. 앞서 언급한 분류의 유예가 여기서는 색채의 의미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셈이다.

작품 속 신체도 비슷한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붉은색과 자주색의 층 아래에는 팔다리와 몸통을 닮은 형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도, 어느 것도 완전한 인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즉 신체의 일부는 다른 형상과 포개지고 피부처럼 보이는 면은 주변 색채 속으로 다시 스며든다. 따라서 관람자는 색채의 흐름을 따라 화면을 보다가 뒤늦게 그 안에 숨어 있는 신체처럼 보이는 일부를 발견하게 된다. Hutchings-Georgiou는 리헤이디의 회화가 대상을 한꺼번에 노출하지 않고 감추고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부분과 전체, 인간의 몸과 회화적 공간의 경계를 약화한다고 바라본 바 있다. 리헤이디 역시 관람자가 에로틱한 부분을 화면을 충분히 바라본 뒤 신체를 뜻밖의 발견처럼 마주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179] (Hutchings-Georgiou, 2024). 따라서 이 작품에서 에로티시즘은 신체를 명확하게 재현하는 데서 오지 않고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살펴본 붉은색의 비결정성과도 연결된다. 관람자는 화면 속 신체를 발견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완전한 인물로 확정하기 어렵고, 붉은색 역시 정치적 기억과 개인적 감각 가운데 하나의 의미로 정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관람자가 색과 신체의 의미를 쉽게 확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179) "You're supposed to sit with the colours, and if you look carefully enough, you'll see the body as part of a surprise (Hutchings-Georgiou, 2024)."

〈그림 8〉 리헤이디 “I’m not ready to be born a child again” (2024)



〈그림 8〉 왕광이 “Great Criticism – Coca Cola” (1994)



4.2 머무르는 신체: 「Tongues of Flare」(2025) 연작

2025년 홍콩 Pace Gallery에서 열린 「Tongues of Flare」에는 같은 해 제작된 회화 11점이 소개되었다. 전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이미지는 물이다. 「Time roar in my ears like a river」와 「Triple Flood」 같은 제목에서도 강과 범람의 이미지가 나타나며, 작가는 물을 자아와 신체가 변화하는 과정과 연결해 설명한다 (Pace Gallery, 2025b).

"I stay in the river, constantly eyeing the shores, afraid I won't have the strength to reach either end. I keep paddling, gasping for air—sometimes, in panic, I see parts of my body being swallowed, then spat back out, over and over again. In fear, I open my eyes. I see shadows of concrete, an urban city built on pure practicality, penetrating through my visions. It makes me question the legitimacy of "me," the self, and even the legitimacy of this water that holds me, this plot of nature growing vigorously inside my chest. As I slowly turn transparent, fading in and out, I learn to unfeel the self—to enjoy my view of the shores, watching people laugh, talk, and barbecue on dry land. From afar, I learn to stretch my existence, to feel what it feels like to be in their bodies, to wear their joy as if it were mine (Pace Gallery, 2025b)."

작가는 자신을 강 한가운데 머무는 존재로 묘사한다. 어느 쪽 강둑에도 쉽게 도달하지 못한 채 계속 노를 젓고, 몸의 일부가 물에 삼켜졌다가 다시 밀려 나오는 경험을 서술한다. 몸은 점차 투명해지고, 자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몸과 감각으로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서술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변화의 결과보다 중간에 머무는 시간이

다. 강은 보통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공간이지만, 리헤이디의 화자는 건너편에 도착하지 않는다. 따라서 「Tongues of Flare」에서 화자는 출발점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얻는 대신, 양쪽 강둑 사이에서 계속 흔들린다. 공포와 도취, 자아와 타자, 인간의 몸과 자연 사이의 경계 역시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결국 리헤이디가 관심을 두는 것은 아직 어느 쪽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경계가 반복해서 달라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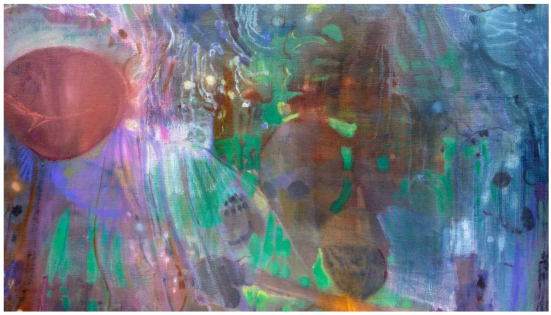
이러한 구조는 리헤이디가 이전부터 다뤄온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와도 이어진다. 작가는 「Tongues of Flare」에서 물의 움직임을 식물적 변화와 괴물성, 성적 욕망의 이미지와 연결한다 (Pace Gallery, 2025b). 물은 몸을 삼키고 다시 밀어내며, 식물적 형상은 인간의 신체와 뒤섞인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 신체와 환경을 구분하는 기준도 함께 흔들린다. 앞서 정의한 '경계적 신체'가 여기에서는 물이라는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계의 약화를 모든 구분이 해체된다거나 자유롭게 변화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작가의 서술에는 해방감과 함께 불안과 공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강 한가운데 머무르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동시에 어디에도 안정적으로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몸이 투명해지고 다른 존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도 하지만, 자신의 경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약함을 동반하기도 한다. 결국 리헤이디의 회화에서 무조건적 해방이나 긍정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Tongues of Flare」는 앞서 서술한 분류의 유예를 시간적 차원으로도 확장한다. 「I'm not ready to be born a child again」에서 관람자가 붉은색과 신체의 의미를 쉽게 확정하지 못했다면, 이 연작에서는 신체 자체가 하나의 상태에 도달하는 순간이 계속 미뤄진다. 인간인지 비인간인지, 자아인지 타자인지, 변화 이전인지 이후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지점이 제시되지 않는다. 몸은 끝없이 무엇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이 어떤 완성된 정체성을 향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언급한 중국성이라는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중국에서 형성된 경험과 홍콩 영화, 동아시아 문학, 미국과 영국에서의 생활, 런던의 퀴어 문화 등이 리헤이디에게 영감과 영향을 주었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작가의 정체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서 밝힌 바 있다. 강의 양쪽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은 채 그 사이에서 계속 변화하는 신체처럼, 리헤이디의 중국성 역시 하나의 출발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문화적 경험과 접촉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아는 다른 자아로 완전히 교체되지 않고, 몸은 하나의 형상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강을 건너는 과정에도 최종적인 반대편이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는다. 즉 변화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그 사이에 오래 머무르는 상태가 된다. 리헤이디는 이러한 중간 상태를 통해 정체성이 반드시 하나의 완성된 형태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흔드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가의 전위성은 관람자가 색과 신체, 정체성을 구분하고 의미를 확정하는 방식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 리헤이디 “Time roar in my ears like a river” (2025)



〈그림 11〉 리헤이디 “Gapes at the vanity of toil” (2025)



Ⅴ. 결론

이 글은 21세기 중국 현대미술을 1980-90년대의 정치적 기호와 반체제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85미술운동과 정치적 팝, 냉소적 사실주의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당대 중국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드러냈고, 중국 현대미술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 작가들이 활동하는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시장과 국제 전시의

확대, 급속한 도시화, 해외 유학,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작가들은 더 이상 국가와 제도의 외부에서 이에 맞서는 하나의 존재로만 있지는 않게 되었다. 본고에서 21세기 중국 아방가르드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위성이 어떤 새로운 대상과 형식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2장에서 살펴본 신체와 관계, 사물과 도시, 디지털 인프라라는 세 가지 경향은 이러한 세대 변화를 보여준다. 젊은 작가들의 작업에서 정치성은 신체를 둘러싼 젠더와 욕망의 규범, 성장과 소비가 남긴 사물과 도시의 시간, 플랫폼과 기술이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앞선 세대와의 차이는 무엇을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시각화하는지에 있는 것이다. 리헤이디의 회화는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성장한 경험과 미국·영국에서의 생활과 교육, 홍콩영화와 동아시아 문학, 런던의 퀴어 문화와 국제 미술제도가 작가의 작업 안에서 만나지만, 어느 하나가 작품의 정체성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는다. 즉 중국이라는 경험은 계속 남아 있으면서도 다른 장소와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는 리헤이디의 회화 형식에서도 나타난다. 반투명한 색층과 번지는 윤곽, 파편화된 신체는 관람자가 화면 속 대상을 하나의 범주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본고는 이러한 회화적 상태를 비결정성으로, 그것이 신체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방식을 경계적 신체로 설명했다. 그리고 작품 앞에서 관람자가 몸과 배경, 인간과 비인간, 남성과 여성, 구상과 추상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지연된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분류의 유예라고 보았다. 「I'm not ready to be born a child again」에서 붉은색은 혁명이나 국가의 역사적 기억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사랑과 욕망, 피부의 열, 시각적 잔상과 같은 감각의 차원으로 의미를 확장한다. 왕광이의 정치적 팝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식별 가능한 기호로 충돌했다면, 리헤이디의 화면에서는 하나의 색채 안에 여러 의미가 중첩되면서 어느 하나가 최종적인 해석을 차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하나의 기호가 의미를 대표하는 방식 자체가 흔들린다는 데 있다.

「Tongues of Flare」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시간의 차원으로 이어진다. 작품 속 강을 건너는 화자는 어느 한쪽 강둑에 도달하지 않은 채 가운데에 머물고, 몸은 물에 삼켜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주변의 환경과 뒤섞인다. 여기서 변화의 핵심은 그 결과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데 있다. 리헤이디에게 자아는 어떤 완성된 상태를 향해 곧게 이동하기보다 관계와 환경에 따라 경계를 계속 수정하며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리헤이디의 전위성을 단지 퀴어한 신체를 그리거나 중국과 서구의 문화를 혼합한다는 데서 찾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작가의 회화가 관람자로 하여금 사물과 존재를 익숙한 범주에 넣고 의미를 확정하는 행위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인간과 비인간, 남성과 여성, 중국적인 것과 비중국적인 것,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은 서로 접촉하면서 계속 형태와 의미를 바꾸며, 작품은 그 변화가 하나의 결론으로 굳어지는 순간을 늦춘다.

따라서 거대 서사 이후의 중국 아방가르드는 국가와 혁명처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거대한 기호가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몸과 감각, 사물과 환경, 개인의 기억과 초국가적 경험이 함께 등장하는 가운데 정치성과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드러내는 미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리헤이디의 회화에서 중국성 또한 다른 경험과 만나면서 계속 달라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다. 결국 21세기 중국 아방가르드의 새로운 가능성은 정체성과 의미가 반드시 하나의 범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전제 자체를 흔드는 데 있다. 리헤이디의 강 속 자아는 어느 한쪽 강둑에 도달하지 않으며, 붉은색은 혁명과 욕망 가운데 하나의 의미만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속적인 유예 속에서 중국성 역시 고정된 국가적 표상에서 벗어나 관계 속에서 다시 구성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헤이디의 회화는 거대 서사 이후 중국 아방가르드가 어디에서 새로운 전위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Ⅵ. 참고문헌

1. 국문 논저

강민아. (2020). 「중국 현대미술의 역사재현에 대한 연구: 798예술구 후속세대 리송송(李松松)의 역사화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11), 1163－1189. https://doi.org/10.33645/cnc.2020.11.42.11.1163

신광. (2017). 「중국현대미술에서 아방가르드의 의미와 전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채원. (2023). 「Sun Yitian 쑨 이티옌 개인전 《Portraits》」. Brunch. https://brunch.co.kr/@estherschipper/34

정하윤. (2017). 「1990년대 중국 전위 미술과 시장: 가오밍루와 뤼펑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49, 75－97.

최병식. (2005). 「개혁개방 이후 중국현대미술의 변화와 주요경향: 청년세대들의 실험과 예술세계」. 『동양예술』, 10, 6－42.

최병식. (2007). 「중국 '4大天王' 작가들의 비판사상과 미술사적 의미」. 『동양예술』, 12, 227－259.

탕샤오빙. (2010). 「중국미술에서 아방가르드 개념에 대하여」. 신정훈 역.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 207－234.

2. 영문 논저

Gaskin, S. (2016). “Artist Miao Ying Explains Her ‘Stockholm Syndrome’ Love for the Chinese Internet.” Sam Gaskin. https://scgaskin.wordpress.com/2016/01/04/artist-miao-ying-explains-her-stockholm-syndrome-love-for-the-chinese-internet/

Hutchings-Georgiou, H. (2024). “Seeing Red with Li Hei Di.” Elephant. https://elephant.art/seeing-red-with-li-hei-di/

Pace Gallery. (n.d.). “Li Hei Di.” Pace Gallery. https://www.pacegallery.com/artists/li-hei-di/

Pace Gallery. (2024). “Pace Announces Representation of Li Hei Di, Painter of Layered Dreamscapes.” Pace Gallery. https://www.pacegallery.com/journal/li-hei-di-joins-pace-gallery/

Pace Gallery. (2025a). “Across the River: Li Hei Di’s Painted Explorations of Selfhood.” Pace Gallery. https://www.pacegallery.com/journal/li-hei-di-painted-explorations-of-selfhood/

Pace Gallery. (2025b). “Li Hei Di: Tongues of Flare.” Pace Gallery. https://www.pacegallery.com/exhibitions/li-hei-di-tongues-of-flare/

Qin, A. (2015). "Q. and A.: Lu Yang on Art, 'Uterus Man' and Living Life on the Web."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5/11/27/world/asia/china-art-lu-yang-venice-biennale.html

Shen, Q. (2025). "How I Became an Artist: Cui Jie." Art Basel. https://www.artbasel.com/stories/how-i-became-an-artist-cui-jie

Société. (n.d.). "Lu Yang." Société. https://societeberlin.com/artists/lu-yang/

Zhou, Y. (2018). "Rearviews & Mirrors: Architecture, Idealism and Anachronism in the Work of Cui Jie." Frieze. https://www.frieze.com/article/rearviews-mirrors

〈 사랑방 26기 중국 북경 답사 단체사진 〉

참여자 : 오인환, 김지영, 박선나, 양채리, 허동각, 최준호, 유동진 (7인)








MALIBU


朝鮮萬壽臺創作社美術館
Mansudae Art Museum


不忘初心 牢记使命
中国共产党历史展览
1921—2021





〈 다음 기수를 위한 사랑방 26기의 답사 준비 꿀팁 〉

1. 교통

저희는 전 일정 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중국은 택시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택시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왕푸징에 숙소를 잡으신다면 숙소에서 자금성, 국가박물관은 도보 이동을 추천합니다. 일행이 6명 이하라면 승합차 크기의 택시를 불러서 한 번에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은 일반 크기 택시 두 대를 나눠 부르는 것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경비 처리에 필요한 택시 사용목록과 영수증은 디디-계정-이용내역에서 출력 및 발급 가능합니다.

2. 날씨

날씨가 무척 덥고 습합니다. 양산, 휴대용 선풍기, 마실 물, 손수건 등을 필히 챙기시고, 가지고 다니시는 짐은 최대한 가볍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3. 답사지

국가박물관을 제외하고 모두 위챗 미니프로그램에서 입장권 예매가 가능합니다. 위챗 미니프로그램으로 예매할 때는 주문 한 번당 입장권 5-6장 정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 번 예매할 수 있어 한 사람이 전체 인원의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위챗 계정이 있고 위챗 페이가 가능하다면 위챗 미

니프로그램에서 예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가박물관과 자금성 입장권 예매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답사 가시는 인원 모두가 예매가 시작되는 시간에 맞추어 티켓팅을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외에 다른 답사지의 경우 꼭 시간 맞추어 예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티켓 구매 시 방문자 정보(이름과 여권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Republic of Korea로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국가박물관

국가박물관은 티켓팅이 가장 어렵습니다. 답사 가시는 모든 인원이 티켓팅을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방문일 7일 전 한국 시간 기준 오후 6시에 예매가 시작됩니다. 국가박물관은 7일 전부터 매일 입장권을 100장씩 풉니다. (예: 20일 방문 입장권의 경우 13일 100장, 14일 100장, 15일 100장...) 첫날에 실패하셨더라도 다음날, 다다음날 시도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최대 5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무료입니다. 일행이 다같이 티켓팅을 시도하는 경우, 동일 인물을 중복해서 티켓팅 할 수 없으므로 이미 표를 구한 인원은 제외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예매처:
https://pcticket.chnmuseum.cn/museum-en/#/personal/index

평일 오후에 방문하였을 때 고대중국관은 줄이 매우 길어 일정상 관람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고대중국관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개장시간에 맞추어 방문하고, 대기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자금성

자금성의 경우 위챗 미니프로그램으로도 예매를 할 수 있으나, 오류가 많아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금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금성은 예매가 치열하고, 특히 여름방학 기간 중 그리고 오전 입장권은 더욱 예매가 어렵기 때문에 답사 가시는 모든 인원이 티켓팅을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일 일주일 전 한국 시간 기준 오후 9시에 입장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방문자 정보 입력 시 한국은 Republic of Korea로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최대 10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입장권 가격은 인당 60위안입니다.

자금성 공식 홈페이지: https://bookingticket.dpm.org.cn/

숙소를 왕푸징 거리로 잡는다면, 자금성 오문 앞까지 택시로 이동하기보다는 도보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택시가 어짜피 그 앞까지 이동하지 않습니다. 입장 전 이미 왕푸징 APM몰 사거리에서 자금성 가는 방면으로 오전 시간대 수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가는 길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 자금성 입장 이후 관람 소요시간은 예

상보단 길진 않았습니다. 1시간~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자금성에서 경산공원이 가깝습니다만, 여름에 자금성 방문 후 해당 공원을 방문하는 것이 체력상 어렵습니다. 왕푸징 거리에 숙소를 잡는다면 멀지 않으니, 방문계획이 있을 경우 별도로 오전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이화원

위챗 미니프로그램에서 颐和园을 검색하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방문일 7일 전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시간 맞추어 티켓팅 하실 필요는 없고 답사 가시기 전에만 예매해두시면 됩니다. 한 번에 최대 5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입장권 가격은 인당 30위안입니다. 예매 시 중국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하나만 있으면 전체 인원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화원에서는 배를 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전이 어렵지 않습니다. 걷는 것보다 이화원을 둘러보기에 더 좋았습니다. 배 1척당 1시간에 200위안(탑승 인원 불문)이며, 한 척에 최대 6명 탑승 가능합니다.

4) 원명원

위챗 미니프로그램에서 圆明园을 검색하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방문일 7일 전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원명원은 입장권 예매가 어렵지 않고, 당일 방문하여 구매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당일 방문하여 예매하였습니다. 입장권 가격은 인당 10위안입니다.

동문으로 입장하면 제일 중요한 답사 포인트인 서양루 유적지에 가깝습니다.

5) 고관상대

위챗 미니프로그램에서 古观象台를 검색하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방문일 5일 전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방문일 3일 전에 예매하였으나, 방문해본 결과 당일에 방문하여 예매하여도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한 번에 최대 6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입장권 가격은 인당 20위안입니다. 예매 시 중국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하나만 있으면 전체 인원 예매가 가능합니다.) 천문대와 전시실을 모두 둘러보는 데 최대 3-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정 계획하실 때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 천단공원

원래 계획에는 없었으나 베이징에 가서 추가된 답사지입니다. 당일 예매가 가능하였습니다. 입장권 구매 시 여권이 필요하였습니다. 입장권 가격은 인당 34위안입니다. 고관상대에서 차로 15-2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고관상대에 가시는 경우 천단공원을 추가로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관상대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둘러보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으며, 천단공원도 관람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7) 공산당 역사전람관

2026년부터 무료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티켓 예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권만 지참하여 가시면 됩니다.

8) 798 예술구

입장권 필요하지 않습니다. 택시를 부를 때 목적지를 북한 미술관으로 설정해두면 바로 앞에 내립니다. 북한 미술관 인근 식당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표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독일문화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대예술이 전시돼 있어 다소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동당 성당

입장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왕푸징 거리에 숙소를 잡았던 저희는 숙소에서 도보 6분 거리에 동당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성 가기 전 잠깐 들르시는 일정으로 잡아도 좋겠습니다. 오전 7시 반 경에 도착하니 이미 미사를 하고 있어서, 내부 관람이 가능하였습니다만,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 미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내부 사진 촬영이나 이동을 내부 사진 촬영 허가를 금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입장 시 입장권 QR코드 외에 여권이 따로 필요한지 정리하였습니다.

국가박물관	여권 필요. (사진으로 대체 가능)
자금성	여권 필요.
이화원	여권 불필요.
원명원	여권 불필요.
고관상대	여권 불필요.
천단공원	여권 불필요.
공산당 역사전람관	여권 필요.

4. 식사

아침의 경우, 숙소 근처에서 중국 로컬식 식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용하였던 곳은 자금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南城香（王府井店）：北京市东城区东安门大街 18 号
점심, 저녁은 일부 식당을 예약해두었습니다. 북경오리의 경우 식당마다 일일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예약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외에는 숙소 근처의 amp쇼핑센터 4-6층이 모두 식당가입니다. 다양하고 맛있는 식당이 많으니 옵션이 없다면 여기서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희가덕 손만두와 와이포지아를 방문했습니다.

5. 기타

- 역할 배분: 저희는 일정 정리 1명, 항공권 및 호텔 예약 1명, 티켓 예매 및 식당 예약 1명, 총무 1명, 택시 담당 2명으로 역할을 배분하였습니다.

- 결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로 연동이 되지만, 대부분의 식당이 QR로 주문을 받고 결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경우 카카오페이 사용이 불편합니다. 알리페이 혹은 위챗페이 결제를 미리 설정해놓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 발표: 답사 시 변수가 많아 이동하는 차 안이나 카페, 식당 등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1-2장 내로 인쇄해두시거나 휴대폰에 파일 넣어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